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43-01

아동학대 실태조사

2011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책임 연구자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연구 보조원	곽유정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과정
	신영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유민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수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지영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수료
보조원	박수영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유영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조영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조윤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원

목 차

연구 요약	i
제1부. 서론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조사 개요	5
제2부. 국내외 선행연구	19
1. 아동학대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2. 국내외 아동학대 실태 관련 선행연구	25
3. 아동학대 관련 요인	31
4. 재학대 발생 관련 선행연구	34
5. 전문가의 아동학대 인식 관련 선행연구	35
6.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요인 관련 선행연구	42
제3부. 일반가구조사	47
1. 조사 대상	49
2. 표본추출 및 가중치 산정	51
3. 조사 내용	60
4.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결과	63
5. 영역별 분석결과	91
제4부.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151
1. 조사 대상	153
2. 조사 내용	157
3. 영역별 분석결과	159
제5부. 재학대 발생률 분석	213
제6부. 전문가 의식조사	229
1. 조사 대상	231
2. 조사 내용	232
3. 영역별 분석결과	233
제7부.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271
1. 조사 대상	273
2. 조사 내용	278
3. 영역별 분석결과	281
참 고 문 헌	375
첨 부	385
설 문 지	391

표 목 차

<표 I-2-1> 아동양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7
<표 I-2-2> 가구방문조사 개요	8
<표 I-2-3> 아동학대 전문가 조사 개요	9
<표 I-2-4>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업군별 표본 배분(안)	9
<표 I-2-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사 개요	10
<표 I-2-6>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사회경제적 영역	11
<표 I-2-7>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12
<표 I-2-8>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아동학대 및 방임	13
<표 I-2-9>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아동폭력 관련 문항	14
<표 I-2-10>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문항구성	15
<표 I-2-11> 조사문항	16
<표 II-1-1> 아동학대 유형별 개념 정의(1)	23
<표 II-1-2> 아동학대 유형별 개념 정의(2)	24
<표 II-3-1> 아동학대 요인	34
<표 II-5-1>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여부	36
<표 II-5-2> 부모와 신고의무자의 학대유형별 인식정도	37
<표 II-5-3> 지역과 국가발전 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방임 인식정도	39
<표 II-5-4> 전문가와 일반인에 따른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용인정도	40
<표 II-5-5> 전문가와 일반인에 따른 신체적 학대 및 방임여부	41
<표 II-6-1> 신고자 유형	43
<표 III-1-1> 일반가구 조사 대상	49
<표 III-2-1> 가구조사 층화 방법	52
<표 III-2-2> 각 시도별 최종 표본배분 현황	53
<표 III-2-3> 층별 표본 조사구 수 현황	55
<표 III-3-1> 주양육자 조사 내용	61
<표 III-3-2> 아동 조사 내용	62
<표 III-4-1> 아동학대 발생률의 산정기준	63
<표 III-4-2> 아동학대 발생률 산정 항목	64
<표 III-4-3>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아동 전체(만 7세-만 18세 미만)	66
<표 III-4-4>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주양육자 전체(만 0세-만 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	67
<표 III-4-5>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교육과정별 아동 응답(초저/초고/중등/고등 비교)	68
<표 III-4-6>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아동교육과정별 주양육자 응답(미취학/초등/중고등 비교) ·	69
<표 III-4-7> 행위별 발생 빈도(천명당 발생률): 아동 전체(만 7세-만 18세)	70
<표 III-4-8> 행위별 발생 빈도(천명당 발생률): 주양육자 전체(만 0세-만 18세 아동 주양육자)	71
<표 III-4-9>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제한적 기준): 아동 응답	72

<표 III-4-10>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포괄적 기준): 아동 응답	73
<표 III-4-11>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제한적 기준): 주양육자 응답	73
<표 III-4-12>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포괄적 기준): 주양육자 응답	74
<표 III-4-13>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	75
<표 III-4-14> 연간 중복학대 발생률	75
<표 III-4-15> 아동의 성추행 경험 여부(주양육자 응답)	76
<표 III-4-16> 아동의 성폭행 경험 여부(주양육자 응답)	77
<표 III-4-17> 비폭력적 훈육의 주요 행위자	77
<표 III-4-18>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의 주요 행위자	78
<표 III-4-19> 학대 발생 여부에 따른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의 주요 행위자	78
<표 III-4-20> 사회경제적 특성(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79
<표 III-4-21> 사회경제적 특성(지역크기)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0
<표 III-4-22> 사회경제적 특성(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0
<표 III-4-23>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0
<표 III-4-24> 사회경제적 특성(주양육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1
<표 III-4-25>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1
<표 III-4-26>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학력)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2
<표 III-4-27>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결혼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2
<표 III-4-28>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2
<표 III-4-29> 주양육자 특성(가구원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3
<표 III-4-30> 주양육자 특성(가구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3
<표 III-4-31> 아동 특성(성적)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4
<표 III-4-32> 아동 특성(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4
<표 III-4-33> 아동 특성(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4
<표 III-4-34> 거주 특성(주택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5
<표 III-4-35> 거주 특성(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5
<표 III-4-36> 거주 특성(주택의 방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85
<표 III-4-37> 아동학대 척도의 항목별 국제비교	87
<표 III-4-38> MICS에 포함된 CTSPC 항목 구성	89
<표 III-4-39> 아동학대 발생률 국가비교	90
<표 III-5-1> 아동학대 경험여부 및 유형별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 표(1)	92
<표 III-5-2> 아동학대 경험여부 및 유형별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 표(2)	92
<표 III-5-3> 가구유형	93
<표 III-5-4> 주양육자 교육수준	93
<표 III-5-5> 주양육자 혼인상태	94
<표 III-5-6> 거주주택유형	94
<표 III-5-7> 주거위치	95
<표 III-5-8> 주택 점유형태	95
<표 III-5-9> 주택 방 개수: 응답 비율	95

<표 III-5-10> 주택 구조 및 성능	96
<표 III-5-11> (작년)월 평균 가구소득	96
<표 III-5-12> 수급자 여부	97
<표 III-5-13> (작년)월 평균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액	97
<표 III-5-14> 조산(37주 이하)	98
<표 III-5-15> (출생 직후)아동의 치료 경험	98
<표 III-5-16> (출생 직후)아동의 치료 기간	98
<표 III-5-17> (출생 시)아동 몸무게	99
<표 III-5-18> 자녀 임신계획	99
<표 III-5-19> (1-10세 아동 주양육자만 응답)아동의 예방접종 경험	100
<표 III-5-20> (지난 1년 간)아동의 입원경험	100
<표 III-5-21> (지난 1년 간)아동의 입원 횟수	101
<표 III-5-22> (지난 1년 간)아동의 입원 이유	101
<표 III-5-23> (지난 1년 간)아동의 응급실 이용경험	102
<표 III-5-24> (지난 1년 간)아동의 응급실 이용횟수	102
<표 III-5-25> 아동의 치과 검진	102
<표 III-5-26>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	103
<표 III-5-27>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총점	103
<표 III-5-28>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	104
<표 III-5-29>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	104
<표 III-5-30> 아동양육의 어려움	105
<표 III-5-31>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여부	106
<표 III-5-32>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인원	106
<표 III-5-33> 부모의 양육효능감: 총점	107
<표 III-5-34> 부모 감독(8세 이상 아동이 있는 주양육자): 점수	107
<표 III-5-35> 하루 평균 놀이시간(주양육자): 비율	108
<표 III-5-36> 하루 평균 놀이시간(배우자): 비율	109
<표 III-5-37> 훈육방법: 점수	110
<표 III-5-38> (미혼/별거/이혼/사별)자녀 홀로 양육기간	110
<표 III-5-39> (미혼/별거/이혼/사별)부모와의 주기적 만남 비율	111
<표 III-5-40> 우울: 우울 총점 분석	111
<표 III-5-41> 우울: 우울 집단 분석	112
<표 III-5-42> 자존감(주양육자): 점수	112
<표 III-5-43> 지각된 스트레스(주양육자): 점수	113
<표 III-5-44> (만 18세 이전) 폭력경험률(주양육자)	113
<표 III-5-45> 부부만족(주양육자): 점수	114
<표 III-5-46> 부부갈등(주양육자): 점수	114
<표 III-5-47> 연간 부부폭력 발생률(전체)	115
<표 III-5-48> 부부폭력 발생률	115

<표 III-5-49> 부부폭력의 유형별 발생률(신체/정서/경제/방임/성적 폭력)	116
<표 III-5-50> 사회적 지원: 총점	117
<표 III-5-51> (지난 6개월 간)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30분 이상 혼자 있던 경험(미취학 아동)	118
<표 III-5-52> (지난 6개월 간)자녀 방치경험 정도(미취학아동)	118
<표 III-5-53> (지난 6개월 간)자녀 방치시간(미취학아동)	119
<표 III-5-54> 안전생활습관 준수(미취학 아동)	119
<표 III-5-55> 보육, 사교육 이용 여부(미취학아동)	120
<표 III-5-56> 보육, 사교육 서비스 주당 이용횟수 및 시간(미취학아동)	120
<표 III-5-57> 보육, 사교육 서비스 외, 낮 시간을 보내는 장소(미취학아동)	121
<표 III-5-58> 보육, 사교육 서비스 외, 자녀를 돌보아주는 사람(미취학아동)	121
<표 III-5-59>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초등학생)	122
<표 III-5-60>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주당 이용횟수 및 시간(초등학생)	122
<표 III-5-61> (일주일 기준)평일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정도(초등학생)	123
<표 III-5-62> (하루 기준)평일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초등학생)	123
<표 III-5-63> (한달 기준)주말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빈도(초등학생)	124
<표 III-5-64> 주말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초등학생)	124
<표 III-5-65> (하루 기준)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	124
<표 III-5-66> 비공식적 지역사회 통제: 점수	125
<표 III-5-67> 지역사회 유대감 및 신뢰: 점수	125
<표 III-5-68> (지난 학기)학교 성적	126
<표 III-5-69>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	126
<표 III-5-70> 생활 만족도: 점수	127
<표 III-5-71> 비행 발생률	127
<표 III-5-72> 비행의 유형별 발생률(지위비행/폭력비행/재산비행/성비행)	128
<표 III-5-73>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	129
<표 III-5-74> 내재화 문제행동: 총점	129
<표 III-5-75>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	130
<표 III-5-76>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	130
<표 III-5-77> 부모감독: 점수	131
<표 III-5-78> 학교폭력 경험(심한욕설/협박)	132
<표 III-5-79> 학교폭력 경험(폭행, 구타)	133
<표 III-5-80> 학교폭력 경험(돈이나 물건 빼앗김)	134
<표 III-5-81> 학교폭력 경험(집단따돌림)	135
<표 III-5-82> 학교폭력 경험(고의적 괴롭힘)	136
<표 III-5-83> 학교폭력 경험(성폭행)	137
<표 III-5-84> 체벌경험(심한 모욕)	138
<표 III-5-85> 체벌경험(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139
<표 III-5-86> 체벌경험(회초리로 맞음)	140
<표 III-5-87> 체벌경험(뺨을 맞음)	141

<표 III-5-88> 체벌경험(주먹으로 맞음)	142
<표 III-5-89> 체벌경험(출석부 등으로 맞음)	143
<표 III-5-90> 체벌경험(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맞음)	144
<표 III-5-91> 지역사회 폭력경험(심한 욕설/협박)	145
<표 III-5-92> 지역사회 폭력경험(폭행, 구타)	146
<표 III-5-93> 지역사회 폭력경험(돈이나 물건 빼앗김)	147
<표 III-5-94> 지역사회 폭력경험(성폭행)	148
<표 III-5-95> 형제자매 학대목격경험	149
<표 III-5-96> (주변에서)학대목격경험 비율	149
<표 III-5-97> 학대목격빈도	150
<표 III-5-98> 학대목격장소	150
<표 IV-1-1> 아동학대 발생으로 판별된 가구(1)	153
<표 IV-1-2> 아동학대 발생으로 판별된 가구(2)	154
<표 IV-1-3> 아동학대 발생으로 판별된 가구(3)	154
<표 IV-1-4>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대상(주양육자)	155
<표 IV-1-5>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대상(아동용)	156
<표 IV-2-1>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의 기준	157
<표 IV-2-2> 주양육자용 조사 내용	158
<표 IV-2-3> 아동용 조사 내용	158
<표 IV-3-1>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160
<표 IV-3-2>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160
<표 IV-3-3>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161
<표 IV-3-4>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161
<표 IV-3-5>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162
<표 IV-3-6> 지난 1년간 음주 빈도: 응답비율	163
<표 IV-3-7> 지난 1년간 음주량: 응답비율	163
<표 IV-3-8> 1회 음주 시 6잔 이상 마시는 정도: 응답비율	164
<표 IV-3-9> 알코올중독 간이선별검사	164
<표 IV-3-10> 알코올 중독	165
<표 IV-3-11> 지난 1년 간 출산 경험	165
<표 IV-3-12> 지난 1년간 게임 경험 비율	166
<표 IV-3-13>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게임 중독 총점	166
<표 IV-3-14> 성별에 따른 게임 중독	167
<표 IV-3-15> 아동의 연령에 따른 게임 중독	167
<표 IV-3-16> 가구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	168
<표 IV-3-17> 지역 크기에 따른 게임 중독	168
<표 IV-3-18>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169
<표 IV-3-19> 성별에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169
<표 IV-3-20> 아동의 연령에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170

<표 IV-3-21>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170
<표 IV-3-22> 지역 크기에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171
<표 IV-3-23>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경험(복수응답): 비율	171
<표 IV-3-24> 희망하는 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172
<표 IV-3-25>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172
<표 IV-3-26>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173
<표 IV-3-27> 가구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173
<표 IV-3-28> 지역 크기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174
<표 IV-3-29>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시설	174
<표 IV-3-30>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자	175
<표 IV-3-31>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175
<표 IV-3-32>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욕구가 없는 이유	176
<표 IV-3-33> 희망하는 양육서비스(1순위)	177
<표 IV-3-34> 희망하는 양육서비스(2순위)	178
<표 IV-3-35>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179
<표 IV-3-36>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179
<표 IV-3-37> 가구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180
<표 IV-3-38> 지역 크기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180
<표 IV-3-39> 아동학대 목격경험	181
<표 IV-3-40> 아동학대 신고경험	181
<표 IV-3-41> 아동학대 신고 장소	182
<표 IV-3-42>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1순위)	183
<표 IV-3-43>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2순위)	184
<표 IV-3-44> 아동학대 신고의지	185
<표 IV-3-45> 향후 희망하는 아동학대 신고 장소	185
<표 IV-3-46>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1순위)	186
<표 IV-3-47>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2순위)	187
<표 IV-3-48>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188
<표 IV-3-49>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	188
<표 IV-3-50>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189
<표 IV-3-51>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189
<표 IV-3-52> 아동학대신고전화 인지	190
<표 IV-3-53> 학대 수준 및 학대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190
<표 IV-3-54> 아동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191
<표 IV-3-55> 아동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	192
<표 IV-3-56> 가구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	192
<표 IV-3-57> 지역 크기에 따른 자아개념	193
<표 IV-3-58>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194
<표 IV-3-59> 아동 성별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194

<표 IV-3-60> 아동 연령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195
<표 IV-3-61>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195
<표 IV-3-62> 지역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196
<표 IV-3-63>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	197
<표 IV-3-64> 학대 수준 및 학대유형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관계	198
<표 IV-3-65> 아동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198
<표 IV-3-66> 아동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199
<표 IV-3-67> 가구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199
<표 IV-3-68> 지역 크기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200
<표 IV-3-69>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200
<표 IV-3-70> 아동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201
<표 IV-3-71> 아동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202
<표 IV-3-72> 가구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202
<표 IV-3-73> 지역 크기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203
<표 IV-3-74>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203
<표 IV-3-75> 아동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204
<표 IV-3-76> 아동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205
<표 IV-3-77> 가구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205
<표 IV-3-78> 지역 크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206
<표 IV-3-79>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206
<표 IV-3-80> 아동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207
<표 IV-3-81> 아동 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208
<표 IV-3-82>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208
<표 IV-3-83>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209
<표 IV-3-84> 아동학대 목격경험	209
<표 IV-3-85> 아동학대 목격빈도	210
<표 IV-3-86> 아동학대 목격 장소	210
<표 IV-3-87>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211
<표 IV-3-88>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	211
<표 IV-3-89> 아동학대 신고처	212
<표 V-1-1>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누적비율)	215
<표 V-1-2>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연차별 발생비율)	216
<표 V-1-4>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정서적 학대	218
<표 V-1-5>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성학대	219
<표 V-1-6>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방임	220
<표 V-1-7>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유기	221
<표 V-1-8>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중복학대	222
<표 V-1-9> 학대유형, 아동특성, 가해자 특성에 따른 재학대 발생률	223
<표 VI-1-1> 전문가 의식조사 대상	232

<표 VI-2-1> 아동학대 전문가 의식조사 내용	233
<표 VI-3-1>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234
<표 VI-3-2> 기관 특성(실무자가 근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36
<표 VI-3-3> 아동학대 전문가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237
<표 VI-3-4>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비폭력적 훈육	238
<표 VI-3-5>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비폭력적 훈육	239
<표 VI-3-6>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정서적 학대	239
<표 VI-3-7>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정서적 학대	240
<표 VI-3-8>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신체적 학대	241
<표 VI-3-9>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신체적 학대	243
<표 VI-3-10>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방임	244
<표 VI-3-11>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방임	245
<표 VI-3-12>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인식	245
<표 VI-3-13> 아동학대 서비스의 적절성(부모대상 서비스)	246
<표 VI-3-14> 아동학대 서비스의 적절성(아동대상 서비스)	247
<표 VI-3-15> 아동학대 서비스의 적절성(일반 서비스)	248
<표 VI-3-16>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249
<표 VI-3-17> 절차별 업무진행의 적절성(실무자)	250
<표 VI-3-18> 개입효과 제고 요인의 중요도	251
<표 VI-3-19> 홍보수단별 효과성 인식	252
<표 VI-3-20> 전문가가 예상하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	253
<표 VI-3-21>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254
<표 VI-3-22> 지역사회 협력체계와의 관계(실무자)	255
<표 VI-3-2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	256
<표 VI-3-24>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장 친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	257
<표 VI-3-25>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적절성	258
<표 VI-3-26>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의 타당성(실무자)	259
<표 VI-3-27>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260
<표 VI-3-28>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261
<표 VI-3-29>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	262
<표 VI-3-30>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내용	262
<표 VI-3-31> 신고 활성화 방안	263
<표 VI-3-32>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은폐되는 이유	264
<표 VI-3-33>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64
<표 VI-3-34>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시 여부(실무자)	265
<표 VI-3-35>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의 필요성	266
<표 VI-3-36>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실무자)	267
<표 VI-3-37> 실무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	268
<표 VI-3-38>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 위협 여부(실무자)	268

<표 VI-3-39>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빈도(실무자)	269
<표 VI-3-40>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낄 때(실무자)	269
<표 VI-3-41>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이직 고려 여부(실무자)	269
<표 VI-3-42> 이직을 고려해본 빈도(실무자)	270
<표 VI-3-43> 상담원의 신분에 대한 주변인들의 태도(실무자)	270
<표 VI-3-44> 상담원의 판단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실무자)	270
<표 VI-3-45> 현장 업무 수행 시 상담원의 보호수준(실무자)	270
<표 VII-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모집단 현황	275
<표 VII-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표본할당	276
<표 VII-1-3> 온라인 조사 대상인원	277
<표 VII-1-4> 조사대상자 분포	278
<표 VII-2-1> 조사문항	279
<표 VII-3-1>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배경	281
<표 VII-3-2> 아동학대 발생 정도 인식	284
<표 VII-3-3> 사회 내 아동학대 심각성	286
<표 VII-3-4> 아동체벌 허용도	288
<표 VII-3-5> 가해부모 처벌수준	290
<표 VII-3-6>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의 책임감	292
<표 VII-3-7> 학대관련 지식 정답률	294
<표 VII-3-8> 학대관련 지식	295
<표 VII-3-9>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경험	296
<표 VII-3-10>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경험	297
<표 VII-3-11> 최근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 여부	299
<표 VII-3-12> 아동학대 교육 방식	301
<표 VII-3-13> 아동학대 교육 참여 형태	303
<표 VII-3-14> 아동학대 교육 참여시간	304
<표 VII-3-15> 아동학대 교육 참여시간	305
<표 VII-3-16> 아동학대 교육 이해 정도	307
<표 VII-3-17> 아동학대 교육 만족도	309
<표 VII-3-18> 아동학대 교육 불참 이유	311
<표 VII-3-19> 아동학대 교육 참여 의사	313
<표 VII-3-20> 아동학대 교육 필요성	315
<표 VII-3-21> 아동학대 교육 내용 우선순위	316
<표 VII-3-22> 아동학대 교육 내용	317
<표 VII-3-23> 선호 교육 매체	319
<표 VII-3-24> 직장 내 홍보물 유무	321
<표 VII-3-25> 접해본 홍보 매체(복수응답)	323
<표 VII-3-26> 아동학대 인식 빈도	325
<표 VII-3-27> 아동학대 인식 평균	326

<표 VII-3-28> 아동학대 인식 평균	327
<표 VII-3-29> 아동학대 신고의사	329
<표 VII-3-3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여부	331
<표 VII-3-31>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경로(복수응답)	333
<표 VII-3-32> 아동학대 전문기관 인지	334
<표 VII-3-33>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여부	336
<표 VII-3-34> 인지하고 있는 신고전화 개수	338
<표 VII-3-35>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경로(복수응답)	340
<표 VII-3-36>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	341
<표 VII-3-37> 학대의심아동 발견 명 수	342
<표 VII-3-38> 학대의심아동 발견 수	343
<표 VII-3-39>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여부	345
<표 VII-3-40> 신고 횟수 빈도	346
<표 VII-3-41> 신고 횟수	347
<표 VII-3-42> 신고한 아동의 학대 유형	349
<표 VII-3-43>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정도	350
<표 VII-3-44>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성 인지정도	351
<표 VII-3-45> 아동학대 신고 장소(복수응답)	353
<표 VII-3-46> 학대아동 발견 후 신고 시기	355
<표 VII-3-47> 신고 후 아동이 받은 조치/서비스(복수응답)	357
<표 VII-3-48> 학대개입 이후 아동에게 미친 영향	360
<표 VII-3-49> 미신고 이유	361
<표 VII-3-50> 미신고 후 대체행동(복수응답)	363
<표 VII-3-51> 신고효과성 문항 평균	365
<표 VII-3-52> 신고효과성	366
<표 VII-3-53> 인지된 행위통제력 문항 평균	367
<표 VII-3-54> 인지된 행위통제력	368
<표 VII-3-55> 신고율 제고 방안	369
<표 VII-3-5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급한 점	370
<표 A-1-1> 아동학대 발생률 산정 항목	388
<표 A-1-2>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신체적 학대	389
<표 A-1-3> 매우 심각한 학대 누적 발생률	390
<표 A-1-4> 매우 심각한 학대 중복 발생 정도	390

그림 목 차

[그림 I-2-1] 조사 진행절차	6
[그림 Ⅲ-5-1] 아동학대 발생률의 유형별 구성	91
[그림 V-1-1] 아동학대 발생유형별 생존함수	224
[그림 V-1-2] 아동학대 피해 아동 연령별 생존함수	225
[그림 V-1-3] 아동학대 가해자 학력별 생존함수	226
[그림 V-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생존함수	227

□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구성

본 조사는 아래와 같은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동학대 실태조사 체계>

조사명	조사대상(분석자료)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일반가구조사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 가구의 초점 아동 및 주양육자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학대 관련 요인	컴퓨터를 이용한 1:1 개별면접조사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일반가구조사에서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된 아동 1,310명과 주양육자	아동학대 발생 관련 요인 및 아동학대의 결과, 서비스 관련 욕구	컴퓨터를 이용한 1:1 개별면접조사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
재학대 발생률 분석	2004-2010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아동학대 재발생 현황 및 관련 요인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2차자료 분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직종 종사자 1,058명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관련 태도, 관련 요인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일부 오프라인 조사
아동학대 전문가 의식조사	아동학대 관련 학계 종사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01명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부.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사의 필요성

○ 정확한 아동학대 발생빈도 파악의 필요성

- 경제 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률 추정, 학대의 정의, 학대 측정지표, 조사 설계, 조사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 한하여 그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써 전국적인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학대 지표를 사용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산출하고,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요구됨.

○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목적

-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표집하여 전국의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학대발생 관련 요인과 결과, 서비스 지원욕구를 조사함.
-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 간 축적된 아동학대 신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생의 현황 및 재학대의 위험요인을 밝힘.
- 아동학대 피해사례의 조기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지난 10년 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수행에 대해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2. 조사개요

☐ 조사방법 및 절차

○ 가구방문조사

- 일반조사: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개 가구의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피해와 그 정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파악함.

- 표집과정에서 저소득층을 표본의 20%로 할당하였음.
- 취학 연령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주양육자와 아동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음
- 가구 내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점 아동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함.
-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일반조사에서 미리 설정한 학대위험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별된 아동과 모든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위험가구 조사를 실시함.
- 모든 조사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됨.

○ 전문가 의식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현장실무자와 아동학대와 관련된 학계 전문가 총 20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 12개 직업군 종사자 1,058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함.
- 당초 온라인 조사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직업군의 경우 실사과정에서 이메일 주소 확보가 어렵거나, 온라인 조사로 할당된 사례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함.
-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의무 직업군 12개를 교사와 의료 관련직,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담당 공무원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직업군 수별로 유의할당함.

○ 재학대 발생률 분석

- 2004년-2010년까지 7년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 신고사례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조사내용

○ 가구방문조사

- 일반가구조사: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표영역을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생활 및 가정환경 요인, 아동학대 및 방임, 그리고 아동의 폭력 경험으로 설정하여 관련 요인들을 함께 조사함.
- 사회경제적 요인: 가구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환경 특성, 학교 및 유아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등
-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요인: 부모특성, 임신과 출산 관련 특성, 아동특성,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일상안전생활습관 등
- 아동학대 측정지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척도인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사용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정도를 측정
- 아동의 폭력경험: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폭력경험 및 폭력의 목격 여부
-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학대발생 관련 요인 및 학대의 결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욕구를 조사
- 학대발생 관련 요인: 부모특성, 가정환경, 도움 요청대상 등
- 학대 결과: 학대 피신고 경험, 법적 조치 여부, 아동의 발달결과

- 서비스 관련 욕구: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지원 욕구

○ 전문가 의식조사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현행 아동 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중심으로 이루어짐.
- 조사 대상자의 특성: 응답자 개인적 특성과 실무자의 기관 특성 등
-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CTSPC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의 문항들을 중심으로 학대 여부(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 판별
-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가해자·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아동학대 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개입 효과 제고에 미치는 요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수집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 등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아동 보호서비스의 전문성,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신변안전 등

○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신고관련 태도 4개 영역에 대한 조사 실시함.
- 개인적 특성: 신고의무자의 인구학적 특성, 직업특성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 아동학대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아동학대 인식
- 신고관련 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 행동, 신고효과성, 인지된 행위통제력, 신고활성화 방안

○ 재학대 발생률 분석

-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재학대 사례를 조사하여, 재학대 발생현황 및 재학대 발생까지의 기간, 가구별 아동특성과악, 재학대 위험요인 등을 조사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아동학대의 기본개념 설정 및 학대유형별 판별지표 개발
- 전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학대유형별 발생 빈도에 대한 국가통계 생산
-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현황 파악
- 아동학대의 결과 파악
- 학대 재발방지 및 학대후유증 완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욕구 파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 수준 및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파악
-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들의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활용방안

-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수준을 외국과 비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를 확인하고 학대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제2부. 국내외 선행연구

1. 아동학대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개념·정의는 시대 및 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 협의의 개념부터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까지 매우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짐.
 -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정의된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정의함(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아동학대 유형별 개념정의

-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4가지 형태로 분류됨.
 - 신체적 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혹은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으로 발로 차는 행위, 혼드는 행위, 칼로 찌르거나 아이를 주먹으로 치는 행위, 아이를 던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이 있음.
 - 성적 학대는 아동을 고용, 이용, 설득, 유인, 유혹 혹은 강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의 시각적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를 돕도록 하는 행위나 보호자 혹은 가족 간의 관계인 경우 법률로 규정한 강간, 성추행, 성매매 혹은 그 밖에 다른 모든 성적 행위 혹은 근친상간 등이 있음.
 -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서적 손상이나 두려움을 촉발시키기 위해 가하는 언어적·상징적 행위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혹은 타락시키는 행위 등이 있음.
 -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종류로는 신체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아동 유기 등이 있음.

2. 국내외 아동학대 실태 관련 선행 연구

□ 국내 아동학대 발생 실태 관련 선행연구

-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전국 단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함.
 - － 보건복지부(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체 43%로 나타남. 2년 단위의 정기적인 '아동학대실태조사' 제시함.
 - 국가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가 상설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 국가인권위원회(2006), 「아동학대 실태조사: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 인지적 방임(58.9%), 정서적 방임(44.1%), 지도감독 방임(30%), 가정환경 방임(12.9%), 물리적 방임(12.2%) 순으로 나타남.
 - 남자 아동, 양부모 이외의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아동,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아동일수록 방임 경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아동방임에 대한 보호자와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확대, 기관에 대한 재원 확대, 야간보호시설 설치 등을 요구함.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1-2009), 「전국아동학대보고서」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변화추이를 분석함.
 - 2009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보호사례 5,685건(77.3%), 잠재위험사례 444건(6.0%), 일반사례 1,225건(16.7%)를 분석함.
 -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2008년 한국에 거주하는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6,923 아동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함.
 - 아동학대 방임실태에 대하여 15개 문항의 아동학대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함.
 - 0세-18세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 점수는 평균 0.1-2.1점임.
 - 3세-8세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 점수는 평균 2.1점('2=2-3 개월에 1-2번 정도')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남.
 - 0세-8세까지의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방임 점수는 평균 1.2-1.4점('1=1년에 1-2번 정도')임.
 - 0세-8세까지의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 점수는 평균 1.3-1.7점임.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국제기준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생존권·보호권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측정함.
 - － 여성가족부(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1개 학급을 추출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총 1,01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하여 조사 실시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년),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위기 아동·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관리 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실태와 긴급구호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및 욕구 파악,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안함.

□ 국외 아동학대 발생 실태 관련 선행연구

○ 미국

- 보건복지부 「National Incidence Study(NIS)」 (1980, 1987, 1995, 2005-2006),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생률을 추정하고 변화 추이를 모니터 하며, 아동학대 발생률 분포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따라 비교함.
-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Longitudinal Study in Child Abuse and Neglect (LONGSCAN)」
- 미국 전역에 있는 4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고, 각 지역에서의 아동학대방임의 실태와 그 영향을 종단연구를 통해 파악함.
-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NSCAW)」 (1997-2007)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아동학대방임 신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1997년-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심층 종단조사 실행함.
- 「Developmental Victimization Survey」

○ 호주

- 「Community Attitudes Survey」 (2009)
- 아동학대방임에 대한 태도 조사하기 위해 호주에 거주하는 주민을 약 21,050 명을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아동학대방임에 대한 태도 조사 실시함.
- 아동학대방임 실태에 대한 반응, 아동의 안전과 안녕(well-being)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등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태도·인식, 예방책 등

○ 캐나다

- 「Canadian Incidence Study of 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CIS)」 (1998)
- 최초로 수행된 전국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로 아동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촉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서베이 조사로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총 7,672 사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됨.
- 아동 및 가족배경, 가해자 특성, 학대의 유형과 심각성, 서비스 및 조사로 인한 법적 결과

등을 포함

○ 영국

-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2000), 「Child Maltreatment in the United Kingdom: A Study of the Prevalence of Abuse and Neglect」
- 지역별로 90개의 주소를 선정하여 총 56,970가구를 표집함. 가구 내 18-24세 청소년이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869사례의 면접 이루어짐.
- 응답자의 현 상황에 대한 일반적 정보 및 가족배경 정보, 아동양육에 대한 태도, 아동의 성적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의 내용

○ 네덜란드

- 「Prevalence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Netherlands(NPM)」 (2005)
- 네덜란드 최초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로 아동학대 위해(harm)와 위해 가능성(endangerment)에 대해 조사함.

○ 국가비교 연구

- UN 「Study on Violence to Children」 (2004)
 - UN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의 아동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에 초점을 두고, UN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ISPCAN):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1992-2010)
 - 제1부: 혁신적 연구나 각 지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부딪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논평을 포함
 - 제2부: 자료수집의 다양한 측면을 다룸
 - 제3부: 9개 국가의 대표를 초청하여 각 국가의 아동학대 자료수집 방법과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법적 측면, 자료수집방법 및 체계, 학대의 패턴, 강점과 한계, 향후 계획과 방향)
 - 제4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최근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소개
 - 제5부: 국가의 소득수준이 중간 이하인 35개 국가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UNICEF의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에서 아동양육방법과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 요약 제시
 - 제6부: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포괄
 - 제7부: 각 국가의 아동복지 수준을 반영하는 UNICEF의 지표, 국제적, 국가적 자원목록이 부록 A, B에 각각 포함

3. 아동학대 관련 요인

- 학대 발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진행됨. 아동학대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체계로 설명함

-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미시적 체계, 아이와 부모와 관계를 맺는 친인척, 학교, 지역사회 단체 등의 중간체계, 기존의 두 체계가 우산처럼 연결된 사회구조에서 바라보는

거시적 체계

- 이러한 체계요인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관련 요인은 부모 특성, 아동 특성, 가족 환경 요인, 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 부모 특성: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결함, 연령, 양육 경험,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 등.
- 아동 특성: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 요인은 아동의 연령, 기질, 학업성적 및 학습장애 등.
- 가족 환경 요인: 가족의 빈곤 및 소득, 부모의 실직 여부, 가족구조 등.
-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 및 부모의 행동, 경제의 흐름 등.

4. 재학대 발생 관련 선행연구

- 아동학대는 위급성 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동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반복학대의 위험성에 처해 있음.
- 아동학대의 재발생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가해자의 특성, 아동의 특성, 가족 특성, 지역 사회 특성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자 특성: 학대 가해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및 불안정한 정서상태, 연령, 성별 등
 - 아동 특성: 연령, 취약성 요인(정신건강문제, 발달장애 등), 성별 등
 - 가족 특성: 가족구성, 가정폭력 유무, 가족의 경제적 지위,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의 자원을 이용하는 가족의 능력 등
 - 지역사회 특성: 지리적 위치,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발생률,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등

5. 전문가의 아동학대 인식 관련 선행연구

- 국내외 아동학대의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통적으로 심한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에 대해서 대부분 학대로 인식한다고 보고되었음.
 - 하지만 이외의 훈육에 해당하는 약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과 관련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지역별: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국가발전상태별: 개발도상국, 선진국) 또는 집단(아동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상담소 및 장애인 시설종사자, 일반인 등) 간에 학대 용인도와 인식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학대의 개념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6.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요인 관련 선행연구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실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건수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신고의무자의 신고 장애요인에 대해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신고 시 신분노출의 위험 및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없음’, ‘제한적인 법적근거 조항’ 등을 들고 있음.
- 국외 연구에서 분석한 신고자의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자녀유무, 직업적 배경 등)’, ‘신고자의 학대관련 태도 및 지식과 교육’, ‘피학대 아동 특성(학대의 심각성 정도, 학대 유형 등)’을 들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의나 신고 후의 조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제3부. 일반가구조사

1. 조사대상

☐ 일반가구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전국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개 가구의 아동과 주 양육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아동학대(방임)가 의심되는 가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boosting)하여 설계함.

2. 표본추출 및 가중치 산정

☐ 표본추출 및 가중치 산정은 다음과 같음.

-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양육자임.
 - 본 조사에서는 전체 표본 5,051가구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저소득층을 표본의 20%(전국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7가구)로 할당하여 아동학대방임 의심가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 표본추출 과정은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각각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표본(5,051가구)을 대상으로 통합가중치를 산출함.

3. 조사내용

☐ 일반가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별조사

- 판별조사는 조사대상 가구로 추출된 가구 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지, 조사대상 아동을 누구로 할 것인지,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등을 판별하는 과정임.

○ 주 양육자 조사

- 주 양육자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가정생활환경 영역, 가정환경 영역, 아동학대 및 방임 지표, 아동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가구의 일반적 특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짐.

○ 아동 조사

- 아동에 대한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아동(만 18세 미만)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용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4~6학년, 중/고생)용으로 구분됨.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아동학대 피해 경험,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동: 학업성취도, 학교적응, 일탈경험 및 문제행동, 삶에 대한 만족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4.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결과

□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

- 아동학대 발생률은 대상, 학대기준, 학대유형, 발생기간의 4가지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발생률을 산출할 수 있음
 - 대상자에 따라 아동, 주양육자로 구분
 - 학대기준에 따라 제한적 기준, 포괄적 기준으로 구분
 - 학대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로 구분
 - 발생 기간에 따라 연간학대, 평생학대로 구분
-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로 나타남
 -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발생률로, 제한적 기준을 이용하여 미취학 아동은 주양육자의 응답을, 만 7세 이상 아동은 아동의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함.
 - 아동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7.1%, 정서적 학대는 10.9%, 방임은 15.4% 발생
 - 연령 집단별로 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발생률이 19.9%로 가장 낮고 중학생에 대한 발생률이 29.4%로 가장 높음.
- 만 7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고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한적 기준에 의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7.5%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중에서 방임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연령 집단별로는 중학생에 대한 학대가 29.4%로 가장 높게, 고등학생에 대한 학대는 23.7%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둘째, 포괄적 기준에 의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60.3%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연령 집단별로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학대가 65.0%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고등학생에 대한 학대는 53.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한적 기준에 의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1%로, 상기의 아동이 보고한 제한적 기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과 유사함.
-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중에서 방임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연령 집단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학대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19.9%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둘째, 포괄적 기준에 의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55.6%로, 상기에 아동이 보고한 포괄적 기준의 아동학대 발생률과 유사한 수준임.
-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연령 집단별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대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에 대한 학대는 50.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중복학대를 고려한 아동학대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신체적 학대의 60% 이상은 중복학대를 통해 나타남. 신체적 학대 7.1% 중 1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는 2.5%, 2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3.1%, 3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1.6%임.
- 둘째, 정서적 학대의 50% 이상은 중복학대를 통해 나타남. 정서적 학대 10.9% 중 1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는 5.2%, 2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4.2%, 3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1.6%임.
- 셋째, 방임의 20% 이상은 중복학대를 통해 나타남. 방임 15.4%중 1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는 11.1%, 2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2.7%, 3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1.6%임.

□ 아동학대 발생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사회경제적 특성, 주양육자 특성, 아동 특성, 거주 특성에 따른 발생률의 차이 분석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은 거주 지역, 지역크기,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 특성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발생률은 모든 변수에서 차이가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서울·인천이 31.2%로 다른 모든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서울·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평균 발생률 이하의 수치를 보임.
- 지역크기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대도시(29.2%)가 중소도시(22.5%), 농어촌(21.4)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200만 원 이하(28.8%)에서 가장 높았고, 201-400만원(24.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빈곤지위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32.6%)와 차상위 가구(32.7%)가 일반 가구(24.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양육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은 주양육자 연령대, 주양육자 학력, 주양육자 결혼상태, 주양육자 성별, 가구 유형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봄.
 - 주양육자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30대에서 23.6%, 40대에서 27%, 50대에서 28.9%, 60대 이상에서 23.3% 나타남.
 - 주양육자 결혼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별거·이혼(33.8%)과 사별(27.3%)이 유배우자(24.5%) 보다 높게 나타남.
 - 가구원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2명(30.9%)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3명(21.5%)인 경우가 가장 낮았음.
 - 가구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이 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32.3%)가 가장 높았고, 양친과 함께 사는 경우(24.6%)가 가장 낮았음.
 - 주양육자 성별·학력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아동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의 성적, 성별, 연령대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봄.
 - 아동의 전 과목 성적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공부를 못하는 아동(41.2%)이 잘하는 아동(23.5%)에 비해 비교적 크게 높게 나타남.
 - 아동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미취학 아동(19.9%)에서 가장 낮았고, 중학생(29.4%)에서 가장 높았음.
 - 아동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음.
- 거주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주택 유형, 주택의 점유 형태, 주택의 방 수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봄.
 -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자가(23.7%)가 전세(25.9%), 보증부 월세(2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가 적은 월세(47.2%), 기타(32.9%) 경우 다른 형태보다 비교적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의 방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2개 이하(29.7%)가 3개(23.5%)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주택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아동학대 발생률의 국제비교: 아동학대 발생률의 국제비교를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알아봄.

○ 항목별 비교

-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의 개별 항목에 대한 국가 간 비교(WHO, 2002).
 - 비교대상 국가들은 칠레, 이집트, 인도, 필리핀, 미국 등
 - 비폭력적 훈육은 6개 국가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심각한 신체적 공격은 6개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의 발생률을 보임.
 - 가벼운 신체적 공격은 6개 국가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정서적 공격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남.

○ 발생률 비교

-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의 특정 항목을 계산하여 산출한 발생률에 대한 국가 간 비교 (UNICEF, 2010).
- 비교대상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 기타 국가들의 중·후진국 국가들
-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임.
-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서적 학대는 82.2%, 개발도상 국가들은 57.8%, 기타 국가들은 75.9% 인 반면, 한국은 41.9%로 낮게 나타남.
- 경미한 신체적 학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64.3%, 개발도상 국가들은 45.5%, 기타국가들은 57.6%였고, 한국은 24.7%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43.1%, 개발도상 국가들은 8.9%, 기타 국가들은 30.6%였고, 한국은 6.1%로 나타남.
- 추후에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발생률의 비교가 필요함.

5. 영역별 분석결과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주양육자 응답결과 분석>

□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 가구유형,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주택유형, 주거위치, 주택 점유형태, 주택 방 개수, 주택 구조 및 성능, 작년 월평균가구소득, 수급자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으로 살펴봄.
- 가구유형은 양친부모가구(85.1%)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 양육자의 양친부모가정 비율(82.8%)이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85.9%)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한부모 가구의 경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9.5%)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6.7%)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 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한부모 가구(11.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의 교육수준은 고졸(50.8%)이 가장 많음. 고졸 이하(무학-고등학교까지 합한 비율)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9.0%)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56.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음.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고졸 이하가 많음.
- 주양육자의 혼인상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사별 혹은 별거나 이혼상태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별거나 이혼상태인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주택 유형은 일반아파트(47.2%), 일반단독주택(26.1%), 연립주택(11.5%)순으로 나타남. 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일반아파트(44.0%)에서 거주 비율이 높음.
- 대다수가 지상(97.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3.1%)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1.7%)에 비해 반지하층 이하(반지하층과 지하층을 합한 비율)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반지하층 이하(4.1%)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56.0%)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2.2%)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57.1%)에 비해 자가인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53.7%)이 다른 유형보다 자가인 경우가 많음.
- 주택 방 개수는 3개인 경우(69.4%)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4.5%)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71.0%)에 비해 방 개수가 3개인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 구조 및 성능은 전체적으로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이 다른 유형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월평균가구소득은 '201만원-300만원(32.7%)'이 가장 많이 나타남. '100만원 이하'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8.6%)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5.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01만원 이상'에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7.3%)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6.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급자 여부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수급자 혹은 차상위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가 그 비율이 높음.
- 월 평균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액은 학대유무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의 급여액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생활 영역

○ 임신과 출산, 아동 특성, 부모-자녀관계, 주양육자 특성, 부부관계로 살펴봄.

- 임신과 출산

- 조산경험과 출산 직후 치료경험을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조산경험과 치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출생 시 몸무게는 평균 3.2kg으로 학대경험여부 및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임신을 계획하거나 원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원한 경우(89.3%)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90.7%)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88.8%)에 비해 부모 모두 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모 모두 자녀를 원하지 않은 경우(7.5%)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8.5%)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4.6%)보다 자녀를 원하지 않았던 비율이 높음.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어머니만, 아버지만, 원치 않음까지 합산한 비율)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13.1%)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아동 특성

- 1세-10세 아동이 제때 예방접종을 했는지 살펴본 결과, 선택항목과 필수항목을 모두 접종한 경우(86.8%, 82.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75.3%, 76.7%)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모두 접종한 경우(89.6%, 84.4%)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수항목이나 선택항목 중 일부를 못한 경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78.4%, 78.5%)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모두 접종(78.5%, 78.4%)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간, 아동의 입원경험을 살펴본 결과 입원 경험이 있는 아동이 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5.1%)이 그렇지 않은 아동(3.8%)에 비해 입원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입원경험(7.1%)이 많음.

- 지난 1년 간,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의 입원횟수를 살펴본 결과 1.5회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1.5회)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1.4회)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 지난 1년 간,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의 입원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85.0%, 55.3%, 6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지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82.8%, 47.8%, 53.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등생을 제외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사고로 입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간 응급실 이용경험은 전체 4.9%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6.2%)이 그렇지 않은 아동(4.4%)에 비해 많았음. 응급실 이용경험이 있는 아동의 응급실 이용횟수는 전체 평균 1.1회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1.3회)과 그렇지 않은 아동(1.4회)간의 큰 차이는 없음.
- 치과 검진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검진 경험이 39.9%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49.9%)이 그렇지 않은 아동(36.5%)에 비해 치과 검진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치과 검진경험(55.4%)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의 경우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4.8점)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2.9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1.7점)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1.0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본 결과,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자녀 관계

-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8.4%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8.5%)가 아동을 학대한 주양육자(8.0%)에 비해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의 비율(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인원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1.4명으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1.5명)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1.4명)간의 큰 차이는 없었음.
- 자녀 양육할 때, 느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알아본 결과, 40.5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40.8점)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39.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양육효능감(39.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8세 이상 아동이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감독에 대해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대체로 주양육자의 감독 수준(3.3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대를 경험한 집단의 부모감독(3.3점)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3.4점)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미미한 차이를 보임.
- 주양육자와 배우자의 아동과 하루 놀이시간에 살펴본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와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와 배우자에 비해 놀이시간이 적게 나타남. 또한, 주양육자에 비해 배우자가 아동과의 놀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말로 야단치기'(2.3점, 2.5점, 2.3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와 '자주 사용한다' 사이에 분포함.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 모두 '말로 야단치기'를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칭찬과 보상'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 큰 차이는 없음.

— 주양육자 특성

- 주양육자가 미혼, 별거, 이혼, 사별 했을 경우,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77.9개월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5.6개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83.6개월)에 비해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주양육자의 양육기간(65.7개월)이 길었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양육기간(63.9개월)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가 미혼, 별거, 이혼, 사별 했을 경우,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나는지 살펴본 결과, 30.8%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미취학 아동(24.7%)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비율(45.0%)이 높음.
- 주양육자의 우울정도를 알아본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12.4점)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9.6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우울수준을 보임. 아동학대 유형별에 따르면,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주양육자에게서 가장 높은 우울(13.7점)정도가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우울정도는 중고등학생의 주양육자의 우울(10.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우울척도(CES-D)의 절단점(cut-off)을 기준으로 우울증 여부를 구분하여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31.2%)가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아동의 주양육자(19.0%)에 비해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비율이 높음.
- 주양육자의 자존감에 대해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대체로 그렇다(3점)'에 근접한 2.9점으로 나타남. 또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2.9점)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

동의 주양육자(3.0점) 간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주양육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주양육자들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다(1점)'와 '가끔 있었다(2점)'의 사이인 1.6점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주양육자들의 스트레스 정도(1.7점)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1.6점)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함.
- 주양육자의 아동기 폭력경험을 살펴보면, 아동을 학대한 주양육자 집단의 폭력경험(45.7%)이 아동을 학대하지 않은 주양육자 집단의 폭력경험(2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 관계

-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부만족에 대해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부부만족도(3.1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주양육자(3.2점)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주양육자(3.0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의 부부갈등 수준(4점 척도) 역시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1.5점)으로 나타남. 학대경험여부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1.7점)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1.5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부부갈등을 나타낸 것을 살펴 볼 수 있음.
- 연간 부부폭력 발생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부폭력 발생률은 37.7%로 나타남. 아동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38.5%), 초등학생(37.6%), 미취학 자녀(36.9%) 순으로 부부폭력이 높게 나타남.
- 또한 부부폭력 발생률을 아동학대 발생 여부,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아동이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31.9%)에 비해 아동이 학대경험이 있는 집단(55.7%)의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높게 나타났음.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61.6%), 신체적 학대(60.5%), 방임(53.2%) 순으로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부부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적 폭력)에 따른 발생률을 살펴보았는데, 정서적 폭력(29.8%), 방임(17.6%), 성적 폭력(8.0%), 신체적 폭력(7.7%), 경제적 폭력(5.6%) 순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부부폭력 유형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적 폭력 전체적으로 아동이 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아동이 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대략 2~4배 정도 발생률이 높음.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부부폭력에서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경우는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가, 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방임의 경우는 중고등학생을 둔 부부의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환경 영역

○ 사회적지지, 일상 안전생활습관으로 나누어 봄.

– 사회적 지지

-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 친정식구, 자녀, 친척, 이웃, 종교, 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37.7점으로 비교적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주양육자(36.2점)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38.2점)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지원(35.7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상 안전생활 습관

- 지난 6개월 간, 미취학 아동이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30분 이상 혼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혀 없는 경우가 86.9%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6.9%)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91.8%)에 비해 미취학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가끔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있는 경우는 12.5%로 나타났으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32.1%)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7.7%)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아동을 가끔 혼자 둔 적이 있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미취학 아동이 있는 주양육자가 안전생활습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외출 시, 성인과 동반하는 비율(94.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에 비해 안전생활습관을 준수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카시트를 사용'하거나 '아이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의 주양육자(72.9점, 69.6점)와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주양육자(52.2점, 86.0점)의 차이가 컸음.
- 지난 6개월 간, 여러 상황에서 아동을 혼자 두었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이는 방안에 있고, 보호자는 집안 내 다른 방에 있던 경우'(1.7점)가 가장 많음. 이는 1점 '전혀 없다'와 2점 '종종 있다'사이로 비교적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2.3점, 1.7점, 1.9점, 1.5점, 1.8점)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1.6점, 1.3점, 1.4점, 1.3점, 1.4점)에 비해 종종 자녀를 혼자 둔 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종종 혼자 둔 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아동의 보육, 사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보육시설(61.2%)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29.7%), 민간학원 및 사교육(27.0%)은 학습지(17.4%)를, 개인대리양육(6.0%)은 친·인척(4.1%)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75.4%, 41.8%, 8.0%)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보육, 사교육 서비스(57.7%, 23.3%, 5.5%)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77.0%, 44.5%, 8.7%)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보육, 사교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아동의 보육, 사교육 서비스의 주당 이용횟수와 시간을 알아본 결과, 일주일에 5.7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1회)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5.6회)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용시간은(28.1시간) 동일하게 나타남.
- 미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사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주로 낮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집(93.7%)이 가장 많이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90.0%)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94.6%) 적게 나타났으며, 집 밖에서

보내는 경우(2.0%)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3.8%)이 그렇지 않은 아동(1.5%)보다 높게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방임을 경험한 아동(92.7%)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집 밖(5.3%)에서 있는 경우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사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평소에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님(88.0%)이 가장 많이 나타남.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부모님(89.0%)이나 조부모(7.4%)가 돌봐주는 경우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형제자매(2.7%), 기타(6.9%)가 돌봐주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부모님(87.3%)이 돌봐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생의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민간학원 및 사교육(80.9%)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중 학원(68.9%)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27.1%)은 학교 내 방과후 학교(22.7%), 개인대리양육(2.5%)은 친·인척(1.6%)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학원 및 사교육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81.6%)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79.3%)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개인대리양육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34.6%, 2.7%)이 그렇지 않은 아동(24.1%, 2.4%)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이 다른 유형에 비해 민간학원 및 사교육(80.2%)과 개인 대리양육(4.2%)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생이 평일(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거의 없다'(66.0%)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71.7%)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51.7%)에 비해 어른 없이 혼자 있던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56.2%)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보호자 없이 아동끼리 있던 경우가 거의 없던(43.9%)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생이 평일(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1-2시간 정도'(54.4%)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52.0%)이 '1시간-2시간 정도' 혼자 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동(56.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4시간 이상'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4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9.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생이 평일(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빈도를 살펴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혼자 있던 빈도가 일주일에 1-2일(22.5%), 3-4일(3.2%), 거의 매주(2.4%) 순으로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보호자 없이 보내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이 다른 유형에 비해 보호자 없이 보내는 빈도(36.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생이 주말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아동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 있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2-4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에 비해 '2-4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2-4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65.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다른 유형에 비해 '5-7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보내는 경우(9.1%)가 높게 나타남.

- 하루 기준으로 주양육자가 아동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5.9시간으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5시간)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6.1시간)에 비해 아동과 생활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2시간)가 다른 유형에 비해 함께 아동과 생활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특성

-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비공식적 지역사회 통제에 대해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의 응답평균(2.5점)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의 응답평균(2.6점)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유대감 및 신뢰에 대해서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의 응답평균(2.5점)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의 응답평균(2.6점)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 응답결과 분석>

□ 사회·경제적 영역

-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 비행,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살펴봄.

- 학교성적

- 초등 4학년 이상의 아동이 지각한 성적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3.5점으로 '중간'에서 '잘하는 수준'사이로 나타남. 학대를 경험한 아동(3.4점)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3.5점)간의 차이는 거의 없음.

- 학교생활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 초등 4학년 이상의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3.3점)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3.1점) 모두 '가끔 그렇다'수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 4학년 이상의 아동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는 전체 3.1점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무 및 유형 간에 큰 차이는 없음.

- 비행

-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비행을 4가지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등은 모두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의 지위비행(12.3%), 폭력비행(9.5%), 재산비행(16.1%), 성비행(8.4%) 발생률에 비해 아동학대 경험집단의 지위비행(25.7%), 폭력비행(23.9%), 재산비행(31.2%), 성비행(17.0%)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 유형별 경험여부에 따라서도 비행 발생률에 차이가 났으며, 신체적 학대 경험

집단과 정서적 학대 경험집단의 비행 발생률이 방임 경험 집단의 비행 발생률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성비행은 방임 경험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평균을 낸 결과,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척도 점수범위가 0점에서 36점까지일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5.8점)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2.7점)에 비해 스스로 평가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유형별로 정서적 학대(7.2점), 신체적 학대(6.9점), 방임(5.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척도 점수범위가 0점부터 30점일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3.8점)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1.7점)에 비해 스스로 평가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유형별로 신체적 학대(4.9점), 정서적 학대(4.6점), 방임(3.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행동을 보고한 설문에서, 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보통’ 수준이 넘는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을 살펴봄.
- 학대경험여부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을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5.6%)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1.0%)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의 경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4.0%)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0.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감독 수준

- 초등 4학년 이상 아동의 부모감독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감독의 정도를 낮게 인식하였고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모감독의 정도를 낮게 인식함.

□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영역

- 초등 4학년 이상 아동의 부모감독을 8개 문항,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3.3점)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3.1점) 모두 ‘대체로 그렇다’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폭력에 대한 노출

- 기타 폭력경험과 목격경험으로 살펴봄.

－ 학교 또래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경험

-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히 중고생에서 ‘전혀 없다’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94.6%)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83.1%)에 비해 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생에서 ‘전혀 없다’가 신체적 학대(78.9%)와 정서적 학대(77.6%)를 경험한 아동이 방임(82.3%)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심한 욕설이나 헐바글 받은 경험이 많음. 이는 중고생 전체의 '전혀 없다'의 비율(91.5%)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폭행과 구타경험은 대부분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음.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이 전체 비율(97.6%)과 비교했을 때, 초등 1-3학년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89.4%), 중고생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87.9%)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은 다수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음.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이 전체 비율(97.0%)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 학대(88.6%)와 정서적 학대(88.3%)를 경험한 아동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따돌림 경험은 다수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음. 학대 유형별로도 큰 차이는 없음.
- 고의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중고생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전혀 없다' 비율(87.0%)이 전체 비율(97.9%)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음.
- 성폭행의 경우 절대다수의 아동이 경험이 없다고 나타났으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중고생에 비해 성폭행 경험 비율이 다소 높음.

— 교사로 부터의 언어적, 신체적 체벌 경험

-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교사로 부터 심한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고생의 경우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95.5%였음. 이와 비교하여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85.5%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대 유형별로는 초등 4-6학년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중고생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심한 모욕을 당한 비율이 높음.
- 교사가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 90%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함. 그러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초등 1-3학년이 87.3%, 초등 4-6학년이 85.3%, 중고생이 78.4%로 전체 비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음.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방임을 경험한 아동, 중고생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체벌 경험 비율이 높음.
- 회초리로 맞은 경험은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은 약 91%이상, 중고생은 88.2%가 '전혀 없다'에 응답했음. '전혀 없다'에 응답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 1-3학년은 90.8%, 초등 4-6학년은 86.2%, 중고생은 77.0%로 나타나 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음.
- 뺨을 맞은 경험과 주먹으로 맞은 경험은 대부분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출석부 등으로 맞은 경험은 초등학생의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생에서 학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전혀 없다'에 응답한 중고생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95.9%)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89.6%)에 비해 출석부 등으로 맞은 경험 비율이 낮았음.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생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81.8%)이 낮았음.
- 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맞은 경험은 전체적으로 약 95%이상이 없다고 했음. 중고생에서 학대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이 신체적 학대는 82.4%, 정서적 학대는 86.9%로 전체(95.3%)와 비교했을 때 낮은 비율로 응답함.

－ 지역사회 폭력경험

- 지역사회 내에서 또래나 성인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고생에서 ‘전혀 없다’에 응답한 전체비율은 95.9%였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88.3%로 전체 대비 낮게 나타나 욕설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내에서 폭행, 구타 혹은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아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대 유무와 유형에 따른 큰 차이도 없음.
- 지역사회 내에서 성폭행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대 다수의 아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초등 1-3학년에서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초등 4학년 이상에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형제자매 학대 목격 경험

- 함께 사는 어른이 본인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빈정거림,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4.6점)이 그렇지 않은 아동(2.2점)에 비해 학대목격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중고생에서 차이가 컸음.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5.9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목격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 주변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와 목격빈도에 대해 초등 4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조사한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8.2%)이 그렇지 않은 아동(1.9%)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11.5%)이 다른 유형보다 목격경험과 빈도가 높게 나타남. 학대 목격 장소는 이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초등 4-6학년에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이웃에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100%로 나타남.

제4부.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1. 조사 대상

□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질문지에서 부모-자녀 갈등 전술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를 사용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정도를 측정된 결과,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별된 가구를 대상으로 함.
- － 아동학대 위험가구 조사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질문지의 CPS-PC 아동학대 판별기준 문항에 한번이라도 응답한 아동 1,310명과 이들의 주양육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를 둔 부모 2,711명 전체임.

2. 조사 내용

□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양육자 조사

- 가구의 가정생활,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가정환경 영역,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인식으로 구성함.
- 가정환경 생활: 부모양육행동 및 음주 특성, 출산경험, 게임, 아동 기질에 따른 부모양육 스트레스 등
-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경험 및 참여욕구, 희망하는 자녀양육 서비스 제공 시설, 희망하는 자녀양육 제공자, 희망하는 자녀양육 서비스
- 가정환경: 가정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경험
- 아동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목격 여부, 아동학대 신고 여부, 신고처, 미신고 이유, 향후 피학대 아동 발견 신고 여부, 신고처, 미신고 이유,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여부,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 여부, 조치 받은 법적·보호·형사처분의 종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여부

○ 아동 조사

-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기타 영역
-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인지 여부,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 된 경로, 향후 아동학대 신고처
- 기타: 아동의 학업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자아 개념, 부모(주양육자)에 대한 평소 느낌, 부모 및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 도움 요청 대상

3. 조사 결과

<주양육자 응답결과 분석>

□ 부모양육행동

○ 부모양육행동

-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유형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행동 유형이 높음을 의미함.
- 아동학대 미발생집단과 저위험군에서는 온정·수용이, 고위험군에서는 허용·방임이 가장 높게 나타남. 신체적 학대집단에서는 온정·수용이, 정서적 학대집단에서는 거부·제재가, 방임집단에서는 허용·방임이 가장 높음.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 온정·수용은 아버지 저위험군에서 가장 높은 반면,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모두 어머니 고위험군에서 가장 높음.
- 온정·수용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음.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모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온정·수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저위험군에서, 거부·제재는 차상위가구 고위험군에서,

허용·방임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온정·수용은 중소도시의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남.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은 모두 대도시 고위험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음주

○ 지난 1년간 음주빈도

- 주 3회 이상의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은 저위험군 > 고위험군 > 학대 미발생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음주량

- 5잔 이상의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은 저위험군 > 고위험군 > 학대 미발생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음주빈도(6잔 이상)

- 1회 음주 시 6잔 이상 마시는 정도는 모든 주양육자에게서 '전혀 없다'나 '몇 달에 한번 정도'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AUDIT-K(알코올중독 간이선별검사)

- 고위험군 > 저위험군 > 학대 미발생집단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CAGE(알코올중독척도)

- 저위험군 > 고위험군 > 학대 미발생집단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게임중독

○ 게임경험 여부

- 고위험군 > 저위험군 > 미발생집단 순으로 게임 경험이 높게 나타남. 학대 유형에 따른 게임 경험은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집단 순으로 높음.

○ 게임중독

- 게임 경험이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게임중독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저위험사용자로 나타남. 그러나 고위험군의 게임중독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학대유형에 따른 게임중독은 방임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게임중독

- 게임중독은 어머니 고위험군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아버지 고위험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게임중독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고위험군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대 미발생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게임중독은 차상위가구 저위험군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학대 미발생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게임중독은 농어촌 고위험군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농어촌 미발생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모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 부모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 양육스트레스는 근소한 차이로 고위험군 > 저위험군 > 미발생집단 순으로 높음. 그러나 주양육자가 인식한 아동 기질은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고위험군과 어머니 고위험군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의 기질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아동을 약간 더 까다로운 기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가구 고위험군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아동을 약간 더 까다로운 기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스트레스는 중소도시 학대 미발생집단에서 낮게 나타남. 아동의 기질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자녀양육서비스

○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경험

-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주양육자의 상당수가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이용한 자녀양육서비스는 '방과 후 교실'로 나타남.

○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 아동학대 미발생집단에서는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없음'이 더 많이 나타난 반면, 발생 집단에서는 '있음'이 더 많이 나타남. 특히 정서적 학대집단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남.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 '있음'은 어머니 고위험군에서, '없음'은 아버지 저위험군에서, '모르겠음'은 아버지 고위험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있음'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에서, '없음'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대 미발생집단에서, '모르겠음'은 초등학교 학대 미발생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있음'은 차상위가구 고위험군에서, '없음'은 차상위가구 저위험군에서, '모르겠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있음'은 대도시 고위험군에서, '없음'은 농어촌 저위험군에서, '모르겠음'은 농어촌 고위험군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남.

○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기관

-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양육자는 대부분 '복지관'이나 '상관없다'로 응답함. 한편 신체적 학대집단과 정서적 학대집단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선호가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자

-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전문가'를 가장

선호함.

○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 아동학대 미발생집단과 저위험군은 1:1서비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집단서비스를 희망함. 한편 고위험군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집단과 방임집단은 모두 집단서비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1:1서비스를 희망함.

○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욕구가 없는 이유

-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주양육자의 절반가량이 스스로 자녀양육을 잘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함. 다음으로 귀찮아서 양육서비스를 받지 않음을 보고함.

○ 희망하는 양육서비스

- 희망하는 양육서비스 1순위는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교육'이 나타남.
- 희망하는 양육서비스 2순위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아동 교육(방과후 서비스, 학습지원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집단에서만 '보육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환경자극(HOME)

○ 가정환경자극(HOME)

- 가정환경자극은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환경의 조직 및 안전성 면에서 신체적 학대집단의 가정환경자극이 낮게 나타남.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자극(HOME)

- 경험의 다양성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고위험군의 가정환경자극이 낮게 나타남.
- 경험의 다양성 및 환경의 물리적 경험 측면에서 차상위가구 고위험군과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고위험군, 저위험군, 미발생집단)의 가정환경자극이 낮게 나타남.

□ 아동학대 목격 및 신고경험

○ 아동학대 목격경험

-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주양육자의 대부분은 아동학대 목격경험이 없음. 그러나 고위험군과 방임 집단의 아동학대 목격경험은 약 10% 정도로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경험

- 아동학대 신고경험은 고위험군 > 미발생집단 > 저위험군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집단과 방임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장소

-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신고장소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은 전체 응답자가 '경찰서·지구대'에, 저위험군의 전체 응답자는 '아동관련 상담소'에, 고위험군은 주로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신고장소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집단은 전체가 경찰서·지구대에 신고하였으며, 방임집단도 주로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미신고이유

- 아동학대 미신고이유 1순위로 아동학대 미발생집단과 저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가, 고위험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및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남.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로 신체적 학대집단에서는 ‘잘못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가, 방임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정서적 학대집단에서는 다양한 응답이 나타남.
- 아동학대 미신고이유 2순위로 아동학대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저위험군에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도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의지

○ 아동학대 신고의지

- 아동학대 발생 여부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있다’, > ‘모르겠다/생각해본 적이 없다’ > ‘없다’ 순으로 나타남. 신고의지는 고위험군 > 저위험군 > 미발생집단 순으로, 그리고 정서적 학대 > 방임 > 신체적 학대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희망하는 아동학대 신고장소

-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양육자가 향후 아동학대 신고장소로 경찰서·지구대를 가장 희망하였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

-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 1순위로 아동학대 미발생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가, 저위험군에서는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가, 고위험군에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남.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집단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가, 정서적 학대집단에서는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가, 방임집단에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남.
-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 2순위로 아동학대 미발생집단에서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저위험군에서는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가, 고위험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가 가장 많이 나타남.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가,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남.

□ 아동학대 피신고 및 법적처분

○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주양육자는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신체적 학대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이 높게 나타남.

○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

- 피신고 경험이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법적처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 방임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미발생,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50%를 상회함.

○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양육자에게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신고전화 인지

- 아동학대 저위험군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아동학대신고전화를 '들어본 적 없음'이 가장 높음. 저위험군에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번호는 모름'이 보다 높게 나타남. 신체적 학대 집단에서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대한 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남.

<아동 응답결과 분석>

□ 아동의 자아개념

○ 아동의 자아개념

- 아동의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각 0-20점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학업적 자아개념은 11.0점, 사회적 자아개념은 15.3점, 신체적 자아개념은 10.2점, 정서적 자아개념은 12.8점으로, 사회적 자아개념이 가장 높고, 신체적 자아개념이 낮았음.
- 학대 수준별로는 저위험군 아동이 고위험군 아동보다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 아동이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보다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남.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

- 남자 아동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여자 아동보다 높은 반면, 학업적·사회적·정서적 자아개념은 여자 아동이 높음.
- 초등학생의 학업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자아개념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 일반가구 아동의 학업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자아개념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가구 아동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고위험군 아동은 일반가구 아동보다 학업적 자아개념이 낮았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 아동의 정서적 자아개념도 다른 가구보다 낮게 나타남.
- 중소도시의 아동은 대도시 및 농어촌 아동보다 사회적·정서적 자아개념은 높은 반면, 학업적·신체적 자아개념은 지역 크기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은 저위험군 아동보다 고위험군 아동이 높음.

-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11.8점) 경험 아동이 정서적 학대(11.3점) 및 방임(11.0점) 경험 아동보다 우울·불안이 높으며, 공격성은 학대를 받은 아동(8.3점)이 방임 아동(7.7점)보다 높음.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우울·불안은 높으나, 공격성은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 보다 중고등학생이 우울·불안, 공격성 모두 높게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보다 우울·불안,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차상위가구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이 높음.
- 대도시 및 농어촌의 아동이 중소도시 아동보다 우울·불안, 공격성이 높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아동이 다른 지역보다 공격성이 높음.

□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

○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

- 아동이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으로 부모님이 전체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구, 선·후배 19.6%, 없음(본인 스스로 해결) 3.4%, 학교선생님 3.1% 순으로 나타남.
- 저위험군 아동은 부모님(75.8%), 친구, 선·후배(18.0%), 학교선생님(3.1%) 순으로 응답한 반면, 고위험군 아동은 부모님(66.0%), 친구, 선·후배(21.0%), 없음(본인 스스로 해결) 5.2%로 나타남.
- 학대 유형별로 보면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방임(66.7%), 신체적 학대(65.3%), 정서적 학대(63.4%) 순으로 높으나, 친구, 선·후배라는 응답은 정서적 학대(23.6%), 방임(20.2%), 신체적 학대(19.5%) 순으로 높음.

□ 부모와의 유대 관계

○ 부모와의 유대 관계

- 부모와의 유대관계의 응답가능범위는 18-72점이며, 응답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적 양육태도를, 낮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를 의미함.
-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저위험군 46.9점, 고위험군 46.7점으로 모든 아동이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보호적 양육태도로 인지하고 있음.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 일반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보호적 양육태도로 인지하고 있음.

□ 아버지의 양육태도

○ 아버지의 양육태도

-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유형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을 의미함.
- 학대 수준과 학대유형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식함.
 - 권위주의형은 저위험군 1.4점, 고위험군 1.6점, 신체적 학대 1.7점, 정서적 학대 1.7점, 방임

1.6점이며, 민주주의형은 저위험군 고위험군 모두 2.1점, 신체적 학대 1.9점, 정서적 학대 및 방임 2.1점임. 맹종형은 저위험군 고위험군 모두 1.9점, 신체적 학대 1.7점, 정서적 학대 1.8점, 방임 1.9점임.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식함. 각 하위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별에 따라 양육태도 점수 차이가 있었는데,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양육태도

○ 어머니의 양육태도

-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유형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을 의미함.
- 학대 수준 및 학대유형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식하고 있음.
 - 권위주의형은 저위험군 1.5점 고위험군 1.6점,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및 방임 1.5점, 민주주의형은 저위험군 고위험군 모두 2.1점,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2.2점, 방임 2.1점으로 나타남. 맹종형은 저위험군 고위험군 모두 1.9점, 신체적 학대 및 정신적 학대, 방임 1.9점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각 하위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별에 따라 양육태도는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유형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을 의미함.
- 학대 수준 및 학대유형에 상관없이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식하고 있음.
 - 권위주의형은 저위험군 1.4점, 고위험군 1.5점, 신체적 학대 1.7점, 정신적 학대 1.6점, 방임 1.3점, 민주주의형은 저위험군 고위험군 모두 2.1점,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2.2점, 방임 2.1점으로 나타남. 맹종형은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및 정신적 학대, 방임 모두 1.9점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은 주양육자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아동, 차상위가구 아동, 일반가구 아동 역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식하고 있음.
- 초등학생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은 민주주의형 및 맹종형으로 인지하고 있음. 대도시 및 중소도시 아동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농어촌 아동은 민주주의형 및 맹종형으로 인지하고 있음.

- 각 하위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별로 따라 양육태도 점수는 차이가 있었는데,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목격 경험 및 빈도, 목격 장소

☐ 아동학대 목격 경험

- 아동학대 목격 경험은 '있다' 5.6%, '없다' 94.4%로 대부분의 아동이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저위험군 아동(2.5%)보다 고위험군 아동(8.4%)이, 신체적 학대(11.6%) 및 정서적 학대 아동(11.3%)이 방임 아동(9.7%)보다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 많음.

☐ 아동학대 목격 빈도

- 아동학대 목격 빈도는 '1-2번'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3-4번(34.2%)', '7번 이상(5.5%)'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상관없이 '1-2번'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아동학대 목격 장소

- 아동학대 목격 장소는 '이웃(동네 길가, 이웃집)(60.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하교길(12.0%)', '학교 및 공공장소(공원 등)(8.0%)'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는 예 37.9%, 아니오 62.1%로 대부분의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저위험군 아동은 37.3%, 고위험군은 38.7%가 아동학대 신고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방임 아동(42.2%)이 학대를 받은 아동(신체적 학대 31.2%, 정서적 학대 33.8%)보다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더 많이 알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

- 아동의 67.6%가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 되었으며, 인터넷이고 응답한 경우는 10.9%,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7.6%로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는 아동학대 수준 및 아동학대 유형별로 같은 양상을 보임.

☐ 아동학대 신고처

☐ 아동학대 신고처

- 향후 학대 받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경우 신고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63.2%가 경찰서, 지구대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30.9%, 아동관련 상담소가 3.1%로 응답함.
- 아동학대 신고처는 아동학대 수준 및 아동학대 유형별로 같은 양상을 보였음

제5부. 재학대 발생률 분석

1. 연구내용

☐ 아동학대 재발생 현황 및 관련 요인

-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에 같은 아동에 대하여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종단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함.
-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학대유형·아동특성·가해자 특성에 따른 재학대 발생률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재학대까지의 시간의 분포는 어떠한지 분석.
 -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재학대는 최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2년 이내에 발생. 거의 10%에 가까운 아동학대사례에서 4년-5년 정도의 기간 내에 재학대 발생.
 - 학대유형에 따른 재학대 발생률은 중복학대가 재발생 발생률이 가장 높아 9%에 가까운 재학대 발생률을 보이고 성학대에서는 5.1%로 가장 낮게 나타남. 아동연령에 따른 재학대 발생률은 7세-12세에서 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13세 이상에서는 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가해자 특성에 따른 재학대 발생률은 가해자 학력은 고졸 미만(7.5%), 가해자 관계는 친부(9.0%), 기초생활 수급여부에서는 수급(8.9%) 집단에서 재학대가 가장 높게 발생함.
 - 재학대까지의 시간의 분포는 최초학대부터 재학대까지의 생존함수를 통해 나타남. 학대 유형별 생존함수를 보면 중복학대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서 빨리 재학대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줌. 아동연령별 생존함수를 보면 7-12세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빠르게 재학대가 나타남. 가해자 학력별 생존함수는 최초 아동학대 발생 후 약 20개월까지는 재학대 발생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다가 20개월 이후부터 차이를 보였고, 고졸 미만의 재학대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짐.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생존함수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초 학대발생이 있는 지 얼마 안돼서부터 비수급자와의 격차가 발생하여 재학대 발생이 현격히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음.

제6부. 전문가 의식조사

1. 조사 대상

- ☐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아동학 및 아동복지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이하 학계) 93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현장 실무자(이하 실무자) 108명을 대상(총 201명)으로 조사함.
- ☐ 조사 방법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2. 조사 내용

-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체계에 대한 평가,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응답자 개인적 특성과 실무자가 근무하는 기관 특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는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는 가해자·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아동학대 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개입 효과 제고에 미치는 요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적절성, 부처별 기관 간의 연계 협력수준 등), 현재 수집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방안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신변안전 등에 대해 조사함.

3. 영역별 조사 결과

□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심각성 정도에 대해 ‘매우 심각함’ 그리고 ‘심각함’으로 인식한 경우는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전체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심각하지 않음’ 그리고 ‘전혀 심각하지 않음’은 3.5%에 불과하여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은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 학대유형별 각 문항에 대한 학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함.
 - － 첫째, 비폭력적 훈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하지만 ‘아이를 잠깐 격리시킨 행위,’ ‘아이의 특권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각각 45.3%, 42.8%의 전문가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함.
 - － 둘째,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학대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나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각각 73.1%와 69.4%가 학대라고 동의한 반면, 학계에서는 각각 57.0%와 58.0%가 학대라고 동의함.
 - － 셋째, 전문가들은 신체적 학대를 나타내는 문항들에 대해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음. 특히 심한 학대와 아주 심한 학대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학대라고 응답함.
 - 다만 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벼운 학대의 경우 다른 강도의 신체적 학대에 비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 － 넷째, 방임에 대해서 70% 이상의 전문가들이 학대라고 응답함.
 - 반면,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39.3%가 학대라고 응답하였고, 34.8%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25.9%는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가해자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식한 경우는 34.3%로 그 다음으로 많음.

- 반면 ‘학대 받는 아동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음.

□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가 적절한지에 대해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 부모대상 서비스의 경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모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일반 서비스의 대해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아동학대 업무진행절차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자의 76.0%는 업무진행절차가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학계 전문가의 경우 38.7%만이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례 업무진행 절차에 대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각 절차별 업무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높은 적절성이 보고되었지만, ‘서비스 제공’ 영역 중 ‘집단상담’(61.1%) 및 ‘가족 치료’(52.8%)와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41.7%) 영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아동학대 개입 효과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 실무자는 ‘학대 가해자의 협조’(92.6%)를, 학계 전문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83.9%)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사업의 홍보수단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언론 매체’(93%), ‘인터넷’(83%), ‘기타’(77.1%), ‘캠페인’(74.1%), ‘홍보물 배포’(68.6%) 순으로 ‘매우 효과적’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대해서 조사함.

- 첫째, 신고의무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30%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음.

- 둘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치 않아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학대자의 보복, 분노, 비난이 두려워서’ 등이 뒤를 이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맺고 있는 협력

체계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협력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 내의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관련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학계는 ‘협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움’을 꼽음.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장 친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체계는 사법경찰로 나타난다.

○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특히,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2010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제시된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가 ‘매우 타당’ 그리고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전문적’ 또는 ‘전문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반면,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는 ‘아동학대 사례관리’(19.9%), ‘교육’(20.9%), ‘홍보’(39.8%), ‘네트워크 구축’(36.3%), ‘예산·회계 및 인사관리’(24.9%), ‘물품·시설관리’(23.9%), ‘각종 문서관리’(20.4%), ‘일시보호 서비스’(31.2%)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96.0%)이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 둘째,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위한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의 98% 이상이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함. 가장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학대부모 상담 및 부모 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등이 뒤를 이음.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실무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의무자 법적 처벌 조항 마련’과 같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하는 장치를 지적하였고, 학계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같이 신고 이후 학대행위자의 보복과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을 지적함.

○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은폐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은폐된다고 대답한 경우가 45.3%,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폐된다고 대답한 경우가 33.8%, ‘아동의 가족이 은폐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경우가 15.4%로 나타남.

- 다음으로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22.4%),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20.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10.0%)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역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대가정 발견과 개입협조’(91.7%), ‘지역 사회 대학, 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모교육’(66.7%), ‘주민들을 활용한 아동학대 발견 신고체계의 구축’(60.2%)은 실시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 내 위탁 가정의 개발과 교육’(77.8%), ‘지역사회 산부인과, 보건소 등을 통한 예비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75.9%), ‘지역사회 병원을 통한 위험가정 발견과 가정방문 서비스’(64.8%), ‘지역사회 학교와 협조,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생활교육’(62.0%)은 많은 경우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역량강화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개인적 업무지향의 평균이 3.00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업무수행 관계(mean=2.98), 업무환경 통제(mean=2.82)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신변안전에 대해서도 조사함.
 - 첫째,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3.3%의 실무자가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빈도에 대해서는 ‘항상 느끼는 경우’는 10.0%, ‘자주 느끼는 경우’는 30.0%, ‘가끔 느끼는 경우’는 60.0%로 분석됨.
 - 둘째, 업무 수행 중에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나 가정방문을 나가기 전이나, 나갔을 때에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함.
 - 셋째,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60.0%의 실무자가 ‘고려해 본 적이 있다’로 응답하였고, 그 빈도에 대해서 ‘항상 있었음’의 경우 13.0%, ‘자주 있었음’의 경우 40.7%, ‘가끔 있었음’의 경우 46.3%로 나타남.
 - 넷째, 업무 수행 시 상담원의 신분제에 대한 주변인들(학대가해자 포함)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실무자의 60.2%가 ‘대체로 인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30.6%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8.3%의 실무자는 ‘무시’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업무 수행 중에 상담원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 주변인들(학대가해자 포함)의 반응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실무자의 53.7%가 ‘화를 내지만 결국엔 따른다’고 응답하였고,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7.8%나 되었다. 하지만 ‘순순히 따른다’고 인식한 경우는 4.6%에 불과함.

- 마지막으로 현장 업무수행 시, 상담원의 보호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0%,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6%로 나타남.

제7부.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1. 조사대상

- ☐ 조사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로 선정
 -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성매매 방지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신고의무자 조사대상 범위 설정 후, 리스트를 확보하여 온라인 조사 실시한 결과 1,058명의 자료가 수집됨.
 - 연구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사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표본을 직업군 별로 유의할당함.
 - 조사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직종별 협회의 협조를 구함.
 - Web 기반의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온라인 방식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팩스, FTF) 방식으로 조사를 병행함.
 - 자료수집 결과 교사 403명, 의료 관련직 243명, 복지시설 종사자 322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90명으로 총 1,058명의 자료가 수집됨.

2. 조사 내용

- ☐ 조사 문항은 총 5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영역은 개인적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신고관련 태도로 구분되어 있음.

3. 영역별 분석결과

-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은 남성 28.0%, 여성 72.0%. 연령대는 20대 20.1%, 30대 38.9%, 40대 29.4%, 50대 이상이 11.5%였으며, 결혼여부에서 미혼자가 31.9%, 기혼자가 68.1% 차지함. 자녀가 없는 사람

이 38.6%,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0.2%, 2명이 37.6%, 3명 이상이 1.1%로 나타남.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0%이고, 대학교 졸업이 65.0%, 대학원 재학이 6.1%, 대학원 졸업이 25.5%로 나타남.

○ 직업적 특성

- 직업군을 보면, 교사 38.1%, 의료 관련직 23.0%, 복지시설 종사자 30.4%, 사회복지직 공무원 8.5%의 비율을 보임. 세부 직종을 살펴보면, 유치원종사자 9.8%, 초중특수학교 교원 17.1%, 학원종사자 11.2%, 의사 6.0%, 간호사 4.5%, 구급대 대원 12.4%, 보육시설 종사자 4.9%,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종사자 16.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9%,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3.1%, 한부모 가족시설 종사자 0.5%,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 2.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5%를 차지함.
- 근무지역은 대도시 47.3%, 중소도시 30.3%, 농어촌 22.4%순이며, 근무경력은 4년 이하 29.7%, 5년에서 9년 이하 26.9%, 10년에서 19년 이하 24.4%, 20년 이상 19.0%의 비율을 보임.
-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아동을 접촉하는 일수는 주 5일 이상 접한다는 응답자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주 2-3회 10.2%, 월 1회 7.1%, 주 1회 6.4%, 2주 1회 3.9%,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였음. 주로 접하는 아동의 연령은 5세 이하 28.4%, 6-10세 29.2%, 11-14세 27.1%, 15-18세 15.2%로 나타남.

□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 아동학대 발생정도: ‘매우 자주 일어난다’ 10.7%, ‘자주 일어난다’ 56.3%,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31.0%,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2.0%의 응답률을 보임.
- 아동학대의 심각성: ‘매우 심각하다’(31.2%), ‘약간 심각하다’(55.2%)로 전체 응답자의 86.4%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13.3%), ‘전혀 심각하지 않다’(0.3%)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 아동체벌의 허용도: 아동체벌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69.8%)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아동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남. ‘절대 허용될 수 없다’(29.2%)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부분 허용될 수 있다’(0.9%)와 ‘늘 허용될 수 있다’(0.1%)는 낮은 비율을 차지함.
- 가해부모의 처벌수준: ‘학대수준에 따라 처벌해야한다’(79.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다음으로 ‘무조건 처벌해야한다’(17.0%),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4.0%) 순을 보임.
-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관련 종사자들의 책임감: 아동관련(생활, 교육, 건강 등)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67.1%), ‘대체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31.5%)에 응답자 대부분이 응답하여, 신고의무자들은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 관련 지식: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원인에 대한 지식, 아동복지법에 대한 지식을 측정함. 지식점수 평균은 12점 만점에 7.39점을 보였으며, 정답률은 61.6%로 나타남. 문항별로

알아보았을 때,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90.6%)였으며, 부정확하게 응답을 한 대상자가 가장 많은 문항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28.5%)로 나타남.

□ 교육 및 홍보

○ 관련 교육 참여

-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경험: 지금까지 각 교육과정(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보수교육 과정)마다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응답자의 평균 비율(61.7%)이 교육을 받아본 응답자 비율(38.3%)보다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과정별로 보았을 때,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응답자의 약 40%가 교육을 받아본 것으로 드러남.
- 최근의 아동학대 교육 참여 여부: ‘교육에 최근 2년 이내 참여’한 비율(30.9%)과 ‘2년 이전에 참여’한 비율(17.1%)을 합한 비율보다 ‘교육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은’ 비율(52.0%)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한 교육 방식: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집합방식(75.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한 교육 형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69.5%였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30.5%인 것으로 드러남.
- 참여 교육시간: 1시간에서 220시간까지 다양한 범위의 시간이 나왔으며, 그 중 2시간(21.4%)이 가장 많았고, 4시간(18.3%), 8시간(9.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63.6%)이 지난 2년간 4시간 이내의 아동학대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남
- 참여한 교육의 아동학대 이해 도움 정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부분(96.3%)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참여한 교육 만족도: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한다(90.8%)고 응답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9.3%)는 비율은 적게 나타나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드러남.
- 교육 불참 이유: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85.6%)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교육 참여 의사: ‘참여할 의사가 있음’(88.5%)이 ‘참여할 의사가 없음’(11.5%)보다 높은 응답 비율 보임.
- 아동학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응답자 대부분(97.4%)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신고의무자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필요성 정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교육 내용: 1순위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2순위 ‘학대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3순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 선호 교육 매체: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집합 교육 및 연수(58.2%)를 선호함.

○ 홍보

- 직장 내 홍보물 유무: ‘홍보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인 것으로 나타남.
- 접해본 홍보 매체: 대중매체(58.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세미나 및 교육(36.3%), 인터넷(20.1%), 지역사회 기관(13.0%) 순의 비율을 보임. 아동학대 관련 홍보물을 전혀 접한 적이

없는 응답자(5.7%)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인식정도를 5점 척도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신체적 학대 4.55점, 정서적 학대 4.34점, 성학대 4.89점, 방임 4.25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4.50점의 평균점수를 보임. 아동학대 하위변인별 틀림없는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71.9%, 정서적 학대 55.5%, 성학대 90.8%, 방임 49.7%로 나타나 성학대 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신고관련 태도

○ 신고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 신고의사: 신고 의사가 '있다' 87.5%, '없다' 0.7%, '잘 모르겠다' 11.8%의 비율을 보임.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여부: 신고제도를 75.5%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4.5%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경로: 세미나 및 교육 50.8%, 대중매체 48.6%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이 두 방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접한 것을 알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지: '잘 알고 있다' 22.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1.6%로 응답자의 74.2%가 전문기관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도 25.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여부: 응답자의 67.7%가 '알고 있다', 32.3%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 인지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개수: 신고전화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응답자만 40.4%를 차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전화번호 개수가 1개인 경우 57.4%, 2개 26.0%, 3개 11.7%, 4개(이상) 4.9% 순의 응답률을 보임.
-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경로: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해 47.9%가 인식. 그 외 대중매체가 39.9%, 인터넷 26.8%, 지역사회기관 15.6% 순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 신고행동

-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 한 번이라도 발견한 응답자 29.6%, 발견하지 않은 응답자 70.4%로 나타남.
- 학대의심아동 발견 수: 발견한 인원이 1명인 경우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25.2%, 3명이 13.4% 순의 비율을 보임. 지난 1년간 학대 의심 아동을 평균 2.07명 발견한 것으로 드러남.
- 학대의심아동 발견 시 신고여부: 59.7%가 학대의심아동을 발견했어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고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0.3%였으며, 이 중 모두 신고한 경우는 27.2%, 일부만 신고한 경우는 13.1%의 비율을 차지함.
 - 학대신고 횟수: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한 횟수가 1회인 경우 70.2%로 대부분을 차지. 이어 2회 18.2%, 3회 7.4%, 5회 2.5%, 6회와 20회가 각 0.8%의 비율을 보임. 평균적으로 2.73회의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남.
 - 신고한 아동의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42.1%), 방임(29.4%), 언어 및 정서적 학대(13.5%), 중복학대(8.7%), 성적 학대(6.3%) 순의 비율을 보임.
 -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정도: 10점이 2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이어 8점이 18.3%,

7점이 17.5%, 5점이 10.3%를 차지함.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았을 때 7.27점 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아동학대 신고장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경찰서 및 지구대가 22.2%, 관공서가 10.3%를 차지. 지역사회복지관과 아동관련 상담소는 각 4.8%의 비율을 보임.
- 학대아동 발견 후 신고 시기: 응답자의 39.7%는 발견 직후 신고한데 반해, 49.2%는 주변 사람 혹은 상사와 상의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남. 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한 응답자는 8.7%로 나타남.
- 신고 후 아동이 받은 조치/서비스: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과 ‘현장조사’가 각각 40.5%, 39.7%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남. 이어 ‘지역자원 연계’가 28.6%, ‘정보 제공’ 19.8%, 격리보호 ‘18.3%’, ‘상담치료’ 17.5%, ‘의료기관 의뢰’ 15.9%, ‘법원개입’ 3.2% 순의 개입 비율을 보임.
- 학대개입 이후 아동에게 미친 영향: 과반수 이상(57.1%)은 ‘상황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고,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가 18.3%, ‘상황이 안 좋아졌다’ 2.4%의 비율을 보였으며,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도 22.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 미신고 이유: ‘아동학대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신고로 학대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자와 학대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순의 비율을 보임.
- 미신고 후 대체행동: 직장동료와 상의 35.5%, 직장상사와 상의 19.7%, 본인 가족과 상의 11.0%, 해당아동과 상의 29.8%, 상담전문가와 상의한 경우 14.5%, 타 기관에 의뢰한 경우 12.7%, 증거 수집 보장 6.6% 비율을 보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14.9%를 차지함.

○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

-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 척도의 합산 점수는 5-20점의 응답범위에서 15.11점으로 나타나 중간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각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였음.

○ 인지된 행위통제력

- 4점 척도로 측정된 인지된 행위통제력에서 행위통제력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3.23점)였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2.46점)였음.
- 모든 문항을 합산하면 응답범위는 8-32점까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 22.33점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이 중간 이상의 행위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신고활성화 방안

- 신고활성화 방안: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문항은 1순위에서는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 32.5%였고, 2순위에서는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이 31.3%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급한 점: 37.9%가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개정과 명확한 아동보호

정책 수립'을 선택하였고, 이어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31.1%,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 기관의 확충'이 16.6%의 비율을 보임.

제1부. 서론

제1부.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조사의 필요성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공적개입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체계가 형성되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가 설치되어 학대받은 아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가족의 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해마다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률의 추정은 학대의 정의, 학대 측정지표, 조사설계, 조사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아동학대의 정확한 발생 빈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외국의 아동학대 발생률과 비교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 한하여 그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써 전국적인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학대 지표를 사용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산출하고, 학대받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정책 및 제도를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학대의 정도에 따라 잠재적 위험 혹은 위험 상황으로 분류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보고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학대의 피해정도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 및 성인의 정신질환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심층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추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한 아동학대 지표를 개발하고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원인, 결과, 그리고 영향요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표집하여 전국의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학대 발생 관련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학대의 결과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욕구 등을 조사함으로써 현존하는 아동학대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신고된 사례 중 12.2%에 해당하는 1,134건은 이미 신고된 사례가 재신고된 경우로 학대의 재발생이 빈번한 것도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수년 간 축적된 아동학대 신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생의 현황 및 재학대의 위험요인 등을 밝힘으로써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들을 많이 접하는 직업군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사람 가운데 신고의무자가 31.8%¹⁾ 비신고의무자가 68.2%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2006년 전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의 56.3%가 신고의무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 대비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보다 원활히 아동학대 신고제가 진행되고, 아동학대 피해사례의 조기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의 인식 확대와 더불어,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신고 판단 기준, 신고에 대한 인식, 신고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지난 10년 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수행에 대해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조사목적

위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다.

첫째,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대표성 있는 아동학대 실태 자료 생산하고자 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학대 지표를 활용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자료를 산출한다.

둘째,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예방·개입·치료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제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관련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 보완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아동학대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학대의 원인 및 학대의 결과, 서비스 지원 욕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학대 재발방지 및 후유증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지난 10년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아동학

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대 재발생의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섯째,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신고 판단 기준, 신고에 대한 인식 등 아동학대 관련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효과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무수행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제언을 도출할 것이다.

2. 조사 개요

가. 조사방법 및 절차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크게 가구방문조사와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조사, 신고의무자 대상 조사, 재학대 발생률 분석조사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조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가구방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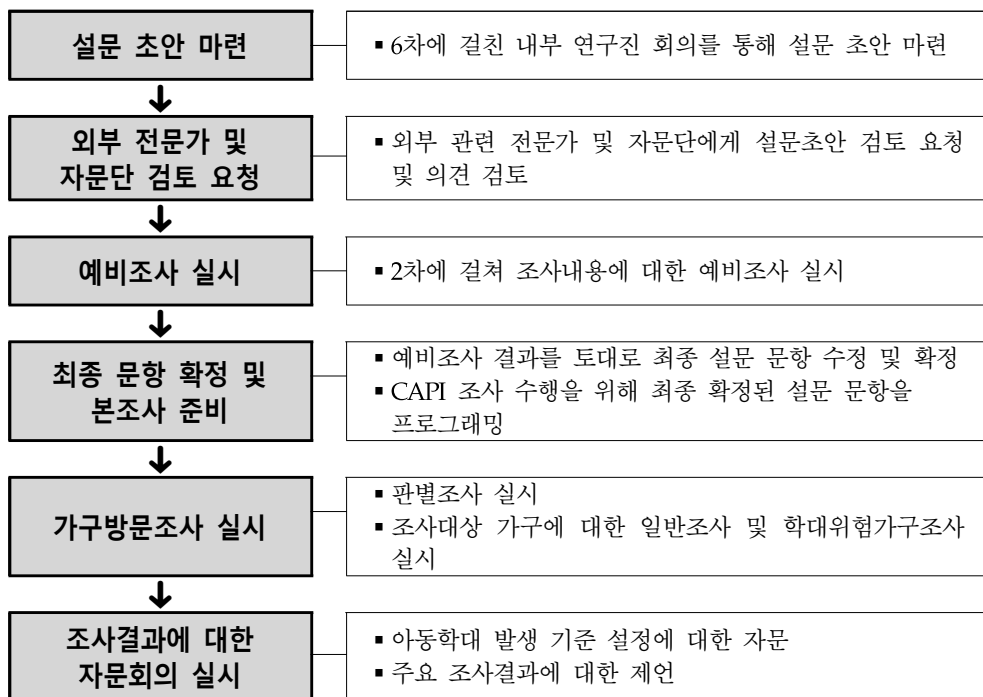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개 가구의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피해와 그 정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존재하는 가구에 대해 학대의 원인이나 가해자 특성, 신고여부 및 대처 방식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향후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행복한 삶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집과정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저소득층²⁾을 표본의 20%로 할당하여 아동학대방임 의심가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취학연령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주양육자와 아동 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가구에 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초점아동(focal child)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되, 가구 내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학대 목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민감한 문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본 조사의 특성상 아동과 주양육자 모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하여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구방문조사는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은 6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저소득층을 과표집할 경우,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구 등의 표본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그림 1-2-1] 조사 진행절차

(1) 설문 초안 마련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진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 초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내의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전국규모의 실태조사 자료를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아동보호체계가 확립된 2000년대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학대의 영향요인, 학대의 결과, 학대 후유증 및 재발생 등 아동학대 관련 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현황을 검토하였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전국규모의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수행대상과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폭넓게 고찰하였다.

(2) 외부 전문가 및 자문단 검토 요청

설문초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자문단에게 설문지 구조 및 조사항목,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전문가 및 자문단의 의견을 취합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3) 예비조사 실시

본 조사에 앞서, 외부 전문가 및 자문단 검토 의견까지 반영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난해한 문항이나 문항 간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을 확정하고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응답자 수는 다음 <표 I-2-1>과 같다.

<표 1-2-1> 아동양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1차	2차
조사기간	2011년 5월 11일-17일	2011년 6월 17일-24일
응답자수	총 90명 (주양육자 47명, 초등 저학년 11명, 초등 고학년 이상 32명)	총 31명 (주양육자용 18명, 아동용 13명)

(4) 최종 문항 확정 및 조사준비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설문지별 응답소요시간 및 설문내용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반응, 설문 문항에 대한 수정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이후 예비조사를 통해 제기된 내용과 더불어 조사항목의 유의성 및 조사 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본조사의 CAPI 조사 수행을 위해 최종 확정된 설문 문항을 프로그래밍하고, 문항 간 로직 체크 등을 통해 오류를 수정한 후, CAPI용 넷북에 설문지를 셋업하였다.

(5) 가구방문조사 실시

가구방문조사는 2011년 8월 22일부터 10월 1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판별조사를 통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구인지 여부를 판별한 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일반가구조사와 학대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가구조사와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는 모두 CAP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주양육자와 아동이 한 쌍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취학연령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용 설문지는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연령, 발달단계 등에 맞게 아동학대 지표 및 설문 문항을 배치하였다.

한편, 일반가구조사와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를 별개로 실시할 경우 추가방문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주양육자와 아동 모두를 재접촉해야 하므로 조사대상자의 접촉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일반가구조사와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아동의 경우 아동용 설문지의 일반가구조사에서 미리 학대위험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학대가능성이 높은³⁾ 아동에게만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문항까지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 아동의 경우 일반가구조사 문항으로 설문을 종료하였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학대의 기준을 주양육자 응답이 아닌 아동응답에 기준을 두고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양육자의 경우 일반가구조사 과정에서 바로 학대위험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주양육자에 대해서는 추후 아동응답을 기준으로 학대가능성 여부를 판별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모든 표본에 대해서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일반가구조사의 목적은 전국 표본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한 파악과 아동학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에서는 학대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학대와 관련된

3)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보고서의 해당 장 참조.

요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및 학대의 발생과정과 학대신고 후의 결과, 재발방지 및 후유증 완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표 1-2-2> 가구방문조사 개요

구 분	일반가구조사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모집단	전국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전국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표본크기	5,051가구 (일반가구 4,044가구, 저소득층 가구 1,007가구)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별된 가구
표본추출틀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목표)
표본배분방식	지역별, 성별(아동), 연령별(아동) 최소할당 후 비례배분방식	유의할당
표본추출방법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1:1 개별면접조사(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6)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이 설정한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하여 다학제적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을 얻었으며, 주요 조사결과와 해석과 관련하여 제언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의식조사

아동학대 전문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현장실무자와 아동학대와 연관이 있는 아동, 보건/의료, 복지, 가족, 법 관련 학회에서 활동 중인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본 조사는 웹 기반을 이용한 온라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3주)까지이다. 조사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리스트를 확보한 후, 리스트 상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참여를 요청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다. 조사 참여 의향자에게 조사개요와 웹사이트 등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한 후 응답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 응답률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는 감사인사와 사례를 제공하였다.

아동학대 전문가 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1-2-3>과 같다.

<표 1-2-3> 아동학대 전문가 조사 개요

구 분	아동학대 전문가 조사
모집단	학계 전문가(아동관련 단체 소속 교수, 연구원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표본크기	201명
표본 추출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리스트, 아동 관련 학회 및 단체 회원 명단
표본배분방식	유의할당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라 지정된 12개 직업군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직업군의 경우 실사과정에서 이메일 주소의 확보가 어렵거나, 온라인 조사로는 할당된 사례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의무 직업군 12개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교직과 의료 관련직,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4가지 그룹에 대하여 직업군 수별로 유의할당을 진행하였다.

<표 1-2-4>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업군별 표본 배분(안)

(단위: 명)		
구분	대상	합계
교직	교원	400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및 교습소의 운영자·강사(교습자)·직원·종사자	
의료 관련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00
	구급대의 대원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300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사의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 <표 I-2-5>와 같다.

<표 I-2-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사 개요

구 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조사
모집단	아동학대신고의무 직업 종사자
표본크기	1,058명
표본 추출틀	해당분야 종사자 리스트
표본배분방식	직업군별 유의할당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4) 재학대 발생률 분석

재학대 발생률 분석은 2004년-2010년까지 7년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 신고사례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 7년 간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으며, 자료 클리닝과 통계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학대 재발생의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나. 조사내용

1) 가구방문조사

아동가구조사에서는 ISPCAN(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의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2010」, UNICEF의 「Violence against Children」, 「Progress for Children: A Report Card on Child Protection, September 2009」 등을 참고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아동학대 관련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표영역을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학교, 지역 환경 포함), 가족생활 및 가정환경 요인, 아동학대 및 방임, 그리고 아동의 폭력 경험으로 설정하여 관련 요인들을 함께 조사하였다. 한편 잠재적인 학대 가해자/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에서는 학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 및 학대의 결과, 서비스 지원욕구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지표들은 주양육자용과 아동용 설문지에 별도로 배치되거나, 필요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공통으로 배치되기도 하였다.

(1)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 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학대는 가구 특성에 따라 발생 위험도가 달라진다. 특히 가구의 구성, 부모의 결혼 상태 등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에 학대의 정도에 따라 가구 구성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구성 특성 및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효과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이 살고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측정은 중요하다.

학교환경은 아동학대 특히 교육적 방임에 대해 측정하고자 할 때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적응상태, 부정행위 경험, 징계 경험 등은 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학교 환경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과 그 영향은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안전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또 지역사회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일수록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표 1-2-6>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사회경제적 영역

조사영역	변인	항목
위험요인 사정지표		
사회 경제적 요인	가구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구성형태: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이외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가족구성 형태, 부모와의 비동거 시 비동거 기간과 사유(이혼, 학업 등), 비동거부모와 교류 정도와 내용, 부모의 재혼여부, 자녀수 -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학력 - 부모 직업, 부모 근로형태 -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저축액, 자산, 부채, 월평균 생활비, 사교육 지출 비용 - 주택 소유형태/종류/주거면적/시가, 아동방 유무, 거주주택 외 소유주택 유무 - 부모의 국적
	지역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안전 - 지역사회 애착 - 지역사회 감독
	학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명, 학교소재지, 학교유형, 일반계·실업계 선택이유 - 수업시간 및 수업태도 평가, 학교 적응 상태,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부정행위경험, 무단결석 경험, 징계 경험 유아교육 ·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관/유아교육기관 이용 여부와 만족도 -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와 만족도 - 친인척 보육 여부 등

(2)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영역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영역에서 아동학대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 학대의 정도에 따라 가정생활과 가정환경이 어떻게 상이하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생활은 아동학대의 발생과 관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부모의 심리·정서적 특성, 임신 시의 상황, 출산 시 아이의 건강 상태, 현재 아이의 건강·발달 상태, 아이의 발달과 부모의 기대치의 일치 정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빈도는 달라진다. 따라서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해 알고자 한다.

가정환경은 가정 내 환경과 가족의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가정의 일상적인 안전생활 습관과 가족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부모의 고립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표 1-2-7>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조사영역	변인	항목
위험요인 사정지표		
가정 생활 및 가정 환경	가정 생활	부모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장애, 만성질환, 우울·불안, 흡연, 음주, 자존감 등) - 부정적 생애 사건사 (아동학대력 포함) -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임신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기간, 임신 중 산모건강, 임신 계획여부, 약물섭취 및 사고 - 분만형태, 분만 후 신생아 건강상태(체중, 신장) - 모유수유여부 및 기간 - 결혼연령, 출산연령 등
		아동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상태(질병력, 장애여부 등) - 문제행동(공격성, 주의집중 결여, 과잉행동, 위축, 불안/우울, 일탈경험) -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모-자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됨의 의미 - 출산 지원, 육아 지원 - 양육태도, 모니터링, 훈육방식 - 부모효능감,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 아동과 놀이하는 시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여부, 참여하는 자녀 양육활동, 양육신념의 부부간 일치여부 및 불일치 시 해소방안 - 자녀 양육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가장 어렵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 - 아동 (미래, 행동, 발달 등)에 대한 기대와 평가
		부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부부관계, 부부의사소통
	가정 환경	사회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
		일상 안전 생활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혼자 집에 있는 횟수, 카세트 사용여부, 화기 사용 습관, 약품 정리 습관 등

(3) 아동학대 측정 지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여, 아동학대와 방임 정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와 방임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위해와 잠정적 위해로 나눌 수 있도록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를 측정하는 도구는 매우 다양하여 각 연구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발생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국내외의 척도들을 폭넓게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외국의 아동학대 발생률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척도인 CISPC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사용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현재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학대 관련 인식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일반인들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을 측정하였다.

<표 1-2-8>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아동학대 및 방임

조사영역		변인	항목
아동학대방임 사정 지표			
아동학대 및 방임	학대	신체적 학대	아동을 때리고, 밀고, 화상을 입히고, 물건을 던지고 등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포함.
		정서적 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포함.
		성적 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포함.
	방임	신체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 등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모든 행위 포함
		정서적 방임	부적절한 애착관계 형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반응 결여, 부적절한 양육 방식 등
		의료적 방임	필요한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인식	아동학대·방임 인식, 신고 및 서비스 이용 실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방식 (대처 유형, 대피 장소, 도움요청대상 등), 아동학대 발생(목적) 후 신고 여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이용여부, 이용횟수, 만족도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욕구

(4) 아동의 폭력 경험

아동학대와 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 전반적인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기 때문이고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학대와는 별개로 아동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 및 폭력의 목적 여부를 조사하여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표 I-2-9> 조사영역별 측정도구: 아동폭력 관련 문항

조사영역		변인	항목
아동 폭력	기타 폭력 경험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학생 간의, 교사가 학생에 대해 행하는 폭력 경험을 포함하고 있음.
		지역사회 폭력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경험한 학대 혹은 폭력 경험 등
	목격	폭력의 목격	아동들의 폭력 목격 실태 - 형제에게 행해지는 학대 목격 - 가정 폭력 목격 - 또래 집단 괴롭힘을 포함한 학교폭력 목격 - 지역사회 폭력 목격

(5) 학대 발생 관련 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의 잠재적인 가해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는 크게 학대 발생 관련 요인 및 학대의 결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요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대 발생 관련 요인은 최근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차례 제시된 부모의 게임중독, 양육행동, 가정의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대의 결과는 가해자의 피신고 경험 및 신고 후 행해진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아동)의 발달결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지원요구는 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서비스 관련 욕구를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의 문항구성은 다음 <표 I-2-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10>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문항구성

조사영역	변인	항목
학대 발생 관련 요인	부모특성	- 부모의 계임중독 - 부모의 양육행동
	가정환경	-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 경험의 다양성 - 환경의 물리적 경험
	기타	- 도움 요청 대상 여부
학대 결과	피신고 경험	-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법적조치	-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 - 조치 받은 법적처분의 종류 - 조치 받은 보호처분의 종류 - 조치 받은 형사처분의 종류
	아동의 발달결과	- 아동의 자아개념 -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 우울·불안, 공격성
서비스 관련 욕구	서비스 이용 경험	-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 지원 욕구	- 자녀양육 서비스 참여 욕구 - 희망하는 자녀양육 서비스 제공 시설 - 희망하는 자녀양육 서비스 제공자 - 희망하는 자녀양육 서비스 - 자녀양육 서비스 참여 욕구가 없는 이유 - 희망하는 양육지원 서비스

2) 전문가 의식조사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국내에서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아동학대 척도인 CTSPC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의 문항들을 중심으로 학대 여부(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를 판별하게 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는 가해자·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개입 효과 제고에 미치는 요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수집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방안은 아동 보호서비스의 전문성,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신변안전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였다.

3)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낮은 신고율(under-reporting)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문제이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낮은 신고율의 원인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아동학대 신고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직업적 배경(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 근무 환경, 아동학대에 대한 훈련 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학대의 심각도 등도 신고의무자들의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신고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배경변수로 신고의무자의 인구학적 특성, 직업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교육 및 홍보 영역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 참여와 관련된 내용과 아동학대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아동학대 인식을 살펴볼 것이며, 아동학대 신고 관련 태도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행동, 신고효과성, 인지된 행위통제력, 신고활성화 방안을 조사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 <표 I-2-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2-11> 조사문항

조사영역	항목	내용
개인적 특성	직업특성	직업
		근무지역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여부
		학력
	직업특성	직위
		경력
		아동 접촉 빈도
		주로 접하는 아동 평균연령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태도	사회 내 아동학대 발생 정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동체벌 인식
		학대부모 처벌 수준
		학대 책임감 정도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관련 지식
교육 및 홍보	관련 교육 참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
		최근 예방교육 참여경험
		참여교육방식
		교육 선택

신고관련 태도		참여 시간
		이해 도움 정도
		만족정도
		예방교육 참석하지 못한 이유
		이후 교육 참여 의사
		교육 필요성
		교육 내용
		교육 선호 매체
	홍보	직장 내 게시판 등에 아동학대신고센터 전화번호 또는 아동학대 관련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접한 홍보 매체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신고에 대한 인식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의사
		신고제도 인지, 인지경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지
		학대신고전화 인지, 알고 있는 신고전화, 인지 경로
	아동학대 신고행동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한 경험
		발견한 학대의심아동 명 수
		발견 시 신고여부
		신고 횟수
		학대유형
		학대의 심각성 정도
		신고 기관
		신고 시기
		신고후속처리
		개입영향
		신고하지 않은 이유
		신고 대체 행동
	신고효과성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인지된 행위통제력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대상자들의 인지된 행위통제력
	신고 활성화 방안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

4) 재학대 발생률 분석

재학대 발생률 분석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재학대 사례를 조사하여, 재학대 발생 현황 및 재학대 발생까지의 기간, 가구별 아동특성과악, 재학대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아동학대의 기본개념 설정 및 학대유형별 판별지표 개발
- 전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학대유형별 발생 빈도에 대한 국가통계 생산
-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현황 파악
- 아동학대의 결과 파악
- 학대 재발방지 및 학대후유증 완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욕구 파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 수준 및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파악
-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들의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활용방안

-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수준을 외국과 비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를 확인하고 학대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들을 위한 사후서비스 개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율 제고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도출
- 실천현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토대 마련

제2부. 국내외 선행연구

제2부. 국내외 선행연구

1. 아동학대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아동학대의 발생여부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동학대 개념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절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방임에 대한 개념·정의는 시대에 따라 또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동학대 정의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1962년 Kempe가 “매 맞는 아이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으로 정의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Baldwin, 2001). 반면에, 본격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는 1974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를 제정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CAPTA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방임은 최근 부모 혹은 보호자의 행위 혹은 대처의 부재로 인하여 죽음,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손상, 성적 학대 혹은 착취가 일어나거나 부모나 보호자의 행위 혹은 대처의 부재로 인하여 심각한 손상이 금방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P.L. 93-247).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었던 학대의 정의는 점차 확대되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학대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아동학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의 정의는 ‘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두드러진 신체적 손상을 가했거나 당장 손상을 가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English, 1998), 광의의 정의는 ‘모든 아동에게 권리로 주어진 아동 발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과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차이나 결손 등으로 인해 벌어진 간극’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Gil, 1975). Gil(1975)은 광의의 아동학대를 정의하면서 가해자를 보호자나 부모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경제적 제도 등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의 결핍을 일으키는 모든 사회 체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 협의의 아동학대 개념에서부터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까지 매우 다양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정의된 아동학대의 개념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 29조에서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11가지 금지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유기 및 방임의 가해자는 아동의 보호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나. 아동학대 유형별 개념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인 학대의 종류에 따라 학대를 정의하는 접근이 더 자주 활용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4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나뉜다. 신체적 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혹은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으로 정의 된다(English, 1998). 구체적으로 가해 행위는 발로 차는 행위, 혼드는 행위, 칼로 찌르거나 아이를 주먹으로 치는 행위, 아이를 던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8). 반면에, CAPTA에 따르면, 성적 학대는 “아동을 고용, 이용, 설득, 유인, 유혹 혹은 강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의 시각적 자료(visual depiction)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를 돕도록 하는 행위; 보호자 혹은 가족 간의 관계인 경우 법률로 규정한 강간, 성추행, 성매매 혹은 그 밖에 다른 모든 성적 행위 혹은 근친상간 등을 의미한다(P.L. 93-247).”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종류로는 신체적 방임(예: 의식주나 적절한 지도감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의료적 방임(예: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적 심리·정서적 치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 교육적 방임(예: 아이를 교육시키지 못한 경우나 아이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정서적 방임(예: 아이의 정서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아이에게 술이나 마약을 허용한 경우) 등이 포함되며,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도 방임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8).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서적 손상이나 두려움을 촉발시키기 위해 가하는 언어적·상징적 행위들을 의미하며(Straus, Hamby, Finkelhor, Moore, & Runyan, 1998), 아동을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혹은 타락시키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English, 1998). 정서적·심리적 학대의 주요 구성요소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의 종류에 따른 학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유형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1> 아동학대 유형별 개념 정의(1)

분류	내용	구체적 행위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때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뽀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적 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학대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러 오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표 II-1-2> 아동학대 유형별 개념 정의(2)- 앞장에서 계속

분류	내 용	구체적 행위
성적 학대	<p>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방임	<p>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日以上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2. 국내외 아동학대 실태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전국 단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 국내 아동학대 실태 관련 선행연구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에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를 발행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체 43%로 나타났다. 즉,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를 계기로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최소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이 제기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가 상설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2006년)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방임아동을 중심으로」연구에서, 전국의 24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방임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동방임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방임(58.9%), 정서적 방임(44.1%), 지도감독 방임(30%), 가정환경 방임(12.9%), 물리적 방임(12.2%)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 양부모 이외의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일수록 빈번하게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방임 경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방임에 대한 보호자와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확대, 기관에 대한 재원 확대, 야간보호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1-2009년)에서는 매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전국아동학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009년 보고서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보호사례는 5,685건(77.3%), 잠재위험사례는 444건(6.0%), 일반사례는 1,225건(16.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 아동 가운데 신고되지 않은 사례도 대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년)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는, 2008년 한국에 거주하는 0세에서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목표 모집단을 정의하여 지역별·연령대별로 층화표집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과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총 6,923개의 아동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0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주양육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9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청소년 조사와 주양육자 조사를 병행하였다. 아동학대 방임실태에 대하여 15개 문항의 '아동학대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 점수 분포는 평균 0.1-2.1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3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이 평균 2.1점(2=2-3

개월에 1-2번 정도)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0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의 평균점수 분포가 방임은 1.2-1.4점('1=1년에 1-2번 정도'), 정서적 학대는 1.3-1.7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대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점수 분포: 0.1-0.3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년)의 「국제기준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에서는,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생존권·보호권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측정하였다.

생존권영역의 주요 실태결과는, 아침결식, 수면부족, 낮은 수준의 급식과 안전에 대한 만족도, 건강인식도 낮음, 학업스트레스, 청소년의 40%가 자살을 생각해봄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생존을 넘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다.

보호권영역의 주요 실태결과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이 연 1-2회 이상 있는 아동은 각각 42.4%, 25.3%였고, 청소년은 그 비율이 훨씬 높아 각각 52.8%, 69.7%로 나타났다. 아동에 비해 청소년 연령대에서는 신체적 체벌 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은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체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도 아동의 경우 부모와 교사의 비율이 각각 49.2%, 3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71.7%, 64.2%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방임경험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38.4%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로부터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가정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의 차별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여성가족부(2010년)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1개 학급을 추출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총 1,01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녀학대 피해경험은 신체적 폭력 39.1%, 정서적 폭력 59.9%, 방임 14.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7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자녀학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임의 경우는 2007년에는 2.7%였는데 2010년에는 1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년)은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에서, 위기 아동·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관리 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실태와 긴급구호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및 욕구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권을 제외한 법적 권한 없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의 실무자 네트워크 및 병원과의 협력이 효과적이나 업무 부담이 높다는 점,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나. 국외 아동학대 발생 실태 관련 선행연구

1) 미국

미국의 보건복지부의 「National Incidence Study(NIS)」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생률을 추정하고 변화 추이를 모니터 하며, 아동학대 발생률 분포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에 따라 비교하고 있다. NIS는 Weststat Inc.와 1980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4차(1980, 1987, 1995, 2005-2006)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센테니얼 서베이 방식(Sentinel survey methodology)을 이용하여 아동과 그의 가족을 자주 접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한 사례와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에 신고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층화표집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 122개의 대상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그 지역 내에 있는 1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1,094개의 센테니얼 기관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 NIS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교육적 방임, 피해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의 가구 구성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아동학대에서 위해(Harm)와 위해 가능성(Endangerment)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정밀하게 아동학대 방임 실태를 연구하고자 했다.

NIS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약 17.1%가 해를 가할 정도의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약 7.5%가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4.4%, 성적학대: 1.8%, 정서적 학대: 2.0%)를 경험하였고, 약 10.5%가 방임(신체적 방임: 4.0%, 정서적 방임: 2.6%, 교육적 방임: 4.9%)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NIS의 보충연구로 Sentinel Definitions Survey를 실시하여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방임의 정의, 기준, 그리고 인식에 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이 어떤 기준과 판단 근거로 아동학대방임을 신고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의 특수성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발생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데이터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Longitudinal Study in Child Abuse and Neglect (LONGSCAN)」 연구는, 미국 전역에 있는 4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고, 각 지역에서의 아동학대 방임의 실태와 그 영향을 종단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도심 저소득지역에 위치한 소아과를 통해 위기 요인(부적절한 성장을 보이는 아동 혹은 HIV 감염자나 약물중독인 부모)을 토대로 표본을 추출한 한편, 중서부 지역에서는 CPS에 신고된 사례와 그 사례들과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통제집단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 대학은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각기 조사 설계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LONGSCAN 연구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총 1,354명의 아동과 주양육자를 아동이 4, 6, 8, 12, 14, 16, 18세일 때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방식의 조사를 병행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또한 다양한 정부데이터(CPS 신고 유무, 조사결과, 사후 조치 등)와 연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부모의 학대위험, 방임행동, 부모의 학대 경험, 양육 및 훈육 방식, 부부관계,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등 아동학대방임 발생 위험 요인, 영향 요인, 그리고 아동학대방임 발생 후 아동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아동·부모·가정환경·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미국의 5개 지역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실태 및 그 영향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인 종단연구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표본추출 방식으로 인해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NSCAW)」 연구는 의회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아동학대방임 신고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심층 종단조사를 실행한 연구이다. 또한 NSCAW 연구는 아동학대방임 신고사례였던 0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직접 자료를 수집한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최초의 연구이다.

NSCAW 연구는 층화표집을 이용하여 97개의 지역에서 신고사례로 접수된 5,504명, 그리고 가정 외 배치를 12개월 동안 지속한 727명의 아동들과 보호자, 그리고 특정 표본에 대해서는 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동학대방임 위험 및 발생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대방임 위험요인, 사회·정서·인지·언어·신체 발달,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학교·가정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NSCAW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아동학대방임 위험 및 발생이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의의를 가지나, 신고사례를 모집단으로 조사대상자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방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뉴햄프셔 주립대학의 「Developmental Victimization Survey」 연구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한 해에 발생하는 아동 범죄 피해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2세부터 17세 아동들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Random digit dial)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부모와 통화를 한 후 10-17세 아동·청소년은 직접 통화로 서베이에 응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9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신 응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아동 범죄피해율은 다섯 가지 영역(전형적인 범죄, 아동학대방임, 또래·형제자매 괴롭힘, 성폭력, 그리고 범죄 피해 목격 및 간접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약 8.2%의 아동이 성폭력을 경험하였으며, 13.8%의 아동이 아동학대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전화응답을 이용한 조사방식이 포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2) 호주

호주의 「Community Attitudes Survey」 연구는 2009년 호주 국민의 아동학대방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약 21,050명에게 온라인으로 아동학대방임에 대한 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방임 실태에 대한 반응, 아동의 안전과 안녕(Well-being)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등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태도·인식, 예방책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캐나다

캐나다의 「Canadian Incidence Study of 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CIS)」 연구는 1998년 최초로 수행된 전국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이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층화군집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각 기관 내의 사례들을 표본추출하였으며 또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 표본은 별도의 층으로 구분하여 표본추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1998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촉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서베이 조사로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총 7,672 사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는 아동 및 가족배경, 가해자 특성, 학대의 유형과 심각성, 서비스 및 조사로 인한 법적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된 사례의 45%가 학대로 입증되었으며, 22%는 의심사례로 남았다. 또한 학대 유형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31%), 성학대(11%), 방임(40%), 정서적 학대(19%)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의 상당수는 나이 많은 아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발적 사건이었으며,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성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는 보다 만성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서적 손상의 징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캐나다의 학대비율은 미국보다는 낮으나, 호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영국

영국의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2000)의 「Child Maltreatment in the United Kingdom: A Study of the Prevalence of Abuse and Neglect」 연구는, 층화비례확률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영국의 633개 우편번호지역(Postcode sectors)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90개의 주소를 선정하여 총 56,970가구를 표집하였다. 또한 가구 내 18-24세 청소년이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가구 내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무작위 선택함), 총 2,869 사례와 면접이 이루어졌다(응답률 69%). 대상자는 여성 1,635명, 남성 1,234명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으므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이며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CAP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응답자의 현 상황에 대한 일반적 정보 및 가족배경 정보, 아동양육에 대한 태도, 아동의 성적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따뜻하고 애정적인 가족관계에서 자랐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6%가 학대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때 심각한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응답자의 7%, 정서적 학대는 6%, 보살핌의 결여는 6%, 감독의 결여는 5%, 접촉을 포함한 성적 학대는 응답자의 11%에게서 보고되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성학대는 가정 외,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Prevalence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Netherlands(NPM-2005)」 연구는 2005년에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일하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최초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를 요구한 511개 기관 중 189개 기관만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기관 내 개인의 응답비율은 매우 높아 총 1,121명의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의 National Incidence Studies(NIS)를 그대로 모방하여 연구 설계를 하였으며, 2005년 9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하여금 학대사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NIS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위해(Harm)와 위해 가능성(Endangerment)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해자가 양육자인 경우에만 학대로 규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아동이 한 번만 분석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성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기타 방임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서에 해당되는 유형을 학대유형으로 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은 3% 정도로 나타났으며, 방임이 가장 보편적인 아동학대 유형이었으며(56%) 성학대 비율이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4%). 또한 학대아동의 47%는 한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을 경험하였다.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은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비교 연구

UN의 「Study on Violence to Children」 연구는, 2004년 UN 국가를 대상으로 가정, 학교, 보육 대체 시설, 소년원, 일하는 아동의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로 각 국가의 아동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분석하였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ISPCAN)는 1992년부터 2년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국제적인 자료집인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 발간된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2010」은 제9판에 해당된다.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2010」은 다음과 같은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혁신적 연구나 각 지역의 아동학대대응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부딪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논평을 포함하고 있다. 11개의 논평은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실천노력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연구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학대의 발생 또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제2부는 자료수집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5개의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보건연구에서 아동학대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도전과 이슈들, 그리스와 남동 유럽지역에서의 아동학대 자료수집과 관련된 최근의 발전과 노력에 대한 소개, 아동학대에 대한 공중보건 관점, 아동위기전화(Child helpline)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위기전화를 이용하는 아동집단에서의 학대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3부는 9개 국가의 대표를 초청하여 각 국가의 아동학대 자료수집 방법과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발표내용은 법적 측면, 자료수집방법 및 체계, 학대의 패턴, 강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계획과 방향이라는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있다.

제4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최근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ISPCAN의 아동학대 자료에 대한 실무진(Working Group)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간단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지난 2년간 각 국가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 분야의 가장 중요한 발전, 아동보호에 관련한 현재의 주요한 도전 세 가지, 국가자료수집 프로그램의 존재, 자료수집기관, 운영책임,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 비정기적인 자료수집 활동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제5부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중간 이하인 35개 국가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UNICEF의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에서 아동양육방법과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제6부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간된 35개국 이상의 연구결과와 89개의 논문 및 보고서를 요약한 주석달린 서지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각 국가의 아동복지 수준을 반영하는 UNICEF의 지표들과 국제적, 국가적 자원목록이 부록 A, B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3. 아동학대 관련 요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생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건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학대 발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학대가 단순히 한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요인과 사건 때문이고 본다(Black, Heyman, and Smith-slep, 2001; Howe, 2005; Minns and Brown, 2006). Allen-Meares와 Fraser(2004)는 아동학대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체계로 설명하였다.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미시적 체계, 아이와 부모와 관계를 맺는 친인척, 학교, 지역사회 단체 등의 중간체계, 그리고 기존의 두 체계가 우산처럼 연결된 사회구조에서 바라보는 거시적 체계가 그것이다. Kolko(2002)는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개인의 내적 심리 상태, 가족 구성원간의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자원의 이용가능성 및 스트레스 표현 같은 사회 구조”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 학대의 발생 요인을 부모 요인, 아동요인, 가족환경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 특성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부모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결함이나 연령, 양육 경험,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 등은 아동학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이재연, 한지숙, 2003; 이현기, 2005). 예를 들어, 부모가 낮은 자존감을 가졌거나, 감정조절에 미흡하고, 공격적이거나, 분노와 우울이 높을수록 학대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동 양육이나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부모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본인의 자녀 학대로 전이될 수도 있다. 아동기에 신체학대를 받은 어머니는 공격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에게 쉽게 상처를 준다.

Crimmins(1997)는 자녀를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신체적으로 학대한 여성들을 관찰한 결과 이들은 아동기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절당했거나 유기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대 부모는 아동기를 ‘혹독한 훈육(harsh discipline)’을 받았거나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독특한 성격이 공격성과 폭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신 병리학적 관점에 의하면, 부모의 성격 특성은 아동학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충동성에 영향을 받는다(Belsky & Jay, 1980). 그리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는 아동의 의존적 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아동의 행동을 자주 통제하고 강압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심각한 부부간의 갈등도 아동학대를 유발시킨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자녀 체계는 부부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이 아동이 되기 쉽다. 대표적으로 부부간 폭력이 자녀에 대한 신체학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oldman et al, 2003). 대항할 힘이 적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린 아동을 택해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갈등을 야기할 때 그들은 자식으로부터 사랑과 보상을 얻으려 한다. 이런 역할 전도 상태에서 아동이 부모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면 부모는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이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

부모의 알콜 중독 또는 여타 다른 약물 중독이 아동학대 유발요인 중 하나이다(노충래, 2002). 또한 우울감에 고통 받아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낮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를 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와 비교해서 일반적 애착행동을 하는 아기의 울음 소리 등에 직면했을 때, 높은 수준의 갈등을 호소한다. 더러워진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기의 심한 울음, 토하기, 음식 거절, 혹은 단지 물 등의 음료수를 흘리는 아이의 행동에서도 부모는 분노와 공격성을 보인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의존적 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아동의 행동을 자주 통제하고 강압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나. 아동 특성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 요인은 아동의 연령, 기질, 학업성적 및 학습장애 등이다(배화옥, 2004; 이현기, 2005;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4).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다(Drake, Jonson-Reid, Way & Chung, 2003).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체벌과의 관계에 대한 Straus와 Gelles(1990)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률이 높아서 3-4세와 5-9세 아동의 83%, 10-14세 아동의 66%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2010)에 따르면 2009년 발생한 전체 신체학대 중 만 6세 이하, 만 7-9세, 만 10-12세, 만 13-15세, 만 16-18세의 아동이 각 19.25, 21.2%, 26.4%, 25.8%, 7.4%로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까지 신체학대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초등학교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의 아동이 전체 신체학대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성별의 영향에 보고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1991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여자 아동일수록 학대당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분석(2010)에 의하면, 2009년 발생한 신체 학대 총 2,095건 중 남아가 51.4%(1,077건), 여아가 48.6%(1,018건)로 학대 발생률이 남아가 더 높았다.

한편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도 영향을 받는다(Belsky & Jay, 1980). 아이가 안달, 초조해 하는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다면, 압박과 스트레스 하에서 학대하는 엄마는 일반 엄마에 비해서 문제해결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아동학대는 질병유무를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적·정신적 장애유무와도 연관되어 있다. 아동의

질환을 장기적으로 돌보아야 할 경우 부모는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소진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을 돌보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통해 해소한다. Roberts(1988)는 학대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아동 요인으로 미숙아, 저체중아,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 장애, 아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태어난 후에도 원하지 않는 출생 등으로 보고하였다. 발달적 관점에 따르면,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방임의 주요대상이 되는 아동은 정신지체아, 신체장애아, 장기질환 아동, 미혼부모 아동이었다.

아동의 심리적 상태로는 우울이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 대부분의 우울한 아동은 자신감이 없고, 생활에 의욕이 없으며, 피곤해 하고, 주어진 일을 끝마치지 못하며, 혼자만 있려고 하고, 평소에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실패에 대한 불안, 거절 및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슨 일이든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아동은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다. 가족 환경 요인

가족의 특성 중 가족의 빈곤 및 소득, 부모의 실직 여부, 가족구조 등이 아동학대 유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dman et al, 2003). 먼저, 빈곤의 직접적 영향을 밝힌 연구들은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기초하여 빈곤상황, 즉 자원의 결핍이 열악한 아동학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즉, 저소득 가족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가 많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양육과 발달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아동을 학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은 아동방임의 발생요인이고 본다. 방임은 부모의 경제적 빈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빈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저하시킨다(Pelton, 1989).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빈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edlak와 Broadhurst(1996) 연구에서는 연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가족의 아동과 비교했을 때, 1만5천 달러 이하인 가족의 아동은 신체 학대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의 학대에 대한 빈곤과 가족소득, 그리고 가족구조의 영향을 분석한 Berger(2004, 2005)는 가족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Gelles(1992) 역시, 빈곤은 아동에 대한 심한 신체 학대와 관련성을 보였으며, 양육자인 부와 모 중에서 특히, 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빈곤과 연관된 실업, 낮은 교육, 사회고립, 많은 자녀 수, 10대 미혼모의 출산 등의 요인들이 아동방임과 관련된다(Crittenden(1999)).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또 다른 가족 환경 요인 중의 하나는 가족 구조이다(Cynthia, 2002; Goldman et al, 2003). 먼저 한 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수입원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할 가능성이 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 부모 가족이 빈곤한 상황에 처할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보다 아동 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아동의 양육에 일관성을 잃기 쉽고, 아동학대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Berger, 2005).

가정의 분위기도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 폐쇄적이고 갈등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분위기 자체가 갈등적이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로서

자주 소리를 지르는 가족,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걸핏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가족일수록 아동이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 및 부모의 행동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반응한다. 아동을 대하는 행동 양식은 그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한 문화에서는 매우 폭력적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선, 수치심의 정도, 체벌, 전통적 관습, 부양, 정신의학에 대한 견해 등 많은 점이 문화와 민족에 따라 다르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문화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관습은 다분히 폭력적이다(Fontes, 2008; Leigh, 1998; Webb and Lum, 2001). 일부 문화에서는 도구를 이용해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 다른 주의 법규에서는 아동학대로 여기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Fontes, 2008; Web and Lum; 2001).

Wolock and Horowitz(1979)의 초기연구에 따르면, 학대하는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및 이웃과의 관계는 위축되고, 비우호적이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최근 연구들도 비슷한 지역사회 환경을 발견하였다(Depanfilis, 2006; Drake and Pandey, 1996; Korbin et al., 2000). 비우호적인 관계로 인한 사기저하, 빈곤한 이웃이 부모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적절한 아동양육을 위한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잦은 이사, 비협조적인 이웃, 불충분한 사회제도는 부모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문화적 영향 외에도 경제의 흐름은 많은 가족들에게 큰 억압을 준다.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 각종의 복지 지원이 감소하거나 사회 범죄의 증가, 폭력 만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을 빈곤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사회의 만연된 폭력에 노출시킨다. 이는 결국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개인적 성향과 결합하여 부모는 불안함을 참지 못하거나, 불행한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어 학대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표 II-3-1> 아동학대 요인

아동학대 요인	세부 요인
부모 특성	연령, 양육경험, 학대받은 경험, 부모의 충동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부부폭력, 알콜 혹은 약물 중독
아동 특성	연령, 까다로운 기질, 신체적·정신적 장애, 우울
가족 환경	가족의 빈곤, 가정 소득, 가족 구조, 폐쇄적이고 갈등적인 가정 분위기
사회경제적 특성	문화, 지역사회 환경, 불충분한 사회제도, 경제의 흐름

4. 재학대 발생 관련 선행연구

아동학대는 위급성 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동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반복학대의 위험성에 처해 있다. 아동학대 재발생은 개별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 등을 포함하여 여러 체계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배화옥, 2004; 김세원, 2008). 아동학대 재발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첫째, 가해자 특성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생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가해자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요인으로 학대 가해자의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및 불안정한 정서 상태, 연령, 성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동 특성 및 아동이 경험한 학대 특성이다. 아동학대 재발생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특성과 재발생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몇 가지 아동 및 아동이 경험한 학대사례의 특성은 상당히 일관되게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어릴수록, 정신건강문제나 발달장애와 같은 취약성 요인이 많을수록 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 아동의 성별과 재발생 간의 관계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반복적인 성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경험한 학대유형에 따라서도 재발생 위험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러학대 유형 가운데 방임이 재발생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더 짧은 반면 성학대는 재발생 위험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단일학대유형 사례에 비해 중복학대유형사례의 재발생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의 특성이다. 아동학대의 재발생은 가족의 특성과도 상관이 있는데, 가족구성이 양부모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가정폭력 발생한 경우 재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의 자원을 이용하는 가족의 능력 역시 아동학대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들 수 있는데, 가족이 속한 지리적 위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발생률,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등은 아동학대 재발생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문가의 아동학대 인식 관련 선행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아동학대가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임이 인식되면서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를 실행할 기관으로 2001년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前 아동학대예방센터)과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아동보호제도가 마련된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더 이상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한 결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강점숙·정유석, 2002).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내 다양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체벌에 대한 용인의 정도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매개요인을 거쳐 아동학대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Ashton, 2001)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동학대의 신고를 결정하는데 영향요인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3년 5,24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

4) 김세원(200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 인식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現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형별(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학대의 인식정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II-5-1>과 같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98.4%), ‘혁대로 때린 경우’(97.7%) 등이 아동학대라고 응답하였고,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린 경우’는 70.3%의 조사 대상자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성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임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 등에서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신체적 학대를 제외하고는 기혼의 조사 대상자들이 미혼보다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 예비부모가 될 미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II-5-1>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여부

(단위: 명 / %)

구분	문항	빈도	
		학대임	학대 아님
신체적 학대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린 경우	1,556(29.7%)	3,684(70.3%)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린 경우	4,565(87.1%)	675(12.9%)
	발로 차거나 깨물은 경우	4,987(95.2%)	253(4.8%)
	혁대로 때린 경우	5,122(97.7%)	118(2.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5,154(98.4%)	86(1.6%)
정서적 학대	꼴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하는 경우	4,471(85.3%)	769(14.7%)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	4,875(93.0%)	365(7.0%)
	우리 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	4,678(89.3%)	562(10.7%)
	집에서 나가고 쫓아낸 경우	4,559(87.0%)	681(13.0%)
성학대	아동에게 음란 비디오나 음란서적을 보여주는 경우	4,548(86.8%)	692(13.2%)
	아동이 거부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경우	4,965(94.8%)	275(5.2%)
	억지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	4,260(81.3%)	980(18.7%)
방임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	2,833(54.1%)	2,407(45.9%)
	어두워질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경우	2,509(47.9%)	2,731(52.1%)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4,801(91.6%)	439(8.4%)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말 하지 않는 경우	3,060(58.4%)	2,180(41.6%)

자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아동학대인식조사 보고서.

특히, 이 인식조사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사랑의 매’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 결과 ‘체벌의 강도’ 56.0%, ‘사용도구’ 48.6%, ‘부모의 고의성’ 45.6%, ‘신체부위’ 37.6%, ‘아이의 연령’ 3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상처정도는 28.1%로 다른 기준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2003년도 아동학대예방센터(現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체적 학대의 기준으로 상처정도를 중요하게 보는 것과 대조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체벌은 학대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7.7%였으며, 아동과 부모가 체벌에 합의한 경우에는 체벌이 아니라는 응답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옥경 외(2009)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과 부모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2,171명의 부모 및 신고의무자5)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과 발견경험 여부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부모의 경우 성학대(5점 만점 중 평균 4.67점)를 아동학대로 보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4.11점)와 정서적 학대(4.11점)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방임(3.87점)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있어서는 성학대(4.75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4.32점), 신체적 학대(4.27점), 방임(4.0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정도는 <표Ⅱ-5-2>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Ⅱ-5-2> 부모와 신고의무자의 학대유형별 인식정도

학대 유형	문항	평균(SD)	
		부모	신고의무자
신체적 학대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행위	4.91	4.88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4.61	4.75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4.61	4.72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4.52	4.60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4.30	4.36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3.91	4.09
	세게 밀치는 행위	3.86	3.99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2.15	2.64
	전체평균	4.11	4.26
정서적 학대	다락, 골방, 창고 등의 감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4.74	4.74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는 행위	4.26	4.51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4.00	4.22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고 말하는 행위	3.98	4.26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3.56	3.87
	전체평균	4.11	4.32
성 학대	어른이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갖다 대거나 넣는 행위	4.88	4.89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고 하는 행위	4.86	4.86
	어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4.76	4.81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4.75	4.81
	억지로 아동의 옷을 벗겨 아동의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4.62	4.77
	아동이 싫다고 해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위	4.51	4.65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	4.31	4.53
	전체평균	4.67	4.76
방임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4.16	4.30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4.16	4.21

5) 본 실태조사에서 신고의무자는 아동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교사(학원교사 포함),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상담소 및 장애인 시설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 주지 않는 행위	4.07	4.34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행위	3.93	4.03
이유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동에게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3.91	4.04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3.81	3.97
위험한 물건(예 : 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3.79	3.99
아동의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3.61	3.94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3.43	3.85
전체평균	3.87	4.08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학대가 아니다)에서 5점(틀림없는 학대) 사이임.

2) 학대고 인식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남.

자료: 이옥경, 정규석, 하정화, 이해주(2009).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경우는 학력에 따라 성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성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도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가 다른 연령대(30대-50대)의 경우에 비해 정서적 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한편, 신고의무자의 경우 집단유형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와 상담시설 종사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의사 및 소방서 종사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성학대에 대한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시설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임에 대한 인식은 상담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의사 및 소방서 종사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나. 해외 선행연구

국외의 경우에서도 전문가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데, 2008년 ISPCAN(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은 75개의 국가의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자원, 예방정책 등에 대한 전자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특정한 부모 양육행동과 사회-제도적 상태가 해당 국가에서는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표Ⅱ-5-3>은 지역과 국가 발전 상태에 따라 아래의 특정한 행동을 조사 대상자의 국가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묻고 빈도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5-3> 지역과 국가발전 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또는 방임 인식정도

(단위: %)

	합계 (n=75)	지역					국가발전상태	
		아프리카 (n=13)	미국 (n=11)	아시아 (n=24)	유럽 (n=24)	오세아니아 (n=3)	개발도상국 (n=52)	선진국 (n=23)
아동과 부모/보호자 간의 관계								
성학대 (예: 근친상간, 성추행, 포르노물)	97.3	100.0	100.0	95.8	95.8	100.0	96.2	100.0
신체학대(예: 폭력, 화상)	96.0	100.0	100.0	91.7	95.8	100.0	94.2	100.0
충분한 의식주 제공의 불이행(방임)	89.3	76.9	100.0	83.3	95.8	100.0	84.6	100.0*
아동유기	88.0	62.3	90.9	75.0	95.8	100.0	84.6	95.7
정서학대 (예: 지속적인 비하나 욕을 하는 행위)	72.0	61.5	90.9	62.5	75.0	100.0	67.3	82.6
가정폭력	68.9	69.2	70.0	50.0	83.3	100.0	59.6	90.9**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의료제공의 불이행	66.7	61.5	90.9	41.7	83.3	66.7*	57.7	80.0**
부모의 약물남용	66.7	69.2	45.5	50.0	87.5	100.0*	61.5	78.3
심리적 방임(예: 정서적인 지지 및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62.7	69.2	81.8	41.7	66.7	100.0	53.8	82.6*
체벌(예: 엉덩이 때리기)	50.0	38.5	70.0	25.0	66.7	100.0**	44.2	63.6
부모의 정신질환	47.3	38.5	20.0	45.8	58.3	100.0	42.3	59.1
비기질적 성장장애 (Non organic failure to thrive)	36.5	38.5	20.0	37.5	37.5	66.7	23.1	68.2***
아동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아동 성매매	92.0	100.0	90.9	91.7	87.5	100.0	90.4	95.7
불특정 어른에 의한 신체적 폭행	86.7	69.2	90.9	83.3	95.8	100.0	82.7	95.7
여성/유아살해	85.3	84.6	90.9	79.2	91.7	66.7	80.8	95.7
아동 거리노숙	84.0	100.0	81.8	83.3	79.2	66.7	82.7	87.0
구걸행위 강요	81.1	84.6	80.0	79.2	79.2	100.0	78.8	86.4
아동 노동	74.7	76.9	81.8	62.5	83.3	66.7	75.0	73.9
다른 아동에 의한 학대	68.9	76.9	70.0	50.0	79.2	100.0	67.3	72.7
아동 징집	62.7	69.2	72.7	62.5	58.3	33.3	57.7	73.9
여성 할례	51.4	58.3	45.5	37.5	62.5	66.7	39.2	78.3**
특정한 현장(settings)에서의 학대/방임								
가정위탁, 그룹홈, 보육원	92.0	92.3	100.0	91.7	87.5	100.0	92.3	91.3
학교 및 교육훈련기관	84.0	84.6	90.9	79.2	83.3	100.0	80.8	91.3
소년원	74.7	69.2	100.0	66.7	70.8	100.0	75.0	73.9
주간보호시설	74.7	76.9	100.0	66.7	70.8	66.7	69.2	87.0
정신병원	65.3	46.2	90.9	58.3	70.8	66.7	57.7	82.6

자료: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2008).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8th Edition.

* p<.05, **p<.01, ***p<.001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아동학대와 방임은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근친과 성희롱, 포르노물로 정의되는 '성학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80% 이상이 언급한 다른 학대 행동들을 살펴보면 '충분한 의식주 제공의 불이행(방임)', '아동 유기', '아동 성매매', '거리노숙', '불특정 어른에 의한 신체적 폭행', '구걸행위 강요', '여성/유아살해',

‘가정위탁 및 교육환경에서의 학대 및 방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개의 항목 -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의료제공의 불이행’, ‘부모의 약물남용’ 그리고 ‘체벌’- 만이 학대와 방임의 정의에서 중요한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다. ‘체벌’에 대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응답자들이 가장 적게 학대로 인식하였으며 ‘부모의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미국과 아시아의 응답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아동학대라고 가장 적게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발전상태에 따라 ‘충분한 의식주 제공의 불이행(방임)’, ‘가정폭력’,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의료제공의 불이행’, ‘심리적 방임’, ‘비기질적 성장장애’, ‘여성할례’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국가 간의 문화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국가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ingapore Children’s Society(2000)는 1,238명의 전문가(의사 206명, 간호사 414명, 사회복지사 82명, 경찰 190명, 변호사 60명, 교사 및 교육현장의 아동보호전문가 286명)와 401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즉,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따른 7가지의 행동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지(용인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학대인지 방임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5-4> 전문가와 일반인에 따른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용인정도

(단위: %)

항목	행동		P	SW	D	N	L	ED	PUB
신체적 학대	담배, 뜨거운 물 등으로 화상 입히게 하는 행위	항상 용인	1.6	2.4	1.0	0.2	0.0	1.1	0.0
		때때로 용인	1.1	0.0	0.0	1.0	0.0	1.1	0.0
		절대 용인안됨	97.3	97.6	99.0	98.8	100.0	97.9	100.0
	목을 잡고 조른 행위	항상 용인	0.5	0.0	0.5	1.2	0.0	0.7	1.3
		때때로 용인	4.8	8.9	5.5	2.2	1.7	5.6	4.5
		절대 용인안됨	94.6	91.1	94.0	96.6	98.3	93.7	94.2
	세계 잡고 흔든 행위	항상 용인	1.6	0.0	1.0	0.2	0.0	0.4	5.5
		때때로 용인	29.8	22.8	25.6	22.1	28.3	32.6	26.4
		절대 용인안됨	68.6	77.2	73.4	77.6	71.7	67.0	68.0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	항상 용인	1.1	0.0	2.0	1.0	1.7	0.0	3.8
		때때로 용인	55.4	35.0	50.7	32.0	58.3	40.4	42.4
		절대 용인안됨	43.5	65.0	47.3	67.0	40.0	59.6	53.8
	회초리로 때린 행위	항상 용인	5.9	3.8	6.3	3.0	5.0	0.7	12.1
		때때로 용인	73.4	88.8	81.1	74.8	85.0	83.4	59.4
		절대 용인안됨	20.7	7.5	12.6	22.2	10.0	15.9	28.5
방임	아이가 아플 때 무시하는 행위	항상 용인	1.1	0.0	0.0	0.5	0.0	1.1	0.0
		때때로 용인	9.6	9.8	14.1	5.9	13.3	7.7	2.5
		절대 용인안됨	89.3	90.2	85.9	93.6	86.7	91.2	97.5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한 행위	항상 용인	1.6	5.1	3.0	0.5	3.3	1.1	7.8
		때때로 용인	65.3	80.8	65.2	51.2	75.0	54.6	47.7
		절대 용인안됨	33.2	14.1	31.8	48.3	21.7	44.3	44.4

주 1) P=Police, SW=Social Workers, D=Doctors, N=Nurses, L=Lawyers, ED=Educators, PUB=Public
 자료: Jasmine S. Chan, Yvonne Chow, John M. Elliott(2000). Professional and Public Perceptions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in Singapore. Singapore Children’s Society.

분석된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전문가 및 일반인은 ‘담배, 뜨거운 물 등으로 화상 입히게 하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른 행위’, ‘세계 잡고 흔든 행위’, ‘아이가 아플 때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회초리로 때린 행위’, ‘아이를 집에 혼자 있

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47.7% 이상의 전문가 및 일반인은 '때때로 용인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의 경우 최소한 50.7% 이상의 경찰, 의사, 변호사는 '때때로 용인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최소한 53.8% 이상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육자와 일반인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음($F_{6,1609} = 8.425, p < 0.001$)을 보여주었다.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와 간호사 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교육자·일반인 간의 용인정도 차이가 있다($F_{6,1602} = 9.193, p < 0.001$)고 보고하고 있다.

<표 II-5-5> 전문가와 일반인에 따른 신체적 학대 및 방임여부

(단위: %)

항목	행동		P	SW	D	N	L	ED	PUB
신체적 학대	담배, 뜨거운 물 등으로 화상 입히는 행위	학대아님	0.5	0.0	0.0	0.2	0.0	0.4	0.5
		학대일듯	0.5	0.0	1.5	2.0	0.0	1.4	0.5
		학대임	98.9	100.0	98.5	97.8	100.0	98.2	99.0
	목을 잡고 조른 행위	학대아님	1.1	0.0	0.5	1.0	0.0	0.4	2.5
		학대일듯	10.2	25.0	10.9	10.9	10.0	10.9	12.8
		학대임	88.7	75.0	88.6	88.1	90.0	88.7	84.7
	세계 잡고 흔든 행위	학대아님	9.1	6.3	5.0	6.8	11.7	7.4	19.3
		학대일듯	50.3	45.6	40.6	38.0	41.7	46.8	32.4
		학대임	40.6	48.1	54.5	55.3	46.7	45.7	48.2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	학대아님	15.5	2.6	11.4	8.8	11.7	6.3	20.2
		학대일듯	52.9	71.1	62.4	41.3	60.0	51.1	38.1
		학대임	31.6	26.3	26.2	50.0	28.3	42.6	41.7
	회초리로 때린 행위	학대아님	15.0	8.8	17.6	16.4	15.0	18.6	29.4
		학대일듯	66.3	87.5	74.0	62.0	78.3	68.2	42.7
		학대임	18.7	3.8	8.3	21.7	6.7	13.2	27.9
방임	아이가 아플 때 무시하는 행위	학대아님	3.2	2.4	3.4	2.7	0.0	1.8	4.0
		학대일듯	21.8	24.4	31.4	19.7	28.8	19.4	8.3
		학대임	75.0	73.2	65.2	77.6	71.2	78.8	87.7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한 행위	학대아님	30.2	17.7	18.1	25.6	15.0	20.4	34.5
		학대일듯	51.3	78.5	67.8	50.8	70.0	50.7	34.5
		학대임	18.5	3.8	14.1	23.6	15.0	28.9	31.0

주 1) P=Police, SW=Social Workers, D=Doctors, N=Nurses, L=Lawyers, ED=Educators, PUB=Public
 자료: Jasmine S. Chan, Yvonne Chow, John M. Elliott(2000). Professional and Public Perceptions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in Singapore. Singapore Children's Society.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의 용인정도 뿐만 아니라 학대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대다수의 전문가 및 일반인은 '담배, 뜨거운 물 등으로 화상 입히게 하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른 행위', '아이가 아플 때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학대'라고 응답하였고, '회초리로 때린 행위'와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일듯'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를 잡고 세계 흔든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46.8% 이상의 경찰과 교육자는 '학대일듯'이라고 대답한 반면, 최소한 46.7% 이상의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변호사와 일반인은 '학대'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_{6,1601} = 4.233, p < 0.001$)고 보고하였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간호사와 일반인은 '학대'라고 답한 경

우가 많았지만 경찰, 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교육자는 '학대일듯'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있다($F_{6,1598} = 6.826, p < 0.001$)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상기에 언급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공통적으로 심한 학대의 경우는 대부분 학대라고 인식하였지만 이외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간 또는 집단 간에 인식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개념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6.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요인 관련 선행연구

아동학대란 한 특정사회가 아동에 대하여 어떤 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학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도 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조기발견과 개입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돕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길게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허남순, 200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에서 조사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뉘 볼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30.9%,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69.1%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2001-2010)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1년에 비해 2010년도에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건수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계로 언급하였다. 실제 2006년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의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 소방구급대원이 신고의무자 범주에 포함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소속된 직장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거부적 반응',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표 II-6-1>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교원	535(7.2)	부모	1,374(18.6)
의료인	83(1.1)	이웃, 친구	861(1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25(5.7)	친인척	488(6.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6(0.4)	경찰	302(4.1)
보육시설 종사자	152(2.1)	종교인	54(0.7)
유치원 종사자	66(0.9)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562(21.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6(0.2)	낯선사람	69(0.9)
소방구급대원	6(0.1)	아동본인	115(1.6)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47(0.6)	형제자매	44(0.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7(0.1)	익명	6(0.1)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41(1.9)	기타	241(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86(10.6)		
소계	2,290(30.9)	소계	5,116(69.1)
계		계	7,406(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김수정·이재연(2011)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로 법적근거 조항을 들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한국 등 6개의 국가들의 아동학대 신고사유 관련 법적근거 조항을 비교한 결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3개국의 신고사유는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때’이고, 일본의 신고사유는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이다. 특히,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만과 한국의 신고사유는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대만과 한국의 신고사유는 이전의 4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범위가 좁아 아동 학대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옥경 외(2009)가 실시한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도 부모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등 아동학대 신고 관련 요인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부모 및 신고의무자 모두 ‘신고시 신분노출’, ‘신고로 인한 아동가족의 해체에 대한 두려움’, ‘신고시 가해자의 보복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중앙아동학대에방센터(2003)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인식조사에 의하면, 가정 내 아동학대와 이웃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신분노출에 의한 보복이 두려움’ 등을 보고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허남순(2003)의 연구를 통해 국외 연구에서 분석한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고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Ashton(1999)은 신고자의 연령, 성별, 자녀유무가 신고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반면, Wilson(1992)와 Zellman과 Bell(1990)은 성별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신고자 자신이 아동기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Warner & Hansen(1993)은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일수록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Owens & Strauss, 1975; Strauss, 2000)은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성인이 체벌이나 학대에 대하여 허용적이며, 이와 같은 태도가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줄 것이고 가정하였다. 셋째, 신고자의 학대관련 태도 및 지식과 교육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은 아동을 훈육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생

각하거나(Tite, 1994), 부모의 사적인 일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가졌거나(Swoboda, 1978),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대한 불신(Wilson, 1992) 등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으며 체벌에 대한 용인 정도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매개요인을 거쳐 아동학대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ton, 2001).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교육을 받았을수록 신고행동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Levin, 1983; King, et al., 1998). 넷째, 피학대 아동의 변인도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신고하는 경향이 높았고, 학대 유형 역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학대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하였지만 방임의 경우 신고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ner & Hansen, 1994; Ards & Harrel, 1993; 허남순, 2003 재인용).

이러한 국외의 선행연구와 허남순(2003)이 분석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신고할 정도로 심각한 학대로 생각되지 않아서(45.8%)', 신고해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36.1%), 학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몰라서(25.0%), 신고 후 부가될 책임조사가 부담스러워서(18.1%) 등으로 응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들의 복지나 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의나 신고 후의 조치 및 학대 증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허남순, 2003).

또한 아동학대 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 집단별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지고도 있다. 최경일·임종호(2010)에 따르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행동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와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자신감을 갖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있다(Feng, 2003; Goebbels et al., 2008; King et al., 1998; 최경일·임종호, 2010 재인용).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고의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진선·박경숙(2005)은 연구대상자들 중 42.1%가 실무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였으나, 신고한 경우는 5.5%뿐임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고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부족' '학대에 대한 확신 및 증거 부족'으로 나타났다. 김소연·윤혜미(2003)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29.8%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고, 46.2%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신고경험은 0.6%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명확하지 않아서',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가 응답의 주를 이루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76.7%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고 시기에 대해서 발견 즉시 신고해야함을 알고 있는 종사자는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발생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침을 잘 알지 못하고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을 그 주요 원인으로 들었음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높은 아동학대의 심각성, 신고의 효과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신고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강명자, 200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신고의무자들 간 직업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에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Fox & Dingwall, 1985; Kaiser & Berry, 1988)와 일맥상통한다.

요약해보면,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적 배경(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 아동학대에 대한 훈련 정도(King, et al., 1998),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Tilden et al., 1994), 아동학대에 대

한 태도(King, Reece, Bendel & Patel, 1998), 학대의 심각 정도(Escobar, 1995; Kalichman's, 1993), 인지된 행위통제력(Feng, 2003)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허남순, 2003; 김진선·박경숙,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사례경험 및 신고경험 등 신고 관련 인식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엿볼 수 있다.

제3부. 일반가구조사

제3부. 일반가구조사

아동학대 가구 조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일반 가구조사이다. 우리나라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아동들의 아동학대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는 위험가구조사이다. 일반가구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가구들을 추출하여 아동학대의 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한다. 제3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파트로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와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일반가구조사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아동학대 발생률 조사이다. 아동학대 발생률 조사는 다시 아동학대 발생률, 아동학대 발생률의 영향요인, 아동학대 발생률 국제비교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응답대상, 학대기준, 학대유형, 발생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률의 영향요인은 아동학대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발생률 국제비교는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국제비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둘째는 주양육자 조사이다.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가정생활 영역, 가정환경 영역, 아동학대 및 방임 영역,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영역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는 아동조사이다. 자기 응답이 가능한 아동들에게 아동발달 영역, 아동학대 관련 경험 영역,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 영역,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영역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가구조사 결과는 아동의 연령과 학대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응답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동의 연령집단은 주양육자의 경우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고, 아동의 경우 본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아동학대 경험여부는 주양육자와 아동 모두 아동응답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주양육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은 아동학대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조사 대상⁶⁾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전국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개 가구의 아동과 주양육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설계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아동학대(방임)가 의심되는 가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boosting)하여 설계되었다. 응답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6) 조사대상자 특성은 비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응답자들의 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III-1-1> 일반가구 조사 대상

(단위: 명 / %)

		사례 수	학대경험		전체
			미경험	경험	
권역	서울 / 인천	1,151	21.2	29.0	23.2
	경 기	1,281	26.8	22.7	25.8
	대전/ 충북/ 충남	533	10.9	10.3	10.7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1,264	25.8	24.5	25.5
	광주/강원/전 북/전남/제주	737	15.4	13.3	14.8
	전 체	4,966	100.0	100.0	100.0
지역 크기	대 도 시	2,168	41.2	50.8	43.7
	중 소 도 시	2,051	43.0	36.5	41.3
	농 어 촌	746	15.8	12.7	15.0
	전 체	4,965	100.0	100.0	100.0
가구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299	5.4	7.7	6.0
	차상위 가구	102	1.8	2.7	2.1
	일 반 가구	4,566	92.7	89.6	91.9
	전 체	4,967	100.0	100.0	100.0
아동과의 관계	아 버 지	484	10.0	9.1	9.7
	어 머 니	4,308	86.5	87.5	86.7
	(외)조 부 모	165	3.4	3.2	3.3
	기 타	9	0.2	0.2	0.2
	전 체	4,966	100.0	100.0	100.0
주양육자 성별	남 자	525	10.7	9.5	10.4
	여 자	4,450	89.3	90.5	89.6
	전 체	4,965	100.0	100.0	100.0
주양육자 연령대	20대 이하	125	3.0	1.0	2.5
	30대	1,972	40.5	37.5	39.7
	40대	2,404	47.4	51.5	48.4
	50대	294	5.7	6.7	5.9
	60대 이상	149	3.1	2.8	3.0
	모름 / 무응답	22	0.4	0.6	0.4
	전 체	4,966	100.0	100.0	100.0
주양육자 학력	초등학교 이하	138	2.8	2.7	2.8
	중 / 고등학교	2,708	54.1	55.8	54.5
	대학 이상	2,110	43.0	41.0	42.5
	모름 / 무응답	10	0.1	0.5	0.2
	전 체	4,966	100.0	100.0	100.0
아동 성별	남	2,595	52.0	53.1	52.3
	여	2,370	48.0	46.9	47.7
	전 체	4,965	100.0	100.0	100.0
아동 연령대	미 취 학	1,461	31.3	23.8	29.4
	초등저학년	794	15.3	18.1	16.0
	초등고학년	835	16.3	18.4	16.8
	중 학 생	1,020	19.5	23.7	20.5
	고등학생	857	17.7	16.0	17.3
	전 체	4,967	100.0	100.0	100.0

2. 표본추출 및 가중치 산정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양육자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이들 아동의 양육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전체 표본 5,000가구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저소득층을 표본의 20%로 할당하여 아동학대방임 의심가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저소득층 중 1,000가구를 별도로 표집하여 표본에 포함시켰다. 저소득가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2011년)에서의 전국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내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주양육자이다.

표본추출 과정은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각각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표본(5,000가구)을 대상으로 통합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 표본설계

1) 일반가구 표본설계

일반가구는 전국적으로 총 4,000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1) 표본추출틀의 구성

원칙적으로 최신의 모집단 정보와 추출틀을 활용하여 표본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시점에서는 2010년 11월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에서 인구 관련 정보만이 공표된 상황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집단 정보는 공표된 2010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추출틀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2005년 11월 이후의 신축 아파트 리스트 정보를 이용하였다.

(2) 층화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 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 및 18세 미만의 아동과 주양육자이다. 1차 추출단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또는 신축 아파트 단지)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개 60~70여 가구로 구성된다. 표본설계에서 층화는 1차 추출 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 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서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2005년 11월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 시·도 구분에 따라 층화하여 전체 16개의 층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서 고려한 1차 층의 수는 44개이다.

2차 층화는 조사구의 특성에 따라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또는 (농림어가 조사구, 비농림어가 조사구)로 구성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대상의 표본설계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구성한 28개의 1차 층 내에서 서울, 광역시 및 도 지역(동) 층에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세부 층화하였고, 도 지역(읍·면)에서는 농림어가 비율(50% 기준)에 따라 2개 층으로 세분화하였다. 신축 아파트 추출률을 위한 층화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층화하였다. <표 III-2-1>은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대상의 표본설계 상의 전체 층의 수는 72개이다.

<표 III-2-1> 가구조사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의 개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6대 광역시	서울(4개 권역), 광역시	아파트, 일반조사구	20
	9개 도 지역	9개 도 지역(동부)	아파트, 일반조사구	18
		9개 도 지역(읍·면부)	농림어가 조사구, 비농림어가 조사구	18
신축 아파트 리스트	서울, 6대 광역시, 9개 도 지역	-	-	16

(3) 표본 배분

본 조사에서 본설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통계공표 단위별 아동학대 실태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인구주택총조사 리스트와 2005년 11월 이후 신축된 아파트 추출률에 표본조사구의 배분 문제이다. 2005년 11월 이후 신축된 아파트 가구는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추출률과 신축 아파트 추출률에 대한 표본배분은 각 추출률의 가구 수에 비례배정하였다.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수에 대한 정보는 활용할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인구주택총조사 추출률에 배분된 조사대상자 수는 3,750명이고, 2005년 11월 이후 신축된 아파트 추출률에는 250명의 조사대상자를 배분하였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층화기준은 16개 시도로 16개 시도별 표본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신축 가구 수에 비례배분하였다. 신축 아파트 추출률에서 1차추출단위는 약 60가구씩 재구성한 가상의 조사구가 되며, 각 조사구로부터 5가구를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추출률에 대한 표본 배분을 살펴보면, 1차 층인 시도별 조사대상자의 표본배분은 각 시도의 18세 미만 아동 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별 조사대상자 표본배분은 18세 미만 아동 수에 비례배분하였으며, 각 시도의 동 및 읍·면 층 내에서 세부 층별 표본배분은 가구 수(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조사구로부터 동 지역의 경우는 5

가구를, 읍·면 지역의 경우는 3가구의 표본 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거주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882개이다. 이 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약 1.6%p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 III-2-2>는 각 시도별 최종 표본배분 현황이다.

<표 III-2-2> 각 시도별 최종 표본배분 현황

(단위: 명)

행정 구역	최종 표본배분 (조사대상자)				최종 표본배분 (조사구)			
	동 지역	읍·면 지역	신축 아파트	계	동 지역	읍·면 지역	신축 아파트	계
전국	3,135	615	250	4,000	627	205	50	882
서울	655	0	40	695	131	0	8	139
부산	220	9	15	244	44	3	3	50
대구	175	15	15	205	35	5	3	43
인천	205	6	15	226	41	2	3	46
광주	130	0	10	140	26	0	2	28
대전	125	0	10	135	25	0	2	27
울산	75	18	5	98	15	6	1	22
경기	805	159	70	1,034	161	53	14	228
강원	75	36	5	116	15	12	1	28
충북	80	39	10	129	16	13	2	31
충남	75	81	15	171	15	27	3	45
전북	110	30	10	150	22	10	2	34
전남	75	60	5	140	15	20	1	36
경북	115	69	10	194	23	23	2	48
경남	175	84	15	274	35	28	3	66
제주	40	9	0	49	8	3	0	11

(4)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추출은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계통추출법을 적용할 때는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표본설계에서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56개 각 층 내에서 조사구를 행정구역 번호에 따라 정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해당 층을 지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축 아파트 추출틀의 경우에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약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 가상의 조사

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추출단위인 아파트 조사구의 추출은 16개 각 층 내에서 아파트 조사구를 행정구역 번호에 따라 정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한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동 지역에서는 5가구를 계통추출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3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조사 대상가구 선정 방법은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5(또는 3) 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한다.

추출된 표본조사구가 조사시점 차이로 인하여 표본조사구 전체가 유고(재건축, 재개발, 기타사유 등)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개발된 경우)되었을 경우에는 표본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한다.

표본가구와의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4회로 하며, 요일/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또한 면접원은 매회 방문할 때 <가구방문기록표> 양식에 준해 해당 가구와의 접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한다. 4회 방문시에도 조사대상가구/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해진 접촉 순서에 따라 인접한 대체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다시 접촉/방문을 시도한다.

2) 저소득 가구 표본설계

저소득 가구는 전국적으로 1,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일반가구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표본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1) 표본추출틀의 구성

저소득 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합친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 내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표본추출틀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의 전국 단위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각 동·읍·면 단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 리스트로부터 직접적으로 표본추출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차추출단위를 행정구역 단위인 동·읍·면으로 하고, 2차추출단위를 가구로 하는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2) 층화

본 표본설계에서는 층화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층화 과정을 통해서 전체 25개의 층이 구성되었다.

(3) 표본배분

① 1단계(시도별 배분)

1단계로 1,000명의 아동을 16개 시도별로 저소득층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원칙적으로 1개 동/읍·면에서 10가구를 조사하여 총 100개 표본 동/읍·면을 조사하기 때문에 배분된 조사대상자 수를 10의 배수 형태로 조정한다.

② 2단계(동/읍·면부 배분)

16개 시도의 표본크기를 동/읍·면 지역별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수에 비례배분한다.

<표 III-1-3>은 각 층별 표본 동/읍·면 현황이다. 읍·면 층에서 1개의 표본 읍·면만이 배정된 충북과 제주의 경우에는 분석과정에서 동 지역과 통합하여(collapse) 분석하도록 한다.

<표 III-2-3> 층별 표본 조사구 수 현황

(단위: 명 / 개)

층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A)	만 18세 미만 아동 수(B)	표본 동/읍·면 수
서울		74,536	115,916	14
부산		39,733	61,047	8
대구		38,121	59,888	7
인천		26,714	42,881	5
광주		25,689	42,810	5
대전		18,729	30,885	4
울산		7,047	11,028	2
경기	동	61,795	98,902	12
	읍·면	14,576	23,759	3
강원	동	12,942	20,126	2
	읍·면	6,710	10,923	2
충북	동	10,531	16,846	2
	읍·면	6,080	9,993	1
충남	동	8,037	12,863	2
	읍·면	11,267	18,790	2
전북	동	23,571	40,370	5
	읍·면	9,288	16,282	2
전남	동	13,679	22,803	3
	읍·면	16,912	29,656	4
경북	동	16,867	26,659	3
	읍·면	13,741	22,099	3
경남	동	20,045	31,430	4
	읍·면	11,792	19,199	2
제주	동	7,150	11,839	2
	읍·면	2,812	5,018	1
합계		498,364	802,012	100

(4)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

우선 각 층에 배분된 표본크기에 따라 각 동/읍·면별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 동/읍·면을 추출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표본 동/읍·면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총 100개의 조사구에서 1,000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사구 1개당 10가구를 추출해야 한다. 따라서 작성된 가구 리스트에서 추출간격을 결정하여 10가구를 계통추출로 표본가구를 추출한다. 표본크기를 1,000명으로 하였을 때 모비율 추정에 대한 허용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3.2\%p$ 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조사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생일자법(방문당시 생월과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양육자를 조사하며, 아동이 초등저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용 설문지를 함께 실시한다.

표본 가구와의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4회로 하며, 요일/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4회 방문 시에도 조사대상가구/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해진 접촉 순서에 따라 인접한 대체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다시 접촉/방문을 시도한다.

나. 가중치 산정

1) 가중치 산정 개요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큰 대규모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향이기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반드시 가중치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0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추출틀을 이용하는 경우와 신축 아파트 추출틀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인구주택총조사 추출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읍·면 및 동 구분을 이용한 지역 층화하여 전체 28개 층으로 구분하였고, 각 층에서 다시 동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구의 비율, 읍면 지역에서는 농림어가의 비율에 따라 2개 층으로 세분하여 전체 56개 층을 구성하였다. 신축 아파트 추출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도 구분을 층화변수로 활용하여 전체 16개 층을 구성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양육자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2) 조사구 조사에 대한 가중치 작성

(1) 설계가중치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5(또는 3)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5$ (또는 3)이다.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률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5 \text{(또는 3)}}$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률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2) 무응답 조정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다.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 = \frac{m_{hi}}{r_{hi}}$$

(3) 표본 가구 내 적격자 추출률 반영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생일자법’에 의거하여 조사시점과 가장 근접하게 생일인 사람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다.

$$\text{가구 내 추출률} = \frac{1}{\text{표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수}}$$

앞서 구한 가구 내 추출률의 역수를 설계가중치에 곱하여 가구 내 추출률 차이를 가중치 작성 과정에 반영한다.

(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중치 작성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0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시·도*성*연령대별 18세 미만 아동 수 정보에 대해서 사후층화 방법(post-stratification)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5) 극단 가중치 조정

일반적으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몇 개의 과도하게 큰 가중치를 갖는 조사값이 잘 설계되고 수행된 통계조사에서 얻어지는 조사의 정확성을 낮추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표본설계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무응답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과 같은 가중치 작성 단계별로 지나치게 큰 조정값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가중치의 경우에는 절단(trimming)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둘째, 가중치 작성의 전체 과정을 마친 후에 과도하게 큰 가중치를 찾아서 절단(trimming)하고, 절단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가중치를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다.

「아동 안전 및 양육 실태조사」의 특이 가중치 조정은 두 번째 방안을 사용되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가중치 분포를 고려하여 상·하위 1%씩을 특이 가중치로 간주하여 조정하였다.

가중치 절단 (weighting trimming)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중치 절단으로 인한 추정량의 편향(bias)의 증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추정량의 분산 감소를 통해서 추정량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를 줄이는 것이다.

3) 저소득층 가구 대상 조사를 위한 가중치 작성

우선 표본동의 추출률과 조사적격가구의 추출률의 곱의 역수로 설계가중치를 산정한다. 이후 무응답 조정과 보건복지부 행정자료를 모집단 보조정보로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을 통해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4) 조사구 조사 결과와 저소득층 가구 대상 조사의 결합 가중치 작성

앞선 가중치 작성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조사구 대상 조사와 저소득층 가구 대상 조사의 가중치를 결합하여 두 조사를 통해서 얻은 저소득층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재산정하였다. 가중치 작성의 전체적인 절차는 O'Muircheartaigh와 Pedlow(2002)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두 조사데이터를 결합한 가중치 작성은 조사구 대상 조사에서 저소득층으로 구분된 경우와 저소득층 가구 대상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조사구 조사에서 온 저소득층 가구 표본을 CX로 정의하고, 저소득층 가구조사로부터 온 표본을 SU로 표현한다. 결합 가중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

우선 앞서 구한 가중치에 대해서 불균등 가중치로 인한 가중치 효과(unequal weighting effect)를 구한다.

$$\hat{d}_c = 1 + [CV(w_i \in CX)]^2, \quad \hat{d}_s = 1 + [CV(w_i \in SU)]^2$$

다음 단계로 결합 가중치 작성에서 사용될 λ 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hat{\lambda} = \frac{n_c/d_c}{n_c/d_c + n_s/d_s}$$

이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w_i^*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w_i^* = \begin{cases} \hat{\lambda} w_i & , i \in CX \\ (1 - \hat{\lambda}) w_i & , i \in SU \end{cases}$$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가중치는 최종적으로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방법을 통해서 벤치마킹되었다. 레이킹비 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된 변수는 시도*성별, 지역(서울, 광역시, 도_동, 도_읍면)*연령대*성별, 시도*(일반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이다.

다.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1) 추정량

본 조사에서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차이이다.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dots}}$$

여기서, w_{hij}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w_{\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text{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2) 추정량의 분산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text{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s.e(\bar{y}) = \sqrt{var(\bar{y})},$$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3. 조사 내용

가. 판별조사

판별조사는 조사대상 가구로 추출된 가구 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지, 조사대상 아동을 누구로 할 것인지, 주양육자는 누구인지 등을 판별하는 과정이다.

조사대상 아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만 18세 미만 : 양력 1993년 7월 2일~2011년 7월 1일

(음력 1993년 5월 13일~2011년 6월 1일) 출생자

- ▶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끼리 살거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제외
- ▶ 만 18세 미만 아동이 부모가 자기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자기 집이 아닌 조부모집 등 다른 친척 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제외
- ▶ 만약 만 18세 미만 아동이 1명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제외

이러한 과정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다고 판별된 경우 그 중 다가오는 생월이 가장 빠른 아동이 누구인지, 미취학 아동인지 초/중/고등학생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아동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아동의 부모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만약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주양육자를 선정하였다.

나. 주양육자 조사

주양육자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가정생활환경 영역, 가정환경 영역, 아동학대 및 방임 지표, 아동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가구의 일반적 특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은 다음 <표 III-3-1>과 같다.

<표 III-3-1> 주양육자 조사 내용

주제		세부 항목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아동과의 관계,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건강상태, 결혼상태, 경제활동분야,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 조사대상 아동 부모 특성(결혼년도, 친부모, 결혼이민자 여부 및 출신 국가 등) - 주거 특성(주택유형, 위치, 점유형태, 방 수, 구조·성능 및 환경 등) - 월평균 가구소득액,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및 급여액
가정 생활 영역	임신과 출산	- 조산(37주 이하) 여부, 출생 직후 입원/치료 여부 및 몸무게, 계획 임신 여부
	아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키/몸무게 및 마지막 측정시기, 예방접종 여부 - 입원 경험/횟수 및 이유, 응급실 이용 경험/횟수 및 이유, 치과검진 - 문제행동, 양육 특성
	부모-자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 여부 및 도움 받는 시간 - 부모노릇에 대한 느낌, 부모 감독, 양육효능감, 아동과 놀아주는 시간, 훈육방법
	부모 (주양육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혼인상태, 혼자 양육 기간, 비동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 여부 - 음주 특성(빈도, 양, 과음 빈도, 음주 후 행동 및 느낌, 출산 경험) -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부부관계	- 부부 만족도, 부부 관계, 배우자 폭력 여부
가정 환경 영역	사회적 지지	- 비동거 친인척, 이웃, 친구 등으로부터 얻는 지지
	일상 안전생활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 여부, 안전 규칙 준수 여부 - 보육 및 사교육 서비스 이용 형태(이용 여부, 횟수, 시간), 시설 또는 기관에서 파한 후 주로 있는 곳과 돌봄 주체 - 평일 혹은 주말에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여부 및 시간 - 아동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 - 동네 사람들의 훈육 및 상호작용 관련 경향
아동학대 및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의 아동학대 행동(지난 1년간, 지난주) - 아동의 성학대 피해 경험 여부 - 본인의 성장기 시 아동학대 피해 경험 여부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학대 아동 목격 경험 여부 - 신고 여부, 신고처, 미신고 이유(목격 경험자) - 향후 피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 여부, 신고처, 미신고 이유(목격 미경험자)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및 경로 -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여부

다. 아동 조사

아동에 대한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아동(만 18세 미만)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용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4~6학년, 중/고생)용으로 구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예비조사 결과, 자기기입식 문항에 응답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설문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이후에 아동학대 피해 경험,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만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용 설문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용 설문지의 질문 문항 외에 아동의 발달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 학교적응, 일탈경험 및 문제행동,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문항들도 추가되었다.

<표 III-3-2> 아동 조사 내용

주 제		세부 항목	비고
발달 결과	학교 관련	- 다니고 있는 학교, 학년 -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이유 - 성적(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	공통 초저용 초고이상용 초고이상용
	일탈 경험	- 지난 1년 간 여러 가지 일탈행동 경험 빈도	초고이상용
	문제행동	-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문제행동 경험 빈도	초고이상용
	삶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전/후)	초고이상용
아동학대 관련 경험		- 현재 부모님과 동거 여부 - 집에 있을 때 주로 돌봐주는 사람 - 부모님(양육자) 양육 방식 - 피학대 경험 및 가해자(지난 1년 간 / 지난주)	초고이상용 초고이상용 공통 공통
폭력에 대한 노출	기타 폭력 경험	- 교내에서 또래나 선배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 교사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 지역사회 내 또래나 성인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공통 공통 공통
	폭력 목격 경험	- 피학대 경험 형제자매 유무	공통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 목격 경험 여부 및 빈도, 목격 장소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 향후 아동 학대 신고처	초고이상용

주 1) 초저용 : 초등학교 1~3학년용 설문

주 2) 초고이상용 : 초등학교 4학년 이상용 설문

주 3) 공통 : 초저용과 초고이상용 설문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4.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결과

가. 아동학대 발생률 산정기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하기 위하여 Straus와 그의 동료들(1998)이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척도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척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CTSPC는 비교적 여러 국가에서 아동학대의 측정에 활용되고 있는 척도이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CTSPC를 이용한 결과는 UNICEF(2010) 등의 국제기구나 여성가족부(2010) 등의 정부기구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CTSPC는 세 가지 차원의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관련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 학대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아동학대 유형 내에서는 문항별로 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 등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응답은 1년 안에 얼마나 일어났는지 혹은 1년 이전에도 일어났는지 여부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CTSPC로 조사된 문항을 통해서는 연간 발생률, 평생 발생률, 연간 빈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TSPC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대상별 아동학대 발생률이다.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학대 발생률, 만 7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직접 보고한 아동학대 발생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양육자와 아동의 응답을 이용하여 만 0세 이상 18세 미만의 전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하였다. 전체아동 발생률은 미취학 아동(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은 부모의 대리응답을 기준으로 하고 취학아동(만 7세부터 만 18세)은 아동의 자기기입식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전체 아동 학대 발생률을 구하였다.

<표 III-4-1> 아동학대 발생률의 산정기준

기준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주양육자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	부모 이외의 양육자 포함
	아동	만 7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자기기입식 설문이 가능한 아동
학대기준	제한적 기준	협의를 아동학대 기준	심각한 학대만 포함
	포괄적 기준	광의의 아동학대 기준	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 포함
학대유형	신체	신체적 학대 발생	제한적 기준
	정서	정서적 학대 발생	제한적 기준
	방임	방임 발생	제한적 기준
기간	연간 발생	지난 1년간 발생 여부	
	평생 발생	지난 1년과 이전의 발생 여부 포함	

로 하여 높은 동의율을 보인 요인을 '심각한 학대'만 포함한 제한적인 아동학대 기준으로, 그 외의 요인을 '경미한 학대'까지 포함한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산출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협의의 아동학대를 기준으로 한 아동학대 발생률을 의미하고,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산출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광의의 아동학대를 기준으로 한 아동학대 발생률을 의미한다. 여기서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은 아동학대 위험요인이 포함된 양육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과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산정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그 의미와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기준을 모두 보고하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많은 사람들이 학대로 인식하는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을 사용하였다.

셋째는 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이다. 이것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발생률로 나눌 수 있다. 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도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과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산정한 유형별 아동학대에는 정서적 학대 2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방임 2문항이 각각 사용되었다.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에서는 정서적 학대 5문항, 신체적 학대 13문항, 방임 4문항이 사용되었다⁸⁾. 공식적인 학대 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 역시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에 포함되는 문항들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간별 아동학대 발생률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과 평생 아동학대 발생률로 나눌 수 있다.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평생 아동학대 발생률은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 이전'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하였으나, '지난 1년 이전'의 아동학대 발생은 일종의 회고조사(recall survey)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평생 아동학대 발생률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아동학대 척도의 기초분석

1) 행위별 발생여부: 천 명당 발생률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하기 전에 각 항목별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비폭력적 혼육을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척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하므로, 아래의 결과와 아동학대 발생률과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각 문항의 발생정도를 천명당 발생률로 변환하여 제시하였다. 비폭력적 혼육 전체, 정서적 공격 전체, 신체적 공격 전체, 방임 전체 등은 앞선 학대 기준에 관계없이 하위 문항 중 하나라도 발생을 한 경우를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률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7) 제한적 기준은 이후의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챕터에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8) 방임 문항 중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과반수 이하가 학대로 동의하여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에서도 제외되었음. 따라서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에서 방임은 이를 제외한 4가지 문항만 사용되었음.

<표 III-4-3>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아동 전체(만 7세-만 18세 미만)

(단위: 명)

	1,000명당 발생률	
	연간	평생
비폭력적 훈육 전체	817	836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셨다	781	802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350	373
나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353	382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54	176
정서적 공격 전체	465	502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404	439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27	148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74	85
나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87	98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77	89
신체적 공격 전체	304	378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126	169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35	164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101	156
나를 잡고 흔들었다	78	112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66	98
나를 꼬집었다	32	37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33	44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32	42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8	10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뺐다	19	30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13	19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8	11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6	8
방임 전체	315	347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70	201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174	183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12	14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44	47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155	171

먼저 초등학교 이상 전체 아동의 응답을 보면, 비폭력적 훈육은 지난 1년간 전체 1,000명 중 817명, 정서적 공격은 465명, 신체적 공격은 304명, 방임은 31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발생률은 이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연간 발생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4>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주양육자 전체(만 0세-만 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

(단위: 명)

	응답자		배우자	
	연간	평생	연간	평생
비폭력적 훈육 전체	777	794	679	710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747	766	648	687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68	189	112	132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81	199	118	139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81	206	135	165
정서적 공격 전체	409	430	302	327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354	373	243	263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24	140	93	105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64	73	27	35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70	78	38	46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72	85	26	38
신체적 공격 전체	301	345	207	249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51	181	105	125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22	149	57	80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07	140	61	89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91	110	47	66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54	76	33	50
아이를 꼬집었다	27	31	13	16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27	36	12	17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40	48	19	28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1	12	6	7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25	33	10	17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7	20	10	1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6	18	8	10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9	9	5	6
방임 전체	256	285	175	211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88	99	102	131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13	124	71	82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40	43	9	10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29	139	21	25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143	174	85	100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응답을 살펴보면 비폭력적 훈육은 지난 1년간 전체 1,000명당 777명, 정서적 공격은 409명, 신체적 공격 301명, 방임 25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아동이 보고한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II-4-5>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교육과정별 아동 응답(초저/초고/중등/고등 비교)

(단위: 명)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연간	평생	연간	평생	연간	평생	연간	평생
비폭력적 훈육 전체	879	881	811	829	792	817	799	826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셨다	838	848	782	799	764	790	749	778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424	425	393	408	341	360	244	301
나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411	426	378	391	348	371	274	341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89	195	188	201	140	159	102	150
정서적 공격 전체	523	535	489	518	459	495	396	462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457	469	412	444	398	432	355	415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54	164	142	158	138	159	77	113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66	73	61	69	87	96	76	99
나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97	108	79	80	101	111	71	89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84	93	83	93	88	101	52	68
신체적 공격 전체	393	422	354	421	270	347	211	328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202	225	154	189	91	133	66	137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59	166	166	182	119	148	99	160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127	147	144	194	85	147	51	136
나를 잡고 흔들었다	72	92	80	103	74	102	84	149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92	102	70	94	58	93	46	105
나를 꼬집었다	34	34	36	39	24	30	35	48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26	34	28	36	39	49	39	56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30	35	27	30	30	42	40	58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5	5	10	10	7	9	11	16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뒀다	12	17	15	17	26	38	23	44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9	9	16	19	15	22	11	24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7	7	7	8	7	10	11	18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4	4	11	11	5	7	5	10
방임 전체	273	292	265	290	277	310	265	304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88	205	166	190	180	217	143	184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153	157	164	173	184	191	187	207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2	2	14	15	9	15	22	24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28	29	41	42	48	53	58	60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156	160	158	172	163	177	144	173

위의 표는 앞서 보고한 아동응답을 아동의 교육과정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연간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공격, 신체적 공격은 학년이 높을수록 낮게 보고되었다. 방임은 학년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표 III-4-6> 행위별 천명당 발생률: 아동교육과정별 주양육자 응답(미취학/초등/중고등 비교)

(단위: 명)

	미취학아동 주양육자		초등아동 주양육자		중고등아동 주양육자	
	연간	평생	연간	평생	연간	평생
비폭력적 훈육 전체	679	685	842	853	795	827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662	667	813	828	755	787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82	187	215	228	115	156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37	143	230	241	173	206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68	174	233	254	144	189
정서적 공격 전체	368	371	455	469	400	441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324	327	387	402	348	383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19	123	150	157	105	137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39	40	80	86	70	86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48	51	88	92	71	86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77	80	89	99	54	77
신체적 공격 전체	338	343	354	393	225	303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210	214	174	203	85	137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28	136	153	170	89	14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21	125	143	176	65	120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102	104	108	125	68	10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64	69	69	82	35	77
아이를 꼬집었다	27	29	32	33	22	31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24	27	33	39	25	42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47	49	47	53	30	45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0	11	10	11	13	14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24	25	32	38	21	35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6	17	15	17	19	26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5	15	13	14	21	24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8	8	7	8	11	11
방임 전체	172	182	296	323	286	331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96	104	180	205	147	200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53	56	153	161	167	185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9	9	9	10	19	19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22	23	37	38	57	63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78	80	127	138	127	147

앞서 보고한 주양육자 응답을 아동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 방식이 변하는 것과 같이 주양육자의 행동도 아동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공격, 신체적 공격, 방임 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행위별 발생빈도: 천명당 발생률

앞에 제시된 결과들은 발생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에서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고할 것이다. 이 결과 역시 1,000명당 발생률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4-7> 행위별 발생 빈도(천명당 발생률): 아동 전체(만 7세-만 18세)

(단위: 명)

	지난 1년간 발생빈도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2번	3-5번	6-10번	11-20번	20번 넘게	
비폭력적 훈육 전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셨다	252	247	145	54	83	21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93	87	41	15	14	23
나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199	77	42	15	19	30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05	32	10	4	2	22
정서적 공격 전체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210	103	48	19	24	35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66	35	16	7	4	21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43	16	7	4	3	11
나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44	27	8	3	5	10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51	18	4	1	2	12
신체적 공격 전체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78	30	11	4	1	43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88	28	11	4	3	29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64	24	8	3	2	55
나를 잡고 흔들었다	53	17	4	1	2	34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33	24	7	2	0	32
나를 꼬집었다	24	5	1	1	0	6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25	4	4	1	1	11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21	8	2	1	0	10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6	1	1	0	1	2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뺐다	13	2	2	1	0	10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9	4	0	0	0	6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7	1	0	0	0	3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5	0	1	0	0	2
방임 전체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08	36	12	3	10	31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101	40	17	5	9	9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9	2	0	0	0	2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36	3	2	1	2	2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92	37	13	5	9	16

주 1) n=3,504명

아동 응답을 기준으로 한 행위별 발생빈도를 보면 비교적 가벼운 학대일수록 꾸준히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심각한 학대일수록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8> 행위별 발생 빈도(천명당 발생률): 주양육자 전체(만 0세-만 18세 아동 주양육자)

(단위: 명)

	지난 1년간 발생빈도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2번	3-5번	6-10번	11-20번	20번 넘게	
비폭력적 훈육 전체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229	219	130	81	88	18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85	48	22	6	5	21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94	50	24	8	6	18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12	46	15	4	3	25
정서적 공격 전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58	87	56	30	23	19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62	30	19	10	4	16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44	13	5	1	1	8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40	22	6	1	1	8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52	15	3	1	1	13
신체적 공격 전체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85	39	15	7	3	31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73	28	14	4	2	28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66	23	11	4	3	33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69	15	5	2	0	19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32	12	7	1	2	22
아이를 꼬집었다	19	5	1	1	0	5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9	7	1	1	0	9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27	8	3	1	0	8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9	2	1	0	0	1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19	4	2	0	0	8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1	3	2	1	1	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3	2	1	0	0	2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6	2	1	0	0	1
방임 전체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98	28	5	3	10	31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74	32	14	3	6	10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11	2	0	0	0	1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29	8	2	0	1	3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75	23	7	4	3	12

주 1) n=5,051명

주양육자 응답을 기준으로 한 행위별 발생 빈도 역시 아동 응답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정서적 공격, 신체적 공격 영역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학대일수록 꾸준히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임 중에서는 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가 가장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아동학대 발생률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보고한 대상자에 따라 아동, 주양육자로 나눌 수 있고, 학대기준에 따라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과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 학대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 발생 기간에 따라 연간학대, 평생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아동이 보고한 아동학대 발생률

아동이 보고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지난 1년 혹은 지난 1년 이전의 기간 동안 같이 거주하는 어른들이 본인에게 특정한 행동들을 행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산정하였다. 응답 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9>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제한적 기준): 아동 응답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 유형			전체학대
		신체	정서	방임	
초	초저	7.0	12.0	18.9	28.8
	초고	6.8	11.7	17.2	27.9
	전체	6.9	11.8	18.0	28.3
중·고	중등	7.4	13.0	18.5	29.4
	고등	6.7	9.5	15.5	23.7
	전체	7.1	11.4	17.1	26.8
전체		7.0	11.6	17.5	27.5

주 1)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미취학 아동은 제외되었음.

2) n=3,504명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아동이 직접 응답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 전체 아동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7.5%였다. 즉, 1년 동안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100명 중 27.5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7%, 정서적 학대는 11.6%, 방임은 17.5%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중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2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4-10>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포괄적 기준): 아동 응답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 유형			전체학대
		신체	정서	방임	
초	초저	39.3	52.3	27.3	65.0
	초고	35.4	48.9	26.5	63.8
	전체	37.3	50.5	26.9	64.4
중·고	중등	27.0	45.9	27.7	59.4
	고등	21.1	39.6	26.5	53.6
	전체	24.3	43.0	27.1	56.7
전체		30.3	46.5	27.0	60.3

주 1)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미취학 아동은 제외되었음.

2) n=3,504명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아동이 직접 응답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의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아동이 보고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60.3%였다. 즉, 1년 동안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양육방식을 경험한 아동이 100명 중 60.3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30.3%, 정서적 학대는 46.5%, 방임은 27.0%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학대가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에 대한 학대가 5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학대 발생률

<표 III-4-11>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제한적 기준): 주양육자 응답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 유형			전체학대
		신체	정서	방임	
미취학 아동 주양육자		7.4	9.2	10.2	19.9
초등 아동 주양육자	초저	7.0	11.5	18.5	29.4
	초고	10.7	13.4	18.2	30.6
	전체	8.9	12.5	18.4	30.0
중고등 아동 주양육자	중등	6.7	11.1	16.9	27.7
	고등	7.2	8.3	13.1	21.4
	전체	6.9	9.8	15.2	24.8
전체		7.7	10.5	14.8	25.1

주 1) n=5,051명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지난 1년 혹은 지난 1년 이전의 기간 동안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양육하는 아동에게 특정한 행동들을 행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산정하였다.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주양육자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1%였다. 즉, 1년 동안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100명 중 25.1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이 응답한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의 발생률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거의 유사한 정도로 조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7.7%, 정서적 학대는 10.5%, 방임은 14.8%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아동학대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1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4-12>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포괄적 기준): 주양육자 응답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 유형			전체학대
		신체	정서	방임	
미취학 아동 주양육자		33.8	36.8	13.4	50.5
초등 아동 주양육자	초저	36.2	43.7	26.1	60.6
	초고	34.6	47.3	26.9	61.0
	전체	35.4	45.5	26.5	60.8
중고등 아동 주양육자	중등	25.8	44.5	26.1	58.8
	고등	18.7	34.7	23.5	50.2
	전체	22.5	40.0	24.9	54.8
전체		30.1	40.9	22.1	55.6

주 1) n=5,051명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주양육자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55.6%였다. 즉, 1년 동안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양육방식을 경험한 아동이 100명 중 55.6명이라는 것이다. 이 수치는 아동이 보고한 포괄적 기준의 아동학대 발생률과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30.1%, 정서적 학대는 40.9%, 방임은 22.1%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학대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에 대한 학대가 5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발생률

여기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이상 아동들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합산하여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하였다. 미취학 아동들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자기보고식의 설문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였고, 초등학교 이상 아동들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들의 자기보고 결과를 사용하여 전체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표 III-4-13>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 유형			전체학대
		신체	정서	방임	
미취학 ¹⁾		7.4	9.2	10.2	19.9
초	초저	7.0	12.0	18.9	28.8
	초고	6.8	11.7	17.2	27.9
	전체	6.9	11.8	18.0	28.3
중·고	중등	7.4	13.0	18.5	29.4
	고등	6.7	9.5	15.5	23.7
	전체	7.1	11.4	17.1	26.8
전체		7.1	10.9	15.4	25.3

주 1) 미취학 아동 응답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한 결과임.

2)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

3) n=4,965명

우리나라의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출한 결과 25.3%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에서는 방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신체적 학대 발생률은 7.1%, 정서적 학대는 10.9%, 방임은 15.4%였다.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취학 아동의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이 19.9%로 가장 낮았고, 중학생의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이 29.4%로 가장 높았다. 미취학 아동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방임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초등학생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아동학대 유형의 구성비: 중복학대 발생률

아동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전체 아동학대 중 중복해서 나타나는 학대 유형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을 제시할 것이다

<표 III-4-14> 연간 중복학대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단일·중복 발생 유형							전체
	1가지			2가지			3가지	
	신체	정서	방임	신체+정서	신체+방임	정서+방임	신체+정서+방임	
미취학	2.7	4.6	7.0	2.5	1.0	1.0	1.2	19.9
초등	2.4	5.8	13.3	2.1	0.8	2.4	1.5	28.3
중고등	2.4	5.1	12.5	2.2	0.5	2.1	2.0	26.8
전체	2.5	5.2	11.2	2.3	0.8	1.9	1.7	25.3

주 1) 미취학 아동 응답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한 결과임.

2)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

3) n=4,965명

우리나라의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을 25.3%로 보았을 때, 중복학대를 고려한 아동학대 유형의 구성은 <표 III-4-14>와 같다. 분석 결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방임에 비해 중복해서 일어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60% 이상은 중복학대를 통해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7.1% 중 1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는 2.5%, 2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3.1%, 3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1.6%였다. 둘째, 정서적 학대의 50% 이상은 중복학대를 통해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10.9% 중 1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는 5.2%, 2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4.2%, 3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1.6%였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20% 이상은 중복학대를 통해 나타났다. 방임 15.4% 중 1가지만 일어나는 경우는 11.1%, 2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2.7%, 3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1.6%였다.

5) 성학대(성추행·성폭행) 경험 여부

마지막으로 주양육자에게 아동의 성학대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방식은 자기기입식 응답 방식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게 가족이나 가족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성학대라는 민감한 주제의 특성상 자기기입식 응답의 결과는 실제 발생률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발생률 산정이 아닌 응답 빈도에 대한 분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표 III-4-15> 아동의 성추행 경험 여부(주양육자 응답)

(단위: %)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음	1년 이전에 발생	지난 1년 안에 한 번 발생	지난 1년 안에 한 번 넘게 발생	모름/무응답	전체
미 취 학	99.9	0.0	0.0	0.0	0.1	100.0
초등학교 저학년	99.9	0.0	0.0	0.0	0.1	100.0
초등학교 고학년	99.4	0.4	0.0	0.0	0.2	100.0
중 학 생	99.3	0.2	0.0	0.0	0.5	100.0
고 등 학 생	99.1	0.4	0.0	0.0	0.4	100.0
전 체	99.6	0.2	0.0	0.0	0.3	100.0

주 1) n=5,051명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의 99.6%가 성추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년 안에 성추행이 발생한 경험은 아무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1년 이전에 발생했었다는 응답은 전체 0.2%였고, 초등학교 고학년 0.4%, 중학생 0.2%, 고등학생 0.4%였다.

<표 III-4-16> 아동의 성폭행 경험 여부(주양육자 응답)

(단위: %)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음	1년 이전에 발생	지난 1년 안에 한 번 발생	지난 1년 안에 한 번 넘게 발생	모름/무응답	전체
미 취 학	99.9	0.0	0.0	0.0	0.1	100.0
초등학교 저학년	99.6	0.3	0.0	0.0	0.1	100.0
초등학교 고학년	99.5	0.4	0.0	0.0	0.2	100.0
중 학 생	99.4	0.0	0.0	0.0	0.5	100.0
고 등 학 생	99.4	0.4	0.1	0.0	0.2	100.0
전 체	99.6	0.2	0.0	0.0	0.2	100.0

주 1) n=5,051명

지난 1년간 성폭행 경험이 발생한 경우는 0.2%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이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0.3%, 초등학교 고학년 0.4%, 고등학생 0.4%로 나타났다.

라. 아동학대의 주요 행위자 분석

본 연구는 주양육자와 아동과의 갈등 상황에서 주양육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양육자가 대응하는 방식은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공격, 신체적 공격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비폭력적 훈육, 신체적 공격과 정서적 공격을 주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1) 비폭력적 훈육 행위자

<표 III-4-17> 비폭력적 훈육의 주요 행위자

(단위: %)

	부모		조부모				친인척			모름 /무응답	전체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기타 친인척		
초등	8.2	87.0	0.6	2.6	0.1	0.4	0.0	0.2	0.0	0.8	100.0
중고등	15.8	81.0	0.5	1.4	0.2	0.4	0.1	0.1	0.2	0.4	100.0
계	12.2	83.8	0.6	1.9	0.1	0.4	0.1	0.1	0.1	0.6	100.0

주 1) n=2,932명

조사대상 아동에게 같이 사는 어른 중에 아동 자신이 잘못된 상황에서 비폭력적 훈육을 주로 하는 사람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모가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12.2%, 어머니가 83.8%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9)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공격, 신체적 공격에 해당하는 문항은 <표 III-4-2> 아동학대 발생률 산정 항목 참고

2)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 행위자

<표 III-4-18>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의 주요 행위자

(단위: %)

	부모		조부모				친인척			모름 /무응답	전체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기타 친인척		
초등	10.3	86.1	0.3	1.8	0.0	0.2	0.0	0.0	0.2	1.0	100.0
중고등	17.8	79.6	0.4	1.1	0.1	0.2	0.0	0.0	0.1	0.6	100.0
계	14.1	82.8	0.3	1.5	0.1	0.2	0.0	0.0	0.1	0.8	100.0

주 1) n=2,036명

이번에는 같이 사는 어른 중에 아동 자신이 잘못된 상황에서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을 주로 하는 사람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14.1%, 어머니가 82.8%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폭력적 훈육에 비해 아버지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대 발생 여부에 따른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 행위자

<표 III-4-19> 학대 발생 여부에 따른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의 주요 행위자

(단위: % / 명)

		부모		조부모				친인척			모름 /무응답	전체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기타 친인척		
학대 미경험	초등	9.2	87.1	0.0	2.0	0.0	0.3	0.0	0.0	0.2	1.2	100.0 (588)
	중고등	13.4	84.3	0.2	1.1	0.0	0.3	0.0	0.0	0.0	0.6	100.0 (626)
	전체	11.4	85.7	0.1	1.6	0.0	0.3	0.0	0.0	0.1	0.9	100.0 (1,214)
학대 경험	초등	11.9	84.9	0.5	1.5	0.0	0.0	0.0	0.0	0.5	0.7	100.0 (403)
	중고등	24.5	72.8	0.7	1.2	0.2	0.0	0.0	0.0	0.0	0.5	100.0 (416)
	전체	18.3	78.8	0.6	1.3	0.1	0.0	0.0	0.0	0.2	0.6	100.0 (819)

주 1) 학대 경험 및 미경험 여부는 제한적 기준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였음

2) n=2,033명

신체적 공격 및 정서적 공격의 행위자를 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학대 미경험 집단의 경우 어머니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공격 비율이 85.7%였고, 초등학생은 87.1%, 중고등학생은 84.3%였다. 학대 경험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체적·정서적 공격 비율이 78.8%였고, 초등학생은 84.9%, 중고등학생은 72.8%였다. 반면 아버지의 신체적·정서적 공격 비율은 학대 미경험 집단에서 11.4%였고, 학대 경험집단에서는 18.3%였다. 특히 중고등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신체적·정서적 공격 비율은 학대 미경험 집단이 13.4%, 학대 경험집단이 24.5%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마. 아동학대 발생의 영향 요인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영향 요인은 제한적 기준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¹⁰⁾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거주 지역, 지역크기,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특성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가) 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차이

<표 III-4-20> 사회경제적 특성(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거주 지역 (권역)	서울·인천	1,151	31.2	$\chi^2=30.031^{***}$
	경기	1,281	22.3	
	대전·충북·충남	533	24.6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1,264	24.5	
	광주·강원·전북·전남·제주	737	22.8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거주 지역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 발생률(31.2%)을 나타냈다. 경기지역은 22.3%, 대전·충북·충남 지역은 24.6%,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은 24.5%, 광주·강원·전북·전남·제주 지역은 22.8%로 나타났다.

나) 지역크기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차이

지역크기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학대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29.2%), 중소도시(22.5%), 농어촌(21.4%) 등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10) 아동학대 발생률은 개인 단위의 아동학대 발생 여부(발생·미발생)의 비율로 도출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의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명목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정으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카이스퀘어는 사후검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위요인 간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적 검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표 III-4-21> 사회경제적 특성(지역크기)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지역크기	대도시	2,168	29.2	$\chi^2=32.465^{**}$
	중소도시	2,051	22.5	
	농어촌	746	21.4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차이

<표 III-4-22> 사회경제적 특성(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26	28.8	$\chi^2=11.536^{***}$
	201-400만원	2,868	24.2	
	401만원 이상	930	25.5	

주 1) n=4,824명

2) * $p<.05$, ** $p<.01$, *** $p<.001$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p<0.001$). 200만원 이하(28.8%)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00만원(24.2%), 401만원 이상(25.5%) 등은 200만원 이하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다.

라)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표 III-4-23>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가구의 경제적 지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299	32.6	$\chi^2=12.331^{***}$
	차상위 가구	102	32.7	
	일반 가구	4,566	24.6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32.6%)와 차상위 가구(32.7%)가 일반가구(24.6%)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주양육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표 III-4-24> 사회경제적 특성(주양육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양육자의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고용주	531	27.1	$\chi^2=12.755^{**}$
	임금 근로자	1,503	28.1	
	무급 가족종사자	104	26.0	
	실업자	91	26.4	
	비 경제활동 인구	2,735	23.3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주양육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임금 근로자의 아동학대 발생률(28.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고용주의 비율(27.1%)이 높았다. 무급 가족종사자(26.0%), 실업자(26.4%)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비 경제활동 인구(23.3%)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주양육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주양육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주양육자 연령대, 주양육자 학력, 주양육자 결혼상태, 주양육자 성별, 가구 유형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을 살펴볼 것이다.

가) 주양육자의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25>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양육자 연령대	20대 이하	125	10.4	$\chi^2=23.792^{***}$
	30대	1,972	23.6	
	40대	2,404	27.0	
	50대	294	28.9	
	60대 이상	149	23.3	

주 1) n=4,944명

2) * $p<.05$, ** $p<.01$, *** $p<.001$

주양육자의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20대 이하 집단의 발생률은 10.4%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30대는 23.6%, 40대는 27.0%, 50대는 28.9%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집단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케이스 수가 적어서인지 실제 낮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나) 주양육자의 학력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26>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학력)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양육자 학력	초등학교 이하	138	24.1	$\chi^2=1.898$
	중·고등학교	2,708	26.0	
	대학 이상	2,110	24.3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주양육자의 학력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이하(24.1%), 중·고등학교(26.0%), 대학 이상(24.3%) 집단 모두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25.3%)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다) 주양육자의 결혼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27>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결혼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양육자 결혼상태	미혼	2	50.0	$\chi^2=13.735^{**}$
	유배우자	4,473	24.5	
	사별	176	27.3	
	별거·이혼	299	33.8	

주 1) n=4,950명

2) * $p<.05$, ** $p<.01$, *** $p<.001$

주양육자의 결혼 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별거·이혼 중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였다. 유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사례수가 너무 작아서 비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주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28> 주양육자 특성(주양육자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양육자 성별	남자	515	23.0	$\chi^2=1.606$
	여자	4,450	25.5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주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 가구원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29> 주양육자 특성(가구원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가구원 수	2명	175	30.9	$\chi^2=15.873^{***}$
	3명	1,310	21.5	
	4명	2,674	26.0	
	5명 이상	805	27.7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가구원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가구원 수가 2명인 집단(30.9%)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5명 이상(27.7%)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4명인 집단(26.0%)은 전체 아동학대 평균(25.3%)에 근접해 있었고, 3명인 집단(21.5%)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바) 가구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30> 주양육자 특성(가구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가구 유형	양친+자녀	4,224	24.6	$\chi^2=11.345^*$
	한부모+자녀	368	32.3	
	조부모+양친+자녀	201	25.4	
	조부모+한부모+자녀	61	27.9	
	조부모+손자녀	104	26.9	
	기타	6	16.7	

주 1) n= 4,965

2) * $p<.05$, ** $p<.01$, *** $p<.001$

가구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24.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부모-아동 가족의 발생률도 25.4%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기타 제외). 반면,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발생률(32.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의 아동학대 발생률(33.3%)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동의 아동학대 발생률(2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아동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아동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의 성적, 성별, 연령대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을 살펴볼 것이다.

가) 아동의 전과목 성적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31> 아동 특성(성적)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구 분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아동의 전과목 성적	잘 함	1,334	23.5	$\chi^2=30.069^{***}$
	중 간	1,177	28.9	
	못 함	194	41.2	

주 1) n=2,704명

2) * $p<.05$, ** $p<.01$, *** $p<.001$

아동의 전과목 성적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공부를 잘한다고 응답한 아동(23.5%)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응답한 아동(41.2%)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평균(25.3%)에 비교해서도 공부를 못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아동학대 발생률(41.2%)의 발생률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아동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32> 아동 특성(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아동 성별	남 자	2,595	25.9	$\chi^2=.479$
	여 자	2,370	25.1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아동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33> 아동 특성(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아동 연령대	미취학 아동	1,461	19.8	$\chi^2=41.569^{***}$
	초등학교 저학년	794	28.8	
	초등학교 고학년	835	27.9	
	중학생	1,020	29.4	
	고등학생	857	23.7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앞서 제시하였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미취학 아동의 발생률(19.8%)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학생의 발생률(29.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거주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거주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주택 유형, 주택의 점유 형태, 주택의 방 수 등의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발생률을 살펴볼 것이다.

가) 주택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34> 거주 특성(주택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택 유형	일반단독	1,301	26.4	$\chi^2=4.811$
	다가구·다세대·연립	1,165	26.5	
	아파트(영구임대포함)	2,434	24.0	
	기타	67	29.9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거주 주택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35> 거주 특성(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택 점유 형태	자 가	2,773	23.7	$\chi^2=38.828^{***}$
	전 세	1,734	25.9	
	보증부 월세	262	26.0	
	월 세	127	47.2	
	기 타	70	32.9	

주 1) n=4,965명

2) * $p<.05$, ** $p<.01$, *** $p<.001$

거주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자가의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23.7%)이 가장 낮았고, 보증부 월세(26.0%)보다 약간 높았지만 전체 평균(25.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례수가 작은 월세(47.2%)와 기타(32.9%)의 경우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 주택의 방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의 차이

<표 III-4-36> 거주 특성(주택의 방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

(단위: 명 / %)

		사례수	아동학대 발생률	평균차이검증
주택의 방 수	2개 이하	1,229	29.7	$\chi^2=19.101^{***}$
	3개	3,444	23.5	
	4개 이상	292	27.4	

주 1) n= 4,965

2) * $p<.05$, ** $p<.01$, *** $p<.001$

주택의 방 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방이 3개인 경우의 아동학대 발생률(23.5%)이 가장 낮았고, 2개 이하인 경우의 아동학대 발생률(2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개 이상인 경우(27.4%)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바. 아동학대 발생률의 국제비교

아동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각 국가마다 법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아동학대를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를 공통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발생률(child maltreatment incidence)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학대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는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어 국가 비교에 적합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UN아동기금(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과 같은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의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된 자료들과 비교가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CTSPC를 통해 국가별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별 항목들(items)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다. 몇몇 문헌들에는 CTSPC의 항목별 발생비율을 보고한 자료들이 존재한다(Straus et al, 1998; WHO, 2002). 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를 손으로 때린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들을 각 국가들 간 직접 비교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양육 방식 혹은 학대 방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특정 항목들을 간추려서 계산한 아동학대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과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을 마련하여 각기 다른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한 것처럼, 국제비교 자료에서도 CTSPC의 특정 항목만을 선택하여 발생률을 보고한 자료가 존재한다(UNICEF, 2010). 이것은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서로 다른 척도로 결과를 비교했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과 발생률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점과 여러 가지 발생률 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위하여 산출하는 아동학대 발생률은 단지 각 국가의 상황을 비교하는 수치로서의 의미 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CTSPC의 일부 항목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WHO(2002)와의 비교를 진행하고, 몇몇 항목들을 계산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한 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UNICEF(2010)와 비교를 진행하였다.

1) 아동학대 국가 간 비교: 항목별 비교¹¹⁾

CTSPC의 개별 항목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WHO(2002)에서 진행된 것으로 두 가지 원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여러 나라의 학자들로 구성된 가정폭력 국제비교연구(The World Studies of Abuse in the Family Environment; WorldSAFE)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를 개발한 학자들의 단일 국가 연구이다(Ramiro et al., 2000; Straus et al., 1998). 국가비교연구(WorldSAFE)의 조사대상은 15세에서 49세 미만의 칠레, 이집트, 인도, 필리핀 거주여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사람이다(WHO, 2002). 단일국가연구의 조사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을 가진 미국 거주 부모 중 한 명이었다(Straus et al., 1998). 국가비교 자료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본 자료도 주양육자의 응답을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을 가진 한국 거주 주양육자 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4-37> 아동학대 척도의 항목별 국제비교(WHO, 2002)

(단위: %)

	WorldSAFE study(2000)				미국 ^{c)}	한국 ^{d)}
	칠레	이집트	인도 ^{a)}	필리핀		
비폭력적 훈육						
잘못한 일 설명	91	80	94	90	94	75
특권 빼앗기	60	27	43	3	77	18
다른 할 일을 줌	71	43	27	66	75	17
타임 아웃	37	50	5	58	75	18
심각한 신체적 공격						
벨트와 같은 물체로 엉덩이 이외의 신체부위를 가격	4	26	36	21	4	5
아이를 발로 찰	0	2	10	6	0	4
아이에게 화상을 입힘	0	2	1	0	0	2
아이를 마구 때림	0	25	— ^{b)}	3	0	3
총이나 칼로 위협	0	0	1	1	0	1
목을 조름	0	1	2	1	0	2
가벼운 신체적 공격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림	51	29	58	75	47	15
벨트와 같은 물체로 엉덩이 때림	18	28	23	51	21	11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를 손으로 때림	13	41	58	21	4	3
아이를 흔듦 ^{e)}	39	59	12	20	9	9
아이를 꼬집음	3	45	17	60	5	3
정서적 공격						
아이에게 소리 지르거나 고함을 칩	84	72	70	82	85	35
아이에게 나쁜 말을 퍼부음	3	51	— ^{b)}	0	24	6
내쫓겠다고 위협	5	0	— ^{b)}	26	6	7

a) 교외(rural) 지역

b) 설문에 해당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음

c) Straus et al.(1998)

d) 아동학대실태조사 주양육자용 설문

e) 만 2세 이상 아동

11) WHO(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국가 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폭력적 훈육의 경우 우리나라의 발생률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에게 징벌로서 TV시청이나 오락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등은 미국의 경우 77%, 칠레의 경우 60%이나 우리나라는 18%로 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아이를 잠시 방으로 들여보내거나 한 곳에서 머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타임아웃의 경우에도 미국은 75%, 필리핀은 58%, 칠레는 37%였지만, 한국은 18%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심각한 신체적 공격의 경우에는 6개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의 발생률을 보였다. 먼저 벨트와 같은 물체로 엉덩이 이외의 신체부위를 가격하는 행동은 5%정도 발생하였으며 미국, 칠레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이를 발로차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마구 때리거나, 총이나 칼로 위협하거나, 목을 조르는 행동 등은 칠레와 미국에서 1% 미만이 발생하였으나 한국은 14% 가량 발생하여 심각한 학대가 이들 국가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집트, 인도, 필리핀에 비해서는 대부분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가벼운 신체적 공격은 6개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맨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벨트와 같은 물체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 등은 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아이를 흔들거나, 꼬집는 행동 등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칠레, 이집트, 인도, 필리핀 보다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격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행동은 다른 국가들에서 70-80% 이상인 것에 비해 한국은 35%로 나타났다.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이집트(51%), 미국(24%)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필리핀(1% 미만)과 칠레(3%)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2) 아동학대 국가 간 비교: 발생률 비교¹²⁾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는 비폭력적 훈육, 신체적 공격, 정서적 공격, 방임 등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비폭력적 훈육을 제외한 22개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11개 항목을 사용하였고,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으로 22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UNICEF(2010)에서 조사한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MICS)는 1995년부터 각 나라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발한 조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하는 MICS4는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후진국과 중진국 등의 50여 개국에서 조사가 되었다. 조사대상은 만2세에서 만14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어머니이며 가정 내에서 1달 이내에 특정 아동양육 행동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동양육 행동의 예시는 CTSPC의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공격, 신체적 공격의 일부 문항이 사용되었다.

MICS의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조사대상기간(reference period)이다. MICS는 조사대상기간이 '지난 1달'인 반면 본 연구는 '지난 1년'이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지난 1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답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손바닥으로 아이를 때린다고 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MICS에서는 지난 1년 간 한 번 발생하였더라도 지난 1달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의 차이로 인한 발생률의 과소추정 가능성을 염두에

12) UNICEF(2010). Child disciplinary practices at home.

두어야 한다.

MICS의 아동학대 항목들은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경미한 학대, 심각한 학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두 가지를 비교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가 포함되었다. 경미한 신체적 학대에는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등이 포함되었다. 심각한 학대에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정서적 학대 2문항, 경미한 신체적 학대 3문항, 심각한 신체적 학대 2문항으로 각 국가들을 비교한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하는 방식은 각 유형의 아동학대를 구성하는 항목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표 III-4-38> MICS에 포함된 CTSPC 항목 구성

비폭력적 훈육		
	세부 분류	문항
1	-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2	-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정서적 학대		
	세부 분류	문항
4	-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5	-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신체적 학대		
	세부 분류	문항
6	경미한 학대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7	경미한 학대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8	경미한 학대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9	심각한 학대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0	심각한 학대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후진국(under-developed countrie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국가군들의 중위수(median)들과 비교해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서적 학대는 82.2%, 개발도상 국가들은 57.8%, 기타 국가들은 75.9%인 반면, 한국은 41.9%로 낮게 나타났다. 경미한 신체적 학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64.3%, 개발도상 국가들은 45.5%, 기타국가들은 57.6%였고, 한국은 24.7%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43.1%, 개발도상 국가들은 8.9%, 기타 국가들은 30.6%였고, 한국은 6.1%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 기타 중·후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발생률 비교가 진행된다면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의 수준을 가늠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III-4-39> 아동학대 발생률 국가비교(UNICEF, 2010)

(단위: 년 / 명 / %)

국가	조사 연도	샘플 크기	학대 발생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미한 학대	심각한 학대
아프리카 국가들					
Burkina Faso	2006	4,233	83.4	51.9	37.1
Cameroon	2006	5,704	86.1	63.2	60.1
Co`te d'Ivoire	2006	6,321	87.1	69.9	36.9
Gambia	2005-06	4,703	75.0	64.7	52.6
Ghana	2006	3,915	83.8	60.5	43.3
Guinea-Bissau	2006	4,695	66.6	65.2	42.9
Sierra Leone	2005-06	6,016	82.3	63.8	51.8
Togo	2006	4,570	83.0	71.0	36.5
아프리카 국가 중위수		4,699	83.2	64.3	43.1
개발도상 국가들					
Albania	2005	2,478	11.8	46.3	8.9
Belarus	2005	3,090	77.4	47.5	10.6
Bosnia and Herzegovina	2006	2,857	27.1	20.0	6.1
Georgia	2005	4,306	58.2	45.5	21.2
Kazakhstan	2006	6,864	47.8	22.6	2.2
Kyrgyzstan	2005-06	3,335	40.9	35.5	4.9
Macedonia	2005	3,557	57.8	53.3	16.8
Montenegro	2005-06	1,177	55.0	41.7	7.6
Serbia	2005-06	3,903	62.2	51.3	10.1
Tajikistan	2005	5,178	69.4	54.3	19.2
Ukraine	2005	2,935	64.9	35.3	6.8
개발도상 국가 중위수		3,335	57.8	45.5	8.9
기타 국가들					
Belize	2006	1,017	51.0	48.2	31.3
Guyana	2006	3,001	64.2	51.5	40.7
Jamaica	2005	2,118	75.9	70.6	41.6
Trinidad and Tobago	2006	2,040	65.8	46.9	23.3
Iraq	2006	13,000	79.7	66.8	32.6
Syria	2006	12,663	83.1	74.2	28.9
Yemen	2006	2,845	92.3	81.4	61.0
Lao People's DR	2006	4,898	62.5	41.9	14.6
Vietnam	2006	2,433	89.7	55.4	29.3
기타국가 국가 중위수		2,845	75.9	57.6	30.6
한국	2011	5,051	41.9	24.7	6.1

자료: Akmatov K. M. (2011). Child abuse in 28 developing and transitional countries-results from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0. 219-227.

주 1) MICS4에서 조사된 국가의 조사대상기간(reference period)은 지난 1달이고, 본 조사의 기준시점은 지난 1년임.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이 짧으면 발생률이 더 낮게 보고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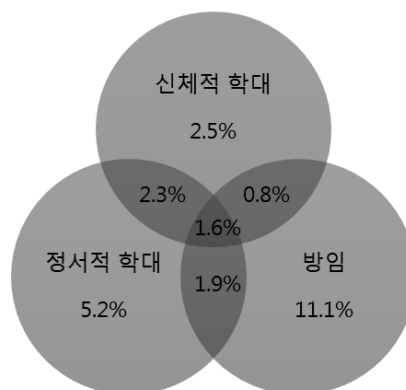
5. 영역별 분석결과

가. 분석개요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주양육자 및 아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다양한 영역을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두 집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경험집단, 정서적 학대 경험집단, 방임 경험집단의 결과를 제시하여 세 가지 학대경험 집단에 대한 비교도 용이하게 하였다. 여기에 연령집단을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차이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아동학대 경험여부는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은 비교적 많은 아동학대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문항만을 선정한 것으로 포괄적 아동학대 기준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제한적 기준으로 산출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면 아동학대 경험집단(25.3%)과 미경험집단(74.7%)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영역의 아동학대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바로 이러한 집단 비교를 의미한다.

유형별 아동학대 경험여부 역시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은 신체적 학대 7.2%, 정서적 학대 11.0%, 방임 15.6%였다. 이 세 기준의 총합이 25.3%를 초과하는 이유는 중복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형별 아동학대 분석에는 한 가지 유형만 발생한 집단, 두 가지 유형이 같이 발생한 집단,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발생한 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복학대를 고려한 아동학대의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I-5-1] 아동학대 발생률의 유형별 구성

- 주 1) 아동학대 발생률: 25.3%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
 2) 만 0세 - 만 6세: 주양육자 응답 기준, 만 7세 - 만 18세 미만: 아동 응답 기준
 3)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학대경험 여부 및 유형별 학대경험 여부에 따른 주양육자와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학대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유형별 학대경험여부에 따라 신체적 학대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 정서적 학대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 방임 경험집단과 미경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I-5-1> 아동학대 경험여부 및 유형별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 표(1)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집단별		유형별 아동학대 경험 집단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경험	경험	미경험	경험	미경험	경험	
미취학	80.1	19.9	92.6	7.4	90.8	9.2	89.8	10.2	100
초등	71.7	28.3	93.1	6.9	88.2	11.8	82.0	18.0	100
중고등	73.2	26.8	92.9	7.1	88.6	11.4	82.9	17.1	100
전체	74.7	25.3	92.9	7.1	89.1	10.9	84.6	15.4	100

주 1) 각 셀의 숫자는 그 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2)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

3) n=4,965명

그러나 위의 표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한 눈에 결과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간략한 방법으로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에는 크게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74.7%)과 경험 집단(25.3%)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험집단은 세 가지 학대를 모두 경험한 집단(25.3%),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7.1%),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10.9%), 방임을 경험한 집단(15.4%)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III-5-2> 아동학대 경험여부 및 유형별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 표(2)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집단별		유형별 아동학대 경험 집단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80.1	19.9	7.4	9.2	10.2	100
초등	71.7	28.3	6.9	11.8	18.0	100
중고등	73.2	26.8	7.1	11.4	17.1	100
전체	74.7	25.3	7.1	10.9	15.4	100

주 1) 각 셀의 숫자는 그 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2)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

3) n=4,965명

위 표에서 학대 경험 집단 구분은 아동 응답을 기준으로 한다. 아동 설문문의 경우에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결과이고, 주양육자 설문문의 경우에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의 결과이다.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가구 구성원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아동을 학대한 주양육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고 형식을 통하여 독자는 다음과 같이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과 경험 집단을 비교하고 전체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 유형별 비교를 통해 아동학대 집단 내에서의 세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 미경험집단과 전체집단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방식의 자료의 활용은 모두 독자의 몫이다.

나.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주양육자 응답결과 분석

1)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표 III-5-3> 가구유형

(단위:%)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구분	85.9	82.8	83.0	83.5	82.2	85.1
양친	6.7	9.5	9.7	9.4	11.4	7.5
한부모	4.0	4.1	3.1	3.0	3.9	4.0
조부모+양친	1.2	1.4	1.4	2.0	0.7	1.2
조부모+한부모	2.0	2.2	2.8	2.0	1.7	2.1
조부모	0.1	0.1	0.0	0.0	0.1	0.1
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양친부모가정(85.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82.8%)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양친부모가정(85.9%)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9.5%)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6.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한부모 가구(11.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주양육자 교육수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무학	0.9	0.6	1.1	0.4	0.4	0.8
초등학교	1.9	2.1	1.7	2.0	1.6	2.0
중학교	3.7	3.8	4.8	3.1	3.8	3.7
고등학교	50.3	52.2	49.3	48.4	57.3	50.8
초대졸	15.9	13.9	16.7	14.6	12.5	15.4
대졸	26.5	26.1	25.2	28.8	23.6	26.4
대학원	0.7	0.9	1.1	2.0	0.0	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주양육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50.8%)이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2.2%)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보다 고등학교 졸업(50.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졸 이하(무학에서 고등학교까지 합한 비율)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9.0%)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56.8%)에 비해 고졸 이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고졸 이하(56.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주양육자 혼인상태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혼	0.0	0.1	0.3	0.0	0.0	0.0
유배우	90.9	87.6	87.3	86.5	86.6	90.0
사별	3.4	3.8	4.5	4.1	3.5	3.6
별거/이혼	5.3	8.1	7.9	8.7	9.2	6.0
모름/무응답	0.2	0.5	0.0	0.7	0.7	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주양육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90.0%)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87.6%)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90.9%)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적었으나, 사별(3.8%) 혹은 별거나 이혼상태(8.1%)인 경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별거나 이혼상태(9.2%)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거주주택유형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일반단독주택	25.6	27.3	27.6	25.7	26.9	26.1
다가구·중·고층단독주택	5.8	5.7	6.2	6.7	6.4	5.8
다세대주택	5.5	8.0	10.1	9.4	9.7	6.2
연립주택	11.7	11.0	12.1	12.8	10.0	11.5
일반아파트	48.1	44.5	38.3	42.3	44.4	47.2
영구임대아파트	1.8	1.9	2.8	1.8	1.8	1.8
기타	1.3	1.6	2.6	1.3	0.8	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타: 점포주택 등 복합도용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등) 포함

2) n=4,965명

거주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아파트(47.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단독주택(26.1%), 연립주택(11.5%)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44.5%)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48.1%)에 비해 일반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일반아파트(44.0%)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주거위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지하층	0.6	0.6	0.3	0.6	0.8	0.6
반지하층	1.1	2.5	2.0	3.5	1.8	1.4
지상	98.2	96.7	97.7	95.7	97.0	97.8
옥탑	0.0	0.2	0.0	0.0	0.3	0.1
기타	0.1	0.1	0.0	0.2	0.1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주거위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상(97.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3.1%)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1.7%)에 비해 반지하층 이하(반지하층과 지하층을 합한 비율)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반지하층 이하(4.1%)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자가	57.1	52.2	43.9	47.4	53.7	56.0
전세	34.6	35.7	40.8	38.2	35.3	34.8
보중부 월세	5.2	5.4	6.2	5.7	5.0	5.3
월세	1.8	4.8	7.6	6.5	4.5	2.6
기타	1.3	1.8	1.4	2.2	1.6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56.0%)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2.2%)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57.1%)에 비해 자가인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 중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보다 자가(53.7%)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주택 방 개수: 응답 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1개	0.9	1.1	2.0	1.5	1.0	0.9
2개	22.4	28.0	32.4	26.7	28.8	23.8
3개	71.0	64.5	59.9	65.6	65.0	69.4
4개	5.3	5.6	5.4	5.3	4.7	5.4
5개	0.4	0.8	0.3	1.1	0.4	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주택 방 개수는 3개인 경우(69.4%)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4.5%)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71.0%)에 비해 방 개수가 3개인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1개와 2개를 합한 비율)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29.1%)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23.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방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34.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0> 주택 구조 및 성능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건고성/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양호	94.4	90.7	85.0	87.8	92.8	93.5
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 갖춤	95.2	90.7	86.4	88.2	91.5	94.1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적절치 않음	17.2	22.0	27.5	22.7	21.0	18.4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95.1	92.2	90.1	91.5	92.5	94.4

주 1) n=4,965명

주택구조 및 성능은 전체적으로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1> (작년)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100만원 이하	5.7	8.6	11.8	9.0	9.3	6.4
101-200만원	14.7	15.5	18.8	14.1	15.5	14.9
201-300만원	32.6	33.0	29.8	33.3	34.9	32.7
301-400만원	28.1	24.1	20.8	22.2	23.8	27.0
401-500만원	12.5	11.4	9.2	14.0	9.9	12.2
501만원 이상	6.4	7.3	9.5	7.5	6.6	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824명

작년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201만원-300만원(32.7%)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8.6%)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5.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1만원 이상'에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7.3%)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6.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100만원 이하'와 '501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2> 수급자 여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수급자	3.0	6.9	8.3	7.4	8.7	3.8
차상위	1.4	2.1	3.7	1.5	1.3	1.5
일반	95.6	91.1	88.1	91.1	89.9	94.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등						
수급자	6.1	8.2	12.5	7.8	9.9	6.7
차상위	2.0	2.4	1.8	2.1	2.7	2.1
일반	91.9	89.4	85.7	90.2	87.4	9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고등						
수급자	6.8	7.8	9.8	8.9	8.1	7.1
차상위	2.1	3.4	4.5	3.3	4.0	2.5
일반	91.0	88.8	85.7	87.8	87.9	9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94.7%, 91.2%, 90.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에 비해 ‘일반’이 적게 나타났으나,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인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일반’이 많이 나타났으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의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3> (작년)월 평균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액

(단위: 천원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433.8(312.1)	503.6(418.0)	500.6(394.3)	503.9(460.6)	457.9(487.8)	459.4(351.7)
초등	470.5(356.6)	464.0(390.6)	381.2(381.6)	551.6(484.8)	493.3(404.3)	468.0(367.5)
중고등	429.7(345.0)	395.3(368.2)	346.7(372.2)	374.3(407.2)	363.0(361.5)	420.2(350.3)
전체	443.7(341.7)	445.9(385.6)	405.8(475.6)	470.2(444.6)	438.8(383.5)	444.4(355.9)

주 1) <표 III-5-12>에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응답함.

2) n=247명

작년 월 평균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액은 평균 444.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445.9천원)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443.7천원)보다 조금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가구의 급여액(470.2천원)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가구의 급여액(405.8천원)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2) 가정생활 영역

가) 임신과 출산

<표 III-5-14> 조산(37주 이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4.6	5.6	7.5	8.7	3.9	4.8
초등	4.9	6.4	5.6	2.6	7.7	5.3
중고등	3.7	6.4	3.4	5.6	6.7	4.4
전체	4.4	6.2	5.3	5.3	6.5	4.8

주 1) n=4,943명

주양육자의 조산(37주 이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조산경험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2%)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4.4%)에 비해 조산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산 경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5> (출생 직후)아동의 치료 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3.0	5.3	6.7	9.2	1.3	3.4
초등	2.5	3.0	1.7	5.0	1.2	2.7
중고등	2.4	2.9	0.8	4.0	2.4	2.5
전체	2.6	3.5	2.8	5.7	1.7	2.8

주 1) n=4,932명

출생 직후, 아동의 치료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치료경험이 있는 아동이 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3.5%)이 그렇지 않은 아동(2.6%)에 비해 치료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치료를 경험한 비율(5.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6> (출생 직후)아동의 치료 기간

(단위: 일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15.0(20.5)	19.3(26.0)	8.6(8.6)	16.5(19.7)	40.5(69.7)	16.3(22.1)
초등	20.2(19.4)	7.1(13.8)	19.6(10.2)	3.5(6.1)	10.9(25.8)	16.1(18.7)
중고등	18.8(17.1)	11.2(16.3)	15.1(36.8)	13.1(21.2)	7.7(7.2)	16.5(17.0)
전체	17.9(19.0)	12.8(19.9)	11.3(9.4)	11.5(17.5)	13.3(25.5)	16.3(19.4)

주 1) <표 III-5-15>에서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응답함.

2) n=140명

아동의 출생 직후, 치료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16.3일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고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17.9일)이 경험한 아동(12.8일)보다 치료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치료기간(13.3일)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7> (출생 시)아동 몸무게

(단위: kg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3.2(0.4)	3.2(0.4)	3.2(0.4)	3.2(0.5)	3.2(0.4)	3.2(0.4)
초등	3.2(0.4)	3.3(0.3)	3.3(0.3)	3.3(0.4)	3.3(0.3)	3.2(0.4)
중고등	3.3(0.3)	3.2(0.3)	3.2(0.3)	3.2(0.3)	3.2(0.3)	3.2(0.3)
전체	3.2(0.4)	3.2(0.4)	3.2(0.4)	3.3(0.4)	3.2(0.3)	3.2(0.4)

주 1) n=4,789명

아동의 출생 시, 몸무게를 살펴본 결과 3.2kg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학대 경험 여부 및 학대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8> 자녀 임신계획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어머니만	1.5	2.9	3.4	2.8	2.9	1.9
아버지만	1.2	1.8	2.6	1.3	2.4	1.4
부모 모두	88.8	90.7	86.9	90.2	90.9	89.3
원치 않음	8.5	4.6	7.1	5.7	3.8	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자녀의 임신을 계획하거나 원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원한 경우(89.3%)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90.7%)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88.8%)에 비해 부모 모두 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모두 자녀를 원하지 않은 경우(7.5%)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8.5%)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4.6%)보다 자녀를 원하지 않았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어머니만, 아버지만, 원치 않음까지 합산한 비율)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13.1%)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나) 아동 특성

<표 III-5-19> (1-10세 아동 주양육자만 응답)아동의 예방접종 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미취학</u>						
필수 일부 못함	1.6	3.8	5.6	5.2	1.3	2.1
선택 일부 못함	8.8	20.8	22.4	22.4	19.5	11.1
모두 접종	89.6	75.3	72.0	72.4	78.5	86.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u>						
필수 일부 못함	0.6	1.5	4.0	0.0	0.0	0.8
선택 일부 못함	15.1	21.8	28.0	20.4	21.6	17.0
모두 접종	84.4	76.7	68.0	74.2	78.4	8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세에서 10세 사이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2,176명

1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이 제때 예방접종을 했는지 살펴본 결과, 선택항목과 필수항목을 모두 접종한 경우(86.8%, 82.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75.3%, 76.7%)이 그렇지 않은 아동(89.6%, 84.4%)보다 모두 접종한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수항목이나 선택항목 중 일부를 못한 경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78.4%, 78.5%)이 다른 유형에 비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모두 접종(78.5%, 78.4%)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0> (지난 1년 간)아동의 입원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7.8	9.4	16.4	12.3	6.3	8.1
초등	1.9	3.1	2.0	4.4	2.0	2.3
중고등	2.0	4.4	3.7	5.4	4.8	2.6
전체	3.8	5.1	7.1	6.8	4.0	4.1

주 1) n=4,965명

지난 1년 간, 아동의 입원경험을 살펴본 결과, 입원 경험이 있는 아동이 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5.1%)이 그렇지 않은 아동(3.8%)에 비해 입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7.1%)이 다른 유형에 비해 입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1> (지난 1년 간)아동의 입원 횟수

(단위: 회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1.6(1.6)	1.5(1.2)	1.4(1.0)	1.6(1.2)	1.3(0.6)	1.6(1.5)
초등	1.1(0.6)	1.2(0.7)	1.2(0.8)	1.0(0.0)	1.4(1.1)	1.1(0.6)
중고등	1.4(1.4)	1.4(1.0)	1.1(0.6)	1.1(0.5)	1.5(1.2)	1.4(1.2)
전체	1.5(1.4)	1.4(1.0)	1.3(0.9)	1.3(0.9)	1.4(1.0)	1.5(1.3)

주 1) <표 III-5-20>에서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응답함.

1) n=205명

지난 1년 간,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의 입원 횟수를 살펴본 결과, 1.5회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1.5회)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1.4회)에 비해 입원 횟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었다. 또한, 학대 유형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2> (지난 1년 간)아동의 입원 이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미취학</u>						
지병/질병	82.8	92.6	88.2	88.2	80.0	85.0
사고	3.2	7.4	11.8	11.8	20.0	4.2
기타	14.0	0.0	0.0	0.0	0.0	10.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u>						
지병/질병	47.8	66.7	100.0	62.5	66.7	55.3
사고	26.1	20.0	0.0	12.5	33.3	23.7
기타	26.1	13.3	0.0	25.0	0.0	2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등</u>						
지병/질병	53.8	72.7	40.0	54.5	80.0	62.5
사고	26.9	13.6	20.0	18.2	6.7	20.8
기타	19.2	13.6	40.0	27.3	13.3	1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표 III-5-20>에서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응답함.

2) n=205명

지난 1년 간, 입원 경험이 있는 아동의 입원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85.0%, 55.3%, 6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지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82.8%, 47.8%, 53.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사고로 입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3> (지난 1년 간)아동의 응급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8.6	11.9	16.7	16.3	7.9	9.3
초등	2.5	5.7	5.8	8.0	3.0	3.4
중고등	2.7	3.3	4.4	4.9	2.7	2.8
전체	4.4	6.2	8.6	8.8	3.8	4.9

주 1) n=4,965명

지난 1년 간, 아동의 응급실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4.9%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6.2%)이 그렇지 않은 아동(4.4%)에 비해 응급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8.8%)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8.6%)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4> (지난 1년 간)아동의 응급실 이용횟수

(단위: 회,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1.5(1.3)	1.5(1.2)	1.1(0.6)	1.7(1.3)	1.2(0.7)	1.5(1.2)
초등	1.3(0.7)	1.1(0.2)	1.0(0.0)	1.1(0.3)	1.0(0.0)	1.2(0.5)
중고등	1.3(1.0)	1.4(0.8)	1.1(0.4)	1.5(1.0)	1.1(0.4)	1.3(0.9)
전체	1.4(1.1)	1.3(0.9)	1.1(0.5)	1.5(1.0)	1.1(0.5)	1.1(0.6)

주 1) <표 III-5-23>에서 응급실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응답함.

2) n=244명

지난 1년 간, 아동의 응급실 이용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1.1회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1.4회)이 경험한 아동(1.3회)에 비해 이용횟수가 조금 많았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1.5회)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응급실 이용횟수가 많았다.

<표 III-5-25> 아동의 치과 검진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25.6	42.9	38.9	46.3	40.1	29.0
초등	48.4	57.2	58.9	64.8	51.5	50.9
중고등	35.8	47.4	44.4	53.1	46.1	38.9
전체	36.5	49.9	47.1	55.4	46.9	39.9

주 1) n=4,965명

아동의 치과 검진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검진 경험이 39.9%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49.9%)이 그렇지 않은 아동(36.5%)에 비해 치과 검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치과 검진경험(55.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6>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3.6(4.4)	5.6(4.9)	6.3(5.4)	6.5(5.0)	5.5(5.0)	4.1(4.6)
초등	3.2(3.8)	5.6(5.7)	6.3(4.7)	6.5(6.5)	5.5(5.4)	3.9(4.6)
중고등	2.2(3.3)	3.5(3.8)	4.2(4.9)	4.1(3.9)	3.3(3.7)	2.6(3.5)
전체	2.9(3.8)	4.8(4.9)	5.5(5.1)	5.5(5.3)	4.6(4.8)	3.4(4.2)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0점에서 36점 사이임(총 12개의 응답 합산).

2) 응답가능범위: 0점(전혀 없음)에서 3점(거의 항상 있었음)사이임.

3) n=4,699명

아동들의 행동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Gresham & Elliot(2008)의 사회적 기술 향상 척도(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SSIS)의 문제행동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이 보고한 자신의 문제행동 등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행동 총점과 문제행동 아동 비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12개 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로 0점에서 36점까지의 값을 갖는다. 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4.8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 응답은 2.9점이었고, 모두 '보통' 정도의 문제행동 수준에 해당되었다.

학대 유형별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5.5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응답결과는 4.6점이었고, 모두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수준이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연령대별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5.6점, 중고등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3.5점이었고, 모두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수준이었다.

<표 III-5-27>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총점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1.2(2.7)	1.8(3.1)	2.4(3.9)	2.0(3.3)	1.4(2.7)	1.3(2.8)
초등	1.1(2.6)	2.2(3.9)	2.2(3.0)	2.5(4.6)	2.2(3.4)	1.4(3.1)
중고등	0.7(1.7)	1.3(2.5)	1.4(3.0)	1.4(2.9)	1.4(2.8)	0.9(2.0)
전체	1.0(2.3)	1.7(3.3)	2.0(3.3)	1.9(3.7)	1.7(3.1)	1.2(2.6)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0점에서 30점 사이임(총 10개의 응답 합산).

2) 응답가능범위: 0점(전혀 없음)에서 3점(거의 항상 있었음)사이임.

3) n=4,699명

13) 원척도의 아동 진단 기준(Gresham & Elliot, 2008)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는 10개 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로 0점에서 30점까지의 값을 갖는다. 아동 학대 경험여부에 따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알아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은 1.7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수준은 1.0점이었고, 미국과 비교하면 모두 '보통'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 정도에 해당되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은 2.0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수준은 1.9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고한 수준은 1.7점이었고, 모두 '보통'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 정도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연령대를 보면 미취학아동은 1.8점, 초등학생은 2.2점, 중고등학생은 1.3점 순으로, 모두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

<표 III-5-28>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4.3	10.5	10.8	12.6	11.7	5.8
초등	2.4	12.1	15.2	16.6	12.2	5.2
중고등	3.5	6.0	13.5	6.5	5.6	4.2
전체	3.4	9.2	12.7	11.4	9.2	4.9

주 1)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의 비율임.

2) n=4,699명

주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보고한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을 절단점(cut-off value)에 의해 외현화 문제행동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분석하였다.

전체 아동 중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집계된 아동은 4.9%였다.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낸 아동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에서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9.2%)이 아동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3.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12.7%),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11.4%), 방임을 경험한 아동(9.2%) 순이었다. 또한, 아동의 연령별로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이 미취학아동(5.8%), 초등학생(5.2%), 중고등학생(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29>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2.8	4.4	7.9	5.5	2.8	3.2
초등	2.2	4.6	2.7	3.6	5.1	2.9
중고등	0.9	2.4	3.8	3.3	2.8	1.3
전체	1.9	3.6	4.6	3.9	3.6	2.3

주 1)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의 비율임.

2) n=4,699명

주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보고한 응답결과를 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들은 전체 아동 중 2.3%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여부로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

을 보인 아동은 1.9%이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은 3.6%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4.6%),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3.9%), 방임을 경험한 아동(3.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별로 보면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이 미취학아동(3.2%), 초등학생(2.9%), 중고등학생(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30> 아동양육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미취학</u>						
쉬움	39.8	26.2	22.0	20.7	28.4	37.1
보통	53.4	62.4	62.4	66.7	62.2	55.2
어려움	6.8	11.4	15.6	12.6	9.5	7.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u>						
쉬움	45.2	35.1	38.7	34.7	32.7	42.3
보통	49.4	55.5	48.6	55.4	56.8	51.1
어려움	5.4	9.3	12.6	9.8	10.5	6.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등</u>						
쉬움	45.4	34.2	26.1	31.5	35.8	42.4
보통	49.7	57.9	61.2	57.7	56.1	51.9
어려움	5.0	8.0	12.7	10.8	8.1	5.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본 결과,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적었으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부모-자녀 관계

<표 III-5-31>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13.5	11.9	10.8	11.6	11.7	13.2
초등	9.2	6.4	6.0	9.0	4.4	8.4
중고등	3.6	7.1	7.9	7.9	6.5	4.5
전체	8.5	8.0	8.2	9.2	6.7	8.4

주 1) n=4,965명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8.4%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8.5%)가 학대를 경험한 주양육자(8.0%)에 비해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다른 유형에 비해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9.2%)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2>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인원

(단위: 명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1.4(0.6)	1.4(0.6)	1.3(0.6)	1.6(0.7)	1.4(0.6)	1.4(0.6)
초등	1.4(0.7)	1.7(1.3)	1.9(1.8)	1.6(1.2)	1.2(0.5)	1.5(0.8)
중고등	1.5(0.5)	1.4(0.7)	1.6(0.8)	1.3(0.7)	1.4(0.5)	1.5(0.6)
전체	1.4(0.6)	1.5(0.9)	1.5(1.0)	1.5(0.9)	1.3(0.5)	1.4(0.7)

주 1) <표 III-5-31>에서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해당함.

2) n=415명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인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1.4명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1.5명)이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1.4명)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학대유형별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3> 부모의 양육효능감: 총점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41.0(4.2)	39.5(3.6)	39.1(3.5)	39.3(3.9)	39.5(3.2)	40.7(4.2)
초등	40.7(4.1)	39.5(3.8)	39.5(4.3)	39.7(4.3)	39.2(3.2)	40.3(4.1)
중고등	40.8(4.4)	39.7(4.2)	38.9(4.5)	40.0(4.7)	39.6(4.1)	40.5(4.3)
전체	40.8(4.2)	39.6(3.9)	39.1(4.1)	39.7(4.3)	39.4(3.6)	40.5(4.2)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15점에서 60점 사이임(총 15개 문항 합산).

2) 응답가능범위: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

3) n=4,965명

자녀 양육할 때, 느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40.5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40.8점)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39.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양육효능감(39.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4> 부모 감독(8세 이상 아동이 있는 주양육자):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초등	3.5(0.5)	3.4(0.5)	3.4(0.5)	3.4(0.5)	3.3(0.5)	3.4(0.5)
중고등	3.3(0.5)	3.2(0.5)	3.2(0.5)	3.1(0.5)	3.2(0.5)	3.2(0.5)
전체	3.4(0.5)	3.3(0.5)	3.3(0.5)	3.2(0.5)	3.2(0.5)	3.3(0.5)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 사이임.

2) 8세 이상 아동이 있는 주양육자만 응답함.

3) n=3,506명

부모의 자녀 감독(monitoring)에 대해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대체로 주양육자들의 감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집을 나갔을 때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귀가 시간은 언제인지, 혹은 자녀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집에 전화를 하는지 물었을 때 주양육자들의 응답은 '자주 그렇다(3점)'와 '항상 그렇다(4점)'의 사이에 해당하는 정도(3.3점)를 보였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들의 부모감독 수준은 3.3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들은 3.4점이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들은 3.3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들은 3.2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들도 3.2점을 나타냈다.

<표 III-5-35> 하루 평균 놀이시간(주양육자): 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미취학</u>						
전혀 없음	0.5	0.7	0.9	1.5	0.7	0.5
30분 미만	1.9	3.1	4.6	4.4	2.0	2.1
30분-1시간 미만	6.2	10.0	10.2	13.3	7.3	7.0
1시간-2시간 미만	12.8	28.6	25.9	25.9	28.0	16.0
2시간 이상	78.5	57.6	58.3	54.8	62.0	7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u>						
전혀 없음	2.7	4.3	4.5	1.0	5.1	3.2
30분미만	9.4	10.6	10.8	12.5	8.9	9.8
30분-1시간 미만	20.3	21.9	23.4	27.6	19.8	20.7
1시간-2시간 미만	24.5	23.9	19.8	25.0	22.9	24.3
2시간 이상	43.1	39.3	41.4	33.9	43.3	42.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등</u>						
전혀 없음	14.6	15.1	16.5	15.5	15.0	14.8
30분미만	15.4	20.9	27.1	28.2	19.7	16.9
30분-1시간 미만	24.5	22.7	23.3	20.7	22.5	24.1
1시간-2시간 미만	23.7	21.9	24.1	16.4	21.6	23.3
2시간 이상	21.6	19.3	9.0	19.2	21.3	2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965명

주양육자와 아동의 하루 놀이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58.3%, 39.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은 '30분-1시간 미만'(24.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하루 놀이시간이 적은(전혀 없음에서 30분 미만)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아동은 '2시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생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62.0%, 43.3%)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6> 하루 평균 놀이시간(배우자): 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전혀 없음	25	26	40	25	15	25
30분 미만	10.8	20.6	24.2	23.8	18.2	12.6
30분-1시간 미만	24.4	31.8	31.3	34.4	29.9	25.8
1시간-2시간 미만	31.0	19.5	23.2	18.9	19.7	28.8
2시간 이상	31.4	25.5	17.2	20.5	30.7	3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등						
전혀 없음	5.5	8.8	6.3	8.6	7.2	6.4
30분미만	19.8	22.7	25.3	24.7	22.3	20.6
30분-1시간 미만	31.2	28.8	26.3	33.3	28.3	30.5
1시간-2시간 미만	25.5	23.2	23.2	19.1	25.1	24.9
2시간 이상	17.9	16.4	18.9	14.2	17.1	1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고등						
전혀 없음	19.2	21.9	25.7	24.5	19.7	19.9
30분미만	24.1	28.1	25.7	29.9	29.2	25.2
30분-1시간 미만	28.9	21.9	23.9	20.1	21.2	27.0
1시간-2시간 미만	18.9	21.4	23.0	18.5	22.6	19.6
2시간 이상	8.9	6.7	1.8	7.1	7.3	8.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4,475명

주양육자의 배우자와 아동과의 하루 놀이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미취학 아동은 '2시간 이상'(30.2%)이 많았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30분-1시간 미만'(30.5%, 27.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주양육자(25.5%, 28.8%, 21.9%)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31.4%, 31.2%, 28.9%)에 비해 아동과의 놀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 주양육자의 배우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아동과의 놀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7> 훈육방법: 점수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신체처벌	1.2(0.5)	1.6(0.7)	1.7(0.8)	1.8(0.7)	1.5(0.7)	1.3(0.6)
벌세우기	1.4(0.7)	1.9(0.8)	1.8(0.8)	2.0(0.8)	1.9(0.8)	1.5(0.7)
말로 야단	2.1(1.0)	2.7(0.9)	2.6(0.9)	2.8(0.9)	2.6(0.9)	2.3(1.0)
장난감이나 게임기 제한	1.6(0.8)	2.0(0.9)	2.0(1.0)	2.0(0.9)	2.1(0.9)	1.7(0.8)
칭찬과 보상	2.1(1.1)	2.6(1.0)	2.3(1.0)	2.5(1.0)	2.6(0.9)	2.2(1.1)
초등						
신체처벌	1.3(0.5)	1.6(0.6)	1.6(0.7)	1.7(0.7)	1.5(0.6)	1.4(0.6)
벌세우기	1.5(0.7)	1.8(0.8)	1.9(0.8)	2.0(0.8)	1.8(0.8)	1.6(0.7)
말로 야단	2.4(0.9)	2.7(0.8)	2.8(0.7)	2.8(0.7)	2.6(0.8)	2.5(0.8)
장난감이나 게임기 제한	1.8(0.9)	2.1(0.8)	2.2(0.9)	2.3(0.9)	2.1(0.8)	1.9(0.9)
칭찬과 보상	2.2(0.9)	2.4(0.8)	2.4(0.8)	2.5(0.9)	2.4(0.8)	2.2(0.9)
중고등						
신체처벌	1.2(0.4)	1.4(0.6)	1.5(0.6)	1.5(0.6)	1.3(0.5)	1.2(0.4)
벌세우기	1.2(0.4)	1.4(0.6)	1.4(0.6)	1.4(0.6)	1.4(0.6)	1.3(0.5)
말로 야단	2.3(0.9)	2.5(0.9)	2.5(0.9)	2.7(0.9)	2.4(0.9)	2.3(0.9)
TV, 인터넷 게임 제한	1.7(0.8)	2.1(0.9)	2.1(0.9)	2.1(0.9)	2.1(0.9)	1.8(0.8)
칭찬과 보상	1.8(0.9)	2.1(0.9)	2.0(0.8)	2.1(0.8)	2.1(0.9)	1.9(0.9)

주 1) 응답평균: 응답가능범위는 1점(거의 사용 안함)에서 4점(매우 자주 사용 함) 사이임.

2) n=4,967명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말로 야단치기'(2.3점, 2.5점, 2.3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와 '자주 사용한다' 사이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수치이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 모두 '말로 야단치기'를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찬과 보상'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에 비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라) 주양육자 특성

<표 III-5-38> (미혼/별거/이혼/사별)자녀 홀로 양육기간

(단위: 개월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31.4(19.9)	34.7(20.3)	38.6(22.6)	32.4(14.7)	31.1(16.6)	32.6(20.0)
초등	66.4(118.6)	58.0(37.6)	56.0(32.4)	64.5(41.9)	52.1(34.4)	63.3(97.2)
중고등	106.5(190.6)	83.2(89.7)	85.9(41.6)	76.3(47.2)	82.9(100.9)	100.1(169.0)
전체	83.6(158.1)	65.6(66.8)	65.7(39.4)	64.1(43.4)	63.9(74.9)	77.9(136.1)

주 1)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사람들만 응답함.

2) n=420명

주양육자가 미혼, 별거, 이혼, 사별 했을 경우,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77.9개월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5.6개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83.6개월)에 비해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주양육자의 양육기간(65.7개월)이 길었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양육기간이(63.9개월)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9> (미혼/별거/이혼/사별)부모와의 주기적 만남 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40.8	24.7	47.9	36.5	37.4	34.8
초등	21.7	38.7	15.3	40.8	36.4	29.0
중고등	27.3	39.9	44.0	53.1	37.6	30.8
전체	27.5	36.9	34.4	45.0	37.0	30.8

주 1) <III-5-38>에서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사람들만 응답함.

2) n=293명

주양육자가 미혼, 별거, 이혼, 사별 했을 경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나는지 살펴본 결과, 30.8%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미취학 아동(24.7%)에 비해 초등학생(38.7%)과 중고등학생(39.9%)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비율(45.0%)이 높았다.

<표 III-5-40> 우울: 우울 총점 분석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9.3(7.9)	12.8(8.7)	14.5(8.4)	13.3(8.8)	13.5(8.9)	10.0(8.2)
초등	9.1(7.2)	11.9(8.9)	12.9(9.0)	11.7(9.7)	12.1(8.2)	9.9(7.8)
중고등	10.2(8.0)	12.6(9.3)	13.9(9.9)	12.1(9.2)	13.2(9.8)	10.9(8.5)
전체	9.6(7.8)	12.4(9.0)	13.7(9.1)	12.2(9.3)	12.8(9.0)	10.3(8.2)

주 1) 응답가능범위: 0점에서 60점 사이임(각 문항을 0점에서 3점으로 변환하여 합산한 후 20/11을 곱함).

2) n=4,965명

주양육자의 우울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Walsh, MacMillan & Jamieson, 2002). 본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주양육자의 평균 우울점수는 10.3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따라 주양육자의 우울정도를 살펴본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12.4점)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9.6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우울정도를 학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가정의 주양육자(13.7점)에게 가장 높은 우울 정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12.8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12.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우울정도는 아동이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미취학, 중고등, 초등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은 중고등, 미취학, 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1> 우울: 우울 집단 분석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19.0	32.0	42.3	31.1	38.3	21.6
초등	16.3	28.5	31.0	26.0	30.4	19.8
중고등	21.4	33.3	39.8	30.4	36.7	24.6
전체	19.0	31.2	37.8	29.0	34.6	22.1

주 1) Cut-off value 16점을 기준으로 우울, 비우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0: 16점 미만 비우울집단, 1: 16점 이상 우울집단).

2) n=4,965명

다음으로는 본 척도(CES-D)의 절단점(cut-off value)을 기준으로 우울증 여부를 구분하여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학대경험여부에 따른 우울증 의심 비율을 살펴보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집단(31.2%)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19.0%)에 비해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37.8%)가 가장 높았으며, 방임(34.6%), 그리고 정서적 학대(29.0%) 순으로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5-42> 자존감(주양육자): 점수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3.0(0.4)	2.9(0.4)	2.8(0.4)	2.9(0.4)	2.9(0.3)	3.0(0.4)
초등	3.0(0.4)	2.9(0.4)	2.9(0.4)	3.0(0.4)	2.9(0.3)	3.0(0.4)
중고등	2.9(0.4)	2.9(0.4)	2.8(0.4)	2.8(0.4)	2.9(0.4)	2.9(0.4)
전체	3.0(0.4)	2.9(0.4)	2.8(0.4)	2.9(0.4)	2.9(0.3)	2.9(0.4)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n=4,965명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주양육자의 자존감의 차이를 4점 척도로 살펴 본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들의 집단(2.9점)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3.0점)간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두 점수 모두 전체 주양육자의 평균 자존감 점수(2.9점)에 근접한 값이며 응답범주에서 '대체로 그렇다'에 가까웠다. 학대유형별로 주양육자의 자존감을 살펴보면,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의 주양육자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집단의 주양육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자존감(2.8점)을 보였지만 이 역시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43> 지각된 스트레스(주양육자): 점수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1.6(0.4)	1.7(0.3)	1.8(0.3)	1.7(0.4)	1.7(0.3)	1.6(0.4)
초등	1.6(0.3)	1.7(0.3)	1.7(0.3)	1.7(0.3)	1.7(0.3)	1.6(0.3)
중고등	1.6(0.3)	1.7(0.4)	1.8(0.3)	1.7(0.4)	1.7(0.3)	1.6(0.4)
전체	1.6(0.4)	1.7(0.3)	1.8(0.3)	1.7(0.4)	1.7(0.3)	1.6(0.4)

주 1) 응답가능범위: 0점(전혀 없었다)에서 4점(상당히 자주 있었다)사이임.

2) n=4,965명

주양육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0점에서 4점 사이로 알아본 결과 주양육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거의 없었다(1점)'와 '가끔 있었다(2점)'의 사이(1.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여부로 보았을 때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가정의 주양육자는 1.7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주양육자는 1.6점이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1.8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1.7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1.7점이었다.

<표 III-5-44> (만 18세 이전) 폭력경험률(주양육자)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26.1	53.1	61.3	67.8	43.8	31.4
초등	24.7	40.9	43.7	44.6	44.0	29.3
중고등	24.7	45.8	40.1	54.1	46.2	30.3
전체	25.1	45.7	47.7	54.1	44.9	30.3

주 1) n=4,965명

아동기의 폭력경험 여부에 대해서 주양육자에게 질문한 결과, 학대 받은 아동의 주양육자가 폭력을 경험한 비율(45.7%)이 학대를 받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가 폭력을 경험한 비율(25.1%)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비율(54.1%)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비율(47.7%),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비율(44.9%)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연령대별로 보면, 학대를 경험한 미취학 아동 주양육자의 폭력경험률(53.1%)이 다른 연령대 주양육자의 폭력경험률(40.9%, 45.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 부부 관계

<표 III-5-45> 부부만족(주양육자):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3.2(0.5)	3.0(0.5)	3.0(0.6)	2.9(0.5)	3.1(0.4)	3.2(0.5)
초등	3.2(0.5)	3.0(0.5)	2.9(0.5)	2.8(0.5)	3.0(0.5)	3.1(0.5)
중고등	3.1(0.5)	3.0(0.5)	2.9(0.6)	2.9(0.5)	3.0(0.5)	3.1(0.5)
전체	3.2(0.5)	3.0(0.5)	2.9(0.5)	2.9(0.5)	3.0(0.5)	3.1(0.5)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매우 불만족)에서 4점(매우 만족) 사이임.

2) n=4,473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부만족에 대해 4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본 척도에서는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양육자의 부부만족 정도는 '비교적 만족(3점)'과 '매우 만족(4점)'의 사이(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부부만족과 아동의 학대경험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3.2점)이 학대를 경험한 집단(3.0점)에 비해 부부만족도가 평균적으로(0.2점) 높게 나타났으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학대유형별로 부부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신체, 정서, 방임 집단 중 방임집단(3.0점)의 부부만족도가 비교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46> 부부갈등(주양육자):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1.4(0.5)	1.7(0.5)	1.8(0.6)	1.9(0.5)	1.6(0.5)	1.5(0.5)
초등	1.5(0.5)	1.8(0.6)	1.8(0.6)	1.9(0.6)	1.7(0.5)	1.5(0.5)
중고등	1.5(0.5)	1.7(0.6)	1.8(0.6)	1.8(0.6)	1.7(0.6)	1.6(0.5)
전체	1.5(0.5)	1.7(0.6)	1.8(0.6)	1.9(0.6)	1.7(0.5)	1.5(0.5)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n=4,473명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부부간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불만의 해소과정으로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이경님, 2004). 부부 갈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부갈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부부갈등은 4점 척도에서 1.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사이의 점수를 보였다.

아동학대 경험집단과 비학대집단간의 부부갈등정도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주양육자(1.7점)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1.5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부부갈등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대유형별로 부부갈등정도를 살펴보면,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1.9점)이 가장 높은 부부갈등을 보였으며 신체적 학대(1.8점), 방임(1.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47> 연간 부부폭력 발생률(전체)

(단위: %)

구분	부부폭력 발생 유형					전체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적 폭력	
미취학	8.4	29.4	4.9	17.5	8.5	36.9
초등	7.2	28.6	5.7	16.8	7.8	37.6
중고등	7.7	31.3	6.0	18.5	7.8	38.5
전체	7.7	29.8	5.6	17.6	8.0	37.7

주 1) 한 문항이라도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부부폭력이 발생했다고 함.

2) n=4473명

부부 사이의 폭력은 아동학대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McGuigan & Pratt, 2001)를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에 따른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학대유형별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부폭력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부부폭력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적 폭력 등으로 보았을 때, 부부폭력 발생률은 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대별로 보면, 중고등학생(38.5%), 초등학생(37.6%), 미취학 자녀(36.9%) 순으로 부부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8>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31.9	58.3	69.4	66.7	53.7	36.9
초등	31.6	53.3	58.8	61.4	49.0	37.6
중고등	32.2	56.3	54.1	58.3	56.8	38.5
전체	31.9	55.7	60.5	61.6	53.2	37.7

주 1) 부부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recode하여 계산함(0: 미경험, 1: 경험).

2) 표의 각 셀은 부부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나타냄.

3) n=4473명

부부폭력 발생률을 아동학대 발생 여부, 아동학대 유형별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경우와 부부간의 폭력이 모두 존재한 경우는 55.7%였고, 부부폭력을 경험하였지만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31.9%였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보면,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부부 중 부부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60.5%였고,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부부 중 부부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61.6%, 아동이 방임을 경험한 부부 중 부부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53.2%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경험 여부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유형별로 보았을 때 미취학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69.4%,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9> 부부폭력의 유형별 발생률(신체/정서/경제/방임/성적 폭력)

(단위: %)

부부폭력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신체적 폭력	미취학	6.0	18.6	27.3	26.5	12.9	8.4
	초등	4.0	15.6	23.5	22.4	17.2	7.2
	중고등	4.8	15.5	20.0	17.1	13.7	7.7
	전체	4.9	16.3	23.5	21.4	14.8	7.7
정서적 폭력	미취학	24.8	48.9	57.4	56.9	48.4	29.4
	초등	23.2	42.8	42.8	52.3	38.9	28.6
	중고등	26.5	44.6	42.3	47.5	43.4	31.3
	전체	24.9	45.0	47.3	51.6	42.8	29.8
경제적 폭력	미취학	3.3	11.7	16.8	10.4	12.2	4.9
	초등	3.3	11.8	19.6	13.1	9.9	5.7
	중고등	3.7	12.4	13.7	11.0	13.4	6.0
	전체	3.5	12.0	16.6	11.6	11.8	5.6
방임	미취학	14.8	28.6	32.4	38.0	21.2	17.5
	초등	12.6	27.9	32.6	31.6	28.9	16.8
	중고등	13.8	31.6	30.6	33.7	32.5	18.5
	전체	13.8	29.5	31.8	34.1	28.8	17.6
성적 폭력	미취학	7.2	14.0	21.1	12.8	13.0	8.5
	초등	5.9	12.8	17.2	14.3	16.5	7.8
	중고등	6.8	10.6	13.5	11.3	8.9	7.8
	전체	6.7	12.2	17.1	12.7	12.6	8.0

주 1) 부부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recode하여 계산함(0: 미경험, 1: 경험).

2) 표의 각 셀은 부부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나타냄.

3) n=4,473명

다음으로 부부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적 폭력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전체 가정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이 7.7%, 정서적 폭력이 29.8%, 경제적 폭력이 5.6%, 방임이 17.6%, 성적 폭력이 8.0%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각 유형별 발생률을 아동학대 경험여부 및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부부간의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경우(뺨을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와 물건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위(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등)를 뜻한다. 부부폭력 중 신체적 학대를 아동학대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집단(16.3%)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4.9%)에 비해 대략 3~4배가 높은 부부간 신체적 학대를 보고하였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가장 높은 부부간 신체적 폭력을 나타냈으며(23.5%), 그리고 정서적 학대(21.4%), 방임(14.8%) 순으로 보고되었다.

부부간의 정서적 학대는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학대 유무에 따른 부부간 정서적 학대를 살펴보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집단(45.0%)에서 부부간의 정서적학대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집단(24.9%)에 비해 대략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51.6%)

가 가장 높은 부부간 정서적 학대를 나타낸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을 경험한 집단 모두에서 미취학 아동을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은 부부간 정서적 학대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부폭력 중 경제적 학대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재산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수입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학대 여부에 따른 부부간 경제적 학대를 살펴보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집단(12.0%)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집단(3.5%)에 비해 대략 3~4배정도 높은 경제적 학대를 보고하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16.6%)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학대를 보였으며, 그리고 방임(11.8%), 정서적 학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방임은 무관심 또는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학대 여부에 따른 부부간 방임을 살펴보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집단(29.5%)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13.8%)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높은 부부방임을 나타내었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1%), 신체적 학대(31.8%), 그리고 방임(28.8%) 순으로 부부방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폭력 중 성적학대는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학대여부에 따른 성적학대 비율을 살펴보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집단(12.2%)이 미경험 집단(6.7%)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높은 성적학대를 나타내었다. 학대유형별로는,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17.1%)에서 가장 높은 성적학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12.7%) 그리고 방임(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가정환경 영역

가) 사회적 지지

<표 III-5-50> 사회적 지원: 총점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38.7(5.3)	36.3(5.9)	36.1(6.3)	36.7(6.9)	35.6(4.8)	38.2(5.5)
초등	38.3(5.7)	36.4(6.3)	36.2(6.9)	36.6(6.5)	35.8(6.1)	37.7(5.9)
중고등	37.6(5.6)	36.0(6.3)	35.0(6.8)	35.0(6.3)	36.5(6.6)	37.2(5.8)
전체	38.2(5.6)	36.2(6.2)	35.7(6.7)	36.0(6.5)	36.1(6.1)	37.7(5.8)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12점에서 48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사이임.

3)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음.

4) n=4,965명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 친정식구, 자녀, 친척, 이웃, 종교, 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37.7점으로 비교적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주양육자(36.2점)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38.2점)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지원(35.7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상 안전생활습관

<표 III-5-51> (지난 6개월 간)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30분 이상 혼자 있던 경험(미취학 아동)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혀 없음	91.8	66.9	74.1	76.3	49.7	86.9
가끔 있음	7.7	32.1	25.9	21.5	48.3	12.5
자주 있음	0.5	1.0	0.0	2.2	2.0	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1,461명

지난 6개월 간, 미취학 아동이 집에서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30분 이상 혼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혀 없는 경우가 86.9%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6.9%)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91.8%)에 비해 미취학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있는 경우는 12.5%로 나타났으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32.1%)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7.7%)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아동을 가끔 혼자 둔 적이 있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52> (지난 6개월 간)자녀 방치경험 정도(미취학아동)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아이는 방, 보호자는 집안 내 다른 방	1.6(0.8)	2.3(0.9)	2.2(0.9)	2.3(0.9)	2.3(1.0)	1.7(0.9)
아이는 욕조, 보호자는 집안 내 다른 방	1.3(0.6)	1.7(0.8)	1.6(0.7)	1.6(0.7)	1.9(0.8)	1.4(0.6)
집 앞에서 놀이	1.4(0.7)	1.9(0.9)	1.6(0.8)	1.7(0.8)	2.1(1.0)	1.5(0.7)
주차된 차에 혼자	1.3(0.7)	1.5(1.0)	1.5(1.0)	1.6(1.0)	1.4(0.8)	1.3(0.7)
집근처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놀이	1.4(0.7)	1.8(0.9)	1.5(0.7)	1.6(0.8)	2.1(1.0)	1.5(0.8)

주 1) 응답평균: 응답가능범위는 1점(전혀 없다)에서 4점(자주 있다) 사이임.

2)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3) n=1,461명

지난 6개월 간, 여러 상황에서 아동을 혼자 두었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이는 방안에 있고, 보호자는 집안 내 다른 방에 있던 경우(1.7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점 '전혀 없다'와 2점 '종종 있다'사이로 비교적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2.3점, 1.7점, 1.9점, 1.5점, 1.8점)가 그렇지 않은 아동(1.6점, 1.3점, 1.4점, 1.3점, 1.4점)에 비해 자녀를 방치한 적이 종종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종종 혼자 둔 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3> (지난 6개월 간) 자녀 방치시간(미취학아동)

(단위: 분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아이는 방, 보호자는 집안 내 다른 방	24.1(18.4)	29.9(21.7)	27.1(16.2)	30.1(24.3)	31.9(25.3)	26.5(20.0)
아이는 욕조, 보호자는 집안 내 다른 방	19.8(12.8)	36.9(114.0)	20.8(17.5)	58.0(194.7)	26.2(15.1)	28.3(81.1)
집 앞에서 놀이	44.2(99.5)	48.3(111.3)	26.8(17.2)	69.4(197.6)	41.3(59.5)	46.1(104.8)
주차된 차에 혼자	4.5(2.5)	9.7(9.3)	5.2(11.6)	10.7(8.0)	9.1(12.6)	7.2(7.2)
집 근처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놀이	35.9(18.4)	47.9(113.4)	25.1(10.2)	76.2(217.1)	41.2(60.1)	41.2(76.6)

주 1)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하였으며, 각 문항별 응답자수가 다름.

2) n=314명/115명/162명/15명/162명

지난 6개월 간, 여러 상황에서 아동을 방치했던 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동이 집 앞에서 놀이를 할 때 46.1분 정도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29.9분, 36.9분, 48.3분, 9.7분, 47.9분)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24.1분, 19.8분, 44.2분, 4.5분, 35.9분)에 비해 방치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이 욕조에 있고, 보호자가 집안 내 다른 방에 있을 때 아동 혼자 두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모든 상황에서 자녀를 방치한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4> 안전생활습관 준수(미취학 아동)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위험한 물질 안전하게 보관	89.8	85.6	81.1	85.1	87.1	88.9
카시트 사용	72.9	52.2	52.1	49.0	54.4	69.1
외출 시 성인 동반	95.3	91.3	89.6	88.4	91.8	94.5
아이 앞에서 흡연	69.6	86.0	87.9	85.9	82.7	73.0

주 1)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하였으며, 각 문항별 응답자수가 다름.

2) 3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생활습관을 준수함을 의미하나, '아이 앞에서 흡연한다'는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생활습관을 준수하지 않음을 의미함.

3) n=1,461명/1,331명/1,461명/991명

미취학 아동이 있는 주양육자가 안전생활습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외출 시, 성인과 동반하는 비율(94.5%)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에 비해 안전생활습관을 준수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카시트를 사용'하거나 '아이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학대 경험이 없는 주양육자(72.9점, 69.6점)와 경험이 있는 주양육자(52.2점, 86.0점)와의 차이가 컸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안전생활습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5> 보육, 사교육 이용 여부(미취학아동)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17.5	21.1	26.9	23.2	23.7	18.2
민간어린이집	28.9	33.3	28.2	25.6	32.4	29.7
사설놀이방	3.1	2.2	0.4	3.8	1.2	2.9
직장보육시설	0.4	0.0	0.0	0.0	0.1	0.4
유치원 (정규시간 외)	2.0	4.7	8.3	6.8	2.3	2.5
유치원 (정규시간)	5.8	14.1	12.3	17.4	17.3	7.5
전체이용경험	57.7	75.4	76.1	76.8	77.0	61.2
민간학원 및 사교육						
학원	4.6	8.7	6.4	10.5	9.5	5.4
과외	0.8	1.4	0.4	1.5	1.1	0.9
학습지	14.8	27.8	24.8	24.8	29.3	17.4
기타기관	3.1	3.9	1.2	3.2	4.6	3.3
전체이용경험	23.3	41.8	32.8	40.0	44.5	27.0
개인대리양육						
친·인척	3.8	5.2	5.3	4.7	4.9	4.1
이웃이나 지인	1.3	1.3	0.5	0.9	2.1	1.3
베이비시터	0.4	0.6	1.6	0.0	0.0	0.4
기타	0.0	0.9	0.0	0.0	1.7	0.2
전체이용경험	5.5	8.0	7.4	5.6	8.7	6.0

주 1)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1,461명

미취학 아동의 보육, 사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보육시설(61.2%)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민간어린이집(29.7%)의 이용 비율이 높았고, 민간학원 및 사교육(27.0%)은 학습지(17.4%)를, 개인대리양육(6.0%)은 친·인척(4.1%)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75.4%, 41.8%, 8.0%)는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57.7%, 23.3%, 5.5%)에 비해 보육, 사교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77.0%, 44.5%, 8.7%)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보육, 사교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6> 보육, 사교육 서비스 주당 이용횟수 및 시간(미취학아동)

(단위: 회 / 시간)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이용횟수	5.6(2.0)	6.1(2.1)	5.7(1.8)	6.1(2.3)	6.2(2.3)	5.7(2.1)
이용시간	28.1(15.9)	28.0(16.6)	27.4(16.8)	29.2(15.2)	26.8(16.5)	28.1(16.1)

주 1)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 중 <표 III-5-55>에서 보육,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응답함.

2) n=998명

미취학 아동의 보육, 사교육 서비스의 주당 이용횟수와 시간을 알아본 결과, 일주일에 5.7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6.1회)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5.6회)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시간은(28.1시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방임(6.2회)을 경험한 주양육자의 이용횟수가 많았으나, 이용시간은 신체적 학대(27.1시간)를 경험한 주양육자가 더 길었다.

<표 III-5-57> 보육, 사교육 서비스 외, 낮 시간을 보내는 장소(미취학아동)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집	94.6	90.0	86.2	87.4	92.7	93.7
돌보아주는 사람 집	2.6	2.1	2.8	0.7	2.0	2.5
집 밖	1.5	3.8	1.8	3.0	5.3	2.0
기타	1.2	4.1	9.2	8.9	0.0	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1,461명

미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사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주로 낮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집(93.7%)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90.0%)은 그렇지 않은 아동(94.6%)보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적게 나타났으며, 집 밖에서 보내는 경우(2.0%)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3.8%)이 그렇지 않은 아동(1.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방임(92.7%)을 경험한 아동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집 밖(5.3%)에서 있는 경우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8> 보육, 사교육 서비스 외, 자녀를 돌보아주는 사람(미취학아동)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부모님	89.0	83.8	83.3	87.3	84.6	88.0
형제자매	1.4	2.7	2.8	0.7	3.4	1.6
조부모	7.4	6.5	7.4	6.0	5.4	7.3
기타	2.2	6.9	6.5	6.0	6.7	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타: 친척·친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가사도우미, 파출부), 이웃집, 베이비시터 포함

2) 미취학 아동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1,461명

미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사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평소에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님(88.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부모님(89.0%)이나 조부모(7.4%)가 돌봐주는 경우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형제자매(2.7%), 기타(6.9%)가 돌봐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보육시설이나 사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부모님(87.3%)이 돌봐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9>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초등학생)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민간학원 및 사교육						
학원	70.5	64.7	59.8	63.6	67.5	68.9
과외	4.7	8.0	13.4	9.9	5.3	5.6
학습지	33.7	33.1	33.3	39.2	29.0	33.5
기타기관	5.4	8.3	7.3	7.6	8.7	6.2
전체이용경험	81.6	79.3	76.6	78.7	80.2	80.9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방과후학교 (학교 내)	20.9	27.3	35.4	31.7	24.4	22.7
방과후보육 (학교 외)	1.9	3.2	2.6	2.7	3.4	2.3
지역아동센터	0.6	1.3	0.8	2.0	2.3	1.2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	2.1	5.7	3.8	8.9	2.8	3.1
전체이용경험	24.1	34.6	41.7	41.7	29.6	27.1
개인대리양육						
친·인척	1.3	2.4	1.7	1.5	3.6	1.6
이웃이나 지인	1.1	0.4	0.0	0.0	0.6	0.9
베이비시터	0.0	0.0	0.0	0.0	0.0	0.0
기타	0.4	0.0	0.0	0.0	0.0	0.3
전체이용경험	2.4	2.7	1.7	1.5	4.2	2.5

주 1) 초등학생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1,628명

초등학생의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민간학원 및 사교육(80.9%)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중 학원(68.9%)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27.1%)은 학교 내 방과후 학교(22.7%), 개인대리양육(2.5%)은 친·인척(1.6%)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학원 및 사교육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81.6%)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79.3%)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개인대리양육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34.6%, 2.7%)이 그렇지 않은 아동(24.1%, 2.4%)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민간학원 및 사교육(80.2%)과 개인 대리양육(4.2%)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0>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주당 이용횟수 및 시간(초등학생)

(단위: 회 / 시간)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이용횟수	5.8(2.5)	5.8(2.8)	5.6(2.6)	6.1(2.6)	5.8(2.9)	5.8(2.6)
이용시간	10.7(9.4)	11.4(11.5)	10.2(9.3)	10.9(9.3)	12.3(12.9)	10.9(10.0)

주 1) 초등학생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1,628명

초등학생의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의 주당 이용횟수와 시간을 알아본 결과, 일주일에 5.8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용시간은 10.9시간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11.4시간)이 그렇지 않은 아동(10.7시간)보다 이용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횟수는 정서적 학대(6.1회)를 경험한 아동이, 이용시간은 방임(12.3시간)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1> (일주일 기준)평일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정도(초등학생)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거의 없다	71.7	51.7	54.1	56.5	43.9	66.0
1-2일정도	19.7	28.4	30.6	23.8	32.7	22.2
3-4일정도	4.9	13.2	7.2	11.9	17.0	7.2
거의 매일	3.7	6.7	8.1	7.8	6.5	4.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초등학생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1,628명

초등학생이 평일(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거의 없다'(66.0%)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71.7%)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51.7%)에 비해 어른 없이 혼자 있던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일주일에 1-2일'(28.4%), '3-4일'(13.2%), '거의 매일'(6.7%) 혼자 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56.2%)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보호자 없이 아동끼리 있던 경우가 거의 없던(43.9%)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2> (하루 기준)평일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초등학생)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1시간 미만	19.1	18.4	30.8	21.4	17.6	18.8
1-2시간 정도	56.1	52.0	51.9	52.4	49.7	54.4
3-4시간 정도	20.6	22.0	15.4	21.4	23.0	21.2
4시간 이상	4.2	7.6	1.9	4.8	9.7	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평일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초등학생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 553명

초등학생이 평일(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1-2시간 정도'(54.4%)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52.0%)이 '1시간-2시간 정도' 혼자 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동(56.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3-4시간 이상' 길어질수록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이 경험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보호자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4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9.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3> (한달 기준)주말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빈도(초등학생)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거의 없다	84.6	71.9	75.7	77.2	63.9	81.0
1-2일정도	11.9	22.5	21.6	19.2	28.2	14.9
3-4일정도	2.2	3.2	0.0	0.5	5.1	2.5
거의 매주	1.3	2.4	2.7	3.1	2.7	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1,628명

초등학생이 평일(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빈도를 살펴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혼자 있던 빈도(27.9%)가 일주일에 1-2일(22.5%), 3-4일(3.2%), 거의 매주(2.4%) 순으로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보호자 없이 보내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보호자 없이 보내는 빈도(36.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4> 주말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초등학생)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1시간 미만	22.9	25.6	39.3	27.3	22.9	24.0
2-4시간 정도	57.5	64.3	53.6	63.6	65.7	60.4
5-7시간 정도	17.3	8.5	3.6	9.1	6.5	13.6
8시간 이상	2.2	1.6	3.6	0.0	1.9	1.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주말에 보호자 없이 보내는 초등학생의 주양육자만 응답함.

2) n=311명

초등학생이 주말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아동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 있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2-4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그렇지 않는 아동의 주양육자에 비해 '2-4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가 '2-4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65.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다른 유형에 비해 '5-7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보내는 경우(9.1%)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65> (하루 기준)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

(단위: 시간 /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미취학	8.7(4.2)	7.7(3.8)	7.9(3.9)	8.3(4.0)	7.2(3.7)	8.5(4.1)
초등	5.7(2.4)	5.6(2.5)	5.6(2.4)	5.7(2.7)	5.4(2.3)	5.7(2.4)
중고등	4.1(2.1)	4.0(2.2)	3.8(2.2)	3.8(2.1)	4.1(2.3)	4.1(2.2)
전체	6.1(3.6)	5.5(3.1)	5.6(3.4)	5.6(3.4)	5.2(2.9)	5.9(3.5)

주 1) n=4,965명

하루 기준으로 아동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5시간)가 그렇지 않은 주양육자(6.1시간)에 비해 아동과 생활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5.2시간)가 다른 유형에 비해 함께 아동과 생활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6> 비공식적 지역사회 통제: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2.6(0.7)	2.5(0.7)	2.4(0.7)	2.3(0.7)	2.6(0.6)	2.6(0.7)
초등	2.6(0.8)	2.5(0.7)	2.4(0.8)	2.4(0.8)	2.5(0.7)	2.6(0.8)
중고등	2.6(0.7)	2.5(0.7)	2.5(0.7)	2.3(0.7)	2.4(0.7)	2.6(0.7)
전체	2.6(0.7)	2.5(0.7)	2.5(0.7)	2.4(0.7)	2.5(0.7)	2.6(0.7)

주 1) 응답평균: 응답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럴 것 같다) 사이임.

2) n=4,742명

비공식적 지역사회 통제(동네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훈육경향)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주양육자들의 응답평균은 2.6점으로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2점)’와 ‘약간 그럴 것 같다(3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었다.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로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응답평균은 2.5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 응답평균은 2.6점이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2.5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2.4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는 2.5점이었다.

<표 III-5-67> 지역사회 유대감 및 신뢰: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미취학	2.6(0.4)	2.6(0.4)	2.6(0.4)	2.5(0.4)	2.6(0.4)	2.6(0.4)
초등	2.6(0.4)	2.5(0.4)	2.6(0.4)	2.6(0.4)	2.5(0.3)	2.6(0.4)
중고등	2.6(0.4)	2.5(0.4)	2.5(0.3)	2.5(0.4)	2.5(0.3)	2.6(0.4)
전체	2.6(0.4)	2.5(0.4)	2.5(0.4)	2.5(0.4)	2.5(0.3)	2.6(0.4)

주 1) 응답평균: 응답가능범위는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4점(적극 동의한다) 사이임.

2) n=4,768명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유대감 및 신뢰(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 및 신뢰)에 대한 경향성을 물어본 결과, 주양육자들의 응답평균은 2.6점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와 ‘약간 동의한다(3점)’의 중간 정도에 해당했다.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로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은 2.5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주양육자 집단은 2.6점이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2.5점의 수치를 나타냈다.

다.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 응답결과분석

1) 사회·경제적 영역

<표 III-5-68> (지난 학기)학교 성적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초등 46학년	3.7(0.7)	3.5(0.7)	3.6(0.8)	3.5(0.7)	3.5(0.7)	3.6(0.7)
중고등	3.5(0.7)	3.4(0.8)	3.4(0.8)	3.3(0.8)	3.4(0.7)	3.4(0.7)
전체	3.5(0.7)	3.4(0.7)	3.4(0.8)	3.3(0.8)	3.4(0.7)	3.5(0.7)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매우 못하는 수준)에서 5점(매우 잘하는 수준) 사이임.

2) n=2,704명

초등 4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이 반에서 어느 정도인지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 3.5점으로 '중간'에서 '잘하는 수준'사이 값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3.4점)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3.5점)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중간' 수준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3.3점)를 보였지만, 이 역시 '중간'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II-5-69>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초등 46학년	3.4(0.5)	3.2(0.5)	3.1(0.4)	3.1(0.5)	3.2(0.4)	3.3(0.5)
중고등	3.3(0.5)	3.1(0.5)	3.0(0.5)	3.0(0.5)	3.1(0.4)	3.2(0.5)
전체	3.3(0.5)	3.1(0.5)	3.0(0.5)	3.1(0.5)	3.1(0.4)	3.2(0.5)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n=2,704명

초등 4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생활이 즐겁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등의 9개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3.3점)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3.1점)에 비해 평균 0.2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가끔 그렇다'수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0.1점 낮은 점수(2.0점)를 나타냈지만, '가끔 그렇다'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II-5-70> 생활 만족도: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초등 46학년	3.2(0.5)	3.0(0.5)	3.0(0.4)	3.0(0.5)	3.0(0.6)	3.2(0.5)
중고등	3.1(0.2)	2.9(0.4)	2.9(0.5)	2.8(0.5)	2.9(0.5)	3.1(0.5)
전체	3.1(0.5)	3.0(0.5)	2.9(0.5)	2.9(0.5)	3.0(0.5)	3.1(0.5)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만족하지 못함)에서 4점(매우 만족) 사이임.

2) n=2711명

초등 4학년 이상 아동이 현재 본인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3.1점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3.1점)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3.0점)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이는 '만족하는 편'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만족하는 편'의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II-5-71> 비행 발생률

구분	비행 발생 유형				(단위: %)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초등	11.5	16.0	13.9	5.0	
중고등	17.9	12.3	23.0	13.3	
전체	15.9	13.4	20.2	10.7	

주 1) 한 문항이라도 해당 유형의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비행이 발생했다고 정의함.

2) 본 연구의 목적은 전체적인 비행 발생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비행 발생률은 구하지 않음.

3) n=2711명(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동안 아동학대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Ryan, 2005; Zingraff et al., 1993; 정익중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경험과 미경험에 따른 비행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비행의 발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III-5-71>과 같이 비행을 측정하는 여러 항목들을 크게 4가지 비행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비행 발생률을 살펴보았다. 4가지 비행 유형은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으로 구성되었다.

지위비행은 아동·청소년의 지위에 어긋나는 행동들로 선생님에게 대들기, 시험시간 부정행위, 무단결석, 음주, 흡연, 가출 등이 포함되었고 전체적인 지위비행 발생률은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은 타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친구 왕따 시키기, 친구 놀리거나 조롱하기, 친구 협박, 구타, 패싸움 등이 포함되었고 전체적인 폭력비행 발생률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비행은 재물과 관련된 비행행동들로 학용품비 전용, 절도, 갈취 등이 포함되었고 전체적인 재산비행 발생률은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비행은 성적 행동과 관련된 비행행동들로 음란물 보기, 성관계, 원조교제, 성폭행 혹은 성희롱 등이 포함되었고 전체적인 성비행 발생률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2> 비행의 유형별 발생률(지위비행/폭력비행/재산비행/성비행)

(단위: %)

비행유형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지위비행	초등46학년	6.8	23.4	28.2	29.5	24.5	11.5
	중고등	14.7	26.7	35.3	33.8	25.8	17.9
	전체	12.3	25.7	33.1	32.4	25.4	15.9
폭력비행	초등46학년	9.8	32.0	38.5	45.6	27.5	16.0
	중고등	9.4	20.2	29.8	28.0	18.6	12.3
	전체	9.5	23.9	32.4	33.5	21.4	13.4
재산비행	초등46학년	9.3	25.6	32.3	30.2	25.6	13.9
	중고등	19.1	33.8	39.8	36.5	34.1	23.0
	전체	16.1	31.2	37.6	34.5	31.4	20.2
성비행	초등46학년	3.3	9.4	5.9	7.3	12.5	5.0
	중고등	10.7	20.5	28.9	29.1	17.7	13.3
	전체	8.4	17.0	22.1	22.2	16.1	10.7

주 1) 각 비행 유형의 경험 여부에 따라 recode하여 계산함(0: 미경험, 1: 경험).

2) 표의 각 셀은 각 비행 유형을 경험한 비율을 나타냄.

3) n=2,711명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비행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비행 발생의 차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은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에서 12.3%, 경험 집단에서 25.7%, 폭력비행은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에서 9.5%, 경험 집단에서 23.9%, 재산비행은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에서 16.1%, 경험집단에서 31.2%, 성비행은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에서 8.4%, 경험집단에서 17.0%가 발생하여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과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폭력비행으로 아동학대 미경험 집단에서의 폭력비행은 9.5%였던 것에 반해, 신체적 학대 경험 집단에서는 32.4%, 정서적 학대 경험집단에서는 33.5%, 방임 경험집단에서는 21.4%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 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방임에 비해 높은 비행 발생률을 나타냈다.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8-9% 정도 나타났고, 재산비행에서는 2-5% 정도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성비행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학대 경험집단(5.9%), 정서적 학대 경험집단(7.3%)에 비해 방임 경험집단(12.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에서부터는 다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 집단의 성비행이 방임 경험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73>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초등46학년	24(2.9)	5.9(4.5)	5.7(4.1)	7.0(4.4)	5.7(4.8)	3.3(3.8)
중고등	2.9(3.4)	5.8(4.6)	7.5(5.1)	7.4(4.8)	5.5(4.4)	3.7(4.0)
전체	2.7(3.3)	5.8(4.6)	6.9(4.9)	7.2(4.7)	5.6(4.5)	3.6(3.9)

- 주 1) 응답합산점수: 0점에서 36점 사이임(총 12개의 질문).
 2) 응답가능범위: 0점(전혀 없음)에서 3점(거의 항상 있었음)사이임.
 3) 아동의 자기보고 형식이므로 미취학 아동은 제외함.
 4) n=2,711명

다음은 사회적 기술 향상 척도(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SSIS)의 문제행동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앞에서는 이미 주양육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통해 아동들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아동이 직접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행동 수준을 알아볼 것이다. 조사 결과를 문제행동 총점과 문제행동 아동 비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아동들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비교하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먼저 외현화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12개 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로 0점에서 36점까지의 값을 갖는다. 학대 경험 여부별로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5.8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2.7점으로 나타났고, 모두 '보통'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집단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7.2점)이 신체적 학대(6.9점)와 방임(5.6점)을 경험한 아동 집단들 보다 약간 높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 중에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5.9점)이 중고등학생(5.8점)에 비해 약간 높았다.

<표 III-5-74> 내재화 문제행동: 총점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초등46학년	1.4(2.5)	3.5(4.3)	3.7(4.2)	3.9(4.1)	3.6(4.4)	2.0(3.2)
중고등	1.8(3.2)	4.0(4.6)	5.4(5.1)	4.9(4.9)	4.1(4.8)	2.4(3.8)
전체	1.7(3.0)	3.8(4.5)	4.9(4.9)	4.6(4.7)	3.9(4.7)	2.3(3.6)

- 주 1) 응답합산점수: 0점에서 30점 사이임(총 10개 문항).
 2) 응답가능범위: 0점(전혀 없음)에서 3점(거의 항상 있었음)사이임.
 3) 아동의 자기보고 형식이므로 미취학 아동은 제외하였음.
 4) n=2,711명

다음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는 10개 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로 0점에서 30점까지의 값을 갖는다. 내재화 문제행동 정도를 학대 경험 여부로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은 3.8점,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은 1.7점이었고, 모두 '보통'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 정도에 해당되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집단 중에서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14) 원척도의 아동 진단 기준(Gresham & Elliot, 2008)

아동은 4.9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4.6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3.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보통'수준에 해당된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 중에서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3.5점, 중고등학생은 4.0점이었다.

<표 III-5-75>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초등46학년	1.1	6.6	3.5	8.8	8.1	2.6
중고등	0.9	5.2	8.8	8.3	3.4	2.1
전체	1.0	5.6	7.2	8.5	4.9	2.2

주 1)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의 비율임.

2) 아동의 자기보고 형식이므로 미취학 아동은 제외함.

3) n=2,711명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행동을 보고한 설문에서, 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보통' 수준이 넘는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을 살펴보았다.

학대경험 여부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을 살펴봤을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5.6%)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집단 중에서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은 8.5%,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은 7.2%,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은 4.9%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 중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8.8%)이, 방임을 경험한 아동 중에서는 초등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생률(8.1%)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나 높게 나타났다.

<표 III-5-76>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초등46학년	0.4	0.9	0.5	1.1	1.2	0.5
중고등	1.1	5.5	10.6	8.8	5.4	2.3
전체	0.9	4.0	7.6	6.4	4.1	1.7

주 1)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의 비율임.

2) n=2,711명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을 살펴봤을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4.0%)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0.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7.6%),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6.4%), 방임을 경험한 아동(4.1%)의 순으로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연령대별로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생이 보고한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들(0.5%, 1.1%, 1.2%)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보고한 내재화 문제행동 발생률들(10.6%, 8.8%, 5.4%)이 높게 나타났다.

2)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영역

<표 III-5-77> 부모감독: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초등 46학년	3.4(0.5)	3.2(0.5)	3.1(0.6)	3.2(0.5)	3.3(0.5)	3.4(0.5)
중고등	3.3(0.5)	3.1(0.5)	3.1(0.6)	3.0(0.6)	3.1(0.5)	3.2(0.5)
전체	3.3(0.5)	3.1(0.5)	3.1(0.6)	3.0(0.6)	3.2(0.5)	3.3(0.5)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 사이임.

2) n=2,711명

부모감독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 4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내가 외출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부모님은 외출했을 때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8개의 문항,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3.3점)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3.1점)보다 부모감독의 정도가 평균 0.2점 높게 나왔으나 이는 두 집단 모두 '대체로 그렇다'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감독의 정도가 방임 경험(3.2점), 신체적 학대 경험(3.1점), 정서적 학대 경험(3.0)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대체로 그렇다'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폭력에 대한 노출

가) 기타 폭력경험

<표 III-5-78> 학교폭력 경험(심한욕설/협박)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8.1	92.5	90.9	87.4	94.6	96.5
일년에 1-2회	1.2	4.8	9.1	6.3	5.4	2.3
한달에 1-2회	0.5	1.8	0.0	4.2	0.0	0.9
일주일에 1-2회	0.2	0.4	0.0	1.1	0.0	0.3
주 3회 이상	0.0	0.4	0.0	1.1	0.0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3.7	86.7	85.7	88.8	83.9	91.7
일년에 1-2회	5.3	10.3	7.1	7.1	14.0	6.7
한달에 1-2회	0.8	1.7	1.8	1.0	2.1	1.1
일주일에 1-2회	0.2	1.3	5.4	3.1	0.0	0.5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4.6	83.1	78.9	77.6	82.3	91.5
일년에 1-2회	4.8	13.3	13.5	15.0	15.2	7.1
한달에 1-2회	0.4	3.0	5.3	6.5	1.6	1.1
일주일에 1-2회	0.2	0.4	1.5	0.5	0.6	0.3
주 3회 이상	0.0	0.2	0.8	0.5	0.3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심한 욕설/협박’, ‘폭행’, ‘돈이나 물건 빼앗김’, ‘집단따돌림’, ‘고의적 괴롭힘’, ‘성폭행’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심한욕설/협박’을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없다’가 초등 1-3학년은 96.5%, 초등 4-6학년은 91.7%, 중고생은 91.5%로 초등 4학년 이상 아동의 경험이 초등1-3학년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중고생에서 ‘전혀 없다’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94.6%)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83.1%)에 비해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받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생에서 ‘전혀 없다’가 신체적 학대(78.9%)와 정서적 학대(77.6%)를 경험한 아동이 방임(82.3%)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생의 전체의 ‘전혀 없다’ 비율(91.5%)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 9-14%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9> 학교폭력 경험(폭행, 구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3	94.3	90.9	89.4	96.0	97.9
일년에 1-2회	0.5	3.1	7.3	4.3	3.3	1.3
한달에 1-2회	0.2	2.2	1.8	5.3	0.7	0.8
일주일에 1-2회	0.0	0.4	0.0	1.1	0.0	0.1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7	95.3	96.4	96.9	93.1	97.7
일년에 1-2회	1.0	4.3	3.6	2.1	6.3	1.9
한달에 1-2회	0.3	0.0	0.0	0.0	0.0	0.2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4	0.0	1.0	0.0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8.8	94.2	87.9	92.5	94.7	97.6
일년에 1-2회	1.1	4.6	7.6	5.2	4.7	2.0
한달에 1-2회	0.1	1.2	4.5	2.3	0.6	0.4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폭행 또는 구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이 초등 1-3학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89.4%), 중고생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87.9%)이 전체 '전혀 없다'의 비율(97.6%)과 비교했을 때 다른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0> 학교폭력 경험(돈이나 물건 빼앗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8.6	96.5	96.4	93.6	97.3	98.0
일년에 1-2회	1.2	3.1	3.6	5.3	2.7	1.8
한달에 1-2회	0.2	0.4	0.0	1.1	0.0	0.3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7	96.1	98.2	97.9	95.1	98.0
일년에 1-2회	1.3	3.9	1.8	2.1	4.9	2.0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8.2	93.6	88.6	88.3	96.0	97.0
일년에 1-2회	1.7	5.4	9.8	9.9	3.4	2.7
한달에 1-2회	0.1	1.0	1.5	1.9	0.6	0.4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수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생에서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이 신체적 학대(88.6%)와 정서적 학대(88.3%)를 경험한 아동이 전체 '전혀 없다(97.0%)'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다.

<표 III-5-81> 학교폭력 경험(집단따돌림)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1	94.3	94.6	91.6	96.0	97.7
일년에 1-2회	0.5	5.3	5.4	8.4	3.4	1.9
한달에 1-2회	0.2	0.4	0.0	0.0	0.7	0.3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2	0.0	0.0	0.0	0.0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7.7	96.1	96.4	95.8	95.8	97.2
일년에 1-2회	2.3	1.7	1.8	3.1	1.4	2.2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4	0.0	0.0	0.7	0.1
주 3회 이상	0.0	1.7	1.8	1.0	2.1	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9.4	97.4	93.9	95.8	96.9	98.9
일년에 1-2회	0.5	2.2	5.3	3.8	2.5	1.0
한달에 1-2회	0.1	0.2	0.8	0.5	0.3	0.1
일주일에 1-2회	0.0	0.2	0.0	0.0	0.3	0.1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수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학대 유형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초등 1-3학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전혀 없다' 비율이 91.6%로 전체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97.7%)과 대비하여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표 III-5-82> 학교폭력 경험(고의적 괴롭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8.6	94.7	94.4	92.6	98.7	97.5
일년에 1-2회	1.1	3.9	3.7	5.3	0.7	1.9
한달에 1-2회	0.4	1.3	1.9	2.1	0.7	0.6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0	97.0	94.7	96.9	96.5	97.7
일년에 1-2회	1.5	3.0	5.3	3.1	3.5	1.9
한달에 1-2회	0.5	0.0	0.0	0.0	0.0	0.4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8.7	95.6	87.0	93.4	96.6	97.9
일년에 1-2회	1.2	3.2	8.4	3.8	3.1	1.7
한달에 1-2회	0.1	0.8	3.1	1.9	0.3	0.3
일주일에 1-2회	0.0	0.4	1.5	0.9	0.0	0.1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고의적 괴롭힘(심부름시키기, 놀림, 물건 망가뜨리기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수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중고생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전혀 없다' 비율(87.0%)이 전체 비율(97.9%)과 비교했을 때 약 10.1%의 차이가 있었다.

<표 III-5-83> 학교폭력 경험(성폭행)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6	98.7	100.0	96.8	100.0	99.4
일년에 1-2회	0.2	1.3	0.0	3.2	0.0	0.5
한달에 1-2회	0.2	0.0	0.0	0.0	0.0	0.1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9.5	99.1	100.0	100.0	98.6	99.4
일년에 1-2회	0.5	0.9	0.0	0.0	1.4	0.6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100.0	99.0	97.7	98.6	98.8	99.7
일년에 1-2회	0.0	1.0	2.3	1.4	0.3	0.3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대유무와 관계없이 다수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 1-3학년과 4-6학년에서 '전혀 없다'의 전체 비율이 99.4%, 중고생이 99.7%로 초등학생이 중고생에 비해 경험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 1-3학년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초등 4-6학년에서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성폭행 경험이 일년에 1-2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생의 경우 모든 학대 유형에서 성폭행 경험이 일년에 1-2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4> 체벌경험(심한 모욕)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8.8	94.8	98.2	96.8	92.7	97.6
일년에 1-2회	1.2	3.1	1.8	2.1	4.7	3.1
한달에 1-2회	0.0	1.7	0.0	1.1	2.0	1.7
일주일에 1-2회	0.0	0.4	0.0	0.0	0.7	0.4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5	95.7	89.3	94.8	95.1	97.7
일년에 1-2회	1.2	3.9	10.7	5.2	4.2	1.9
한달에 1-2회	0.3	0.4	0.0	0.0	0.7	0.4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6.6	85.1	75.8	78.5	86.6	93.5
일년에 1-2회	3.4	12.7	19.7	16.8	12.5	5.9
한달에 1-2회	0.0	1.6	4.5	3.3	0.9	0.4
일주일에 1-2회	0.0	0.6	0.0	1.4	0.0	0.2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교사로부터 ‘창피할 정도로 심한 모욕을 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등의 언어적,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창피할 정도로 심한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생은 학대경험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아동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중고생의 경우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전체비율은 93.5%였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96.6%)에 비해 학대를 경험한 아동(85.5%)이 심한 모욕을 당한 비율이 높았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 4-6학년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중고생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심한 모욕을 당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5-85> 체벌경험(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8.8	87.3	89.3	92.6	82.7	95.5
일년에 1-2회	1.1	8.3	3.6	4.3	12.0	3.2
한달에 1-2회	0.2	3.5	3.6	2.1	4.0	1.1
일주일에 1-2회	0.0	0.9	3.6	1.1	1.3	0.3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7.0	85.3	83.9	85.6	82.5	93.8
일년에 1-2회	2.2	14.2	16.1	13.4	17.5	5.5
한달에 1-2회	0.5	0.4	0.0	1.0	0.0	0.5
일주일에 1-2회	0.3	0.0	0.0	0.0	0.0	0.2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5.8	78.4	73.5	77.0	76.0	91.2
일년에 1-2회	3.8	17.8	20.5	17.8	20.9	7.5
한달에 1-2회	0.3	2.4	3.8	2.8	2.5	0.9
일주일에 1-2회	0.1	0.8	0.8	1.4	0.3	0.3
주 3회 이상	0.0	0.6	1.5	0.9	0.3	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교사가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혀 없다'에 약 90%이상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대 경험여부로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혀 없다'에 응답한 경우는 초등1-3학년이 87.3%, 초등 4-6학년이 85.3%, 중고생이 78.4%로 전체 비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중고생의 경우 그 차이가 컸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중고생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체벌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5-86> 체벌경험(회초리로 맞음)

(단위 :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6.1	90.8	91.1	91.6	89.3	94.6
일년에 1-2회	3.5	6.6	7.1	5.3	7.4	4.4
한달에 1-2회	0.4	2.6	1.8	3.2	3.4	1.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3.0	86.2	85.7	87.6	84.5	91.1
일년에 1-2회	6.2	12.1	12.5	8.2	13.4	7.8
한달에 1-2회	0.8	1.7	1.8	4.1	2.1	1.1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2.3	77.0	68.2	70.8	77.6	88.2
일년에 1-2회	6.4	19.4	25.0	24.1	20.2	9.8
한달에 1-2회	1.2	2.6	4.5	3.3	2.2	1.6
일주일에 1-2회	0.1	1.0	2.3	1.9	0.0	0.3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교사로부터 회초리로 맞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약 91% 이상, 중고생은 88.2%로 나타났다. 학대 경험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전혀 없다'에 응답한 학대를 경험한 초등 1-3학년은 90.8%, 초등 4-6학년은 86.2%, 중고생은 77.0%로 나타나 중고생에서 학대경험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중고생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68.2%)이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낮았다. 즉,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회초리로 맞은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7> 체벌경험(뺨을 맞음)

(단위 :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6	97.8	96.4	97.9	96.6	99.1
일년에 1-2회	0.4	2.2	3.6	2.1	3.4	0.9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9.0	97.8	94.6	96.9	99.3	99.1
일년에 1-2회	0.8	2.2	5.4	3.1	0.7	0.9
한달에 1-2회	0.2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9.0	96.2	90.2	94.8	96.3	98.2
일년에 1-2회	1.0	2.8	6.1	2.8	3.7	1.5
한달에 1-2회	0.0	1.0	3.8	2.4	0.0	0.3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교사로부터 뺨을 맞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약 98%이상의 아동이 '전혀 없다'에 응답했다. 또한 학대 경험유무와 학대유형별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중고생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일년에 1-2회'가 6.1%, '한달에 1-2회'가 3.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88> 체벌경험(주먹으로 맞음)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8	97.4	96.4	95.8	97.3	99.1
일년에 1-2회	0.2	2.6	3.6	4.2	2.7	0.9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3	100.0	100.0	100.0	100.0	99.1
일년에 1-2회	1.0	0.0	0.0	0.0	0.0	0.9
한달에 1-2회	0.7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8.6	97.4	92.4	95.3	97.2	98.3
일년에 1-2회	1.2	2.0	5.3	3.3	2.8	1.4
한달에 1-2회	0.1	0.6	2.3	1.4	0.0	0.3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교사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98%이상의 아동이 '전혀 없다'에 응답했다. 또한 학대 경험유무와 유형에 따른 큰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9> 체벌경험(출석부 등으로 맞음)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1	96.1	94.5	94.7	95.3	98.2
일년에 1-2회	0.9	3.5	5.5	5.3	4.0	1.6
한달에 1-2회	0.0	0.4	0.0	0.0	0.7	0.1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3	96.7	93.0	97.9	95.1	97.6
일년에 1-2회	1.7	3.9	5.3	2.1	4.9	2.3
한달에 1-2회	0.0	0.4	1.8	0.0	0.0	0.1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5.9	89.6	81.8	85.9	90.3	94.2
일년에 1-2회	3.6	8.2	14.4	9.9	9.0	4.8
한달에 1-2회	0.1	2.0	3.8	3.8	0.6	0.6
일주일에 1-2회	0.4	0.2	0.0	0.5	0.0	0.3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교사로부터 출석부 등으로 맞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초등학생의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에 응답한 중고생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95.9%)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89.6%)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출석부 등으로 맞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에서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유형의 아동보다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81.8%)이 낮았다.

<표 III-5-90> 체벌경험(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맞음)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6	97.8	94.6	98.9	98.0	99.1
일년에 1-2회	0.2	0.9	0.0	0.0	1.3	0.4
한달에 1-2회	0.0	1.3	5.4	1.1	0.7	0.4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2	0.0	0.0	0.0	0.0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7	92.3	91.2	92.8	92.4	96.9
일년에 1-2회	1.3	7.3	8.8	6.2	6.9	3.0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4	0.0	0.1	0.7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6.9	91.0	82.4	86.9	92.5	95.3
일년에 1-2회	2.8	6.8	13.0	9.4	6.2	3.9
한달에 1-2회	0.1	1.4	2.3	2.3	1.2	0.4
일주일에 1-2회	0.0	0.8	0.0	1.4	0.0	0.2
주 3회 이상	0.2	0.0	0.0	0.0	0.0	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496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교사로부터 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맞은 경험 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전체적으로 95%이상이 '전혀 없다'에 응답했다. 중고생에서 학대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이 신체적 학대는 82.4%, 정서적 학대는 86.9%로 전체(95.3%)와 비교했을 때 낮은 비율로 응답했다.

<표 III-5-91> 지역사회 폭력경험(심한 욕설/협박)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3	92.5	92.7	93.7	90.7	97.3
일년에 1-2회	0.7	3.5	7.3	4.2	4.0	1.5
한달에 1-2회	0.0	3.1	0.0	0.0	4.7	0.9
일주일에 1-2회	0.0	0.4	0.0	1.1	0.7	0.1
주 3회 이상	0.0	0.4	0.0	1.1	0.0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8.7	94.8	91.1	95.9	95.1	97.6
일년에 1-2회	1.0	5.2	8.9	4.1	4.9	2.2
한달에 1-2회	0.3	0.0	0.0	0.0	0.0	0.2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8.8	88.3	82.6	85.9	88.2	95.9
일년에 1-2회	1.1	9.9	12.9	10.8	10.6	3.5
한달에 1-2회	0.1	1.8	4.5	3.3	1.2	0.6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504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 기준)간 지역사회 내(학교제외)의 또래나 성인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협박’, ‘폭행, 구타’, ‘돈이나 물건 빼앗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고생에서 ‘전혀 없다’에 응답한 전체 비율은 95.9%였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88.3%로 전체 대비 낮게 나타나 욕설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생에서 특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82.6%)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III-5-92> 지역사회 폭력경험(폭행, 구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6	98.2	96.4	96.9	97.3	99.2
일년에 1-2회	0.4	1.8	3.6	3.1	2.7	0.8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0.0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100.0	99.1	98.2	98.0	99.3	99.8
일년에 1-2회	0.0	0.4	1.8	1.0	0.0	0.1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4	0.0	1.0	0.7	0.1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9.7	96.2	93.2	93.9	95.6	98.8
일년에 1-2회	0.3	3.8	6.8	6.1	4.4	1.2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504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 기준)간 지역사회 내의 또래나 성인들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대 경험유무와 유형에 따른 큰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3> 지역사회 폭력경험(돈이나 물건 빼앗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5	98.7	100.0	97.9	98.7	99.2
일년에 1-2회	0.5	1.3	0.0	2.1	1.3	0.8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0.0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99.7	99.1	100.0	100.0	98.6	99.5
일년에 1-2회	0.3	0.9	0.0	0.0	1.4	0.5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99.3	96.8	93.2	94.8	96.9	98.6
일년에 1-2회	0.7	3.2	6.8	5.2	3.1	1.4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504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 기준)간 지역사회 내의 또래나 성인들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대경험유무와 유형에 따른 큰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4> 지역사회 폭력경험(성폭행)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u>초등 13학년</u>						
전혀 없다	99.6	100.0	100.0	100.0	100.0	99.7
일년에 1-2회	0.4	0.0	0.0	0.0	0.0	0.3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초등 46학년</u>						
전혀 없다	100.0	99.1	100.0	100.0	98.6	99.8
일년에 1-2회	0.0	0.9	0.0	0.0	1.4	0.2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생</u>						
전혀 없다	100.0	99.2	98.5	99.1	100.0	99.8
일년에 1-2회	0.0	0.8	1.5	0.9	0.0	0.2
한달에 1-2회	0.0	0.0	0.0	0.0	0.0	0.0
일주일에 1-2회	0.0	0.0	0.0	0.0	0.0	0.0
주 3회 이상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n=3,504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지역사회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대유무와 관계없이, 절대 다수의 아동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초등 1-3학년에서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초등 4학년 이상에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목격경험

<표 III-5-95> 형제자매 학대목격경험: 점수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초등 13학년	21(3.6)	46(6.1)	3.5(3.3)	4.9(6.5)	5.4(7.2)	2.9(4.7)
초등 46학년	23(4.7)	3.9(5.2)	4.6(6.7)	4.8(6.8)	3.9(4.8)	2.8(4.2)
중고등	21(3.4)	5.0(7.1)	7.4(8.9)	6.2(8.3)	5.0(7.0)	2.9(4.9)
전체	2.2(3.5)	4.6(6.5)	5.9(7.7)	5.5(7.6)	4.9(6.6)	2.9(4.7)

주 1) 응답합산점수 : 응답가능범위는 0점에서 75점사이임(0점 '전혀 없었다'에서 6점 '20번 이상 있었다' 사이임.)

2) 1점 이상이면 학대를 목격한 것임.

3) n=2,842명

취학아동에게 지난 1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함께 사는 어른이 본인이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빈정거림',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물건으로 때리려고 위협', '사정없이 마구 때림'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총 15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4.6점)이 그렇지 않은 아동(2.2점)에 비해 형제자매 학대목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에서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2.1점)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5.0점)의 점수 차이가 다른 연령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5.9점)이 다른 유형에 비해 목격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표 III-5-96> (주변에서)학대목격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전체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초등 46학년	1.8	6.2	3.5	7.8	6.9	3.1
중고등	1.9	9.2	14.9	12.0	10.9	3.8
전체	1.9	8.2	11.5	10.7	9.7	3.6

주 1) n=2,711명

지난 6개월간(조사시점을 기준으로)간 주변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초등 4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질문 한 결과 전체적으로 3.6%로 나타났으며 학대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8.2%)은 그렇지 않은 아동(1.9%)에 비해 다른 아이들의 학대를 목격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11.5%)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목격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7> 학대목격빈도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평균(SD)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초등 46학년	2.0(1.1)	1.2(0.5)	1.2(0.5)	1.1(0.5)	1.3(0.5)	1.6(0.9)
중고등	1.4(0.5)	1.7(0.9)	1.9(1.0)	1.5(0.8)	1.8(0.8)	1.6(0.8)
전체	1.6(0.8)	1.6(0.8)	1.8(1.0)	1.4(0.7)	1.6(0.8)	1.6(0.8)

주 1) 응답가능범위는 1점(1-2번)에서 4점(7번 이상)사이임.

2) n=97명

주변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초등 4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그 빈도에 대해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1.6점으로 1-2번에서 3-4번 정도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대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 4-6학년 연령에서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2.0점)은 3-4번 정도로 나타났고, 중고생 연령에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1.7점)은 1-2번에서 3-4번 사이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분포한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1.8점)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학대 목격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1-2번'에서 '3-4'번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8> 학대목격장소

구분	아동학대 경험 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집단 내 학대 유형별			(단위: %)
	미경험	경험	신체적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전체
<u>초등 46학년</u>						
이웃	81.8	71.4	100.0	50.0	100.0	76.0
학교	18.2	7.1	0.0	12.5	0.0	12.0
공공장소	0.0	7.1	0.0	12.5	0.0	4.0
등하교길	0.0	0.0	0.0	0.0	0.0	0.0
기타	0.0	14.3	0.0	25.0	0.0	8.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중고등</u>						
이웃	53.8	64.4	50.0	56.0	74.3	60.6
학교	11.5	11.1	20.0	8.0	11.4	11.3
공공장소	7.7	6.7	10.0	8.0	2.9	7.0
등하교길	23.1	15.6	15.0	24.0	11.4	18.3
기타	3.8	2.2	5.0	4.0	0.0	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타: 친구집 포함.

2) n=97명

주변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초등 4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목격 장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4-6학년의 경우 이웃(76.0%), 학교(12.0%), 공공장소(4.0%) 순으로 나타났고 중고생의 경우는 이웃(60.6%), 등하교길(18.3%), 학교(11.3%), 공공장소(7.0%)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 4-6학년에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이웃에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100%로 나타났고 중고생의 경우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이웃(74.3%)에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4부.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제4부.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수준, 아동학대 유형,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 및 아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일반가구조사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판별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양육자와 아동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을 통해서 각 조항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에서는 첫째,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따라서 주양육자의 가정생활,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가정환경 영역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아동학대 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평소행동, 도움요청 대상, 부모와의 유대관계,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유형 및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주양육자 및 아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1. 조사 대상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를 사용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판별된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발생 가구를 판별하는데 사용된 기준은 세 가지이며, 구체적 내용은 <표 IV-1-1>, <표 IV-1-2>, 그리고 <표 IV-1-3>와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이 아래의 항목 <표 IV-1-1>에서 한 항목이라도 지난 1년간 6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이다.

<표 IV-1-1> 아동학대 발생으로 판별된 가구(1)

조사 항목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나를 '바보'나 '멍청이'등으로 불렀다

둘째, 일반 조사 가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이 아래의 항목 <표 IV-1-2>에서 한 항목이라도 지난 1년간 1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이다.

<표 IV-1-2> 아동학대 발생으로 판별된 가구(2)

조사 항목
나를 잡고 흔들었다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뺐다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나를 꼬집었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나를 '바보'나 '멍청이'등으로 불렀다

셋째, 일반조사 가구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아동이 아래의 항목 <표 IV-1-3>에서 한 항목이라도 지난 1년간 1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이다.

<표 IV-1-3> 아동학대 발생으로 판별된 가구(3)

조사 항목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위와 같은 기준 중 어떤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가구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별 되었으며, 이 가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을 통해서 각 조항항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 되었다. 아동학대 위험 가구 조사는 총 주양육자 2,711명, 아동 1,310명의 응답내용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양육자와 아동의 분석 자료의 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동의 경우, 일반가구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판별 기준에 해당하는 질문 중 위에 제시된 기준에 해당된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아동 1,31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양육자 조사는 아동 응답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뒤에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자녀를 둔 주양육자 전체 2,711명을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아동과 주양육자의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대해 동일한 판별기준을 적용시킬 수 없어서 분석대상의 표본 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IV-1-4>, <표 IV-1-5> 같다.

<표 IV-1-4>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대상(주양육자)

(단위: 명 / %)

		사례 수	학대경험(제한적 기준)		전체
			미경험	경험	
권역	서울 / 인천	626	21.6	27.1	23.1
	경 기	675	25.5	23.3	24.9
	대전/충북/충남	290	10.8	10.5	10.7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710	26.7	24.8	26.2
	광주/강원/전 북/전남/제주	409	15.4	14.3	15.1
	전 체	2,711	100.0	100.0	100.0
지역 크기	대 도 시	1,209	42.8	49.5	44.6
	중 소 도 시	1,113	42.1	38.4	41.1
	농 어 촌	389	15.2	12.1	14.3
	전 체	2,711	100.0	100.0	100.0
가구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92	6.6	8.4	7.1
	차상위 가구	65	2.1	3.3	2.4
	일 반 가구	2,453	91.3	88.3	90.5
	전 체	2,711	100.0	100.0	100.0
아동과의 관계	아 버 지	290	11.3	9.0	10.7
	어 머 니	2,321	84.9	87.5	85.6
	(외)조 부 모	92	3.4	3.4	3.4
	기 타	8	0.4	0.1	0.3
	전 체	2,711	100.0	100.0	100.0
주양육자 성별	남 자	315	12.5	9.4	11.6
	여 자	2,395	87.5	90.6	88.4
	전 체	2,711	100.0	100.0	100.0
주양육자 연령대	30대 이하	442	16.4	16.2	16.3
	40대	1,908	70.5	70.1	70.4
	50대	254	9.1	10.1	9.4
	60대 이상	95	3.6	3.3	3.5
	모름 / 무응답	11	0.4	0.4	0.4
	전 체	2,711	100.0	100.0	100.0
주양육자 학력	초등학교 이하	89	3.4	2.9	3.3
	중 / 고등학교	1,691	62.1	63.1	62.4
	대학 이상	921	62.1	33.4	34.0
	모름 / 무응답	9	0.2	0.7	0.3
	전 체	2,711	100.0	100.0	100.0

<표 IV-1-5>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대상(아동용)

(단위: 명 / %)

		사례 수	학대경험(제한적 기준)		전체
			저위험군	고위험군	
권역	서울 / 인천	357	28.0	26.6	27.3
	경 기	294	21.1	23.6	22.4
	대전/충북/충남	111	6.1	10.6	8.5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327	25.5	24.5	25.0
	광주/강원/전북/전남/제주	221	19.3	14.7	16.9
	전 체	1,310	100.0	100.0	100.0
지역 크기	대 도 시	612	44.0	49.1	46.8
	중 소 도 시	521	41.1	38.6	39.7
	농 어 촌	177	14.9	12.3	13.5
	전 체	1,310	100.0	100.0	100.0
가구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02	6.9	8.6	7.8
	차상위 가구	38	2.3	3.4	2.9
	일 반 가구	1,170	90.8	88.0	89.3
	전 체	1,310	100.0	100.0	100.0
아동과의 관계	아 버 지	119	8.9	9.3	9.1
	어 머 니	1,144	87.5	87.1	87.3
	(외)조 부 모	45	3.4	3.4	3.4
	기 타	2	0.2	0.1	0.2
	전 체	1,310	100.0	100.0	100.0
주양육자 성별	남 자	127	9.7	9.7	9.7
	여 자	1,183	90.3	90.3	90.3
	전 체	1,310	100.0	100.0	100.0
주양육자 연령대	30대 이하	242	21.1	16.3	18.5
	40대	893	66.0	69.9	68.1
	50대	122	8.5	10.1	9.4
	60대 이상	49	4.2	3.3	3.7
	모름 / 무응답	4	0.2	0.4	0.3
	전 체	1,310	100.0	100.0	100.0
주양육자 학력	초등학교 이하	44	3.8	3.0	3.4
	중 / 고등학교	809	60.7	62.7	61.8
	대학 이상	452	35.5	33.6	34.5
	모름 / 무응답	5	0.0	0.7	0.4
	전 체	1,310	100.0	100.0	100.0
아동 성별	남 자	695	52.2	53.9	53.1
	여 자	615	47.8	46.1	46.9
	전 체	1,310	100.0	100.0	100.0
아동 연령대	초등	443	36.2	31.8	33.8
	중고등	867	63.8	68.2	66.2
	전 체	1,310	100.0	100.0	100.0

2.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별된 가구를 대상으로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의 기준은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의 기준

기준	구분	내용
기준별	제한적 기준	협의의 아동학대(심각한 학대) 기준
	포괄적 기준	광의의 아동학대(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 기준
학대유형별	신체	신체적 학대 발생(제한적 기준)
	정서	정서적 학대 발생(제한적 기준)
	방임	방임 발생(제한적 기준)

아동학대 발생률을 구하기 위하여 심각한 학대만 포함한 제한적 기준의 아동학대 발생률과 경미한 학대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준의 아동학대 발생률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발생률 산정 기준에서 제한적 기준과 포괄적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식조사에서 CTSPC의 각 문항을 학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정도에 따라 학대인지 아닌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인 요인을 '심각한 학대'만 포함한 제한적 기준으로, 그 외의 요인을 '경미한 학대'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제한된 기준으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판별하였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였으며, 제한적 기준(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가. 주양육자 조사

주양육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가구의 가정생활,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가정환경 영역, 아동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인식 등이다.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2-2> 주양육자용 조사 내용

주제		세부 항목
가정생활	부모-자녀관계	- 부모양육행동(자녀를 키우면서 느낌이나 생각)
	부모의 특성	- 음주 특성(음주빈도, 음주량, 음주 후 행동 및 느낌) - 출산경험 - 게임(게임 빈도 및 게임 후 행동 및 느낌) - 아동 기질에 따른 부모양육 스트레스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서비스 이용 경험	-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경험 및 참여 욕구 - 희망하는 자녀양육 서비스 제공 시설, 희망하는 자녀양육 제공자, 희망하는 자녀양육 서비스 - 자녀양육 서비스 참여 욕구가 없는 이유 - 희망하는 양육지원 서비스
가정환경	가정환경	- 가정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경험
아동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목격 및 신고 경험	- 아동학대 목격 경험 여부 - 아동학대 신고 여부, 신고처, 미신고 이유 - 향후 피학대 아동 발견시 신고 여부, 신고처, 미신고 이유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여부 -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 여부, 조치 받은 법적·보호·형사처분의 종류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관한 인식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 -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여부

나. 아동 조사

아동용 설문지는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영역은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유대관계,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평소행동, 도움요청 대상 등이다. 구체적인 아동용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2-3> 아동용 조사 내용

주제		세부 항목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인지 여부,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 된 경로 - 향후 아동학대 신고처
기타	자아개념	-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한 생각
	부모와의 유대관계	- 부모님(주양육자)에 대한 평소 느낌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님 및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부모가 본인을 대하는 태도)
	평소 행동	- 아동의 평소 행동(우울·불안, 공격성)
	도움요청 대상	- 도움 요청 대상

3. 영역별 분석결과

가.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수준, 아동학대 유형,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주양육자 및 아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먼저, 주양육자는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따라서 미발생 집단과 발생 집단, 발생 집단은 다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세 집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동은 아동학대 수준에 따라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구분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일반가구 조사와 다르게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수준으로 구분한 이유는 '아동학대 경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일반가구 조사에서 아동학대 '경험'은 고위험군을 의미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학대가 1번이라도 발생 했으면 모두 '경험'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독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경험'이라는 용어 대신 주양육자는 '발생'을 아동은 '수준'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결과를 제시하여 세 가지 학대 경험에 대한 비교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구 특성, 지역 크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연령은 초등 4·5학년, 중고등으로, 가구 특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로, 지역 크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도 살펴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수준은 제한적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은 비교적 많은 아동학대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문항만을 선정한 것으로 포괄적 기 아동학대 기준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 아동기준으로 산출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27.1%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면 저위험군(72.9%), 고위험군(27.1%)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영역의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바로 이러한 집단 비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유형 역시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은 신체적 학대 7.0%, 정서적 학대 11.5%, 방임 17.1%였다. 이 세 기준의 총합이 27.1%를 초과하는 이유는 중복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27.1%)와 일반가구(25.3%)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양육자 응답 결과 분석

1) 주양육자 양육행동

가)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표 IV-3-1>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온정·수용	21.2(7.4)	20.8(7.3)	20.6(6.8)	22.3(7.0)	19.9(6.3)	20.9(6.8)
거부·제재	17.6(5.6)	19.2(5.3)	21.0(5.5)	22.1(5.8)	22.4(5.7)	20.8(5.6)
허용·방임	18.5(5.8)	20.2(5.2)	21.4(5.2)	21.1(5.4)	21.6(5.5)	21.9(5.4)

주 1) 응답합산점수: 0점에서 30점 사이임.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n=2,711명(미발생 n=1,411, 발생 n=1,310명)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과 저위험군에서는 온정·수용(21.2점, 20.8점)이, 고위험군에서는 허용·방임(20.2점)이 가장 높았다. 한편 온정·수용은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21.2점), 저위험군(20.8점), 고위험군(20.6점) 순으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고위험군(20.1점, 21.4점), 저위험군(19.2점, 20.2점), 미발생 집단(17.6점, 18.5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집단에서는 온정·수용(22.3점)이,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는 거부·제재(22.4점)가, 방임 집단에서는 허용·방임(21.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1)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표 IV-3-2>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행동 유형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미발생	발생			
남		저위험군	21.0(7.3)	17.1(5.3)	18.8(6.2)
		고위험군	24.6(8.2)	18.1(5.1)	19.9(5.6)
		고위험군	20.5(5.9)	19.9(5.7)	21.1(5.0)
여		저위험군	21.2(7.4)	17.6(5.6)	18.5(5.7)
		고위험군	20.5(7.1)	19.3(5.3)	20.2(5.2)
		고위험군	20.6(6.9)	21.1(5.5)	21.5(5.2)

주 1) 응답합산점수: 0점에서 30점 사이임.

2) n=2,711명(미발생 n=1,411, 발생 n=1,310명)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온정·수용은 남자 저위험군(24.6점)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자 미발생 집단(21.2점) 순이었다.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모두 여자 고위험군(21.1점, 21.5점)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자 고위험군(19.9점, 21.1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표 IV-3-3>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행동 유형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초등 4-6학년	미발생		21.0(7.5)	17.4(5.5)	17.7(5.7)
	발생	저위험군	21.0(7.2)	19.1(4.8)	19.9(5.0)
		고위험군	20.0(7.1)	20.5(5.2)	21.1(5.2)
중고등	미발생		21.3(7.3)	17.6(5.6)	18.8(5.8)
	발생	저위험군	20.7(7.3)	19.2(5.4)	20.3(5.3)
		고위험군	21.0(6.5)	21.3(5.7)	21.6(5.2)

주 1) 응답합산점수: 0점에서 30점 사이임.

2) n=2,711명(미발생 n=1,411, 발생 n=1,310명)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온정·수용은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모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21.3점, 21.6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21.1점, 21.6점)이 높았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표 IV-3-4>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행동 유형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미발생		21.3(7.3)	17.9(5.3)	18.8(5.5)
	발생	저위험군	23.2(7.5)	19.2(5.4)	20.4(5.9)
		고위험군	22.5(6.7)	21.5(5.8)	21.9(5.0)
차상위가구	미발생		21.0(7.1)	18.5(5.5)	20.1(6.0)
	발생	저위험군	21.4(7.7)	20.6(5.2)	21.3(6.1)
		고위험군	22.5(7.2)	21.6(4.8)	21.8(3.9)
일반가구	미발생		21.2(7.4)	17.5(5.6)	18.5(5.8)
	발생	저위험군	20.6(7.2)	19.2(5.3)	20.1(5.1)
		고위험군	20.3(6.7)	20.9(5.5)	21.3(5.3)

주 1) 응답합산점수: 0점에서 30점 사이임.

2) n=2,711명(미발생 n=1,411, 발생 n=1,310명)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온정·수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저위험군(23.2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22.5점) 및 차상위 가구 고위험군(22.5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부·제재는 차상위가구 고위험군(21.6점)에서 가장 높

왔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21.5점), 일반가구 고위험군(20.9점) 순이었다. 허용·방임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21.9점), 차상위가구 고위험군(21.8점), 일반가구 고위험군(21.3점) 및 차상위가구 저위험군(21.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표 IV-3-5>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 양육행동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행동 유형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대도시	미발생		21.0(7.5)	18.6(5.8)	19.4(5.8)
	발생	저위험군	21.1(7.1)	19.8(5.3)	20.4(4.9)
		고위험군	21.5(6.6)	21.7(5.6)	22.0(5.1)
중소도시	미발생		21.4(7.5)	16.7(5.2)	18.0(5.8)
	발생	저위험군	19.8(6.7)	18.5(4.9)	19.8(5.1)
		고위험군	19.4(6.9)	19.8(5.0)	20.4(4.9)
농어촌	미발생		21.0(6.9)	16.9(5.4)	17.5(5.6)
	발생	저위험군	22.9(8.6)	19.3(5.9)	20.8(6.1)
		고위험군	20.3(6.4)	21.5(5.9)	21.8(5.9)

주 1) 응답합산점수: 0점에서 30점 사이임.

2) n=2,711명(미발생 n=1,411, 발생 n=1,310명)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온정·수용은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중소도시의 저위험군(19.8점)과 고위험군(19.4점)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모두 대도시 고위험군(21.7점, 22.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제재는 농어촌 고위험군(21.5점)에서, 허용·방임은 농어촌 저위험군(20.8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은 모두 중소도시 미발생 집단(16.7점, 18.0점)과 농어촌 미발생 집단(16.9점, 17.5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음주

가) 지난 1년간 음주 빈도

<표 IV-3-6> 지난 1년간 음주 빈도: 응답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월 1회 이하	31.7	31.2	31.2	30.4	33.5	29.9
월 2-4회	22.2	21.4	27.1	23.6	27.5	27.2
주 2-4회	4.9	7.5	5.9	6.8	7.6	4.2
주 4회 이상	1.6	1.8	3.0	4.1	1.7	4.5
전혀 마시지 않았음	38.8	36.9	32.2	34.5	28.4	33.8
모름/무응답	0.9	1.2	0.6	0.7	1.3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고도위험음주자: 주 3회 이상 음주자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n=2,711명(미발생 n=1,411, 발생 n=1,310명)

주양육자의 지난 1년 간 음주 빈도는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집단에서 ‘전혀 마시지 않았음’ 또는 ‘월 1회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2회 이상의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은 미발생 집단(6.5%)에서 보다 아동학대 발생 집단(저위험군 9.3%, 고위험군 8.9%)에서 더 높았다. 특히 신체적 학대 집단(10.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음주량

<표 IV-3-7> 지난 1년간 음주량: 응답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1-2잔	55.3	44.5	34.2	28.6	31.4	37.3
3-4잔	28.3	30.7	41.6	44.9	44.4	38.6
5-6잔	7.7	14.8	15.9	17.3	18.3	14.1
7-9잔	5.1	6.8	4.1	6.1	3.6	5.5
10잔 이상	2.1	1.0	1.6	2.0	0.6	1.8
모름/무응답	1.5	2.3	2.5	1.0	1.8	2.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고도위험 음주자: 5잔 이상 음주자.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표 IV-3-6>에서 ‘전혀 마시지 않았음’ 응답자(37%) 제외

4) n=1,709명(미발생 n=856명, 발생 n=853명)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1회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의 '1-4잔' 사이의 비율(83.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 집단의 '1-4잔' 사이의 비율은 저위험군(75.2%), 고위험군(75.8%), 신체적 학대(73.5%), 정서적 학대(75.8%), 방임(75.9%) 순으로,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음주량은 비슷했다.

1회 5잔 이상의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은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14.9%)에서보다 발생 집단(저위험군 22.6, 고위험군 21.6%)에서 더 높았다. 특히 신체적 학대 집단(25.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1회 음주 빈도(6잔 이상)

<표 IV-3-8> 1회 음주 시 6잔 이상 마시는 정도: 응답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전혀 없다	61.0	43.9	42.7	35.1	36.1	43.2
몇 달에 한 번 정도	25.4	38.7	37.3	42.3	39.6	36.8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8.8	9.4	13.4	16.5	17.8	13.6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9	4.7	5.2	4.1	4.1	5.5
거의 매일	0.1	0.6	0.5	1.0	0.6	0.5
모름/무응답	1.8	2.7	0.8	1.0	1.8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고도위험 음주자: 5잔 이상 음주자.

2) <표 IV-3-6>에서 '전혀 마시지 않았음' 응답자(37%) 제외

3) n=1,709명(미발생 n=856명, 발생 n=853명)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1회 음주 시 6잔 이상 마시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집단에서 '전혀 없다'나 '몇 달에 한번 정도'가 대부분(미발생 86.4%, 저위험군 82.6%, 고위험군 80.0%, 신체적 학대 77.4%, 정서적 학대 75.7%, 방임 80.0%)을 차지하였고,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라) 한국형 알코올중독 간이선별 검사법(AUDIT-K)

<표 IV-3-9> 알코올중독 간이선별검사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점수	0.6(1.7)	0.8(2.0)	1.5(2.6)	2.4(3.4)	2.0(2.9)	1.6(2.6)

주 1) 응답평균: 응답가능범위는 0점(전혀 없음)에서 4점(거의 매일) 사이임.

2) 구분: 거의 매일(4점), 일주일에 1-2번(3점), 한 달에 1-2번(2점), 몇 달에 한 번(1점), 전혀 없음(0점)

3)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4) <표 IV-3-6>에서 '전혀 마시지 않았음' 응답자(37%) 제외

5) 결측치(0.8%) 발생

6) n=1,685명(미발생 n=845명, 발생 n=840명)

한국형 알코올중독 간이선별 검사법(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결과, 고위험군(1.5점), 저위험군(0.8점), 미발생 집단(0.6점)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집단(2.4점)과 정서적 학대 집단(2.0점)에서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 알코올중독(Cut-down Annoyed Guilt Eye-opener: CAGE)

<표 IV-3-10> 알코올 중독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점수	0.3(0.9)	0.7(1.3)	0.6(1.2)	1.0(1.4)	0.7(1.2)	0.6(1.1)

- 주 1) 응답합산점수: 응답가능범위는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임.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표 IV-3-6>에서 '전혀 마시지 않았음' 응답자(37%) 제외
 4) 결측치(0.8%) 발생
 5) n=1,685명(미발생 n=845, 발생 n=840명)

알코올중독(Cut-down, Annoyed, Guilt, Eye-opener: CAGE) 검사 결과, 저위험군(0.7점)과 고위험군(0.6점)은 미발생 집단(0.3점)에 비해 알코올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알코올중독은 신체적 학대 집단(1.0점)에서 상당히 높았고, 정서적 학대 집단(0.7점)과 방임 집단(0.6점)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3) 출산 경험

<표 IV-3-11> 지난 1년 간 출산 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다	0.7	0.6	0.9	2.0	1.3	0.9
없다	73.1	73.5	77.3	80.4	79.7	76.6
비해당(남성의 경우)	26.1	25.9	21.8	17.6	19.1	22.5

-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의 지난 1년 간 출산 경험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지난 1년 내 출산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발생 0.7%, 저위험군 0.6%, 고위험군 0.9%, 신체적 학대 2.0%, 정서적 학대 1.3%, 방임 0.9%).

4) 게임

가)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게임빈도

<표 IV-3-12> 지난 1년간 게임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예	6.7	9.7	11.9	19.0	20.3	9.6
아니오	93.3	90.3	88.1	81.0	79.7	90.4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 발생 n=1,310명)

주양육자의 게임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고위험군(11.9%)의 게임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위험군(9.7%), 미발생 집단(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에 따른 게임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20.3%), 신체적 학대(19.0%), 방임 집단(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게임 중독

<표 IV-3-13>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게임 중독 총점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점수	28.8(14.7)	29.6(13.7)	34.3(15.7)	35.1(17.5)	34.6(15.3)	36.7(15.5)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됨.

3) 진단: 고위험사용자(80점 이상), 잠재적위험사용자(60-79점), 일반사용자(40-59점), 저위험사용자(39점 이하)

4)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5) <표 IV-3-12>에서 게임경험이 있는 응답자(8.6%)만 대상으로 함.

6) n=233명(미발생 n=94명, 발생 n=139명)

게임중독 검사 결과,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양육자는 39점 이하의 저위험사용자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게임중독 점수(34.3점)가 가장 높았으며, 저위험군(29.6점)과 미발생 집단(28.8점)의 점수 차이는 작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게임중독은 방임(36.7점), 신체적 학대(35.1점), 정서적 학대(34.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

(1) 성별에 따른 게임중독

<표 IV-3-14> 성별에 따른 게임 중독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점수
남	미발생		31.7(14.5)
	발생	저위험군	32.9(20.8)
		고위험군	26.0(9.7)
여	미발생		28.1(14.7)
	발생	저위험군	28.7(11.1)
		고위험군	35.6(16.2)

-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됨.
 3) 진단: 고위험사용자(80점 이상), 잠재적위험사용자(60-79점), 일반사용자(40-59점), 저위험사용자(39점 이하).
 4) <표 IV-3-12>에서 게임경험이 있는 응답자(8.6%)만 대상으로 함.
 5) n=233명(미발생 n=94명, 발생 n=139명)

성별에 따른 주 양육자의 게임중독 진단 결과, 여자 고위험군(35.6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 고위험군(26.0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자 저위험군(32.9점), 남자 미발생 집단(31.7점), 여자 저위험군(28.7점), 여자 미발생 집단(28.1점)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게임중독

<표 IV-3-15> 아동의 연령에 따른 게임 중독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점수
초등 4-5학년	미발생		25.9(9.3)
	발생	저위험군	26.7(8.4)
		고위험군	36.2(16.4)
중고등	미발생		29.7(15.9)
	발생	저위험군	31.6(16.3)
		고위험군	32.4(15.0)

-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됨.
 3) 진단: 고위험사용자(80점 이상), 잠재적위험사용자(60-79점), 일반사용자(40-59점), 저위험사용자(39점 이하).
 4) <표 IV-3-12>에서 게임경험이 있는 응답자(8.6%)만 대상으로 함.
 5) n=233명(미발생 n=94명, 발생 n=139명)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게임중독 진단 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36.2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32.4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25.9점)에서 게임중독 점수는 가장 낮았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게임중독

<표 IV-3-16> 가구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점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미발생		24.9(6.8)
	발생	저위험군	29.5(14.6)
		고위험군	36.3(21.5)
차상위가구	미발생		29.1(14.8)
	발생	저위험군	36.7(17.3)
		고위험군	30.5(15.6)
일반가구	미발생		29.1(15.1)
	발생	저위험군	29.4(13.8)
		고위험군	34.2(15.4)

-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됨.
 3) 진단: 고위험사용자(80점 이상), 잠재적위험사용자(60-79점), 일반사용자(40-59점), 저위험사용자(39점 이하).
 4) <표 IV-3-12>에서 게임경험이 있는 응답자(8.6%)만 대상으로 함.
 5) n=233명(미발생 n=94명, 발생 n=139명)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 게임중독 진단 결과, 차상위가구 저위험군(36.7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36.3점), 일반가구 고위험군(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미발생 집단(24.9점)에서 게임중독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게임중독

지역 크기에 따른 게임중독 진단 결과, 농어촌 고위험군(43.0점)과 중소도시 고위험군(39.5)는 일반사용자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미발생 집단(25.0점)은 저위험사용자로 나타났다.

<표 IV-3-17> 지역 크기에 따른 게임 중독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점수
대도시	미발생		28.5(9.6)
	발생	저위험군	27.4(8.7)
		고위험군	28.5(10.5)
중소도시	미발생		30.5(19.0)
	발생	저위험군	32.8(18.4)
		고위험군	39.5(20.8)
농어촌	미발생		25.0(5.8)
	발생	저위험군	26.5(7.8)
		고위험군	43.0(14.8)

-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됨.
 3) 진단: 고위험사용자(80점 이상), 잠재적위험사용자(60-79점), 일반사용자(40-59점), 저위험사용자(39점 이하).
 4) <표 IV-3-12>에서 게임경험이 있는 응답자(8.6%)만 대상으로 함.
 5) n=233명(미발생 n=94명, 발생 n=139명)

5) 부모양육 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가)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따른 부모양육 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표 IV-3-18>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평균(SD)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양육스트레스	1.8(0.5)	1.9(0.5)	2.1(0.6)	2.2(0.6)	2.2(0.6)	2.1(0.6)
아동의 기질	2.8(0.4)	2.7(0.4)	2.8(0.4)	2.8(0.4)	2.8(0.5)	2.8(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아동이 까다로운 기질임을 의미함.

3)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4)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고위험군(2.1점), 저위험군(1.9점), 미발생 집단(1.8점) 순으로 나타났고, 학대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주양육자가 인식한 아동의 기질은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1)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표 IV-3-19> 성별에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미발생	발생		
남		저위험군	1.8(0.5)	2.7(0.4)
		고위험군	2.0(0.5)	2.9(0.4)
			2.1(0.6)	2.8(0.4)
여		저위험군	1.8(0.5)	2.8(0.4)
		고위험군	1.9(0.5)	2.7(0.4)
			2.1(0.6)	2.8(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남자 고위험군(2.1점)과 여자 고위험군(2.1점)에서 평균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인식한 아동의 기질은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남자 저위험군(2.9점)이 아동을 약간 더 까다로운 기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표 IV-3-20> 아동의 연령에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스트레스		평균(SD)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초등 4·6학년	미발생		1.7(0.5)		2.7(0.4)
	발생	저위험군	1.9(0.5)		2.7(0.4)
		고위험군	1.9(0.6)		2.7(0.5)
중고등	미발생		1.8(0.5)		2.8(0.4)
	발생	저위험군	1.9(0.6)		2.8(0.4)
		고위험군	2.1(0.6)		2.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주양육자가 인식한 아동의 기질은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2.1점, 2.9점)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아동을 보다 더 까다로운 기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표 IV-3-21>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스트레스		평균(SD)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미발생		1.9(0.6)		2.8(0.4)
	발생	저위험군	2.1(0.6)		2.9(0.4)
		고위험군	2.2(0.6)		2.9(0.4)
차상위가구	미발생		1.9(0.6)		2.7(0.5)
	발생	저위험군	2.1(0.6)		2.9(0.4)
		고위험군	2.3(0.5)		3.0(0.5)
일반가구	미발생		1.8(0.5)		2.8(0.4)
	발생	저위험군	1.9(0.5)		2.7(0.4)
		고위험군	2.0(0.6)		2.8(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차상위가구 고위험군(2.3점)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2.2점)에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인식한 아동의 기질은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차상위가구 고위험군(3.0점)에서 아동을 보다 더 까다로운 기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표 IV-3-22> 지역 크기에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 기질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대도시	미발생		1.9(0.5)	2.8(0.4)
	발생	저위험군	2.0(0.6)	2.7(0.4)
		고위험군	2.1(0.6)	2.8(0.5)
중소도시	미발생		1.7(0.5)	2.8(0.4)
	발생	저위험군	1.9(0.5)	2.7(0.4)
		고위험군	2.0(0.6)	2.8(0.4)
농어촌	미발생		1.8(0.5)	2.7(0.4)
	발생	저위험군	2.0(0.5)	2.8(0.5)
		고위험군	2.0(0.5)	2.7(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임.

2)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3)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지역 크기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중소도시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1.7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인식한 아동의 기질은 집단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6) 자녀양육서비스

가)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경험

<표 IV-3-23>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경험(복수응답): 비율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보건서비스	10.8	10.2	13.6	11.5	16.1	10.8
방과 후 교실	15.2	13.5	19.0	29.1	23.7	15.6
부모교육	4.0	4.5	4.3	6.8	9.3	1.5
가족상담	0.6	0.3	0.6	1.4	1.3	0.3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2.6	4.0	6.1	2.7	4.2	6.6
치료 프로그램	0.6	0.6	1.1	0.0	1.3	0.9
기타	0.4	0.9	0.6	0.7	0.8	0.0
없음	72.0	74.3	67.7	65.3	62.3	74.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의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다(미발생 72.0%, 저위험군 74.3%, 고위험군 67.7%, 신체적 학대 65.3%, 정서적 학대 62.3%, 방임 74.0%). 주양육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자녀양육서비스는 ‘방과 후 교실’로 나타났다(미발생 15.2%, 저위험군 13.5%, 고위험군 19.0%, 신체적 학대 29.1%, 정서적 학대 23.7%, 방임 15.6%).

나)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1)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표 IV-3-24> 희망하는 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음	29.9	36.9	38.3	37.2	45.3	29.4
없음	39.0	36.1	34.2	39.9	36.0	37.5
모르겠음	31.1	26.9	27.5	23.0	18.6	25.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의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에서는 ‘없음’(39.0%)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아동학대 발생 집단에서는 ‘있음’(저위험군 36.9%, 고위험군 38.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는 ‘있음’(45.3%)이,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집단에서는 ‘없음’(39.9%, 37.5%)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가)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표 IV-3-25>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단위: %)

구분	학대발생여부		자녀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있음	없음	모르겠음
남	미발생		23.3	45.5	31.2
	발생	저위험군	22.1	48.5	29.4
		고위험군	21.7	40.0	38.3
여	미발생		30.9	38.0	31.2
	발생	저위험군	38.4	34.9	26.7
		고위험군	40.2	33.5	26.4

주 1)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있음'은 여자 고위험군(40.2%)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남자 고위험군(21.7%)에서 가장 적었다. '없음'은 남자 저위험군(48.5%)에서 가장 많았으며, 여자 고위험군(33.5%)에서 가장 적었다. '모르겠음'은 남자 고위험군(38.3%)에서 가장 많았고, 여자 고위험군(26.4%)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표 IV-3-26>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단위: %)

구분	학대발생여부		자녀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있음	없음	모르겠음
초등 4·5학년	미발생		38.4	29.2	32.5
	발생	저위험군	44.6	28.3	27.0
		고위험군	50.5	25.7	23.8
중고등	미발생		26.5	42.8	30.7
	발생	저위험군	33.6	39.5	26.9
		고위험군	30.6	39.4	30.0

주 1)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위험군에서 '있음'(50.5%)이 가장 많았고, '없음'(25.7%)과 '모르겠음'(23.8%)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대 미발생 집단에서는 '있음'(26.5%)이 가장 적었던 반면, '없음'(42.8%)이 가장 많았다. '모르겠음'은 초등학교 학대 미발생 집단(32.5%)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 가구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표 IV-3-27> 가구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단위: %)

구분	학대발생여부		자녀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있음	없음	모르겠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미발생		36.3	35.2	28.6
	발생	저위험군	26.4	41.5	32.1
		고위험군	28.6	34.7	36.7
차상위가구	미발생		34.6	46.2	19.2
	발생	저위험군	23.5	47.1	29.4
		고위험군	47.6	28.6	23.8
일반가구	미발생		29.3	39.1	31.6
	발생	저위험군	38.0	35.4	26.6
		고위험군	39.0	34.3	26.8

주 1)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가구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차상위가구 고위험군에서 '있음'(47.6%)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없음'(28.6%)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면 차상위가구 저위험군에서는 '없음'(47.1%)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있음'(23.5%)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모르겠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고위험군(36.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차상위가구 미발생 집단(19.2%)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라) 지역 크기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표 IV-3-28> 지역 크기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

(단위: %)

구분	학대발생여부		자녀양육서비스 참여 의향		
			있음	없음	모르겠음
대도시	미발생		33.5	37.9	28.6
	발생	저위험군	37.2	31.8	30.9
		고위험군	40.0	39.6	20.4
중소도시	미발생		26.2	38.2	35.5
	발생	저위험군	39.6	36.8	23.6
		고위험군	39.3	27.6	33.2
농어촌	미발생		29.2	44.3	26.4
	발생	저위험군	28.7	46.1	25.2
		고위험군	27.4	29.0	43.5

주 1)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지역 크기에 따른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있음’은 대도시 고위험군(40.0%)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농어촌 고위험군(27.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없음’은 농어촌 저위험군(46.1%)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소도시 고위험군(27.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르겠음’은 농어촌 고위험군(43.5%)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도시 고위험군(20.4%)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다)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시설

<표 IV-3-29>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시설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집	15.3	11.2	13.2	5.4	11.2	16.2
보육시설	10.8	8.1	8.8	16.1	10.3	10.1
복지관	36.8	41.4	43.4	62.5	52.3	32.3
상관없다	34.7	37.9	34.6	16.1	26.2	41.4
기타	2.4	1.4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24>에서 서비스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35.0%)만 대상으로 함.

3) n=908명(미발생 n=418명, 발생 n=490명)

주양육자에게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발생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양육자는 대부분 ‘복지관’이나 ‘상관없다’로 응답하였다. 한편 신체적 학대 집단(62.5%)과 정서적 학대 집단(52.3%)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선호가 다른 서비스 제공시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라)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자

<표 IV-3-30>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자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관련 전문가	73.4	74.7	85.4	83.9	94.3	79.8
시설/기관 직원	16.5	14.0	4.4	7.1	1.9	6.1
상관없다	10.1	11.2	10.2	8.9	3.8	14.1
기타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24>에서 서비스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35.0%)만 대상으로 함.

3) n=908명(미발생 n=418명, 발생 n=490명)

주양육자에게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양육자는 대부분 '관련 전문가'를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미발생 73.4%, 저위험군 74.7%, 고위험군 85.4%, 신체적 학대 83.9%, 정서적 학대 94.3%, 방임 79.8%).

마)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표 IV-3-31>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온라인 서비스	10.8	11.6	11.7	10.7	10.3	15.3
1:1 서비스	42.3	40.1	30.2	32.1	29.9	35.7
집단 서비스	29.7	26.1	39.5	42.9	37.4	37.8
가족 서비스	17.2	20.8	18.5	14.3	22.4	11.2
기타	0.0	1.4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24>에서 서비스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35.0%)만 대상으로 함.

3) n=908명(미발생 n=418명, 발생 n=490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과 저위험군은 1:1서비스(42.3%, 40.1%)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집단서비스(29.7%, 26.1%)를 희망하였다. 한편 고위험군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 집단과 방임 집단은 모두 집단서비스(39.5%, 42.9%, 37.4%, 37.8%)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1:1서비스(30.2%, 32.1%, 29.9%, 35.7%)를 희망하였다.

바)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욕구가 없는 이유

<표 IV-3-32>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욕구가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이전에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도움 안 됨	8.8	6.4	5.5	10.0	3.6	5.6
서비스가 필요 없음 (스스로 잘할 수 있음)	55.5	65.7	51.9	43.3	51.2	46.8
귀찮아서	24.0	15.0	34.4	43.3	41.7	37.3
유료 서비스이므로	5.5	5.7	1.1	1.7	1.2	1.6
기타	6.2	7.1	7.1	1.7	2.4	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24>에서 서비스 참여의향이 없는 응답자(36.4%)만 대상으로 함.

3) n=1,009명(미발생 n=546, 발생 n=463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서비스 참여욕구가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서비스가 필요 없음(스스로 잘할 수 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미발생 55.5%, 저위험군 65.7%, 고위험군 51.9%, 신체적 학대 43.3%, 정서적 학대 51.2%, 방임 46.8%). 다음으로는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지만, 신체적 학대 집단에서만 ‘서비스가 필요 없음’과 ‘귀찮아서’의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응답의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미발생 71.5%, 저위험군 79.3%, 고위험군 78.0%, 신체적 학대 78.6%, 정서적 학대 78.5%, 방임 73.7%).

사) 희망하는 양육서비스

(1) 희망하는 양육서비스(1순위)

<표 IV-3-33> 희망하는 양육서비스(1순위)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부모교육	22.6	21.8	20.5	16.9	21.2	18.9
경제적 지원	31.6	32.6	37.1	41.2	34.7	41.1
정보제공 (양육책자 제공 등)	10.0	5.3	5.4	10.1	4.2	5.4
가족상담	5.5	7.6	4.1	2.0	3.8	4.5
가족 보건서비스	6.4	7.6	6.2	1.4	5.5	6.3
아동의료 서비스	2.8	1.8	3.0	5.4	1.7	3.0
아동놀이시설 확대	1.3	2.3	2.8	6.8	3.0	3.0
아동 교육(방과 후 서비스, 학습지원 등)	7.2	8.5	11.0	6.1	13.6	9.9
보육서비스	0.6	1.0	0.2	0.7	0.4	0.0
육아도우미 서비스	0.1	0.3	0.4	1.4	0.4	0.0
기타	0.1	0.4	0.2	0.0	0.0	0.3
없음	11.9	10.7	9.1	0.0	11.4	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1순위)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미발생 31.6%, 저위험군 32.6%, 고위험군 37.1%, 신체적 학대 41.2%, 정서적 학대 34.7%, 방임 41.1%), 다음으로 ‘부모교육’이 나타났다(미발생 22.6%, 저위험군 21.8%, 고위험군 20.5%, 신체적 학대 16.9%, 정서적 학대 21.2%, 방임 18.9%). 다음으로는 ‘없음’이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11.9%)과 저위험군(10.7%)에서, ‘아동교육’은 고위험군(11.0%), 정서적 학대 집단(13.6%) 및 방임 집단(9.9%)에서, ‘정보제공(양육책자 제공 등)’은 신체적 학대 집단(10.1%)에서 높게 나타났다.

(2) 희망하는 양육서비스(2순위)

<표 IV-3-34> 희망하는 양육서비스(2순위)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부모교육	8.8	9.7	8.4	12.9	7.6	8.7
경제적 지원	11.7	12.6	13.4	9.5	9.7	16.7
정보제공 (양육책자 제공 등)	12.0	9.6	12.5	7.5	13.5	11.6
가족상담	8.0	10.9	6.9	8.8	8.9	6.0
가족 보건서비스	13.2	9.0	9.3	11.6	11.0	6.0
아동의료 서비스	8.5	8.2	7.8	6.7	5.9	9.6
아동 놀이시설 확대	3.6	3.6	2.8	13.6	3.0	2.4
아동 교육(방과 후 서비스, 학습지원 등)	16.9	18.4	20.1	24.5	18.7	21.5
보육서비스	1.6	2.9	3.4	3.4	19.8	3.0
육아도우미 서비스	0.6	0.6	3.0	2.7	4.2	3.6
기타	0.6	0.5	0.9	1.4	2.1	1.2
없음	14.5	13.9	11.4	8.8	0.8	9.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녀양육서비스(2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아동교육(방과 후 서비스, 학습 지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미발생 16.9%, 저위험군 18.4%, 고위험군 20.1%, 신체적 학대 24.5%, 방임 21.5%),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만 '보육서비스'(19.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음으로 희망하는 양육서비스는 아동학대 발생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에서는 '없음'(14.5%)과 '가족 보건서비스'(13.2%) 순으로, 저위험군에서는 '아동교육(방과 후 서비스, 학습 지원 등)'(18.4%)과 '없음'(13.9%) 순으로, 고위험군 및 방임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13.4%, 16.7%)과 '정보제공(양육책자 제공 등)'(각각 12.5%, 11.6%) 순으로, 신체적 학대 집단에서는 '아동 놀이시설 확대'(13.6%)와 '부모교육'(12.9%) 순으로,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는 '아동교육(방과 후 서비스, 학습 지원 등)'(18.7%)과 '정보제공(양육책자 제공 등)'(13.5%) 순으로 나타났다.

7)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가)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가정환경자극(HOME)

<표 IV-3-35> 학대 발생여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환경의 조직 및 안전성	0.9(0.2)	0.8(0.2)	0.8(0.3)	0.7(0.3)	0.8(0.3)	0.8(0.2)
경험의 다양성	0.7(0.2)	0.6(0.2)	0.5(0.2)	0.5(0.2)	0.5(0.2)	0.5(0.2)
환경의 물리적 경험	0.7(0.2)	0.7(0.2)	0.6(0.2)	0.6(0.2)	0.6(0.2)	0.6(0.2)

평균(SD)

-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임.
 2)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함.
 3)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4)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부모(30.8%)만 응답함.
 5) n=835명(미발생 n=392명, 발생 n=443명)

아동학대 발생여부 및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을 살펴보면, 가정환경자극은 집단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의 조직 및 안전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학대집단(0.7점)의 가정환경자극이 낮았다.

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자극(HOME)

(1)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자극(HOME)

<표 IV-3-36>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구분	학대발생여부	가정환경자극		
		환경의 조직 및 안전성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경험
남	미발생	0.9(0.2)	0.6(0.3)	0.7(0.2)
	발생	저위험군	0.8(0.3)	0.6(0.2)
		고위험군	0.8(0.3)	0.6(0.3)
여	미발생	0.9(0.2)	0.7(0.2)	0.7(0.2)
	발생	저위험군	0.8(0.2)	0.7(0.2)
		고위험군	0.8(0.3)	0.6(0.2)

평균(SD)

-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임.
 2)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함.
 3)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부모(30.8%)만 응답함.
 4) n=835명(미발생 n=392명, 발생 n=443명)

주양육자가 인지한 가정환경자극을 살펴보면, 가정환경자극은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의 다양성은 아버지 고위험군(0.4점)과 어머니 고위험군(0.5점)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2) 가구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자극(HOME)

<표 IV-3-37> 가구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가정환경자극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경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미발생		0.8(0.3)	0.4(0.2)	0.5(0.2)
	발생	저위험군	0.8(0.3)	0.4(0.2)	0.4(0.2)
		고위험군	0.7(0.3)	0.3(0.2)	0.4(0.2)
차상위가구	미발생		0.9(0.1)	0.6(0.2)	0.6(0.2)
	발생	저위험군	0.8(0.3)	0.5(0.2)	0.6(0.2)
		고위험군	0.7(0.3)	0.3(0.2)	0.4(0.3)
일반가구	미발생		0.9(0.2)	0.7(0.2)	0.7(0.2)
	발생	저위험군	0.8(0.2)	0.6(0.2)	0.7(0.2)
		고위험군	0.9(0.2)	0.5(0.2)	0.6(0.2)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임.

2)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함.

3)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부모(30.8%)만 응답함.

4) n=835명(미발생 n=392명, 발생 n=443명)

가구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을 살펴보면,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의 다양성 및 환경의 물리적 경험 측면에서는 차상위가구 고위험군(0.3점, 0.4점)과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고위험군 0.3점, 0.4점, 저위험군 0.4점, 0.4점, 미발생집단 0.4점, 0.5점)의 가정환경자극이 낮게 나타났다.

(3) 지역 크기에 따른 가정환경자극(HOME)

<표 IV-3-38> 지역 크기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평균(SD)

구분	학대발생여부		가정환경자극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경험
대도시	미발생		0.9(0.2)	0.7(0.2)	0.7(0.2)
	발생	저위험군	0.8(0.3)	0.6(0.2)	0.6(0.2)
		고위험군	0.8(0.3)	0.5(0.3)	0.6(0.3)
중소도시	미발생		0.9(0.2)	0.7(0.2)	0.7(0.2)
	발생	저위험군	0.9(0.2)	0.6(0.2)	0.7(0.2)
		고위험군	0.8(0.3)	0.5(0.2)	0.7(0.2)
농어촌	미발생		0.9(0.2)	0.6(0.2)	0.6(0.2)
	발생	저위험군	0.8(0.2)	0.5(0.3)	0.6(0.2)
		고위험군	0.8(0.2)	0.6(0.2)	0.6(0.2)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임.

2)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함.

3)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부모(30.8%)만 응답함.

4) n=835명(미발생 n=392명, 발생 n=443명)

지역 크기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을 살펴보면,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과 환경의 물리적 경험 측면에서는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가정환경 자극에 비해 경험의 다양성은 대도시 고위험군(0.5점), 중소도시 고위험군(0.5점) 및 농어촌 저위험군(0.5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8) 아동학대 목격 및 신고경험

가) 아동학대 목격경험

<표 IV-3-39> 아동학대 목격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다	2.7	6.1	9.1	7.4	6.8	10.8
없다	97.3	93.9	90.9	92.6	93.2	89.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목격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발생 여부 및 유형에 관계없이 주양육자의 대부분은 아동학대 목격경험이 없었다(미발생 97.3%, 저위험군 93.9%, 고위험군 90.9%, 신체적 학대 92.6%, 정서적 학대 93.2%, 방임 89.2%). 한편 고위험군(9.1%)과 방임 집단(10.8%)의 아동학대 목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아동학대 신고경험

<표 IV-3-40> 아동학대 신고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다	7.9	2.1	18.8	27.3	12.5	19.4
없다	92.1	97.9	81.3	72.7	87.5	8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39>에서 아동학대 목격 경험에 있는 응답자(6.0%)만 대상으로 함.
2) n=134명(미발생 n=38명, 발생 n=96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경험은 고위험군(18.8%)이 미발생 집단(7.9%)과 저위험군(2.1%)보다 높았다. 특히 신체적 학대 집단(27.3%)과 방임 집단(19.4%)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 아동학대 신고 장소

<표 IV-3-41> 아동학대 신고 장소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아동학대예방센터)	0.0	0.0	11.1	0.0	0.0	14.3
경찰서, 지구대(112)	100.0	0.0	88.9	100.0	100.0	85.7
지역사회복지관	0.0	0.0	0.0	0.0	0.0	0.0
아동관련 상담소	0.0	100.0	0.0	0.0	0.0	0.0
관공서 (주민센터, 구·시청 등)	0.0	0.0	0.0	0.0	0.0	0.0
종교단체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0>에서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9.6%)만 대상으로 함.

2) n=14명(미발생 n=3명, 발생 n=11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은 전체 응답자(100%)가 경찰서·지구대에 신고하였으며, 저위험군의 전체 응답자(100%)는 ‘아동관련 상담소’에 신고하였고, 고위험군은 ‘경찰서, 지구대(88.9%)’ 및 ‘아동보호전문기관(11.1%)’에 신고하였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신고 장소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집단은 전체(둘 다 100%)가 경찰서·지구대에 신고하였으며, 방임 집단은 ‘경찰서, 지구대’(85.7%) 및 ‘아동보호전문기관’(14.3%)에 신고하였다.

라)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

(1)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1순위)

<표 IV-3-42>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51.4	34.8	15.4	25.0	25.0	17.2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14.3	26.1	28.2	25.0	25.0	34.5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8.6	2.2	25.6	37.5	25.0	17.2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0.0	4.3	0.0	0.0	0.0	0.0
업무가 너무 많아서 (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8.6	0.0	0.0	0.0	0.0	0.0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2.9	0.0	0.0	0.0	0.0	0.0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0.0	0.0	0.0	0.0	0.0	0.0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8.0	26.1	28.2	12.5	25.0	27.6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0.0	0.0	2.6	0.0	0.0	3.4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9	6.5	0.0	0.0	0.0	0.0
기타	5.7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0>에서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90.4%)만 대상으로 함.

3) n=120명(미발생 n=35명, 발생 n=85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과 저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51.4%, 34.8%)’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14.3%, 26.1%)가 나타났다. 저위험군에서는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26.1%)도 동일하게 많이 나타났다. 반면 고위험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와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가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났다(둘 다 28.2%).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집단에서는 ‘잘못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37.5%)’가, 방임 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

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34.5%)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는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잘못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모두 25.0%)와 같은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2)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2순위)

<표 IV-3-43>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2순위)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0.0	15.6	18.4	14.3	0.0	24.1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5.7	4.4	10.5	14.3	14.3	10.3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5.7	20.0	2.6	0.0	7.1	3.4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9	0.0	0.0	0.0	0.0	0.0
업무가 너무 많아서 (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0.0	4.4	2.6	0.0	7.1	0.0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17.1	6.7	21.1	14.3	7.1	24.1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1.4	4.4	2.6	14.3	7.1	3.4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45.8	20.0	26.3	42.9	28.6	27.6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0.0	0.0	5.3	0.0	14.3	0.0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9	13.3	7.9	0.0	7.1	6.9
기타	8.6	11.1	2.6	0.0	7.1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0>에서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90.4%)만 대상으로 함.

3) n=120명(미발생 n=35명, 발생 n=85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2순위)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미발생 45.8%, 저위험군 20.0%, 고위험군 26.3%, 신체적 학대 42.9%, 정서적 학대 28.6%, 방임 27.6%)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저위험군에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20.0%)도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가 미발생 집단(17.1%)과 고위험군(21.1%)에서 많이 나타났다.

마) 아동학대 신고의지

<표 IV-3-44> 아동학대 신고의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다	53.3	59.4	65.2	56.9	65.5	63.8
없다	16.0	16.1	13.5	20.4	13.6	12.4
모르겠다/ 생각해본 적 없다	30.7	24.4	21.3	22.6	20.9	2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무응답은 제외함.

3) n=2,577명(미발생 n=1,363명, 발생 n=1,214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향후 아동학대 신고의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있다’, ‘모르겠다/생각해본 적이 없다’,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지는 ‘고위험군(65.2%), 저위험군(59.4%), 미발생 집단(53.3%)’ 순으로, 그리고 정서적 학대(65.5%), 방임(63.8%), 신체적 학대(56.9%) 순으로 높았다.

바) 향후 희망하는 아동학대 신고 장소

<표 IV-3-45> 향후 희망하는 아동학대 신고 장소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아동학대예방센터)	27.3	37.3	30.3	24.4	29.4	27.4
경찰서, 지구대(112)	69.3	59.0	67.5	73.1	69.2	69.5
지역사회복지관	1.1	0.2	0.6	1.3	0.7	0.5
아동관련 상담소	1.7	2.5	1.6	1.3	0.7	2.6
관공서 (주민센터, 구·시청 등)	0.4	0.2	0.0	0.0	0.0	0.0
종교단체	0.3	0.0	0.0	0.0	0.0	0.0
기타	0.0	0.7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4>에서 신고의지가 있는 응답자(59.3%)만 대상으로 함.

3) n=1,475명(미발생 n=726명, 발생 n=749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향후 희망하는 아동학대 신고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경찰서·지구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발생 69.3%, 저위험군 59.0%, 고위험군 67.5%, 신체적 학대 73.1%, 정서적 학대 69.2%, 방임 69.5%).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미발생 27.3%, 저위험군 37.3%, 고위험군 30.3%, 신체적 학대 24.4%, 정서적 학대 29.4%, 방임 27.4%)이 높게 나타났다.

사)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

(1)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1순위)

<표 IV-3-46>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21.1	23.1	13.6	17.2	16.1	13.9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15.1	17.9	27.3	20.7	16.1	36.1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11.0	8.5	21.2	13.8	9.7	30.6
업무가 너무 많아서 (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6.0	3.4	7.6	25.0	3.2	5.6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7.3	10.3	1.5	3.4	3.2	0.0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6	0.9	0.0	0.0	0.0	0.0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20.2	25.6	18.2	13.8	29.0	5.6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10.1	6.0	1.5	3.4	3.2	2.8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4.6	2.6	9.1	20.7	19.4	5.6
기타	0.0	1.7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4>에서 아동학대 신고의지가 없는 응답자(15.2%)만 대상으로 함.

3) n=400명(미발생 n=218명, 발생 n=182명)

주양육자에게 향후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 및 유형에 따라 미신고 의향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미발생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21.1%)와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20.2%) 순으로, 저위험군에서는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25.6%)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23.1%) 순으로, 고위험군에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27.3%),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2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향후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집단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25.0%),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는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29.0%), 방임 집단에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36.1%)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2순위)

<표 IV-3-47>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2순위)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7.8	12.6	18.2	30.8	20.0	19.4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14.7	12.6	9.1	11.5	13.3	5.6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9.6	7.6	6.1	0.0	3.3	8.3
업무가 너무 많아서 (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10.6	9.2	6.1	3.8	6.7	11.1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11.9	5.9	15.2	19.2	6.7	16.7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7.0	15.1	16.7	26.9	23.3	11.1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13.3	16.0	15.2	7.7	10.0	16.7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8.3	11.8	4.5	0.0	6.7	2.8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6.4	3.4	7.6	0.0	10.0	5.6
기타	0.5	5.9	1.5	0.0	0.0	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4>에서 아동학대 신고의지가 없는 응답자(15.2%)만 대상으로 함.

3) n=400명(미발생 n=218명, 발생 n=182명)

주양육자에게 향후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2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 및 유형에 따라 미신고 의향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미발생 집단에서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7.0%),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14.7%) 순으로, 저위험군에서는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16.0%),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5.1%) 순으로, 고위험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18.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6.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향후 아동학대 미신고 의향 이유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30.8%, 1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집단에서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3.3%)가 가장 높았다.

10)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및 법적처분

가)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표 IV-3-48>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다	0.4	0.1	0.4	1.4	0.0	0.0
없다	99.6	99.9	99.6	98.6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2,711명(미발생 n=1,411명, 발생 n=1,310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주양육자에게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체적 학대 집단(1.4%)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나)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

<표 IV-3-49>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다	0.0	0.0	0.0	0.0	0.0	0.0
없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8>에서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0.3%)만 대상으로 함.

3) n=8명(미발생 n=5명, 발생 n=3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양육자는 피신고로 인한 법적처분 경험이 전혀 없었다.

11)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및 신고전화

가)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 본 경험

<표 IV-3-50>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있다	43.8	44.9	48.3	46.2	45.1	51.5
없다	56.2	55.1	51.7	53.8	54.9	48.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0>에서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없는 응답자와 <표 IV-3-44>에서 신고의지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3) n=1,214명(미발생 n=66명, 발생 n=548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방임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미발생,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50%를 상회하였다.

나)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표 IV-3-51>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	93.8	83.7	92.0	93.3	92.5	93.0
인터넷	2.1	0.7	1.0	0.0	2.5	0.0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0.0	5.2	3.0	0.0	2.5	2.8
주변사람을 통해	4.1	10.5	4.0	6.7	2.5	4.2
기타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50>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45.7%)만 대상으로 함.

3) 무응답은 제외함.

3) n=544명(미발생 n=291명, 발생 n=253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미발생 93.8%, 저위험군 83.7%, 고위험군 92.0%, 신체적 학대 93.3%, 정서적 학대 92.5%, 방임 93.0%)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표 IV-3-52> 아동학대신고전화 인지

(단위: %)

구분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		
	미발생	발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저위험군	고위험군			
정확한 번호까지 알고 있음	1.5	0.6	1.4	1.5	2.2	1.5
들어본 적은 있지만 번호는 모름	48.8	55.0	44.2	35.4	44.4	47.1
들어본 적이 없음	49.7	44.4	54.3	63.1	53.3	51.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40>에서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없는 응답자와 <표 IV-3-44>에서 신고의지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3) n=1,214명(미발생 n=66명, 발생 n=548명)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저위험군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들어본 적 없음’이 가장 높았고(미발생 49.7%, 고위험군 54.3%, 신체적 학대 63.1%, 정서적 학대 53.3%, 방임 51.5%), 다음으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번호는 모름’이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집단에서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대한 인지가 가장 낮았다.

다. 아동 분석 결과

1) 아동의 자아개념

가) 아동학대 수준 및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

<표 IV-3-53> 학대 수준 및 학대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학업적 자아개념	11.4(4.7)	10.7(4.9)	9.7(4.7)	9.9(4.9)	10.9(4.9)
사회적 자아개념	15.7(3.3)	14.9(3.6)	13.7(3.8)	14.5(3.7)	15.0(3.7)
신체적 자아개념	10.4(3.7)	10.1(3.7)	9.5(3.6)	9.6(3.7)	10.3(3.7)
정서적 자아개념	13.5(4.2)	12.3(4.5)	10.2(4.5)	11.3(4.4)	12.7(4.6)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각 0점에서 2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이며, 각 20문항으로 구성됨.

3)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의미함.

4)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5) n=1,310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질문이다. 아동의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자아개념을 조사한 결과 학업적 자아개념(11.0점), 사회적 자아개념(15.3점), 신체적 자아개념(10.2점), 정서적 자아개념(12.8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위험군(11.4점)이 고위험군(10.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을 비교해 보면 방임(10.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9.9점), 신체적 학대(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위험군(15.7점)이 고위험군(14.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을 비교해 보면 방임(15.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14.5점), 신체적 학대(13.7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신체적 자아개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위험군(10.4점)은 고위험군(10.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을 비교해 보면 방임(10.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9.6점), 신체적 학대(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위험군(13.5점)은 고위험군(12.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을 비교해 보면 방임(12.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11.3점), 신체적 학대(10.2점) 순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학년, 가구 특성, 지역 크기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표 IV-3-54> 아동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구분	학대 수준	자아개념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남	저위험군	11.0(4.7)	15.2(3.4)	10.9(3.6)	13.5(4.2)
	고위험군	10.5(5.1)	14.7(3.6)	10.7(3.8)	12.3(4.6)
	전체	10.7(4.9)	14.9(3.6)	10.8(3.7)	12.9(4.4)
여	저위험군	11.7(4.6)	16.2(3.1)	9.9(3.7)	13.5(4.3)
	고위험군	11.0(4.7)	15.1(3.5)	9.3(3.6)	12.2(4.5)
	전체	11.4(4.7)	15.7(3.3)	9.6(3.6)	12.8(4.4)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각 0점에서 2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이며, 각 20문항으로 구성됨.

3)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의미함.

4) n=1,310명

남자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10.7점(저위험군 11.0점, 고위험군 10.5점)인 반면, 여자 아동은 11.4점(저위험군 11.7점, 고위험군 11.0점)으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14.9점(저위험군 15.2점, 고위험군 14.7점)인 반면, 여자 아동은 15.7점(저위험군 16.2점, 고위험군 15.1점)으

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10.8점(저위험군 10.9점, 고위험군 10.7점)인 반면, 여자 아동은 9.6점(저위험군 9.9점, 고위험군 9.3점)으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의 정서적 자아개념은 12.3점(저위험군 13.5점, 고위험군 12.3점)인 반면, 여자 아동은 13.5점(저위험군 13.5점, 고위험군 12.2점)으로 나타났다.

(2) 아동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

<표 IV-3-55> 아동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

구분	학대 수준	자아개념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초등 4-6학년	저위험군	12.5(4.6)	16.1(3.1)	11.4(3.5)	14.6(4.1)
	고위험군	11.5(4.5)	15.5(3.7)	10.8(3.7)	12.9(4.6)
	전체	12.0(4.5)	15.8(3.4)	11.1(3.6)	13.7(4.5)
중고등	저위험군	10.7(4.6)	15.4(3.4)	9.9(3.6)	12.9(4.2)
	고위험군	10.4(5.1)	14.6(3.5)	9.8(3.7)	12.0(4.6)
	전체	10.5(4.9)	15.0(3.4)	9.8(3.7)	12.4(4.3)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각 0점에서 2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이며, 각 20문항으로 구성됨.

3)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의미함.

4) n=1,310명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12.0점(저위험군 12.5점, 고위험군 11.5점)인 반면, 중고등학생은 10.5점(저위험군 10.7점, 고위험군 10.4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15.8점(저위험군 16.1점, 고위험군 15.5점)인 반면, 중고등학생은 15.0점(고위험군 14.6점, 저위험군 15.4점)이었다. 초등학생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11.1점(저위험군 11.4점, 고위험군 10.8점)인 반면, 중고등학생은 9.8점(저위험군 9.9점, 고위험군 9.8점)이었으며, 초등학생의 정서적 자아개념은 13.7점(저위험군 14.6점, 고위험군 12.9점), 중고등학생은 12.4점(저위험군 12.9점, 고위험군 12.0점)으로 나타났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

<표 IV-3-56> 가구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

구분	학대 수준	자아개념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저위험군	9.2(4.4)	14.3(3.2)	9.6(3.2)	13.1(4.0)
	고위험군	8.8(4.6)	13.2(4.1)	9.6(3.3)	11.1(4.1)
	전체	9.0(4.5)	13.6(3.8)	9.6(3.2)	11.9(4.2)
차상위가구	저위험군	10.7(3.9)	13.4(4.1)	10.1(14.3)	10.6(4.4)
	고위험군	8.6(4.5)	13.1(4.0)	9.6(3.9)	11.4(3.8)
	전체	9.4(4.2)	13.2(4.0)	9.8(3.6)	11.1(4.0)
일반가구	저위험군	11.5(4.7)	15.8(3.2)	10.5(3.7)	13.6(4.2)
	고위험군	11.0(4.9)	15.2(3.4)	10.2(3.8)	12.4(4.6)
	전체	11.2(4.8)	15.5(3.3)	10.3(3.7)	13.0(4.4)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각 0점에서 2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이며, 각 20문항으로 구성됨.

3)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의미함.

4) n=1,310명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9.0점(저위험군 9.2점, 고위험군 8.8점), 사회적 자아개념은 13.6점(저위험군 14.3점, 고위험군 13.2점), 신체적 자아개념은 9.6점(저위험군 9.6점, 고위험군 9.6점), 정서적 자아개념은 11.9점(저위험군 13.1점, 고위험군 11.1점)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가구는 학업적 자아개념 9.4점(저위험군 10.7점, 고위험군 8.6점), 사회적 자아개념 13.2점(저위험군 13.4점, 고위험군 13.1점), 신체적 자아개념 9.8점(저위험군 10.1점, 고위험군 9.6점), 정서적 자아개념 11.1점(저위험군 10.6점, 고위험군 11.4점)으로 밝혀졌다. 일반가구는 학업적 자아개념 11.2점(저위험군 11.5점, 고위험군 11.0점), 사회적 자아개념 15.3점(고위험군 15.2점, 저위험군 15.8점), 신체적 자아개념 10.3점(저위험군 10.5점, 고위험군 10.2점), 정서적 자아개념 13.0점(저위험군 13.6점, 고위험군 12.4점)으로 나타났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자아개념

<표 IV-3-57> 지역 크기에 따른 자아개념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자아개념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대도시	저위험군	11.3(5.1)	15.3(3.2)	10.3(4.0)	12.7(4.0)
	고위험군	10.7(5.0)	14.6(3.7)	10.3(3.6)	12.1(4.6)
	전체	11.0(5.0)	14.9(3.5)	10.3(3.8)	12.4(4.4)
중소도시	저위험군	11.4(4.4)	16.0(3.3)	10.4(3.5)	14.2(4.2)
	고위험군	10.8(4.8)	15.7(3.3)	10.1(3.8)	12.7(4.4)
	전체	11.1(4.6)	15.8(3.3)	10.2(3.7)	13.4(4.4)
농어촌	저위험군	11.6(4.0)	15.7(3.3)	10.8(3.2)	13.9(4.3)
	고위험군	10.7(5.0)	13.7(3.4)	9.3(3.9)	11.6(4.3)
	전체	11.1(4.5)	15.3(3.4)	10.0(3.6)	12.8(4.5)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각 0점에서 20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0점(아니오)에서 1점(예) 사이이며, 각 20문항으로 구성됨.

3)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의미함.

4) n=1,310명

대도시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11.0점(저위험군 11.3점, 고위험군 10.7점), 사회적 자아개념은 14.9점(저위험군 15.3점, 고위험군 14.6점), 신체적 자아개념은 10.3점(저위험군 10.3점, 고위험군 10.3점), 정서적 자아개념은 12.4점(저위험군 12.7점, 고위험군 12.1점)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11.1점(저위험군 11.4점, 고위험군 10.8점), 사회적 자아개념은 15.8점(저위험군 16.0, 고위험군 15.7)점, 신체적 자아개념은 10.2점(저위험군 10.4점, 고위험군 10.1점), 정서적 자아개념은 13.4점(저위험군 14.2점, 고위험군 12.7점)으로 밝혀졌다. 농어촌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11.1(저위험군 11.6, 고위험군 10.7)점, 사회적 자아개념은 14.7점(저위험군 15.7점, 고위험군 13.7점), 신체적 자아개념은 10.0점(저위험군 10.8점, 고위험군 9.3점), 정서적 자아개념은 농어촌은 12.8점(저위험군 13.9점, 고위험군 11.6점)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가)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표 IV-3-58>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우울·불안	10.3(2.2)	11.0(2.7)	11.8(2.9)	11.3(2.6)	11.0(2.8)
공격성	7.2(1.5)	7.8(1.8)	8.3(1.9)	8.3(1.7)	7.7(1.9)

- 주 1) 우울·불안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9점에서 27점 사이임.
 2) 공격성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6점에서 18점 사이임.
 3)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자주 그렇다) 사이임.
 4) 우울·불안은 9개 문항, 공격성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됨.
 5)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이 높음.
 6)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7) n=1,310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조사한 내용은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에 대한 질문이다. 아동의 우울·불안은 저위험군(10.3점)보다 고위험군(11.0점)이 높으며, 아동의 공격성도 저위험군(7.2점)보다 고위험군(7.8점)이 높았다. 아동학대 유형 별 아동의 우울·불안은 신체적 아동(11.8점)이 정서적 학대(11.3점) 및 방임 아동(11.0점)보다 높았다. 아동의 공격성은 학대를 받은 아동(8.3점)이 방임 아동(7.7점)보다 높았다.

나)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1) 아동 성별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표 IV-3-59> 아동 성별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동 우울·불안, 공격성	
		우울·불안	공격성
남	저위험군	10.2(2.3)	7.3(1.5)
	고위험군	10.9(2.6)	7.8(1.9)
	전 체	10.6(2.5)	7.6(1.7)
여	저위험군	10.3(2.1)	7.2(1.4)
	고위험군	11.2(2.8)	7.8(1.8)
	전 체	10.8(2.5)	7.5(1.6)

- 주 1) 우울·불안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9점에서 27점 사이임.
 2) 공격성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6점에서 18점 사이임.
 3)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자주 그렇다) 사이임.
 4) 우울·불안은 9개 문항, 공격성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됨.
 5)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이 높음.
 6) n=1,310명

남자 아동의 우울·불안은 10.6점(저위험군 10.2점, 고위험군 10.9점)인 반면, 여자 아동은 10.8점(저위험군 10.3점, 고위험군 11.2점)으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의 공격성은 7.6점(저위험군 7.3점, 고위험군 7.8점)이었으나, 여자 아동은 7.5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7.8점)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아동은 우울·불안에서 더 높게, 남자 아동은 공격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대수준별로 보면, 저위험군 아동보다 고위험군 아동이 우울·불안 및 공격성이 높았다.

(2) 아동 연령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표 IV-3-60> 아동 연령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동 우울·불안, 공격성	
		우울·불안	공격성
초등 4·6학년	저위험군	10.0(1.9)	7.0(1.4)
	고위험군	10.8(2.5)	7.8(1.9)
	전 체	10.4(2.3)	7.4(1.7)
중고등	저위험군	10.4(2.3)	7.4(1.5)
	고위험군	11.1(2.7)	7.8(1.8)
	전 체	10.7(2.5)	7.6(1.7)

- 주 1) 우울·불안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9점에서 27점 사이임.
 2) 공격성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6점에서 18점 사이임.
 3)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자주 그렇다) 사이임.
 4) 우울·불안은 9개 문항, 공격성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됨.
 5)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이 높음.
 6) n=1,310명

초등학생의 우울·불안은 10.4점(저위험군 10.0점, 고위험군 10.8점)인 반면, 중고등학생은 10.8점(저위험군 10.4점, 고위험군 11.1점)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공격성은 7.4점(저위험군 7.0점, 고위험군 7.8점)이었으나, 중고등학생은 7.6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7.8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울·불안과 공격성은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수준에 따라 구분해보면, 저위험군 아동보다 고위험군 아동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표 IV-3-61>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동 우울·불안, 공격성	
		우울·불안	공격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저위험군	10.6(2.5)	7.2(1.8)
	고위험군	11.8(3.1)	8.0(1.9)
	전 체	11.3(2.9)	7.7(1.8)
차상위가구	저위험군	11.1(2.9)	7.7(1.7)
	고위험군	12.1(2.9)	8.4(1.9)
	전 체	11.7(2.9)	8.1(1.8)
일반가구	저위험군	10.2(2.2)	7.2(1.4)
	고위험군	10.9(2.6)	7.8(1.8)
	전 체	10.6(2.5)	7.5(1.7)

- 주 1) 우울·불안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9점에서 27점 사이임.
 2) 공격성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는 6점에서 18점 사이임.
 3)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자주 그렇다) 사이임.
 4) 우울·불안은 9개 문항, 공격성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됨.
 5)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이 높음.
 6) n=1,310명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우울·불안은 11.3점(저위험군 10.6점, 고위험군 11.8점), 공격성은 7.7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8.0점)이었다. 차상위가구는 우울·불안이 11.7점(저위험군 11.1점, 고위험군 12.1점)인 반면, 공격성은 8.1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7.6점)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우울·불안은 10.6점(저위험군 10.2점, 고위험군 10.9점)이었으나, 공격성은 7.5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7.8점)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격성은 차상위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수준별로 보면,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저위험군보다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났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표 IV-3-62> 지역에 따른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구분	학대 수준	아동 우울·불안, 공격성		평균(SD)
		우울·불안	공격성	
대도시	저위험군	10.3(2.1)	7.3(1.4)	
	고위험군	11.1(2.7)	7.7(1.8)	
	전 체	10.8(2.5)	7.5(1.7)	
중소도시	저위험군	10.2(2.1)	7.2(1.5)	
	고위험군	10.7(2.5)	7.6(1.7)	
	전 체	10.4(2.3)	7.4(1.6)	
농어촌	저위험군	10.3(2.6)	7.2(1.6)	
	고위험군	11.6(3.1)	8.5(2.0)	
	전 체	10.9(2.9)	7.9(1.9)	

주 1) 우울·불안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9점에서 27점 사이임.

2) 공격성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범위는 6점에서 18점 사이임.

3)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자주 그렇다) 사이임.

4) 우울·불안은 9개 문항, 공격성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됨.

5)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이 높음.

6) n=1,310명

대도시 아동의 우울·불안은 10.8점(저위험군 10.3점, 고위험군 11.1점), 중소도시는 10.4점(저위험군 10.2점, 고위험군 10.7점), 농어촌은 10.9점(저위험군 10.2점, 고위험군 11.6점)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아동의 공격성은 7.5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7.7점), 중소도시는 7.4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7.6점), 농어촌은 7.9점(저위험군 7.2점, 고위험군 8.5점)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과 공격성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저위험군보다 고위험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

<표 IV-3-63>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부모님	75.8	66.0	65.3	63.4	66.7
학교 선생님	2.3	3.9	3.2	1.4	4.7
기관 선생님	0.2	0.7	1.6	1.1	0.4
학원/과외 선생님	0.0	0.7	0.0	0.4	1.1
친구, 선·후배	18.0	21.0	19.5	23.6	20.2
종교인	0.3	0.3	0.0	0.4	0.4
친척	0.5	0.7	0.5	1.1	0.6
이웃 주민	0.0	0.0	0.0	0.0	0.0
친구의 부모님	0.0	0.1	0.5	0.0	0.0
기타	1.5	1.4	1.1	2.2	0.9
없음(본인 스스로)	1.5	5.2	8.4	6.5	4.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1,310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세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에 대한 질문이다. 아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요청 대상을 물어본 결과, ‘부모님’으로 전체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구, 선·후배(19.6%)’, ‘없음(본인 스스로 해결)’ 3.4%, ‘학교선생님’ 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의 아동은 ‘부모님’ 66.0%, ‘친구, 선·후배’ 21.0%, 없음(본인 스스로 해결) 5.2%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저위험군의 아동은 ‘부모님’ 75.8%, ‘친구, 선·후배’ 18.0%, ‘학교선생님’ 3.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이 아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 또는 ‘친구,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어려울 때 도움 요청 대상을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방임(66.7%), 신체적 학대(65.3%), 정서적 학대(63.4%) 순으로 높으나, ‘친구, 선·후배’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서적 학대(23.6%), 방임(20.2%), 신체적 학대(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부모와의 유대 관계

가)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표 IV-3-64> 학대 수준 및 학대유형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관계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대 점수	46.9(3.1)	46.7(3.7)	46.9(3.6)	47.0(4.1)	46.5(3.5)

평균(SD)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 18점에서 72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됨.

3)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적 양육태도를 의미하고, 낮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를 의미함.

4)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5) n=1,310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네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부모와의 유대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살펴보면 저위험군(46.9점)은 고위험군(46.7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큰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47.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46.9점), 방임(46.5점) 순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1) 아동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표 IV-3-65> 아동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구분	학대 수준	부모와의 유대 점수	
		평균	(SD)
남	저위험군	46.8	(3.3)
	고위험군	46.5	(3.3)
	전 체	46.7	(3.3)
여	저위험군	47.0	(2.9)
	고위험군	46.9	(4.0)
	전 체	46.9	(3.5)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 18점에서 72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됨.

3)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적 양육태도를 의미하고, 낮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를 의미함.

4) n=1,310명

남자 아동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46.7점(저위험군 46.8점, 고위험군 46.5점)인 반면, 여자 아동은 46.9점(저위험군 47.0점, 고위험군 46.9점)으로 나타났다.

(2) 아동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표 IV-3-66> 아동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부모와의 유대 점수
초등 4-6학년	저위험군	47.6(3.0)
	고위험군	47.7(3.6)
	전 체	47.7(3.1)
중고등	저위험군	46.5(3.3)
	고위험군	46.2(3.6)
	전 체	46.4(3.4)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 18점에서 72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됨.

3)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적 양육태도를 의미하고, 낮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를 의미함.

4) n=1,310명

초등학생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47.7점(저위험군 47.6점, 고위험군 47.7점)인 반면, 중고등학생은 46.4점(저위험군 46.3점, 고위험군 46.2점)으로 나타났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표 IV-3-67> 가구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합산(SD)		
구분	학대 수준	부모와의 유대 점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저위험군	46.3(3.3)
	차상위가구	45.7(3.1)
	일반가구	45.9(3.2)
차상위가구	저위험군	46.7(2.9)
	고위험군	46.3(3.3)
	전 체	46.4(3.1)
일반가구	저위험군	47.0(3.1)
	고위험군	46.8(3.7)
	전 체	46.9(3.4)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 18점에서 72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됨.

3)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적 양육태도를 의미하고, 낮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를 의미함.

4) n=1,310명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45.9점(저위험군 46.3점, 고위험군 45.7점), 차상위가구 아동은 46.4점(저위험군 46.7점, 고위험군 46.3점), 일반가구 아동은 46.9점(저위험군 47.0점, 고위험군 46.8점)으로 나타났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표 IV-3-68> 지역 크기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 관계

합산(SD)		
구분	학대 수준	부모와의 유대 점수
대도시	저위험군	46.8(3.3)
	고위험군	46.5(3.5)
	전 체	46.6(3.4)
중소도시	저위험군	47.3(3.0)
	고위험군	47.0(3.8)
	전 체	47.1(3.4)
농어촌	저위험군	46.3(2.5)
	고위험군	46.6(4.0)
	전 체	46.5(3.3)

주 1) 응답합산점수: 점수가능범위 18점에서 72점 사이임

2)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됨.

3)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적 양육태도를 의미하고, 낮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를 의미함.

4) n=1,310명

대도시 아동은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46.6점(저위험군 46.8점, 고위험군 46.5점), 중소도시 아동은 47.1점(저위험군 47.3점, 고위험군 47.0점), 일반가구아동은 46.5점(저위험군 46.3점, 고위험군 46.6점)으로 나타났다.

5) 아버지의 양육태도

가)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표 IV-3-69>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권위주의형	1.4(0.3)	1.6(0.4)	1.7(0.5)	1.7(0.4)	1.6(0.4)
민주주의형	2.1(0.4)	2.1(0.4)	1.9(0.4)	2.1(0.4)	2.1(0.4)
맹종형	1.9(0.4)	1.9(0.5)	1.7(0.4)	1.8(0.5)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4) n=1,146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다섯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변인은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모두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2.1점)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저위험군(1.4점)보다 고위험군(1.6점)이 양육태도 점수가 높으

나, 민주주의형과 맹종형은 양육태도 점수가 같았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유형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 양육태도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1.7점)가 방임(1.6점) 보다 높은 반면, 민주주형 양육태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2.1점)이 신체적 학대(1.9) 보다 높았다. 맹종형 양육태도는 방임(1.9점), 정서적 학대(1.8점), 신체적 학대(1.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수준에 따른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보면 권위주의형은 저위험군보다 고위험군이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민주주의형 및 맹종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대 유형에 따른 하위영역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학대를 받은 아동의 점수가 높았으나, 맹종형은 방임 아동이 학대 아동보다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다.

나)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1) 아동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표 IV-3-70> 아동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버지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남	저위험군	1.5(0.3)	2.1(0.4)	1.8(0.4)
	고위험군	1.6(0.4)	2.1(0.4)	1.9(0.4)
	전 체	1.5(0.4)	2.1(0.4)	1.9(0.4)
여	저위험군	1.4(0.3)	2.2(0.4)	2.0(0.4)
	고위험군	1.6(0.4)	2.1(0.4)	1.9(0.5)
	전 체	1.5(0.4)	2.2(0.4)	2.0(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146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남자 아동(2.1점), 여자 아동(2.2점) 모두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른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점수는 같았다. 민주주의형과 맹종형에서는 남자 아동(2.0점, 1.9점)보다 여자 아동(2.2점, 2.1점)이 높게 나타났다.

(2) 아동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표 IV-3-71> 아동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버지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초등 4·6학년	저위험군	1.9(0.5)	2.1(0.4)	1.9(0.4)
	고위험군	1.5(0.4)	1.5(0.4)	1.9(0.5)
	전 체	1.5(0.4)	2.2(0.4)	1.9(0.4)
중고등	저위험군	1.4(0.3)	2.1(0.4)	2.1(0.4)
	고위험군	1.6(0.4)	2.1(0.4)	1.9(0.4)
	전 체	1.5(0.4)	2.1(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146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2.2점), 중고등학생(2.1점) 모두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표 IV-3-72> 가구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아버지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저위험군	1.6(0.3)	2.1(0.3)	1.9(0.4)
	고위험군	1.6(0.4)	2.0(0.4)	1.8(0.4)
	전 체	1.6(0.4)	2.0(0.4)	1.9(0.4)
차상위가구	저위험군	1.5(0.3)	2.1(0.4)	1.9(0.4)
	고위험군	1.6(0.5)	2.0(0.4)	1.8(0.4)
	전 체	1.5(0.4)	2.0(0.4)	1.8(0.4)
일반가구	저위험군	1.4(0.3)	2.1(0.4)	1.9(0.4)
	고위험군	1.6(0.4)	2.0(0.4)	1.9(0.5)
	전 체	1.5(0.4)	2.1(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146명(무응답은 제외함)

가구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2.1점), 차상위가구(2.0점), 일반가구(2.1점) 모두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였고, 맹종형과 권위주의형 순서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권위주의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1.6점), 민주주의형은 일반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2.1점), 맹종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일반가구에서 가장 높게(1.9점) 나타났다. 학대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표 IV-3-73> 지역 크기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아버지의 양육태도			평균(SD)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대도시	저위험군	1.5(0.3)	2.1(0.4)	1.9(0.4)	
	고위험군	1.6(0.4)	2.1(0.4)	1.9(0.5)	
	전 체	1.6(0.4)	2.1(0.4)	1.9(0.4)	
중소도시	저위험군	1.3(0.3)	2.2(0.4)	1.9(0.4)	
	고위험군	1.5(0.4)	2.2(0.4)	1.9(0.4)	
	전 체	1.4(0.4)	2.2(0.4)	1.9(0.4)	
농어촌	저위험군	1.5(0.4)	2.1(0.4)	2.0(0.4)	
	고위험군	1.6(0.4)	2.1(0.4)	1.9(0.4)	
	전 체	1.5(0.4)	2.1(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146명(무응답은 제외함)

지역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대도시(2.1점), 중소도시(2.2점), 농어촌(2.1점) 모두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였고, 맹종형과 권위주의형 순서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권위주의형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고(1.6점), 민주주의형은 중소도시에서(2.2점), 맹종형은 지역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1.9점) 나타났다. 학대수준별로 살펴본 결과도 응답점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서로 나타났다.

6)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표 IV-3-74>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평균(SD)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권위주의형	1.5(0.4)	1.6(0.4)	1.5(0.4)	1.5(0.4)	1.5(0.4)	
민주주의형	2.1(0.4)	2.1(0.4)	2.2(0.4)	2.2(0.4)	2.1(0.4)	
맹종형	1.9(0.4)	1.9(0.4)	1.9(0.4)	1.9(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4) n=1,239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여섯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변인은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모두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2.1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저위험군(1.5점)보다 고위험군(1.6점)이 점수가 높았으나, 민주주의형과 맹종형은 점수 차이가 없었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유형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 및 맹종형은 양육태도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형은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2.2점)가 방임(2.1점)보다 높았다.

나)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1) 아동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표 IV-3-75> 아동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남	저위험군	1.6(0.4)	2.2(0.4)	1.9(0.5)
	고위험군	1.6(0.4)	2.1(0.4)	1.9(0.4)
	전 체	1.6(0.4)	2.1(0.4)	1.9(0.4)
여	저위험군	1.4(0.4)	2.2(0.4)	1.9(0.4)
	고위험군	1.5(0.4)	2.1(0.4)	1.9(0.4)
	전 체	1.5(0.4)	2.2(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239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남자 아동(2.1점), 여자 아동(2.2점) 모두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른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남자 아동(1.6점)이 여자 아동(1.5점)보다 높았지만, 민주주의형은 남자 아동(2.1점)보다 여자 아동(2.2점)이 높았다. 반면, 맹종형은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부모양육 태도 점수는 같았다. 학대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도 전체 양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아동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표 IV-3-76> 아동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초등 4-6학년	저위험군	1.5(0.4)	2.1(0.4)	1.8(0.4)
	고위험군	1.6(0.4)	2.2(0.4)	1.9(0.4)
	전 체	1.5(0.4)	2.2(0.4)	1.9(0.4)
중고등	저위험군	1.5(0.4)	2.2(0.4)	1.9(0.4)
	고위험군	1.6(0.4)	2.1(0.4)	1.9(0.4)
	전 체	1.6(0.4)	2.1(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239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2.2점), 중고등학생(2.1점) 모두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영역별로 구분해보면, 권위주의형은 중고등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형은 초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맹종형은 학년에 따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대수준에 따라서 구분해본 결과,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서로 나타났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표 IV-3-77> 가구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저위험군	1.6(0.4)	2.0(0.4)	1.9(0.3)
	고위험군	1.6(0.4)	2.0(0.4)	1.8(0.4)
	전 체	1.6(0.4)	2.0(0.4)	1.8(0.4)
차상위가구	저위험군	1.5(0.4)	2.1(0.5)	1.9(0.4)
	고위험군	1.6(0.4)	2.0(0.4)	1.8(0.4)
	전 체	1.6(0.4)	2.0(0.4)	1.8(0.4)
일반가구	저위험군	1.5(0.4)	2.2(0.4)	1.9(0.4)
	고위험군	1.6(0.4)	2.2(0.4)	1.9(0.4)
	전 체	1.6(0.4)	2.2(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239명(무응답은 제외함)

가구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모두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권위주의형은 가구 특성에 따라 같은 점수가 나타나 세 가구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형과 맹종형은 일반가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학대수준별로 살펴본 결과는 앞에 설명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서는 변하지 않았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표 IV-3-78> 지역 크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대도시	저위험군	1.5(0.4)	2.1(0.4)	1.9(0.4)
	고위험군	1.7(0.4)	2.1(0.4)	1.9(0.5)
	전 체	1.6(0.4)	2.1(0.4)	1.9(0.4)
중소도시	저위험군	1.4(0.3)	2.2(0.4)	1.9(0.4)
	고위험군	1.6(0.4)	2.2(0.4)	1.9(0.4)
	전 체	1.5(0.4)	2.2(0.4)	1.9(0.4)
농어촌	저위험군	1.6(0.4)	2.1(0.4)	1.9(0.4)
	고위험군	1.6(0.4)	2.1(0.4)	1.9(0.4)
	전 체	1.6(0.4)	2.1(0.4)	1.9(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1,239명(무응답은 제외함)

지역 크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권위주의형은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민주주의형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맹종형은 지역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학대수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고위험군에서 권위주의형이 저위험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다른 유형에서는 같은 점수가 나타나 학대수준에 따른 다양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맹종형은 지역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학대수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고위험군에서 권위주의형이 저위험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다른 유형에서는 같은 점수가 나타나 학대수준에 따른 다양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7) 주양육자의 양육태도¹⁵⁾

가) 아동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표 IV-3-79> 학대 수준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권위주의형	1.4(0.3)	1.5(0.4)	1.7(0.3)	1.6(0.4)	1.3(0.4)
민주주의형	2.0(0.4)	1.9(0.3)	1.9(0.3)	1.8(0.3)	2.0(0.4)
맹종형	1.8(0.4)	1.8(0.3)	1.7(0.4)	1.7(0.3)	1.8(0.3)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4) n=39명(무응답은 제외함)

15) 부모 이외에 주로 아동을 돌봐주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을 대상으로 일곱 번째 조사한 내용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이다. 양육자의 양육태도 하위변인은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저위험군(2.0점)과 고위험군(2.1점) 모두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저위험군(1.4점)보다 고위험군(1.5점)이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지만, 민주주의형에서는 저위험군(2.0점)이 고위험군(1.9점)보다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다. 반면, 맹종형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결과가 같았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유형에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신체적 학대 아동(1.7점)이 정서적 학대(1.6점) 및 방임 아동(1.3점)보다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민주주의형 및 맹종형은 방임 아동(2.0점, 1.8점)이 신체적 학대(1.9점, 1.7점) 및 정서적 학대 아동(1.8점, 1.7점)보다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1) 아동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표 IV-3-80> 아동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평균(SD)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남	저위험군	1.3(0.3)	1.8(0.5)	1.7(0.4)	
	고위험군	1.5(0.4)	2.0(0.4)	1.8(0.4)	
	전 체	1.4(0.3)	1.9(0.4)	1.8(0.4)	
여	저위험군	1.4(0.3)	2.1(0.4)	1.9(0.4)	
	고위험군	1.4(0.4)	1.7(0.2)	1.7(0.3)	
	전 체	1.4(0.4)	1.9(0.4)	1.8(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39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 성별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남자 아동(2.1점), 여자 아동(2.2점) 모두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른 하위영역 별 양육태도를 비교 해 보면, 권위주의형은 남자 아동(1.6점)이, 여자 아동(1.5점) 보다 높았지만, 민주주의형은 남자 아동(2.1점)보다, 여자 아동(2.1점)이 높았다. 반면, 맹종형은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부모양육 태도 점수는 같았다. 학대수준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유형도 전체 양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아동 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표 IV-3-81> 아동 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초등 4-6학년	저위험군	1.2(0.2)	2.3(0.4)	1.8(0.4)
	고위험군	1.5(0.4)	1.9(0.3)	1.7(0.3)
	전 체	1.4(0.3)	2.1(0.4)	1.7(0.3)
중고등	저위험군	1.5(0.3)	1.8(0.4)	1.8(0.4)
	고위험군	1.5(0.3)	1.9(0.4)	1.8(0.4)
	전 체	1.5(0.4)	1.8(0.4)	1.8(0.4)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39명(무응답은 제외함)

아동 학년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2.1점)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민주주의형(1.8점) 및 맹종형(1.8점)으로 인지하고 있다.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하위영역별로 구분해보면, 권위주의형은 중고등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으나, 민주주의형은 초등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맹종형은 학년에 따라 같은 점수가 나타나 세 가구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수준에 따라서 구분해 본 결과, 저위험군 초등학생은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서로 나타났다지만, 저위험군 중고등학생은 민주주의형 및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고위험군은 아동 학년에 상관없이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으로 나타났다.

(3)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표 IV-3-82>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평균(SD)

구분	학대 수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저위험군	1.5(0.3)	2.0(0.5)	1.8(0.4)
	고위험군	1.6(0.4)	1.8(0.4)	1.7(0.4)
	전 체	1.5(0.4)	1.9(0.4)	1.7(0.4)
차상위가구	저위험군	1.1(-)	2.4(-)	1.9(-)
	고위험군	1.6(-)	1.8(-)	1.7(-)
	전 체	1.3(0.5)	2.1(0.6)	1.8(0.6)
일반가구	저위험군	1.4(0.3)	1.9(0.5)	1.8(0.4)
	고위험군	1.4(0.3)	2.0(0.3)	1.8(0.3)
	전 체	1.4(0.3)	1.9(0.4)	1.8(0.3)

주 1) 응답평균: 점수가능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39명(무응답은 제외함)

가구 특성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1.9점), 차상위가구(2.1점), 일반가구(1.9점) 모두 민주주의형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권위주의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민주주의형은 차상위가구,

맹종형은 차상위가구에서 주양육자 양육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학대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4)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표 IV-3-83>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구분	학대 수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평균(SD)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대도시	저위험군	1.4(0.4)	1.9(0.9)	1.7(0.9)	
	고위험군	1.7(0.3)	1.9(0.2)	1.8(0.2)	
	전 체	1.6(0.3)	1.9(0.3)	1.7(0.3)	
중소도시	저위험군	1.3(0.3)	2.2(0.4)	1.9(0.3)	
	고위험군	1.5(0.5)	1.8(0.3)	1.7(0.4)	
	전 체	1.4(0.4)	2.1(0.4)	1.8(0.3)	
농어촌	저위험군	1.4(0.3)	1.7(0.4)	1.8(0.4)	
	고위험군	1.4(0.3)	1.9(0.4)	1.8(0.4)	
	전 체	1.4(0.3)	1.8(0.4)	1.8(0.4)	

주: 1) 응답가능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늘 그렇다) 사이임.
 2)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음.
 3) n=39명(무응답은 제외함.)

지역 크기에 따른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대도시(1.9점), 중소도시(2.1점)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민주주의형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농어촌은 민주주의형 및 맹종형(1.8점)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하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권위주의형은 대도시가, 민주주의형은 중소도시에서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맹종형은 농어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형, 맹종형, 권위주의형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8) 아동학대 목격경험

<표 IV-3-84> 아동학대 목격경험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단위: %)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있다	2.5	8.4	11.6	11.3	9.7	
없다	97.5	91.6	88.4	88.7	9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1,310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여덟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아동학대 목격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목격 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94.4%를 차지해 대부분의 아동이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 없었다.

아동학대 수준 및 유형에 따라서 저위험군(2.5%)보다 고위험군(8.4%)이, 학대를 받은 아동(신체적 학대 11.6%, 정서적 학대 11.3%)이 방임아동(9.7%)보다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많았다.

9) 아동학대 목격빈도

<표 IV-3-85> 아동학대 목격빈도

(단위: %)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한 두 번	80.0	55.2	40.9	64.5	46.7
3-4번 정도	20.0	37.9	45.5	32.3	46.7
5-6번 정도	0.0	0.0	0.0	0.0	0.0
7번 이상	0.0	6.9	13.6	3.2	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84>에서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 있는 아동(5.6%)만 대상으로 함.

3) n=73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아홉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아동학대 목격빈도에 대한 질문이다. 아동학대를 목격한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두 번’(60.3%)이 가장 많았으며, ‘3-4번 정도’(34.2%), ‘7번 이상’(5.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라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모두 ‘한 두 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저위험군은 ‘7번 이상’ 목격한 경험이 없었지만, 고위험군은 6.9%가 아동학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서 ‘한 두 번’은 정서적 학대(64.5%)가 가장 많았으나, ‘7번 이상’은 신체적 학대(13.6%)가 정서적 학대(3.2%)나 방임(6.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아동학대 목격 장소

<표 IV-3-86> 아동학대 목격 장소

(단위: %)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이웃(동네 길가, 이웃집)	73.3	56.7	47.6	42.4	71.1
친구집	0.0	6.7	4.8	6.1	6.7
학교	0.0	10.0	19.0	9.1	11.1
공공장소(공원 등)	13.3	6.7	9.5	9.1	2.2
등하교길	6.7	13.3	14.3	21.2	8.9
기타	6.7	6.7	4.8	12.1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84>에서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 있는 아동(5.6%)만 대상으로 함.

3) n=73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열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아동학대 목격 장소에 대한 질문이다. 아동학대를 목격한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웃(동네 길가, 이웃집)’(60.0%)이 가장 많았으며, ‘등하교길(12.0%)’, ‘학교 및 공공장소(공원 등)(둘 다 8.0%)’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수준 및 유형 별로 아동학대 목격 장소를 살펴보면 ‘이웃(동네 길가 이웃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1)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표 IV-3-87>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예	38.7	37.3	31.2	33.8	42.2
아니오	62.7	61.3	68.8	66.2	57.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1,310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열한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먼저,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들어 본적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들어 본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위험군 아동은 38.7%, 고위험군 아동은 37.3%가 ‘들어본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임(4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33.8%), 신체적 학대(31.2%) 순으로 나타났다.

12)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

<표 IV-3-88>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

(단위: %)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	66.5	68.6	62.7	58.1	71.4
인터넷	10.2	11.5	18.6	11.8	12.2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9.3	6.1	6.8	9.7	4.1
주변 사람	7.2	7.7	5.1	8.6	8.7
기타	6.8	6.1	6.8	11.8	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표 IV-3-87>에서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아동(37.9%)만 대상으로 함.

3) n=497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열두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지 경로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앞에서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고 있는 아동에게만 질문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9%,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모든 아동이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68.6%, 66.5%)', '인터넷(11.5%, 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고위험군은 '주변사람(7.7%)'이 높게 나왔으나, 저위험군은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9.3%)'이 높게 나왔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알게 된 아동은 방임(71.4%), 신체적 학대(62.7%), 정서적 학대(58.1%)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신체적 학대(18.6%), 방임(12.2%), 정서적 학대(1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3) 아동학대 신고처

<표 IV-3-89> 아동학대 신고처

(단위: %)

구분	학대 수준		아동학대 유형		
	저위험군	고위험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아동보호전문기관	29.3	32.3	30.9	37.2	33.1
경찰서, 지구대	65.8	61.0	62.3	53.4	60.4
지역사회복지관	0.5	0.9	0.5	1.1	1.3
아동관련 상담소	2.6	3.6	3.7	5.4	3.0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1.0	0.9	0.5	0.7	1.3
종교단체	0.0	0.1	0.5	0.0	0.0
기타	0.8	1.3	0.3	2.2	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아동학대 발생 중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함.

2) n=1,310명

아동학대 위험 가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조사된 사항은 아동학대 신고처에 대한 질문이다. 만약 학대받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경우의 신고기관을 조사한 결과, '경찰서, 지구대'로 응답한 아동이 전체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응답한 경우는 '30.9%, '아동관련 상담소'가 3.1%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처를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모든 아동이 '경찰서, 지구대(61.0%, 65.8%)', '아동보호전문기관(32.3%, 29.3%)'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경찰서, 지구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학대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경찰서, 지구대'라고 응답한 경우는 신체적 학대(62.3%), 방임(60.4%), 정서적 학대(53.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37.2%), 방임(33.1%), 신체적 학대(3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관련 상담소'라고 응답한 아동은 정서적 학대(5.4%), 신체적 학대(3.7%), 방임(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부. 재학대 발생률 분석

제5부. 재학대 발생률 분석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 관련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재학대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에 같은 아동에 대하여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횡단적 서베이 조사방법으로는 분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주제이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재학대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아동학대사례로 신고 되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최초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후에 다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찾아 최초 아동학대사례와 재학대 사례를 종단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분석 방법을 통해 최초 아동학대 시점부터 재학대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수 있다.

<표 V-1-1>은 연구기간 동안에 아동학대 재발생 분포를 최초 학대 발생년도와 재학대 발생 기간에 따른 누적비율로 보여준다.

<표 V-1-1>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누적비율)

(단위: 명 / %)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2004년	3,110	3.8	6.3	7.8	9.0	9.5	10.6	11.0
2005년	3,820	3.4	5.4	7.4	8.6	9.8	10.4	
2006년	4,398	2.8	5.5	7.0	8.4	9.2		
2007년	4,512	2.3	4.4	6.1	7.0			
2008년	4,492	2.4	4.6	5.7				
2009년	4,513	4.8	5.6					
2010년	4,409	0.9						

<표 V-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구기간 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최초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학대아동 수는 총 3,110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총 4,409명으로 7년의 기간 동안에 약 4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재학대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재학대는 최초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지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발생한 최초 아동학대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1년 이내에는 약 3.8%의 아동이 2년 이내에는 약 6.3%가 재학대 사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오래 관찰할 수 있는 연도인 2004년의 경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관찰했을 때 (7년 이내), 약 11%의 아동이 재학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항상 마지막 연도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따른다. 왜냐하면 관찰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사례가 전체 관찰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면 2010년 6월에 발생한 최초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는 2010년 12월까지 관찰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없어 1년 이내 기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즉 기간 내의 전체 재학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없어 다른 기간들에 비해서 재학대 사례가 적

게 추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표 V-1-1>에서 비교적 충분한 관찰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분석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재학대 발생률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재학대 발생률은 5% 정도이고 4년 이내에는 약 9% 정도가 되며 그 이후 기간에는 재학대 발생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재학대는 (전체 재학대의 약 50% 정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분석결과는 거의 10%에 달하는 아동학대사례가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내에 재학대를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표 V-1-2>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연차별 발생비율)

(단위: 명 / %)

최초 학대 발생 연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4년	3,110	3.8	2.5	1.5	1.2	0.5	1.1	0.4
2005년	3,820	3.4	2.0	2.0	1.2	1.2	0.6	
2006년	4,398	2.8	2.7	1.5	1.4	0.8		
2007년	4,512	2.3	2.1	1.7	0.9			
2008년	4,492	2.4	2.2	1.1				
2009년	4,513	4.8	0.8					
2010년	4,409	0.9						

<표 V-1-2>는 기간에 따른 재학대 분포를 조금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 연차별 발생비율로 변환한 것이다. 연차별 발생비율은 누적비율에서 전년도 누적비율을 뺀 값으로 해당 연차에 발생한 비율만을 산출한 것이다. 가장 관찰기간이 긴 2004년에 최초 발생한 학대사례들로 보면 1년차(최초 발생 후 1년)가 3.8%, 2년차(최초 발생 후 1-2년 사이)가 2.5%, 3년차(최초 발생 후 2-3년 사이)가 1.5%로 최초학대로부터의 시간 경과에 따라 재학대 발생비율이 감소되며 6년차(최초 발생 후 5-6년 사이)에는 1.1%, 7년차(최초 발생 후 6-7년 사이)에는 0.4%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최초 발생한 학대 사례들과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도 재학대 발생이 1년차와 2년차에서 가장 높고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표 V-1-3>는 기간에 따른 재학대 분포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등 학대유형별로 보여준다. 발생분포는 누적비율과 연차별 발생비율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표 V-1-3>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신체적 학대

(단위: 명 / %)

누적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2004년	292	2.1	3.4	4.8	6.2	6.5	7.9	8.6
2005년	349	3.2	6.3	9.7	10.9	11.2	11.7	
2006년	363	3.6	6.6	9.1	11.0	12.1		
2007년	361	2.8	3.9	6.6	8.0			
2008년	328	1.8	4.6	5.5				
2009년	254	2.4	4.3					
2010년	257	0.4						
연차별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4년	292	2.1	1.3	1.4	1.4	0.3	1.4	0.7
2005년	349	3.2	3.1	3.4	1.2	0.3	0.5	
2006년	363	3.6	3.0	2.5	1.9	1.1		
2007년	361	2.8	1.1	2.7	1.4			
2008년	328	1.8	2.8	0.9				
2009년	254	2.4	1.9					
2010년	257	0.4						

신체적 학대의 재발생은 대체로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까지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먼저 누적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최초 발생한 신체적 학대 사례의 경우 1년 이내에 2.1%, 2년 이내에 3.4%, 3년 이내에 4.8%로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를 하다가 이후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 관찰연도인 2010년(7년 이내)에는 8.6%가 신체적 학대 재발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학대 아동 292명 중 8.6%가 7년 이내에 신체적 학대 재발생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연차별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2004년, 2006년에 최초 발생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2005년, 2007년, 2008년 발생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 1-2년차와 2-3년차에 가장 높은 재학대 발생률을 보이고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들은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 이후 2-3년 이내에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1-4>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정서적 학대

(단위: 명 / %)

누적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2004년	310	2.9	3.9	4.2	4.5	5.2	5.8	6.5
2005년	448	1.8	2.5	3.8	5.1	5.8	6.0	
2006년	521	1.2	4.8	6.1	8.1	8.4		
2007년	483	2.9	3.7	5.8	6.2			
2008년	544	1.1	2.9	4.6				
2009년	606	5.4	6.1					
2010년	591	0.3						
연차별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4년	310	2.9	1.0	0.3	0.3	0.7	0.6	0.7
2005년	448	1.8	0.7	1.3	1.3	0.7	0.2	
2006년	521	1.2	3.6	1.3	2.0	0.3		
2007년	483	2.9	0.8	2.1	0.4			
2008년	544	1.1	1.8	1.7				
2009년	606	5.4	0.7					
2010년	591	0.3						

정서적 학대의 재발생은 대체로 1-2년 이내에 비교적 높게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누적 발생비율로 보면 2004년에 최초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한 아동의 경우 1년 이내에 가장 높은 재학대 비율을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 관찰 시점인 7년 이내에서는 전체 310명 아동 중 6.5%가 정서적 학대의 재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최초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는 집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 관찰 시점인 6년 이내에는 전체 448명 아동 중 6.0%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발생비율로 보면 2004년, 2005년, 2007년에 최초의 정서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차에 재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 2008년에 최초의 정서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차에 재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역시 1-2년 이내에 아동학대의 재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표 V-1-5>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성학대

(단위: 명 / %)

누적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2004년	121	3.3	3.3	3.3	3.3	3.3	3.3	3.3
2005년	149	2.0	2.7	4.7	6.0	7.4	7.4	
2006년	166	1.8	3.6	4.8	6.0	6.0		
2007년	162	3.7	6.2	7.4	7.4			
2008년	167	4.8	6.0	7.2				
2009년	175	2.3	2.3					
2010년	134	1.5						
연차별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4년	121	3.3	0.0	0.0	0.0	0.0	0.0	0.0
2005년	149	2.0	0.7	2.0	1.3	1.4	0.0	
2006년	166	1.8	1.8	1.2	1.2	0.0		
2007년	162	3.7	2.5	1.2	0.0			
2008년	167	4.8	1.2	1.2				
2009년	175	2.3	0.0					
2010년	134	1.5						

성학대의 재발생은 대체로 1년 이내에 비교적 높게 발생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2-3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다가 서서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년 이내 2.0%, 2년 이내 2.7%, 3년 이내 4.7%로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종료시점인 6년 이내에서는 전체아동 149명 중 7.4%가 성학대의 재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1차년도 발생 이후에 재학대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2007년의 경우 1년 이내에 3.7%가 재학대를 경험하고, 2년 이내에 6.2%, 3년 이내에 7.4%가 성학대 재학대를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차별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에 최초로 성학대가 발생한 경우 2년차, 3년차까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04년, 2007년, 2008년의 경우 최초 발생 후 1년차에 비교적 높게 발생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6>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방임

(단위: 명 / %)

누적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2004년	936	4.1	7.5	8.8	10.4	10.7	12.4	12.5
2005년	1,237	4.2	6.5	8.7	9.7	11.3	12.0	
2006년	1,728	2.3	3.9	5.6	7.1	7.9		
2007년	1,711	2.5	4.3	5.4	6.2			
2008년	1,790	3.1	4.9	5.6				
2009년	1,601	4.4	5.7					
2010년	1,501	0.7						
연차별 발생비율								
최초학대 발생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4년	936	4.1	3.4	1.3	1.6	0.3	1.7	0.1
2005년	1,237	4.2	2.3	2.2	1.0	1.6	0.7	
2006년	1,728	2.3	1.6	1.7	1.5	0.8		
2007년	1,711	2.5	1.8	1.1	0.8			
2008년	1,790	3.1	1.8	0.7				
2009년	1,601	4.4	1.3					
2010년	1,501	0.7						

방임의 재발생은 최초 방임 발생 1년 이내에 비교적 높게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방임의 경우 다른 학대들에 비해 재학대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누적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최초 방임 발생 1년 이내에 4.1%, 2년 이내 7.5% 등으로 비교적 높은 재학대 발생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 관찰시점인 7년 이내에는 전체 936명의 아동 중 12.5%가 방임을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005년에 최초로 방임이 발생한 경우 4-5년 이내에는 전체의 10% 이상이 방임을 다시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재발생 비율을 보였다.

연차별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모든 최초 학대 발생 연도에서 최초 발생 이후 점차적으로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4년의 경우 최초 1년차에는 4.1%, 2년차에는 3.4%, 3년차에는 1.3%로 발생률이 감소하다가 6년차에는 1.7%, 7년차에는 0.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7>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유기

(단위: 명 / %)

누적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2004년	209	5.7	8.6	9.1	10.0	10.5	11.0	11.5
2005년	365	4.1	5.8	6.3	6.8	9.3	9.9	
2006년	321	4.7	8.7	9.0	10.3	10.6		
2007년	349	2.3	5.4	8.0	10.3			
2008년	320	2.8	3.1	4.4				
2009년	348	2.9	3.4					
2010년	386	0.5						
연차별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4년	209	5.7	2.9	0.5	0.9	0.5	0.5	0.5
2005년	365	4.1	1.7	0.5	0.5	2.5	0.6	
2006년	321	4.7	4.0	0.3	1.3	0.3		
2007년	349	2.3	3.1	2.6	2.3			
2008년	320	2.8	0.3	1.3				
2009년	348	2.9	0.5					
2010년	386	0.5						

유기의 재발생은 대체로 1년 이내에 비교적 높게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의 발생비율은 전체 아동학대 영역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재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누적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2004년 최초 유기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에 5.7%, 2년 이내에 8.6%, 3년 이내에 9.1% 정도 다시 아동을 유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이내에 유기가 재발생 하는 경우가 10.0%로 나타나 비교적 빨리 유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관찰기간인 7년 이내에는 총 209명의 아동 중 11.5%가 다시 유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2004년에 최초 유기가 발생한 경우 1년차에 5.7%, 2년차에 2.9%가 다시 아동을 유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최초 아동을 유기한 후 1년 안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3년차까지 비교적 높은 재발생 비율을 보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007년의 최초 아동을 유기한 경우 비교적 아동을 다시 유기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특징을 보였다.

<표 V-1-8> 기간에 따른 학대 유형별 아동 재학대 분포: 중복학대

(단위: 명 / %)

누적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2004년	301	4.7	9.3	12.3	13.0	13.3	15.0	15.3
2005년	271	4.4	6.6	8.1	8.9	10.7	11.1	
2006년	284	3.9	6.7	9.2	9.9	10.6		
2007년	286	2.4	7.3	9.4	10.8			
2008년	293	2.7	5.8	6.8				
2009년	326	5.5	6.1					
2010년	306	1.6						
연차별 발생비율								
최초 학대 발생 년도	최초 학대 아동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4년	301	4.7	4.6	3.0	0.7	0.3	1.7	0.3
2005년	271	4.4	2.2	1.5	0.8	1.8	0.4	
2006년	284	3.9	2.8	2.5	0.7	0.7		
2007년	286	2.4	4.9	2.1	1.4			
2008년	293	2.7	3.1	1.0				
2009년	326	5.5	0.6					
2010년	306	1.6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의 재발생은 대체적으로 최초 아동학대가 발생한지 1-2년 이내에 비교적 높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재발생 비율은 다른 단일 학대 유형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누적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2004년 최초 중복학대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재발생하는 비율이 4.7%, 2년 이내가 9.3%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내에 재발생 하는 비율이 12.3%로 3년 이내에 10% 넘는 아동들이 중복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6년에 최초 중복학대가 발생한 경우 10%가 넘는 시점은 최초 발생 후 5년 이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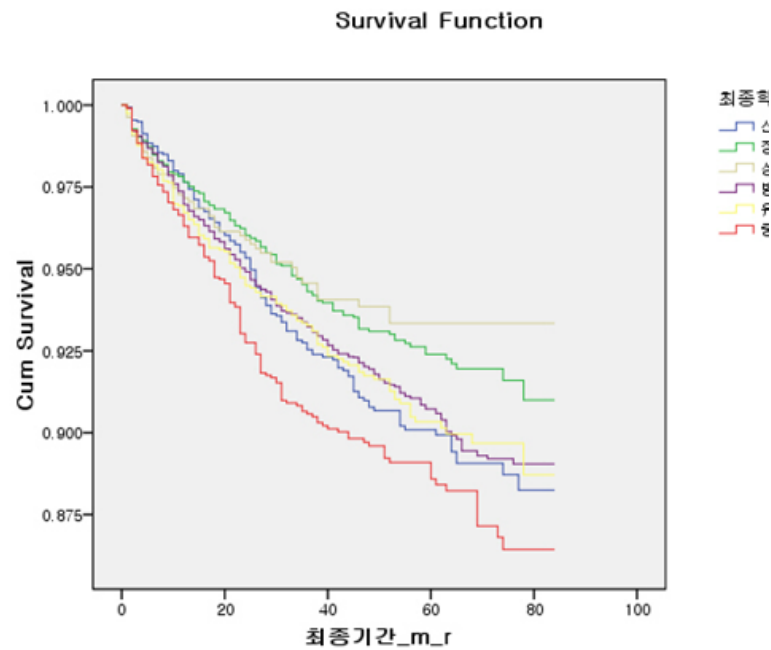
연차별 발생비율로 살펴보면, 1-2년 이내에 재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2004년에 최초 중복학대가 발생한 경우 1년차에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4.7%, 2년차 4.6%, 3년차 3.0%였고, 4년차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7년, 2008년에 최초로 중복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차보다 2년차가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V-1-9> 학대유형, 아동특성, 가해자 특성에 따른 재학대 발생률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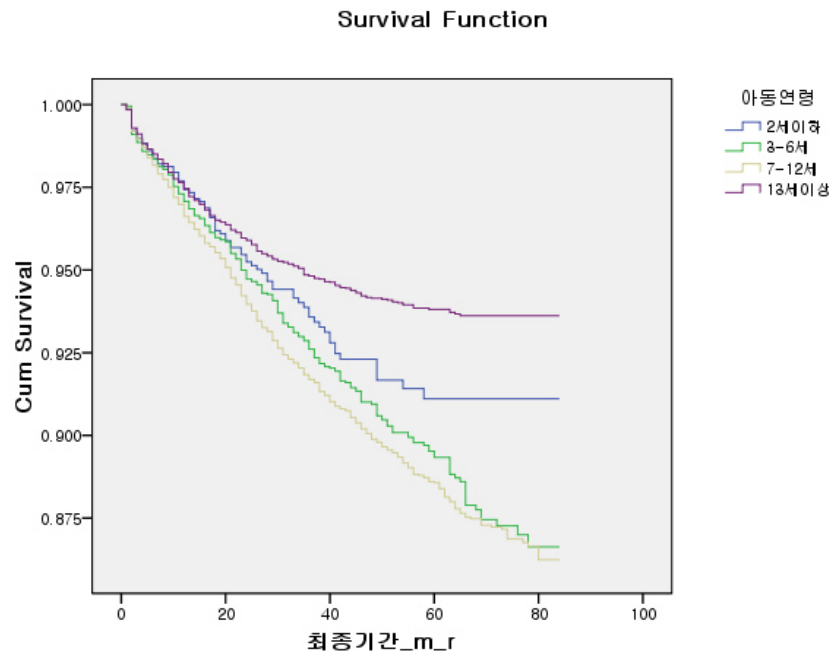
학대유형	재학대 발생률	재학대 수	총 학대 발생 수
신체학대	7.7	169	2,194
정서학대	5.3	185	3,503
성학대	5.1	55	1,074
방임	6.8	711	10,504
유기	6.9	158	2,298
중복학대	8.8	182	2,067
아동연령			
2세 이하	5.8	81	1,400
3-6세	7.7	320	4,178
7-12세	8.4	1,116	13,252
13세 이상	4.7	489	10,414
가해자 학력			
고졸미만	7.5	375	5,008
고졸	6.1	423	6,893
대학이상	5.2	156	2,996
가해자 관계			
친부	9.0	84	930
친모	8.0	333	4,159
기타	6.6	1,589	24,165
기초생활 수급여부			
비수급	6.0	1,148	19,023
수급	8.9	731	8,178
계	6.9	2,006	29,254

<표 V-1-9>는 전체 연구기간 동안에 재학대 발생률을 학대유형, 아동특성, 가해자특성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관찰기간을 따로 고려하지 않은 전체 아동학대 재발생률은 6.9%로 나타났다. 최초학대 유형별로 재학대율을 살펴보면, 중복학대의 경우가 재학대율이 가장 높아 약 9%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학대가 약 7.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학대유형은 성학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7-12세에 최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가 재학대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가해자 학력이 낮을수록 가해자가 친부나 친모일 경우가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가 재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수록 재학대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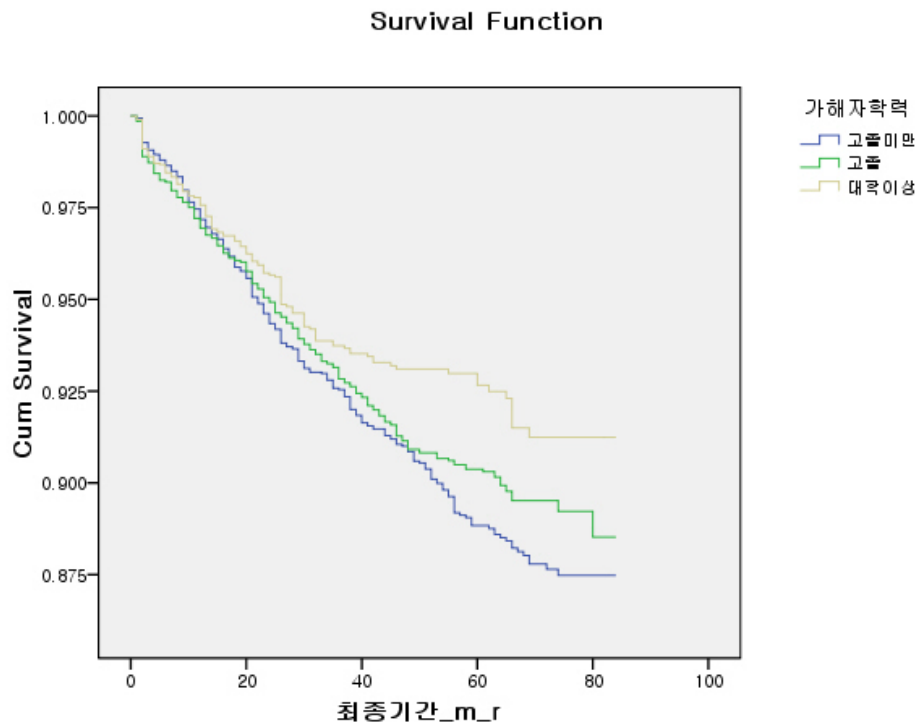
[그림 V-1-1] 아동학대 발생유형별 생존함수

중단자료를 이용한 재학대 분석에서는 첫 번째 사건에서 그 다음 사건까지의, 즉 이 경우는 재학대 발생까지의, 시간 분포의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한 재사건까지의 시간 분포 분석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재사건까지의 시간을 '생존함수'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위의 <그림 V-1-1>은 최초학대부터 재학대까지의 생존함수를 학대유형별로 보여준다. 생존함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기울기가 급한 것은 그만큼 재학대까지의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V-1-1>의 분석결과를 보면 중복학대의 재학대 발생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서 빨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기울기가 완만한 성학대의 경우는 최초 학대 발생 후 약 40개월까지는 정서학대와 비슷한 재학대 발생 분포를 보이나 40개월 후부터는 재학대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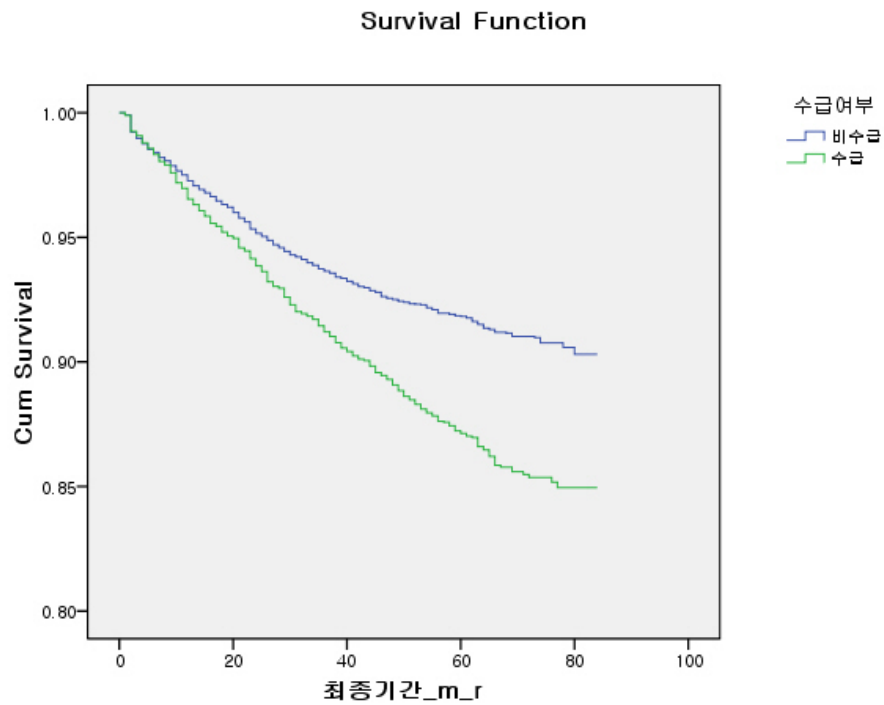
[그림 V-1-2] 아동학대 피해 아동 연령별 생존함수

위의 <그림 V-1-2>는 아동연령대별 생존함수를 보여주는데 7-12세 아동이 재학대 발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학대 발생이 가장 더딘 집단은 13세 이상 집단이다.



[그림 V-1-3] 아동학대 가해자 학력별 생존함수

가해자 학력에 따른 재학대 발생 분포는 <그림 V-1-3>에서 알 수 있다. 가해자 학력의 경우는 최초 아동학대 발생 후 약 20개월까지는 재학대 발생이 비슷한 형태를 띠다가 20개월 이후부터 각 학력 집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대학 이상은 재학대 발생의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고졸 미만은 그 속도가 계속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재학대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생존함수

[그림 V-1-4]는 기초생활 수급여부에 따른 재학대 발생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V-1-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최초 학대발생이 있는 지 얼마 안돼서 부터 비수급자와의 격차가 발생하여 현격히 재학대 발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6부. 전문가 의식조사

제6부. 전문가 의식조사

본 연구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인 아동학대 전문가란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이하 학계)과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실무자(이하 실무자)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의미한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전문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어떠한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는 전문가들의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이다. 평가는 아동보호서비스 및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개입효과, 기관 간 협력, 홍보, 공공과 민간 역할의 적절성 등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개선방안은 아동학대 전문성, 교육, 신고, 예방적 정책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아동학 및 아동복지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이하 학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현장 실무자(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에 앞서, 아동학대와 연관이 있는 아동, 보건/의료, 복지, 가족, 법 관련 학회에서 활동 중인 교수들과, 연구기관의 연구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표VI-1-1>과 같이 전문가 Pool을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학계 93명, 실무자 108명으로 총 201명이었으며, 조사 방법은 이메일(E-mail)을 통한 온라인 조사였다.¹⁶⁾

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는 학계 전문가에 포함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는 현장 실무자에 포함시켰다.

<표 VI-1-1> 전문가 의식조사 대상

(단위: 명)

구분	소속	인원
학계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관련 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미래청소년학회 - 보건/의료 관련 학회 : 대한간호협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아동간호학회, 대한의사협회, 한국간호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부모자녀건강학회 - 복지 관련 학회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가족 관련 학회 :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생활과학회 - 법 관련 학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양법학회 	410
연구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연구소(박사급)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72
아동학대 현장 실무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직원, 상담원 등)	268
전체		750

2. 조사 내용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응답자 개인적 특성과 실무자가 근무하는 기관 특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는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는 가해자·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개입 효과 제고에 미치는 요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적절성, 부처별 기관 간의 연계 협력수준 등), 현재 수집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방안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신변안전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였다.

<표 VI-2-1> 아동학대 전문가 의식조사 내용

구분		내용	
조사 대상자 특성	개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 성별 - 연령 - 결혼여부 - 자녀수 -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 직위 - 근무경력 - 담당 사례건수 - 근무시간
	기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수 -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근무지역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 원인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서비스 적절성 -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 개입 효과 제고에 미치는 요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 부처별 기관 간의 연계 협력수준 -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적절성 -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 신고의무자 교육 - 신고 활성화 방안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신변안전 	

3. 영역별 분석결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다음의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이다. 응답자 개인의 특성과 실무자가 근무하는 기관특성을 보여준다. 둘째는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이다. 아동학대 심각성,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을 담고 있다. 셋째는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이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내용, 절차, 협력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는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개선방안이다. 앞서 이루어진 평가를 기반으로 전문성, 교육, 신고, 예방, 역량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가. 조사 대상자 특성

1) 개인적 특성

<표 VI-3-1>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단위: % / 명)

구분	실무자	학계	전체
성별			
남	43.5	30.1	37.3
여	56.5	69.9	62.7
연령			
20대	70.3	4.5	39.7
30대	26.7	15.9	21.7
40대 이상	3.0	79.5	38.6
결혼여부			
미혼	65.7	19.4	44.3
기혼	34.3	80.6	55.7
자녀수			
없음	75.9	26.9	53.2
1명	14.8	32.3	22.9
2명 이상	9.3	40.9	23.9
학력			
대졸(초대졸 포함)	77.8	5.4	44.3
석사졸(과정 포함)	21.3	2.2	12.4
박사졸(과정 포함)	0.9	92.5	43.3
전공			
사회복지	81.5	51.6	67.7
가족/가정/아동(복지)	8.3	23.7	15.4
기타	10.2	22.6	15.9
무응답	0.0	2.2	1.0
직위			
교수/연구위원(박사급)	0.0	79.6	36.8
팀장	23.1	2.2	13.4
상담원(팀원)/연구원	70.4	10.8	42.8
기타	6.5	5.4	6.0
무응답	0.0	2.2	1.0
근무경력			
1년 미만	25.0	-	25.0
1년-2년 미만	26.9	-	26.9
2년-4년 미만	21.3	-	21.3
4년 이상	26.9	-	26.9
담당 사례수(월 평균)			
5건 미만	38.9	-	38.9
5-20건 미만	28.7	-	28.7
20건 이상	32.4	-	32.4
근무시간(하루 평균)			
10시간 이하	65.7	-	65.7
10시간 초과	34.3	-	34.3
전체	100.0(108)	100.0(93)	100.0(201)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교수 및 연구원(이하 학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실무자(이하 실무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은 실무자의 경우 56.5%가 여성이었고, 학계의 경우 69.9%가 여성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37.3%, 여성이 62.7%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실무자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고, 학계의 경우 4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20대 39.7%, 30대 21.7%, 40대 38.6%였다.

결혼여부는 실무자가 65.7%가 미혼이었고, 학계의 경우 19.4%가 미혼이었다. 전체적으로 미혼이 44.3%였고, 기혼이 55.7%였다. 전체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46.8%였다.

학력은 실무자의 경우 대학 졸업(초대 졸업 포함)이 가장 많았고, 학계는 박사 졸업(박사과정 포함)이 가장 많았다. 학계에서 대학 졸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원 등의 연구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전공은 실무자의 경우 사회복지가 81.5%였고, 학계의 경우 사회복지가 51.6%였다.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가 67.7%, 가족·가정·아동(복지) 등은 15.4%였다.

전문가들의 직위는 실무자들은 70.4%가 상담원이었고, 학계에서는 79.6%가 교수 혹은 박사급 연구위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수나 박사급 연구위원은 36.8%, 팀장은 13.4%, 상담원 혹은 연구원은 42.8%였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자들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25.0%, 1년~4년 미만이 48.2%, 4년 이상이 26.9%였다. 월평균 담당 사례 수는 5건 미만이 38.9%, 5~20건 미만은 28.7%, 20건 이상은 32.4%였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가 65.7%였고, 10시간 초과가 34.3%였다.

2) 기관 특성(실무자가 근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표 VI-3-2> 기관 특성(실무자가 근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단위: % / 명)

구분	실무자
전체직원 수	
5-7명	27.8
8-10명	38.0
11명 이상	34.3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수	
3-5명	36.1
6-7명	34.3
8명 이상	29.6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89.8
지방자치단체	4.6
종교재단	5.6
근무지역	
대도시	28.7
중소도시	64.8
농어촌	6.5
전체	100.0(108)

현장 전문가인 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기관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직원 수는 8-10명이 38.0%로 가장 많았고, 11명 이상은 34.3%, 5-7명은 27.8%였다. 기관의 전체 직원 중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수는 3-5명인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7명이 34.3%, 8명 이상이 29.6%였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받은 운영 주체의 종류는 사회복지법인이 89.8%로 가장 많았고, 종교재단은 5.6%, 지방자치단체는 4.6%였다. 근무지역은 중소도시가 64.8%, 대도시가 28.7%로 대다수였고, 농어촌은 6.5%였다.

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는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원인 인식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¹⁷⁾

<표 VI-3-3> 아동학대 전문가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단위: % / 명)

구분	실무자	학계	전체
매우 심각함	34.3	30.1	32.3
심각함	63.9	64.5	64.2
심각하지 않음	1.9	5.4	3.5
전혀 심각하지 않음	0.0	0.0	0.0
전체	100.0(108)	100.0(93)	100.0(201)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으로서 첫 번째로 조사된 사항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를 ‘매우 심각함’ 그리고 ‘심각함’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전체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심각하지 않음’ 그리고 ‘전혀 심각하지 않음’은 3.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17)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정도’ 문항의 구성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발행한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은 비폭력적 훈육,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 학대유형별 각 문항에 대한 학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되었다.

가) 비폭력적 훈육

<표 VI-3-4>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비폭력적 훈육

(단위: % / 명)

내 용	소속분야	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	전체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한 행위	실무자	0.0	81.5	18.5	100.0(108)
	학계	1.1	88.2	10.8	100.0(93)
	전체	0.5	84.6	14.9	100.0(201)
아이를 잠깐 격리시킨 행위 (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행위)	실무자	7.4	41.7	50.9	100.0(108)
	학계	15.1	46.2	38.7	100.0(93)
	전체	10.9	43.8	45.3	100.0(201)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준 행위	실무자	1.9	77.8	20.4	100.0(108)
	학계	2.2	75.3	22.6	100.0(93)
	전체	2.0	76.6	21.4	100.0(201)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	실무자	36.1	15.7	48.1	100.0(108)
	학계	29.0	34.4	36.6	100.0(93)
	전체	32.8	24.4	42.8	100.0(201)

비폭력적 훈육은 신체적 폭력 없이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폭력적 훈육을 나타내는 네 가지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비폭력적 훈육은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한 행위’와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준 행위’ 등은 각각 84.6%와 76.6%의 전문가들이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아이를 잠깐 격리시킨 행위,’ ‘아이의 특권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각각 45.3%, 42.8%의 전문가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표 VI-3-5>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비폭력적 훈육

(단위: % / 명)

내용	소속 분야	일 년에					전체
		1-2번	3-5번	6-10번	11-20번	20번 이상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한 행위	실무자	5.0	10.0	15.0	20.0	50.0	100.0(20)
	학계	20.0	0.0	10.0	20.0	50.0	100.0(10)
	전체	10.0	6.7	13.3	20.0	50.0	100.0(30)
아이를 잠깐 격리시킨 행위 (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행위)	실무자	14.5	14.5	30.9	16.4	23.6	100.0(55)
	학계	19.4	22.2	25.0	25.0	8.3	100.0(36)
	전체	16.5	17.6	28.6	19.8	17.6	100.0(91)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준 행위	실무자	9.1	18.2	13.6	36.4	22.7	100.0(22)
	학계	14.3	23.8	19.0	23.8	19.0	100.0(21)
	전체	11.6	20.9	16.3	30.2	20.9	100.0(43)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	실무자	3.8	11.5	17.3	28.8	38.5	100.0(52)
	학계	8.8	20.6	23.5	26.5	20.6	100.0(34)
	전체	5.8	15.1	19.8	27.9	31.4	100.0(86)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이를 잠깐 격리시킨 행위’는 ‘일 년에 6-10번’ 정도 빈번하게 발생하면 학대라고 응답한 사람이 28.6%로 가장 많았고, ‘아이의 특권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일 년에 20번 이상’ 정도 발생하면 학대라고 응답한 사람이 31.4%로 가장 높았다.

나) 정서적 학대

<표 VI-3-6>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정서적 학대

(단위: % / 명)

내 용	소속분야	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	전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	실무자	73.1	0.0	26.9	100.0(108)
	학계	57.0	6.5	36.6	100.0(93)
	전체	65.7	3.0	31.3	100.0(201)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은 행위	실무자	95.4	0.9	3.7	100.0(108)
	학계	93.5	0.0	6.5	100.0(93)
	전체	94.5	0.5	5.0	100.0(201)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실무자	88.9	0.9	10.2	100.0(108)
	학계	87.1	2.2	10.8	100.0(93)
	전체	88.1	1.5	10.4	100.0(201)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은 행위	실무자	69.4	0.9	29.6	100.0(108)
	학계	58.1	8.6	33.3	100.0(93)
	전체	64.2	4.5	31.3	100.0(201)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부른 행위	실무자	74.1	2.8	23.1	100.0(108)
	학계	77.4	2.2	20.4	100.0(93)
	전체	75.6	2.5	21.9	100.0(201)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나타내는 5가지 문항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전문가들 중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은 행위’가 학대라는 것에 90% 이상,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는 80% 이상,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부른 행위’는 70%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나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학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났다. 실무자들은 각각 73.1%와 69.4%가 학대라고 동의한 반면, 학계에서는 각각 57.0%와 58.0%만 학대라고 동의했다.

<표 VI-3-7>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정서적 학대

(단위: % / 명)

내용	소속 분야	일 년에					전체
		1-2번	3-5번	6-10번	11-20번	20번 이상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	실무자	6.9	10.3	17.2	31.0	34.5	100.0(29)
	학계	8.8	17.6	17.6	26.5	29.4	100.0(34)
	전체	7.9	14.3	17.5	28.6	31.7	100.0(63)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은 행위	실무자	0.0	0.0	0.0	25.0	75.0	100.0(4)
	학계	16.7	16.7	33.3	16.7	16.7	100.0(6)
	전체	10.0	10.0	20.0	20.0	40.0	100.0(10)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실무자	9.1	18.2	9.1	27.3	36.4	100.0(11)
	학계	0.0	0.0	40.0	20.0	40.0	100.0(10)
	전체	4.8	9.5	23.8	23.8	38.1	100.0(21)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 않은 행위	실무자	3.1	12.5	21.9	25.0	37.5	100.0(32)
	학계	6.5	12.9	29.0	32.3	19.4	100.0(31)
	전체	4.8	12.7	25.4	28.6	28.6	100.0(63)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부른 행위	실무자	4.0	4.0	16.0	28.0	48.0	100.0(25)
	학계	0.0	21.1	26.3	26.3	26.3	100.0(19)
	전체	2.3	11.4	20.5	27.3	38.6	100.0(44)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빈번히 일어나야 학대라고 응답했는지 살펴보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는 ‘일 년에 20번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 않은 행위’는 ‘일 년에 11-20번’과 ‘일 년에 20번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 신체적 학대

<표 VI-3-8>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신체적 학대

(단위: % / 명)

구분	내 용	소속 분야	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	전체
가벼운 학대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실무자	55.6	3.7	40.7	100.0(108)
		학계	54.8	8.6	36.6	100.0(93)
		전체	55.2	6.0	38.8	100.0(201)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실무자	81.5	0.9	17.6	100.0(108)
		학계	82.8	1.1	16.1	100.0(93)
		전체	82.1	1.0	16.9	100.0(201)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린 행위	실무자	66.7	2.8	30.6	100.0(108)
		학계	65.6	3.2	31.2	100.0(93)
		전체	66.2	3.0	30.8	100.0(201)
	아이를 꼬집은 행위	실무자	67.6	1.9	30.6	100.0(108)
		학계	72.0	4.3	23.7	100.0(93)
		전체	69.7	3.0	27.4	100.0(201)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실무자	65.7	2.8	31.5	100.0(108)
		학계	66.7	5.4	28.0	100.0(93)
		전체	66.2	4.0	29.9	100.0(201)
심한 학대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실무자	95.4	0.9	3.7	100.0(108)
		학계	91.4	0.0	8.6	100.0(93)
		전체	93.5	0.5	6.0	100.0(201)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린 행위	실무자	85.2	1.9	13.0	100.0(108)
		학계	87.1	0.0	12.9	100.0(93)
		전체	86.1	1.0	12.9	100.0(201)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실무자	99.1	0.9	0.0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9.0	0.5	0.5	100.0(201)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실무자	98.1	0.9	0.9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8.5	0.5	1.0	100.0(201)
아주 심한 학대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팬 행위	실무자	98.1	0.9	0.9	100.0(108)
		학계	100.0	0.0	0.0	100.0(93)
		전체	99.0	0.5	0.5	100.0(201)
	아이의 목을 잡고 조른 행위	실무자	98.1	0.0	1.9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8.5	0.0	1.5	100.0(201)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한 행위	실무자	99.1	0.9	0.0	100.0(108)
		학계	100.0	0.0	0.0	100.0(93)
		전체	99.5	0.5	0.0	100.0(201)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 행위	실무자	99.1	0.9	0.0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9.0	0.5	0.5	100.0(201)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1호).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나타내는 13가지 문항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Straus(1998)의 구분에 따라 강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가벼운 학대, 심한 학대, 아주 심한 학대이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학대를 나타내는 문항들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았다. 특히 심한 학대와 아주 심한 학대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학대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벼운 학대의 경우 다른 강도의 신체적 학대에 비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55.2%만이 학대라고 응답하여 신체적 학대 문항 중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학대라고 인식하였다.

<표 VI-3-9>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신체적 학대

(단위: % / 명)

구분	내용	소속 분야	일 년에					전체
			1-2번	3-5번	6-10번	11-20번	20번 이상	
가벼운 학대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 행위	실무자	4.5	4.5	36.4	27.3	27.3	100.0(44)
		학계	14.7	20.6	20.6	23.5	20.6	100.0(34)
		전체	9.0	11.5	29.5	25.6	24.4	100.0(78)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실무자	15.8	10.5	21.1	31.6	21.1	100.0(19)
		학계	20.0	20.0	33.3	20.0	6.7	100.0(15)
		전체	17.6	14.7	26.5	26.5	14.7	100.0(34)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린 행위	실무자	3.0	9.1	27.3	42.4	18.2	100.0(33)
		학계	17.2	31.0	20.7	27.6	3.4	100.0(29)
		전체	9.7	19.4	24.2	35.5	11.3	100.0(62)
	아이를 꼬집은 행위	실무자	12.1	18.2	21.2	39.4	9.1	100.0(33)
		학계	13.6	22.7	13.6	27.3	22.7	100.0(22)
		전체	12.7	20.0	18.2	34.5	14.5	100.0(55)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실무자	17.6	14.7	17.6	26.5	23.5	100.0(34)
		학계	23.1	23.1	26.9	19.2	7.7	100.0(26)
		전체	20.0	18.3	21.7	23.3	16.7	100.0(60)
심한 학대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실무자	0.0	0.0	25.0	25.0	50.0	100.0(4)
		학계	25.0	12.5	37.5	25.0	0.0	100.0(8)
		전체	16.7	8.3	33.3	25.0	16.7	100.0(1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린 행위	실무자	0.0	14.3	28.6	35.7	21.4	100.0(14)
		학계	25.0	8.3	41.7	25.0	0.0	100.0(12)
		전체	11.5	11.5	34.6	30.8	11.5	100.0(26)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실무자	0.0	0.0	0.0	0.0	0.0	100.0(0)
		학계	100.0	0.0	0.0	0.0	0.0	100.0(1)
		전체	100.0	0.0	0.0	0.0	0.0	100.0(1)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실무자	0.0	0.0	0.0	0.0	100.0	100.0(1)
		학계	0.0	100.0	0.0	0.0	0.0	100.0(1)
		전체	0.0	50.0	0.0	0.0	50.0	100.0(2)
아주 심한 학대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팬 행위	실무자	0.0	0.0	0.0	0.0	100.0	100.0(1)
		학계	0.0	0.0	0.0	0.0	0.0	100.0(0)
		전체	0.0	0.0	0.0	0.0	100.0	100.0(1)
	아이의 목을 잡고 조른 행위	실무자	50.0	0.0	0.0	0.0	50.0	100.0(2)
		학계	100.0	0.0	0.0	0.0	0.0	100.0(1)
		전체	66.7	0.0	0.0	0.0	33.3	100.0(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한 행위	실무자	0.0	0.0	0.0	0.0	0.0	100.0(0)
		학계	0.0	0.0	0.0	0.0	0.0	100.0(0)
		전체	0.0	0.0	0.0	0.0	0.0	100.0(0)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 행위	실무자	0.0	0.0	0.0	0.0	0.0	100.0(0)
		학계	0.0	0.0	0.0	0.0	100.0	100.0(1)
		전체	0.0	0.0	0.0	0.0	100.0	100.0(1)

가벼운 학대 문항들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일 년에 6-10번’에 대한 응답이 29.5%로 가장 높았고,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린 행위’, ‘아이를 꼬집은 행위’,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등은 ‘일 년에 11-20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라) 방임

<표 VI-3-10>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방임

(단위: % / 명)

내 용	소속분야	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	전체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한 행위	실무자	96.3	0.9	2.8	100.0(108)
	학계	90.3	2.2	7.5	100.0(93)
	전체	93.5	1.5	5.0	100.0(201)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는 행위	실무자	30.6	26.9	42.6	100.0(108)
	학계	49.5	24.7	25.8	100.0(93)
	전체	39.3	25.9	34.8	100.0(201)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한 행위 (혹은 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행위)	실무자	74.1	2.8	23.1	100.0(108)
	학계	76.3	3.2	20.4	100.0(93)
	전체	75.1	3.0	21.9	100.0(201)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행위 (혹은 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한 행위)	실무자	76.9	0.9	22.2	100.0(108)
	학계	74.2	3.2	22.6	100.0(93)
	전체	75.6	2.0	22.4	100.0(201)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는 행위	실무자	98.1	0.9	0.9	100.0(108)
	학계	94.6	1.1	4.3	100.0(93)
	전체	96.5	1.0	2.5	100.0(201)

방임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임을 나타내는 5가지 문항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임의 경우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한 행위’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는 행위’는 전문가의 90% 이상이 학대라고 응답하였다.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한 행위(혹은 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행위)’,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행위(혹은 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한 행위)’는 전문가의 70% 이상이 학대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는 행위’는 39.3%가 학대라고 응답하였고, 34.8%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25.9%는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VI-3-11>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학대라 생각하는 빈도: 방임

(단위: % / 명)

내용	소속 분야	일 년에					전체
		1-2번	3-5번	6-10번	11-20번	20번 이상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한 행위	실무자	0.0	33.3	0.0	33.3	33.3	100.0(3)
	학계	0.0	28.6	42.9	14.3	14.3	100.0(7)
	전체	0.0	30.0	30.0	20.0	20.0	100.0(10)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는 행위	실무자	10.9	2.2	8.7	28.3	50.0	100.0(46)
	학계	4.2	20.8	29.2	25.0	20.8	100.0(24)
	전체	8.6	8.6	15.7	27.1	40.0	100.0(70)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한 행위(혹은 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행위)	실무자	4.0	8.0	16.0	20.0	52.0	100.0(25)
	학계	10.5	15.8	31.6	26.3	15.8	100.0(19)
	전체	6.8	11.4	22.7	22.7	36.4	100.0(44)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행위(혹은 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한 행위)	실무자	12.5	37.5	8.3	20.8	20.8	100.0(24)
	학계	14.3	38.1	14.3	19.0	14.3	100.0(21)
	전체	13.3	37.8	11.1	20.0	17.8	100.0(45)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는 행위	실무자	0.0	0.0	0.0	0.0	100.0	100.0(1)
	학계	25.0	50.0	0.0	0.0	25.0	100.0(4)
	전체	20.0	40.0	0.0	0.0	40.0	100.0(5)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야 학대인지를 알아본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한 행위(혹은 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행위)’는 ‘일 년에 20번 이상’이라고 한 사람들이 36.4%로 가장 많았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행위(혹은 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한 행위)’는 ‘일 년에 3-5번’이 37.8%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는 행위’는 응답자의 40.0%가 ‘일 년에 20번 이상’ 일어나야 학대라고 응답하였다.

3)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인식¹⁸⁾

<표 VI-3-12>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내용	실무자	학계	전체
학대받는 아동의 개인적인 원인	0.0	0.0	0.0
학대가해자의 개인적인 원인	32.4	36.6	34.3
학대받는 아동과 학대가해자의 갈등 관계	14.8	3.2	9.5
가정-사회 환경적 요인	49.1	57.0	52.7
기타	3.7	3.2	3.5
전체	100.0(108)	100.0(93)	100.0(201)

18) ‘아동학대의 원인’ 문항의 내용 및 구성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발행한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아동학대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며 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가해자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식한 경우는 34.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아동과 가해자의 갈등관계’로 인식한 경우는 10%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학대 받는 아동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

1) 아동학대 서비스 적절성¹⁹⁾

<표 VI-3-13> 아동학대 서비스의 적절성(부모대상 서비스)

(단위: % / 명)

내용	소속 분야	매우 적절함	적절함	적절하지 못함	전혀 적절하지 못함	모름	전체
정신질환을 위한 단기 입원 프로그램	실무자	7.4	31.5	33.3	25.9	1.9	100.0(108)
	학계	3.2	14.0	33.3	26.9	22.6	100.0(93)
	전체	5.5	23.4	33.3	26.4	11.4	100.0(201)
부모를 위한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실무자	5.6	18.5	37.0	34.3	4.6	100.0(108)
	학계	5.4	7.5	33.3	33.3	20.4	100.0(93)
	전체	5.5	13.4	35.3	33.8	11.9	100.0(201)
부모의 경험 및 관심사 공유를 위한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및 상담 관련 기관	실무자	7.4	57.4	27.8	4.6	2.8	100.0(108)
	학계	4.3	22.6	44.1	15.1	14.0	100.0(93)
	전체	6.0	41.3	35.3	9.5	8.0	100.0(201)
신체적 학대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실무자	3.7	15.7	38.9	39.8	1.9	100.0(108)
	학계	6.5	3.2	38.7	34.4	17.2	100.0(93)
	전체	5.0	10.0	38.8	37.3	9.0	100.0(201)
부모 행동변화 지원을 위한 재가서비스	실무자	1.9	35.2	50.9	10.2	1.9	100.0(108)
	학계	3.2	10.8	43.0	26.9	16.1	100.0(93)
	전체	2.5	23.9	47.3	17.9	8.5	100.0(201)
위기에 처해있는 새내기(영유아) 부모를 위한 선별적 가정방문 서비스	실무자	5.6	28.7	44.4	17.6	3.7	100.0(108)
	학계	3.2	7.5	37.6	34.4	17.2	100.0(93)
	전체	4.5	18.9	41.3	25.4	10.0	100.0(201)
성학대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실무자	5.6	12.0	25.0	53.7	3.7	100.0(108)
	학계	5.4	4.3	26.9	49.5	14.0	100.0(93)
	전체	5.5	8.5	25.9	51.7	8.5	100.0(20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가 적절한지에 대해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 ‘아동학대 서비스’ 문항의 내용은 매 2년마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ISPCAN)에서 발간하는 제 8차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들을 참고(p.151)하여 작성하였다. 국내 또는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는 ‘모름’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우선, 부모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경험 및 관심사 공유를 위한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및 상담관련 기관’(47.3%), ‘정신질환을 위한 단기 입원 프로그램’(28.9%), ‘부모 행동변화 지원을 위한 재가서비스’(26.4%), ‘위기에 처한 새내기 부모를 위한 선별적 가정방문 서비스’(23.4%), ‘부모를 위한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18.9%), ‘신체적 학대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15.0%), 그리고 ‘성학대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14.0%)의 순으로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I-3-14> 아동학대 서비스의 적절성(아동대상 서비스)

(단위: % / 명)

내용	소속 분야	매우 적절함	적절함	적절하지 못함	전혀 적절하지 못함	모름	전체
신체적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실무자	13.0	62.0	18.5	5.6	0.9	100.0(108)
	학계	7.5	18.3	43.0	17.2	14.0	100.0(93)
	전체	10.4	41.8	29.9	10.9	7.0	100.0(201)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실무자	16.7	43.5	23.1	13.9	2.8	100.0(108)
	학계	5.4	18.3	40.9	23.7	11.8	100.0(93)
	전체	11.4	31.8	31.3	18.4	7.0	100.0(201)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	실무자	22.2	57.4	17.6	2.8	0.0	100.0(108)
	학계	5.4	24.7	37.6	16.1	16.1	100.0(93)
	전체	14.4	42.3	26.9	9.0	7.5	100.0(201)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실무자	21.3	57.4	15.7	5.6	0.0	100.0(108)
	학계	3.2	22.6	43.0	16.1	15.1	100.0(93)
	전체	12.9	41.3	28.4	10.4	7.0	100.0(201)
아동을 위한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실무자	4.6	28.7	32.4	28.7	5.6	100.0(108)
	학계	5.4	8.6	37.6	28.0	20.4	100.0(93)
	전체	5.0	19.4	34.8	28.4	12.4	100.0(201)

다음은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적절성에 대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56.7%),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시설보호’(54.2%), ‘신체적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52.2%),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43.2%), 그리고 ‘아동을 위한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24.4%) 순으로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부모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전반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VI-3-15> 아동학대 서비스의 적절성(일반 서비스)

(단위: % / 명)

내용	소속 분야	매우 적절함	적절함	적절하지 못함	전혀 적절하지 못함	모름	전체
사례관리 서비스,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 사정	실무자	9.3	65.7	22.2	1.9	0.9	100.0(108)
	학계	4.3	28.0	35.5	15.1	17.2	100.0(93)
	전체	7.0	48.3	28.4	8.0	8.5	100.0(201)
가정위탁 보호	실무자	2.8	41.7	41.7	12.0	1.9	100.0(108)
	학계	2.2	24.7	46.2	15.1	11.8	100.0(93)
	전체	2.5	33.8	43.8	13.4	6.5	100.0(201)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	실무자	7.4	38.9	42.6	9.3	1.9	100.0(108)
	학계	5.4	11.8	39.8	24.7	18.3	100.0(93)
	전체	6.5	26.4	41.3	16.4	9.5	100.0(201)
새내기(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서비스	실무자	2.8	29.6	49.1	14.8	3.7	100.0(108)
	학계	3.2	7.5	43.0	30.1	16.1	100.0(93)
	전체	3.0	19.4	46.3	21.9	9.5	100.0(201)
무료 아동보육서비스	실무자	5.6	27.8	40.7	21.3	4.6	100.0(108)
	학계	3.2	33.3	36.6	15.1	11.8	100.0(93)
	전체	4.5	30.3	38.8	18.4	8.0	100.0(201)
아동을 위한 보편적 건강검진	실무자	10.2	37.0	34.3	15.7	2.8	100.0(108)
	학계	7.5	26.9	46.2	8.6	10.8	100.0(93)
	전체	9.0	32.3	39.8	12.4	6.5	100.0(201)
아동을 위한 무료 의료보호 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	실무자	7.4	35.2	38.0	16.7	2.8	100.0(108)
	학계	4.3	22.6	44.1	17.2	11.8	100.0(93)
	전체	6.0	29.4	40.8	16.9	7.0	100.0(201)
전 국민을 위한 무료 의료보호 서비스에 의 보편적 접근	실무자	5.6	25.0	46.3	20.4	2.8	100.0(108)
	학계	4.3	22.6	44.1	19.4	9.7	100.0(93)
	전체	5.0	23.9	45.3	19.9	6.0	100.0(201)

일반 서비스는 ‘사례관리 서비스’(55.3%), ‘아동을 위한 보편적 건강검진’(41.3%),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36.3%), ‘아동을 위한 무료 의료보호 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35.4%), ‘무료 보육서비스’(34.8%),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32.9%), ‘전 국민을 위한 무료 의료보호 서비스’(28.9%), 그리고 ‘새내기(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서비스’(22.4%) 순으로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²⁰⁾

<표 VI-3-16>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단위: % / 명)

내용	실무자	학계	전체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5.6	1.1	3.5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70.4	37.6	55.2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	23.1	52.7	36.8
전혀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	0.9	8.6	4.5
전체	100.0(108)	100.0(93)	100.0(201)

아동학대 업무진행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58.7%이며 ‘적절하지 않음’ 그리고 ‘전혀 적절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1.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집단별로는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실무자의 76.0%는 업무진행 절차가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학계 전문가의 경우 38.7%가 ‘매우 적절’ 그리고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에 대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살펴 볼 수 있다.

20) ‘아동학대사례 관련 업무진행 절차’ 문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에서 발간한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VI-3-17> 절차별 업무진행의 적절성(실무자)

(단위: % / 명)

내용			적절	부적절	전체
신고접수			87.0	13.0	100.0(108)
현장조사			84.3	15.7	100.0(108)
사례판정			84.3	15.7	100.0(108)
조치결정			74.1	25.9	100.0(108)
서비스 제공	상담 서비스	개별상담	93.5	6.5	100.0(108)
		집단상담	38.9	61.1	100.0(108)
		기관상담 (예.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역사회 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경우 등)	92.6	7.4	100.0(108)
		주변인상담 (예.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이 웃주민, 친인척 등과 상담한 경우 등)	85.2	14.8	100.0(108)
	치료 서비스	입원치료	73.1	26.9	100.0(108)
		통원치료	85.2	14.8	100.0(108)
		심리검사	95.4	4.6	100.0(108)
		놀이치료	92.6	7.4	100.0(108)
		미술치료	93.5	6.5	100.0(108)
		가족치료	47.2	52.8	100.0(108)
	일시보호 서비스	일시보호	92.6	7.4	100.0(108)
	교육 서비스	학대예방교육 (예. 부모교육 등)	68.5	31.5	100.0(108)
		학습지원 (예. 학습지도, 현장체험, 학원수업, 문화활동 등)	77.8	22.2	100.0(108)
	지원 서비스	가정지원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직한 아 동지킴이를 아동가정에 파견하여 반찬지원, 청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	66.7	33.3	100.0(108)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결	88.0	12.0	100.0(108)
		공적지원 연결 (예.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의 료급여, 보육료 감면지원, 공공근로, 긴급지 원 연결 등)	79.6	20.4	100.0(108)
		고소/고발 지원 (예. 탄원서/진정서 작성 및 제출, 학대 피해 아동 법원 출두 시 동행, 보조인선임제도 신청 등)	70.4	29.6	100.0(108)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58.3	41.7	100.0(108)

다음은 실제적으로 아동학대사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각 절차별 업무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각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신고접수’는 87.0%, ‘현장조사’는 84.3%, ‘사례판정’은 84.3%, ‘조치결정’ 관련

업무는 74.1%의 실무자가 적절하다고 보고하여 업무진행 절차에 대해 높은 적절성이 보고되었다. 다음 ‘서비스 제공’은 크게 ‘상담서비스’, ‘치료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지원 서비스’로 나뉘 살펴볼 수 있는데, ‘집단상담’(38.9%)과 ‘가족치료’(47.2%)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진행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개별상담’(93.5%), ‘기관상담’(92.6%), ‘심리검사’(95.4%), ‘놀이치료’(92.6%), ‘미술치료’(93.5%), 그리고 ‘일시보호’(92.6%)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 실무자의 58.3%가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3) 개입효과 제고에 미치는 요인²¹⁾

<표 VI-3-18> 개입효과 제고 요인의 중요도

(단위: % / 명)

내 용	소속분야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학대 가해자의 협조	실무자	92.6	7.4	0.0	0.0	100.0(108)
	학계	76.3	23.7	0.0	0.0	100.0(93)
	전체	85.1	14.9	0.0	0.0	100.0(201)
아동학대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	실무자	75.9	24.1	0.0	0.0	100.0(108)
	학계	72.0	26.9	1.1	0.0	100.0(93)
	전체	74.1	25.4	0.5	0.0	100.0(201)
지역사회자원의 협조 확보	실무자	74.1	25.0	0.9	0.0	100.0(108)
	학계	80.6	18.3	1.1	0.0	100.0(93)
	전체	77.1	21.9	1.0	0.0	100.0(201)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서비스의 전문성과 다 양성을 확보	실무자	74.1	24.1	0.9	0.9	100.0(108)
	학계	83.9	15.1	1.1	0.0	100.0(93)
	전체	78.6	19.9	1.0	0.5	100.0(201)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개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음 요인들의 중요도에 대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모두 각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 그리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자는 ‘학대 가해자의 협조’(92.6%)를, 학계 전문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83.9%)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 ‘개입 효과 제고 요인’ 문항의 구성은 윤혜미(200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²²⁾

<표 VI-3-19> 홍보수단별 효과성 인식

(단위: % / 명)

내용	소속 분야	매우 효과적임	효과적임	효과적이지 못함	전혀 효과적이지 못함	전체
캠페인	실무자	13.9	59.3	26.9	0.0	100.0(108)
	학계	21.5	53.8	21.5	3.2	100.0(93)
	전체	17.4	56.7	24.4	1.5	100.0(201)
언론매체 (예. 방송, 신문 및 잡지 등)	실무자	56.5	40.7	2.8	0.0	100.0(108)
	학계	53.8	34.4	9.7	2.2	100.0(93)
	전체	55.2	37.8	6.0	1.0	100.0(201)
인터넷 (예. 기관 홈페이지, 웹진 제작 및 발송, 관련기관 홈페이지 연계 등)	실무자	36.1	48.1	14.8	0.9	100.0(108)
	학계	29.0	52.7	14.0	4.3	100.0(93)
	전체	32.8	50.2	14.4	2.5	100.0(201)
홍보물 배포 (예. 인쇄물, 영상물 등)	실무자	16.7	56.5	24.1	2.8	100.0(108)
	학계	17.2	46.2	32.3	4.3	100.0(93)
	전체	16.9	51.7	27.9	3.5	100.0(201)
기타 (예. 버스 및 지하철, 전광판, 현수막, 방문 등)	실무자	22.2	62.0	14.8	0.9	100.0(108)
	학계	30.1	38.7	23.7	7.5	100.0(93)
	전체	25.9	51.2	18.9	4.0	100.0(201)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어 다음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매체(93.0%), 인터넷(83.0%), 기타(77.1%), 캠페인(74.1%), 그리고 홍보물 배포(68.6%) 순으로 ‘매우 효과적’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는 인쇄물 홍보(1,034,769회), 언론 홍보(17,807회), 인터넷 홍보(889,393회), 그리고 캠페인(970회) 순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2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수단 문항의 구성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발행한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²³⁾

<표 VI-3-20> 전문가가 예상하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

(단위: % / 명)

내용	실무자	학계	전체
0 % 이상 - 10% 미만	12.0	12.9	12.4
10 % 이상 - 20% 미만	25.9	33.3	29.4
20 % 이상 - 30% 미만	28.7	36.6	32.3
30 % 이상 - 40% 미만	16.7	6.5	11.9
40 % 이상 - 50% 미만	5.6	5.4	5.5
50 % 이상 - 60% 미만	3.7	1.1	2.5
60 % 이상 - 70% 미만	5.6	2.2	4.0
70 % 이상 - 80% 미만	1.9	1.1	1.5
90 % 이상 - 100%	0.0	1.1	0.5
전체	100.0(108)	100.0(93)	100.0(201)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무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²⁴⁾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무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30% 미만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0% 이상 - 30% 미만'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3%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0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보고된 신고의무자의 실제 신고비율인 30.9%와 유사한 결과이다.

2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행동' 관련 문항의 구성은 강명자(2006)와 허남순(200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4)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표 VI-3-21>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1+2순위 ¹⁾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19.4	25.8	22.4	6.5	5.4	6.0	25.9	31.2	28.4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 (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6.5	15.1	10.4	8.3	11.8	10.0	14.8	26.9	20.4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17.6	15.1	16.4	17.6	15.0	16.4	35.2	30.1	32.8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해서	7.4	6.5	7.0	4.6	3.2	3.9	12.0	9.7	10.9
업무가 너무 많아서(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0.9	3.2	2.0	1.9	3.3	2.5	2.8	6.5	4.5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18.5	8.6	13.9	11.1	18.3	14.5	29.6	26.9	28.4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6	6.5	5.5	11.1	8.6	9.9	15.7	15.1	15.4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9.3	6.5	8.0	12.0	10.7	11.4	21.3	17.2	19.4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12.0	10.8	11.4	20.4	12.9	17.0	32.4	23.7	28.4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8	2.2	2.5	5.5	10.7	7.9	8.3	12.9	10.4
기타	0.9	0.0	0.5	1.0	0.0	0.5	1.9	0.0	1.0
전체	100.0 (108)	100.0 (93)	100.0 (201)	100.0 (108)	100.0 (93)	100.0 (201)	200.0 (216)	200.0 (186)	200.0 (402)

주 1) 1+2순위는 1순위와 2순위의 합산으로 200%로 계산되었음.

다음으로 신고의무자가 왜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게 하였고, 결과 보고는 1순위, 2순위, 1+2순위(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값, 단, 합산 값은 200%로 표기)로 제시하였다.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치 않아서)'였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학대자의 보복, 분노, 비난이 두려워서' 등이 있었다.

6) 부처별 기관 간의 연계 협력수준²⁵⁾

<표 VI-3-22> 지역사회 협력체계와의 관계(실무자)

(단위: % / 명)

내용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해당 없음	전체
의료적 처치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신고에 관한 협력관계	11.1	66.7	15.7	2.8	3.7	100.0 (108)
의료체계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종합적인 의료기관의 협력관계	8.3	59.3	23.1	0.9	8.3	100.0 (108)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의 진술에 있어서의 의료체계와의 협력관계	8.3	63.0	22.2	1.9	4.6	100.0 (108)
법률자문기관 및 판·검사등과의 협력체계	11.1	54.6	24.1	2.8	7.4	100.0 (108)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	7.4	71.3	18.5	2.8	0.0	100.0 (108)
사법경찰과 현장조사 시 동행수사 및 아동학대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서 및 조사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치 등의 협력관계	6.5	54.6	30.6	2.8	5.6	100.0 (108)
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17.6	81.5	0.9	0.0	0.0	100.0 (108)
유치원·초·중·고 교사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7.4	64.8	23.1	4.6	0.0	100.0 (108)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약물치료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9.3	75.0	13.0	1.9	0.9	100.0 (108)
지역사회 관련 상담기관(1366, 1388, 가정폭력상담소 등)과의 협력체계	9.3	75.9	11.1	2.8	0.9	100.0 (108)
기존의 아동학대예방 및 상담 사업을 진행 하였던 지역사회복지관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11.1	80.6	5.6	0.9	1.9	100.0 (108)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맺고 있는 협력체계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협력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나 기타 사회복지관 등의 협력체계는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상당히 좋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체계, 교육체계, 행정체계 등은 7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체로 좋은 협력체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체계, 행정체계 등은 60% 이상이 긍정적이라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5) '부처별 기관간의 연계 협력수준' 관련 문항의 구성은 김완진(200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VI-3-2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1+2순위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관련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14.8	18.3	16.4	16.7	9.7	13.5	31.5	28.0	29.9
일상 업무의 처리에도 벽차 협력이 어려움	8.3	16.1	11.9	7.4	22.6	14.5	15.7	38.7	26.4
협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움	19.4	31.2	24.9	10.2	22.6	15.9	29.6	53.8	40.8
관련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어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움	3.7	14.0	8.5	11.1	11.8	11.4	14.8	25.8	19.9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지역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	6.5	5.4	6.0	7.4	10.7	8.9	13.9	16.1	14.9
관련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20.4	7.5	14.4	15.7	12.9	14.5	36.1	20.4	28.9
관련기관의 주 역할과 서비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와 성격이 다름	19.4	4.3	12.4	13.9	3.2	9.0	33.3	7.5	21.4
관련기관과 공식적인 협력관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어려움	4.6	1.1	3.0	5.6	4.3	5.0	10.2	5.4	8.0
거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움	1.9	0.0	1.0	10.1	1.1	6.0	12.0	1.1	7.0
기타	0.9	2.2	1.5	1.9	1.0	1.5	2.8	3.2	3.0
전체	100.0 (108)	100.0 (93)	100.0 (201)	100.0 (108)	100.0 (93)	100.0 (201)	200.0 (216)	200.0 (186)	200.0 (402)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 내의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무자들은 ‘관련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학계는 ‘협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움’을 꼽았다. 전체적으로도 두 응답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으로는 ‘관련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부족,’ ‘일상 업무의 처리에도 벽차 협력이 어려움’ 등이 있었다.

<표 VI-3-24>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장 친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1+2순위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의료기관	3.7	24.7	13.4	11.1	14.0	12.5	14.8	38.7	25.9
법률기관	11.1	17.2	13.9	16.7	15.1	16.0	27.8	32.3	29.9
교육기관	22.2	8.6	15.9	10.2	12.9	11.5	32.4	21.5	27.4
행정기관	25.0	6.5	16.4	15.7	4.3	10.5	40.7	10.8	26.9
사법경찰	22.2	29.0	25.4	23.2	12.9	18.4	45.4	41.9	43.8
타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3.7	3.2	3.5	0.9	1.1	1.0	4.6	4.3	4.5
관련 상담기관	3.7	4.3	4.0	4.6	11.8	7.9	8.3	16.1	11.9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단체	8.3	6.5	7.5	17.6	27.9	22.4	25.9	34.4	29.9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8)	100.0 (93)	100.0 (201)	100.0 (108)	100.0 (93)	100.0 (201)	200.0 (216)	200.0 (186)	200.0 (402)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장 친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친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체계는 사법경찰이었다. 다음으로는 법률기관,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였고, 교육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과도 친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7)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적절성²⁶⁾

<표 VI-3-25>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적절성

(단위: % / 명)

내 용		소속분야	적절	부적절	전체
공공 기관	보건복지부	실무자	69.4	30.6	100.0(108)
		학계	73.1	26.9	100.0(93)
		전체	71.1	28.9	100.0(201)
	시/도	실무자	66.7	33.3	100.0(108)
		학계	75.3	24.7	100.0(93)
		전체	70.6	29.4	100.0(201)
	시/군/구	실무자	65.7	34.3	100.0(108)
		학계	72.0	28.0	100.0(93)
		전체	68.7	31.3	100.0(201)
	사법경찰	실무자	70.4	29.6	100.0(108)
		학계	76.3	23.7	100.0(93)
		전체	73.1	26.9	100.0(201)
	법원	실무자	66.7	33.3	100.0(108)
		학계	76.3	23.7	100.0(93)
		전체	71.1	28.9	100.0(201)
	유관 정부부처	실무자	62.0	38.0	100.0(108)
		학계	65.6	34.4	100.0(93)
		전체	63.7	36.3	100.0(201)
민간 기관	의료기관	실무자	79.6	20.4	100.0(108)
		학계	82.8	17.2	100.0(93)
		전체	81.1	18.9	100.0(201)
	교육기관	실무자	70.4	29.6	100.0(108)
		학계	80.6	19.4	100.0(93)
		전체	75.1	24.9	100.0(201)
	사회복지 기관	실무자	86.1	13.9	100.0(108)
		학계	82.8	17.2	100.0(93)
		전체	84.6	15.4	100.0(201)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사법경찰(73.1%), 보건복지부(71.1%), 법원(71.1%), 시/도(70.6%), 시/군/구(68.7%), 그리고 유관정부 부처(63.7%) 순으로 해당 기관의 역할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민간기관에서는, 사회복지기관(84.6%), 의료기관(81.1%), 그리고 교육기관(75.1%)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민간 기관이 공공 기관에 비해 적절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26)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적절성' 문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에서 발행한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8)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²⁷⁾

<표 VI-3-26>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의 타당성(실무자)

(단위: % / 명)

내용	매우 타당함	타당함	타당하지 못함	전혀 타당하지 못함	전체
신고 현황 (예. 신고접수 현황, 신고자 유형 등)	25.0	63.0	12.0	0.0	100.0(108)
피해아동 현황 (예.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등)	25.0	66.7	8.3	0.0	100.0(108)
학대가해자 현황 (예. 학대가해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학대가해자 특성 등)	24.1	63.0	12.0	0.9	100.0(108)
학대유형 (예. 아동학대 사례유형, 신체학대 유형(행위 및 결과), 정서학대의 유형(행위) 등)	18.5	68.5	13.0	0.0	100.0(108)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13.9	61.1	23.1	1.9	100.0(108)
피해아동가족유형	25.9	67.6	6.5	0.0	100.0(108)
중복신고사례	22.2	66.7	10.2	0.9	100.0(108)
재학대사례	22.2	65.7	11.1	0.9	100.0(108)
사망아동현황	21.3	64.8	11.1	2.8	100.0(108)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	23.1	60.2	14.8	1.9	100.0(108)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2010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제시된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가 ‘매우 타당’ 그리고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아동 가족유형’(93.5%), ‘피해아동 현황’(91.7%), ‘중복신고사례’(88.9%), ‘신고 현황’(88.0%), ‘재학대사례’(87.9%), ‘학대가해자 현황’(87.1%), ‘학대유형’(87.0%), ‘사망아동현황’(86.1%), ‘다문화 가족 내 아동학대사례’(83.3%),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75.0%) 순으로 ‘매우 타당’ 또는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음을 볼 수 있다.

27) ‘현재 수집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 문항의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라.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1)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²⁸⁾

<표 VI-3-27>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단위: % / 명)

내 용	소속 분야	매우 전문적	전문적	전문적이지 않음	전혀 전문적이지 않음	모름	전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예.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운영,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보존 등)	실무자	19.4	64.8	14.8	0.0	0.9	100.0(108)
	학계	11.8	50.5	24.7	1.1	11.8	100.0(93)
	전체	15.9	58.2	19.4	0.5	6.0	100.0(201)
교육 (예.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무자	20.4	65.7	13.0	0.0	0.9	100.0(108)
	학계	5.4	55.9	29.0	1.1	8.6	100.0(93)
	전체	13.4	61.2	20.4	0.5	4.5	100.0(201)
홍보 (예.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언론 홍보 등)	실무자	14.8	51.9	30.6	1.9	0.9	100.0(108)
	학계	3.2	38.7	45.2	3.2	9.7	100.0(93)
	전체	9.5	45.8	37.3	2.5	5.0	100.0(201)
네트워크 구축 (예.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의뢰,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실무자	11.1	64.8	22.2	0.9	0.9	100.0(108)
	학계	4.3	32.3	43.0	8.6	11.8	100.0(93)
	전체	8.0	49.8	31.8	4.5	6.0	100.0(201)
예산·회계 및 인사관리	실무자	17.6	58.3	17.6	3.7	2.8	100.0(108)
	학계	5.4	36.6	23.7	5.4	29.0	100.0(93)
	전체	11.9	48.3	20.4	4.5	14.9	100.0(201)
물품·시설관리	실무자	13.9	58.3	21.3	2.8	3.7	100.0(108)
	학계	4.3	41.9	19.4	4.3	30.1	100.0(93)
	전체	9.5	50.7	20.4	3.5	15.9	100.0(201)
각종 문서관리	실무자	13.0	64.8	18.5	0.9	2.8	100.0(108)
	학계	5.4	43.0	18.3	3.2	30.1	100.0(93)
	전체	9.5	54.7	18.4	2.0	15.4	100.0(201)
일시보호 (예.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일시 보호아동 생활지도 및 관찰, 사회 적응지도 등)	실무자	17.6	69.4	10.2	0.9	1.9	100.0(108)
	학계	8.6	47.3	25.8	5.4	12.9	100.0(93)
	전체	13.4	59.2	17.4	3.0	7.0	100.0(201)

28)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문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에서 발행한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팀, 교육홍보팀, 총무팀 및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74.1%의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가 상담치료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서비스'는 '매우 전문적' 그리고 '전문적'이라고 하였다. 교육홍보팀의 '교육 관련 서비스'는 74.6%, '홍보'는 55.3%, '네트워크 구축'은 57.8%의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가 '매우 전문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총무팀의 '예산·회계 및 인사관리', '물품·시설관리', '각종 문서관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각 57.8%, 60.2%, 64.2%의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가 '매우 전문적' 그리고 '전문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의 '일시보호서비스'는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의 72.6%가 '매우 전문적' 그리고 '전문적'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는 '아동학대 사례관리'(19.9%), '교육'(20.9%), '홍보'(39.8%), '네트워크 구축'(36.3%), '예산·회계 및 인사관리'(24.9%), '물품·시설관리'(23.9%), '각종 문서관리'(20.4%), '일시보호 서비스'(31.2%)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고의무자 교육²⁹⁾

<표 VI-3-28>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단위: % / 명)

소속분야	매우 도움이 됨	대체로 도움이 됨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전체
실무자	28.7	67.6	3.7	0.0	100.0(108)
학계	55.9	39.8	4.3	0.0	100.0(93)
전체	41.3	54.7	4.0	0.0	100.0(201)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에 신고의무자들을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아동학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경우가 41.3%,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경우는 54.7%,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가 4.0%로 대부분의 전문가들(96.0%)이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9)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문항의 구성은 김소연·윤혜미(200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VI-3-29>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

(단위: % / 명)

소속분야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대체로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전체
실무자	61.1	37.0	1.9	0.0	100.0(108)
학계	77.4	21.5	1.1	0.0	100.0(93)
전체	68.7	29.9	1.5	0.0	100.0(201)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위한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의 98% 이상이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VI-3-30>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내용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1+2순위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19.4	30.1	24.4	14.9	21.5	17.9	34.3	51.6	42.3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	42.6	39.8	41.3	23.1	34.4	28.4	65.7	74.2	69.7
학대 아동상담 및 관리 방법	13.0	3.2	8.5	18.5	9.7	14.4	31.5	12.9	22.9
학대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13.9	15.1	14.4	18.5	15.0	16.9	32.4	30.1	31.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8.3	11.8	10.0	24.1	19.4	21.8	32.4	31.2	31.8
기타	2.8	0.0	1.5	0.9	0.0	0.5	3.7	0.0	2.0
전체	100.0 (108)	100.0 (93)	100.0 (201)	100.0 (108)	100.0 (93)	100.0 (201)	200.0 (216)	200.0 (186)	200.0 (402)

아동학대 예방에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학대부모 상담 및 부모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등이 뒤를 이었다.

3) 신고 활성화 방안³⁰⁾

<표 VI-3-31> 신고 활성화 방안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1+2순위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실무자	학계	전체
신고자의 비밀보장	12.0	35.5	22.9	10.2	8.6	9.4	22.2	44.1	32.3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1.9	16.1	8.5	4.6	17.2	10.4	6.5	33.3	18.9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13.9	16.1	14.9	9.2	15.1	12.0	23.1	31.2	26.9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20.4	10.8	15.9	21.3	9.6	15.9	41.7	20.4	31.8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12.0	5.4	9.0	12.1	4.3	8.4	24.1	9.7	17.4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11.1	8.6	10.0	19.5	19.4	19.4	30.6	28.0	29.4
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의무자 법적 처벌 조항 마련	28.7	7.5	18.9	22.2	24.8	23.4	50.9	32.3	42.3
기타	0.0	0.0	0.0	0.9	1.1	1.0	0.9	1.1	1.0
전체	100.0 (108)	100.0 (93)	100.0 (201)	100.0 (108)	100.0 (93)	100.0 (201)	200.0 (216)	200.0 (186)	200.0 (402)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그 심각성 및 원인과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역할 인식의 부족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조민선, 2003). 이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실무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의무자 법적 처벌 조항 마련’과 같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하는 장치를 지적하였고, 학계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같이 신고 이후 학대행위자의 보복과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30) ‘신고 활성화 방안’ 관련 문항의 구성은 한연숙(200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³¹⁾

<표 VI-3-32>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은폐되는 이유

(단위: % / 명)

내용	실무자	학계	전체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30.6	37.6	33.8
학대받은 아동이 은폐하기 때문에	0.9	0.0	0.5
아동의 가족이 은폐하기 때문에	11.1	20.4	15.4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4.6	3.2	4.0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51.9	37.6	45.3
기타	0.9	1.1	1.0
전체	100.0(108)	100.0(93)	100.0(201)

아동학대가 발생하여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은폐되는 이유를 조사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은폐된다고 대답한 경우가 45.3%,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폐된다고 대답한 경우가 33.8%, ‘아동의 가족이 은폐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경우가 15.4%로 나타났다.

<표 VI-3-33>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단위: % / 명)

내용	실무자	학계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7.4	12.9	10.0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 인식개선	40.7	51.6	45.8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	25.0	19.4	22.4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25.9	15.1	20.9
기타	0.9	1.1	1.0
전체	100.0(108)	100.0(93)	100.0(201)

다음으로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22.4%),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20.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10.0%) 순으로 나타났다.

3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관련 문항의 구성은 윤혜미(2003), 최미영(2008), 및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발행한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VI-3-34>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시 여부(실무자)

(단위: % / 명)

내용	실시	미실시	전체
주민들을 활용한 아동학대 발견 신고체계의 구축	60.2	39.8	100.0(108)
지역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대가정 발견과 개입협조	91.7	8.3	100.0(108)
지역사회의 대학, 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모교육	66.7	33.3	100.0(108)
지역사회 학교와 협조,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생활교육	38.0	62.0	100.0(108)
지역사회 산부인과, 보건소 등을 통한 예비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24.1	75.9	100.0(108)
지역사회 병원을 통한 위험가정 발견과 가정방문 서비스	35.2	64.8	100.0(108)
지역사회 내 위탁 가정의 개발과 교육	22.2	77.8	100.0(108)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대가정 발견과 개입협조'(91.7%), '지역사회 대학, 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모교육'(66.7%), '주민들을 활용한 아동학대 발견 신고체계의 구축'(60.2%)은 실시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 내 위탁 가정의 개발과 교육'(77.8%), '지역사회 산부인과, 보건소 등을 통한 예비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75.9%), '지역사회 병원을 통한 위험가정 발견과 가정방문 서비스'(64.8%), '지역사회 학교와 협조,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생활교육'(62.0%)은 많은 경우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표 VI-3-35>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의 필요성

(단위: % / 명)

내용	소속분야	필요	불필요	전체
주민들을 활용한 아동학대 발견 신고체계의 구축	실무자	96.3	3.7	100.0(108)
	학계	97.8	2.2	100.0(93)
	전체	97.0	3.0	100.0(201)
지역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대가정 발견과 개입협조	실무자	99.1	0.9	100.0(108)
	학계	97.8	2.2	100.0(93)
	전체	98.5	1.5	100.0(201)
지역사회의 대학, 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모교육	실무자	88.9	11.1	100.0(108)
	학계	95.7	4.3	100.0(93)
	전체	92.0	8.0	100.0(201)
지역사회 학교와 협조,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생활교육	실무자	89.8	10.2	100.0(108)
	학계	95.7	4.3	100.0(93)
	전체	92.5	7.5	100.0(201)
지역사회 산부인과, 보건소 등을 통한 예비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무자	96.3	3.7	100.0(108)
	학계	94.6	5.4	100.0(93)
	전체	95.5	4.5	100.0(201)
지역사회 병원을 통한 위험가정 발견과 가정방문 서비스	실무자	87.0	13.0	100.0(108)
	학계	93.5	6.5	100.0(93)
	전체	90.0	10.0	100.0(201)
지역사회 내 위탁 가정의 개발과 교육	실무자	81.5	18.5	100.0(108)
	학계	91.4	8.6	100.0(93)
	전체	86.1	13.9	100.0(201)

또한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가 주민,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의 대학 및 학교, 산부인과·보건소·병원 등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역사회 내 위탁가정의 개발과 교육'에 대해서는 18.5%의 실무자가 '불필요하다'고 한 반면, 학계 전문가의 경우 91.4%가 '필요하다'고 하여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

<표 VI-3-36>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실무자)

(단위: % / 명)

구분	내용	정말 그러함	그런 편임	그렇지 않은 편임	전혀 그렇지 않음	전체
업무 환경 통제	나는 나의 업무 및 업무량을 결정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느낀다	7.4	50.9	37.0	4.6	100.0(108)
	나는 나의 업무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	27.8	71.3	0.9	0.0	100.0(108)
	나는 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2.0	72.2	15.7	0.0	100.0(108)
	나는 나의 업무에 상당부분 통제권(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5.6	63.0	27.8	3.7	100.0(108)
	나는 간혹 나의 업무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5.6	38.0	50.0	6.5	100.0(108)
	나는 내 업무와 관련되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0.9	25.0	65.7	8.3	100.0(108)
업무 수행 관계	나의 혁신적인 생각들은 상사에게 잘 받아들여진다	6.5	60.2	30.6	2.8	100.0(108)
	나는 슈퍼바이저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9.4	70.4	9.3	0.9	100.0(108)
	나는 슈퍼바이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6	65.7	14.8	1.9	100.0(108)
	조직 내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 힘들다*	2.8	17.6	59.3	20.4	100.0(108)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보통 나의 슈퍼바이저에게 어떻게 문제 상황을 설명(해명)할지를 알고 있다	14.8	75.9	8.3	0.9	100.0(108)
	내가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보통은 도움을 받는다	20.4	68.5	10.2	0.9	100.0(108)
개인 적 업 무 지 향	일에서 무언가가 잘못 되어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0.0	21.3	65.7	13.0	100.0(108)
	조직 내에서 나는 나의 생각이 종종 무시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다*	1.9	18.5	57.4	22.2	100.0(108)
	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다*	0.9	20.4	65.7	13.0	100.0(108)
	조직 내에서 무슨 일이든 공정하게(옳게) 되지 않으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0.9	8.3	61.1	29.6	100.0(108)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나의 업무에 관한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는다*	0.9	22.2	55.6	21.3	100.0(108)
	나는 나의 업무활동 노력이 좋았는지, 나빴던지 간에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0.9	22.2	54.6	22.2	100.0(108)

주 1) *표시된 문항은 기술적 분석에서 역문항으로 계산되었음

본 연구에서 실무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측정하기 위해 Leslie, Holzhalb, Holland(1998)가 개발하고 강철희·윤민화(2000)가 사용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척도³²⁾를 활용하였다. Leslie, Holzhalb, Holland(1998)는 역량강화를 업무환경 통제(Control of Work Environment), 업무수행 관계(Work Relationships), 개인적 업무지향(Personal Work Orientation) 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업무환경 통제(Control of Work Environment)는 실무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수행에 대한 재량에 대한 지각,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원 통제에 대한 지각, 업무 의사결정권에 대한 지각, 업무에 대한 책임지각 등을 포괄한다. 업무수행 관계(Work Relationships)는 업무수행에서의 실무자의 협력과 지지 동원,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실무자의 문제해결 용이성, 업무와 관련한 의견의 반영도 등을 의미한다. 개인적 업무지향(Personal Work Orientation)은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조직에 의한 가치평가,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 등을 나타낸다(강철희·윤민화, 2000).

<표 VI-3-37> 실무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변수	평균(SD)	
	실무자의 역량 강화	
업무환경 통제	2.82(0.39)	
업무수행 관계	2.98(0.42)	
개인적 업무지향	3.00(0.52)	
전체 역량강화	2.93(0.35)	

주 1) n=108명

분석결과 실무자의 업무환경 통제, 업무수행 관계, 개인적 업무지향을 통틀어 나타내는 전체 역량강화 평균은 2.93으로,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량강화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개인적 업무지향의 평균이 3.00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업무수행 관계(mean=2.98), 업무환경 통제(mean=2.8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편차에서는 개인적 업무지향(SD=.52), 업무수행 관계(SD=.42), 업무환경 통제(SD=.39) 순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보면, 실무자의 개인적 업무지향 역량강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편차 역시 크고, 업무수행 관계 및 업무환경 통제 역량강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편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신변안전³³⁾

<표 VI-3-38>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 위협 여부(실무자)

(단위: % / 명)		
예	아니오	전체
83.3	16.7	100.0(108)

32) 원척도의 문항은 각 하위영역이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음, 2점: 그렇지 않은 편임, 3점: 그런 편임, 4점: 정말 그러함)로 측정하였다.

33)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신변안전' 관련 문항의 구성은 김성희·이재연(200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달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경우 학대받는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과 심지어는 신체적·심리적 위협까지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김성희·이재연, 2005). 본 연구에서는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3%의 실무자가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VI-3-39>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빈도(실무자)

(단위: % / 명)

항상 느낌	자주 느낌	가끔 느낌	전체
10.0	30.0	60.0	100.0(90)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한 90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항상 느끼는 경우'는 10.0%, '자주 느끼는 경우'는 30.0%, '가끔 느끼는 경우'는 60.0%로 분석되었다.

<표 VI-3-40>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낄 때(실무자)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1+2순위
현장조사나 가정방문을 나가기 전	14.4	7.8	22.2
현장조사나 가정방문 시	70.0	12.2	82.2
가정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1.1	5.6	6.7
차량으로 피해아동과 함께 이동할 때	0.0	2.2	2.2
기관으로 학대행위자(학대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13.3	66.7	80.0
기타	1.1	5.6	6.7
전체	100.0(90)	100.0(90)	200.0(180)

업무 수행 중에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나 가정방문을 나가기 전이나, 나갔을 때에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현장조사나 가정방문 시 학대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담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협을 느낄 때는 기관으로 학대행위자가 찾아왔을 때로 상담원들이 학대행위자의 보복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원에 대한 안전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VI-3-41>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이직 고려 여부(실무자)

(단위: % / 명)

예	아니오	전체
60.0	40.0	100.0(90)

다음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60.0%의 실무자가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I-3-42> 이직을 고려해본 빈도(실무자)

(단위: % / 명)

항상 있었음	자주 있었음	가끔 있었음	전체
13.0	40.7	46.3	100.0(54)

또한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54명의 실무자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직을 고려했는지 조사한 결과, '항상 있었음'의 경우 13.0%, '자주 있었음'의 경우 40.7%, '가끔 있었음'의 경우 46.3%로 나타났다.

<표 VI-3-43> 상담원의 신분에 대한 주변인들의 태도(실무자)

(단위: % / 명)

항상 인정	대체로 인정	거의 인정하지 않음	무시	전체
0.9	60.2	30.6	8.3	100.0(108)

한편, 업무수행 시 상담원의 신분에 대한 주변인들(학대가해자 포함)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실무자의 60.2%가 '대체로 인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30.6%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8.3%의 실무자는 '무시'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44> 상담원의 판단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실무자)

(단위: % / 명)

순순히 따름	화를 내지만 결국엔 따름	따르지 않음	강하게 대응 (욕설, 몸싸움 등)	기타	전체
4.6	53.7	27.8	9.3	4.6	100.0(108)

그리고 업무 수행 중에 상담원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 주변인들(학대가해자 포함)의 반응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실무자의 53.7%가 '화를 내지만 결국엔 따른다'라고 응답하였고,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7.8%나 되었다. 하지만 '순순히 따른다'고 인식한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표 VI-3-45> 현장 업무 수행 시 상담원의 보호수준(실무자)

(단위: % / 명)

충분히 보호받고 있음	보호받고 있음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전체
0.0	6.5	55.6	38.0	100.0(108)

현장 업무 수행 시, 상담원의 보호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0%,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6%로 나타난 반면 '보호받고 있다'고 인식한 경우는 6.5%에 불과하여 아동학대 상담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제7부.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제7부.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전체 신고자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부족과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미비, 신고 후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아동학대실태보고, 2010). 그러나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판정 결과를 보면, 신고 의무자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 사례 판정율은 81.9%로 비신고의무자 73.9%보다 높아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또한 학대발생빈도가 높은, 즉 거의 매일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대상의 신고율도 46.6%로 비신고의무자 38.2%보다 높은 편으로(아동학대실태보고, 2010),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신고의 정확성이나 상습적인 학대의 발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정도, 교육현황, 그리고 신고관련 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정도와 신고의무자로서의 교육, 신고행동 현황과 책임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조사대상으로는 초중고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아동시설종사자, 보육시설·유치원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구급대의 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구조화한 설문지의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에서는 첫째,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발생 인식과 태도, 체벌허용도, 학대 부모 처벌에 대한 의견 등과 이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및 책임감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 경험과 욕구, 홍보 인식정도를 알아보았고 셋째, 아동학대신고와 관련된 태도 및 신고행동의 실태 그리고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된 행위통제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법정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실무현장에서 접하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빈도와 신고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장전문가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태도와 신고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질문함으로써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1. 조사 대상

가. 조사대상자 선정

1) 조사대상자 범위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교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고등)국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⑥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⑦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 ⑧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구급교육 이수자)
-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⑫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조사대상자 현황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모집단 현황을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Ⅷ-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모집단 현황

(단위: 개 / % / 명)

구분		기관수	비율	비고	종사자수	비고
교사	교원(초/중/고) ³⁴⁾	3,404	1.6		171,764	
	유치원 종사자	8,388	3.9		36,461	
	학원 종사자	75,952	35.1		218,239	
의료 관련직	의료인 ³⁵⁾	81,681	37.7	의료기관 수	61,846	전문의 기준
	구급대 대원 ³⁶⁾	1,297	0.6	구급차 기준	6,409	119구급대원
복지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³⁷⁾	3,958	1.8	지역아동센터 (3,274곳)포함	6,17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제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³⁸⁾	2,346	1.1		-	
	보육시설 종사자 ³⁹⁾	35,550	16.4		206,912	
	성매매시설 종사자 ⁴⁰⁾	80	0.0		-	
	한부모가족시설 종사자	118	0.1		-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	304	0.1		-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542	1.6	읍면동 기준	10,334	
전체		216,620	100.0		718,137	(파악불가제외)

주 3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10년 기준

35) 의료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4/4분기 기준

36) 구급대 대원-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9년 기준

3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현황, 2008년 기준

3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9년 기준

39) 보육시설 종사자-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9년 기준

40) 성매매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9년 기준

3) 조사대상자 선정 과정

가) 조사대상자 할당

본 조사 연구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사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표본은 직업군별로 유의할당 하였다.

<표 VII-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표본할당

(단위: 명)

구분		조사대상	세부 쿼터	목표 쿼터
교사	교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	250	400
	유치원 종사자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원장, 교사)	50	
	학원 종사자	학원 강사	100	
의료 관련직	의료인 ⁴⁾	전문의	100	200
		간호사	50	
	구급대 대원	119 구급대원	50	
복지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100	3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50	
	보육시설 종사자	국공립/법인/민간 보육시설(시설장, 보육교사)	100	
	성매매시설 종사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50	
	한부모가족시설 종사자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0	100
전체			1,000	

주 8) 진료과목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인 경우

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실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사는 Web 기반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직종별 협회(또는 협의회, 연합회 등)에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대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의 이메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영역별 계획인원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직군별로는 교사 3,542명, 의료인 372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29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3,486명 등 8,1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인원은 601명이었다.

<표 VII-1-3> 온라인 조사 대상인원

(단위: 명)

구분		조사대상	대상인원
교사	교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	3,542
	유치원 종사자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원장, 교사)	
	학원 종사자	학원 강사	
의료 관련직	의료인	전문의	-
		간호사	
	구급대 대원	119 구급대원	372
복지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50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49
	보육시설	국공립/법인/민간 보육시설(시설장, 보육교사)	150
	성매매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25
	가정폭력피해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486
전체			8,129

온라인조사대상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팩스, FTF 등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매매시설은 관련부처의 시설정보 제공불가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직군별 대상자는 다음의 <표 VII-1-4>에서와 같이 교사직 222명, 의료직 112명, 복지시설종사자 123명으로 457명이었다.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에 참여한 총 응답자는 1,058명으로 직군별로 보면 교사관련직이 4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시설종사자 322명, 의료관련직이 243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90명순이었다.

<표 VII-1-4> 조사대상자 분포

(단위: 명)

구분		조사대상	조사 방법		실사 결과	
			온라 인	오프 라인		
교사	교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	181	-	181	403
	유치원 종사자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원장, 교사)	-	104	104	
	학원 종사자	학원 강사	-	118	118	
의료 관련직	의료인	전문의	-	64	64	243
		간호사	-	48	48	
	구급대 대원	119 구급대원	131	-	131	
복지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172	31	203	32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5	28	33	
	보육시설	국공립/법인/민간 보육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17	35	52	
	성매매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	-	
	한부모가족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5	-	5	
	가정폭력피해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29	29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0	-	90	90
전체			601	457	1,058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의 실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조사 : 2011년 8월 23일 - 9월 5일

일부 대상자(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추가 온라인 조사 진행 : 10월 7일 - 10월 11일

- 오프라인 조사 : 2011년 9월 14일 - 9월 30일

2. 조사 내용

가. 조사문항

조사 문항은 총 5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영역은 개인적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신고관련 태도로 구분되어진다.

<표 VII-2-1> 조사문항

조사영역	항목	내용	문항번호
개인적 특성	직업특성	직업	1
		근무지역	2
	인구학적 특성	성별	48
		연령	49
		결혼여부	50
		자녀여부	51
		학력	52
	직업특성	직위	53
		경력	54
		아동 접촉 빈도	55
		주로 접하는 아동 평균연령	56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태도	사회 내 아동학대 발생 정도	3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4
		아동체벌 인식	5
		학대부모 처벌 수준	6
		학대 책임감 정도	7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관련 지식	8
교육 및 홍보	관련 교육 참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	9
		최근 예방교육 참여경험	10
		참여교육방식	11
		교육 선택	12
		참여 시간	13
		이해 도움 정도	14
		만족정도	15
		예방교육 참석하지 못한 이유	16
		이후 교육 참여 의사	17, 18
		교육 필요성	19
		교육 내용	20
		교육 선호 매체	21
	홍보	직장 내 게시판 등에 아동학대신고센터 전화번호 또는 아동학대 관련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22
		접한 홍보 매체	23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24
신고관련 태도	신고에 대한 인식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의사	25
		신고제도 인지, 인지경로	26, 27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지	28
		학대신고전화 인지, 알고 있는 신고전화, 인지 경로	29-31
	아동학대 신고행동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한 경험	32
		발견한 학대의심아동 명 수	33
		발견 시 신고여부	34

		신고 횟수	35
		학대유형	36
		학대의 심각성 정도	37
		신고기관	38
		신고시기	39
		신고후속처리	40
		개입영향	41
		신고하지 않은 이유	42
		신고 대체 행동	43
	신고효과성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44
	인지된 행위통제력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대상자들의 인지된 행위통제력	45
	신고 활성화 방안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4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	47

3. 영역별 분석결과

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1)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배경

<표 VII-3-1>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배경

					(단위: 명 / %)	
전 체					전체	비율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28.0
			여성		762	72.0
	연령		20대		213	20.1
			30대		412	38.9
			40대		311	29.4
			50대 이상		122	11.5
	결혼 여부		미혼		338	31.9
			기혼		720	68.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61.4
			자녀 없음		408	38.6
	자녀 수		자녀 없음		408	38.6
			1명		201	19.0
			2명		373	35.3
			3명 이상		11	1.0
			무응답		65	6.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21	2.0
			대학교 졸업		688	65.0
			대학원 재학		65	6.1
			대학원 졸업		270	25.5
			기타		14	1.3
직업적 특성	직업	교 직	학령기전	유치원 종사자	104	9.8
			학령기	초/중/특수학교 교원	181	17.1
				학원 종사자	118	11.2
				교직 전체	403	38.1
		의료직		의사	64	6.0
				간호사	48	4.5
				구급대 대원	131	12.4
				의료직 전체	243	23.0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52	4.9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종사자	172	16.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1	2.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3	3.1
				한부모가족시설 종사자	5	0.5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	29	2.7
				복지시설종사자 전체	322	30.4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90	8.5
	근무지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도 지역의 동) 농어촌(도 지역의 읍/면)	500 321 237	47.3 30.3 22.4
	근무경력	0-4년 5-9년 10-19년 20년 이상	314 285 258 201	29.7 26.9 24.4 19.0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거의 없음	745 108 68 41 75 21	70.4 10.2 6.4 3.9 7.1 2.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6-10세 11-14세 15-18세	301 309 287 161	28.4 29.2 27.1 15.2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2년 이전에 참여 참여경험 없음	327 181 550	30.9 17.1 52.0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자주 일어남 별로 일어나지 않음 전혀 일어나지 않음	113 596 328 21	10.7 56.3 31.0 2.0
		인지 인지 못함	799 259	75.5 24.5
	신고전화	인지 인지 못함	716 342	67.7 32.3

총 1,058명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인구학적 특성

성별을 보면 남성이 28.0%, 여성이 72.0%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20.1%, 30대 38.9%, 40대 29.4%, 50대 이상이 11.5%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자가 31.9%, 기혼자가 68.1%로 기혼자가 약 2/3를 차지하였다. 이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 38.6%였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0.2%, 2명이 37.6%, 3명 이상이 1.1%로 2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가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0%이고, 대학교 졸업이 65.0%, 대학원 재학이 6.1%, 대학원 졸업이 25.5%였으며 기타로 1.3%였다.

나) 직업적 특성

직업군을 보면, 교직이 38.1%, 의료직 23.0%, 복지시설종사자 30.4%, 사회복지직 공무원 8.5%의 비율을 보였다. 자세히 직업을 살펴보면, 유치원종사자가 9.8%, 초중특수학교 교원이 17.1%, 학원 종사자 11.2%였으며, 의사 6.0%, 간호사 4.5%, 구급대 대원 12.4%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종사자 4.9%,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종사자 16.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1%, 한부모가족시설 종사자 0.5%, 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 2.7%의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8.5%를 차지하였다.

근무지역을 보면, 대도시 47.3%, 중소도시 30.3%, 농어촌 22.4% 순으로 대도시가 많았으며, 근무경력 4년 이하가 29.7%, 5년에서 9년 이하가 26.9%, 10년에서 19년 이하가 24.4%, 20년 이상이 19.0%의 비율을 보였다.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아동을 접촉하는 일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이상 접한다는 응답자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주 2-3회가 10.2%, 월 1회가 7.1%, 주 1회가 6.4%, 2주 1회가 3.9%였고,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였다. 주로 접하는 아동의 연령은 5세 이하가 28.4%, 6-10세가 29.2%, 11-14세 27.1%, 15-18세 15.2%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 교육경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경험은 최근 2년 이내 교육 참여자가 30.9%, 2년 이전 교육 참여자 17.1%,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52.0%로 과반수이상이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라) 학대관련 인식

우리 사회 내 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주 일어남'이 5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별로 일어나지 않음' 31.0%, '전혀 일어나지 않음' 2.0%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지하는 응답자가 75.5%, 인지 못하는 응답자가 24.5%를 차지하였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는 인지하는 응답자가 67.7%, 인지 못하는 응답자 32.3%의 비율을 보였다.

2)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학대관련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1) 아동학대 발생 정도

<표 VII-3-2> 아동학대 발생 정도 인식

(단위: 명 / %)

내용			전체	매우 자주 일어남	자주 일어남	별로 일어나지 않음	전혀 일어나지 않음	χ^2
전체			1,058	10.7	56.3	31.0	2.0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6.7	53.6	38.0	1.7	53.642***
		의료직	243	10.7	48.6	38.7	2.1	
		복지시설종사자	322	15.5	65.2	16.8	2.5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11.1	57.8	30.0	1.1	
	근무지역	대도시	500	11.6	57.6	29.8	1.0	15.782*
		중소도시	321	10.3	58.6	29.6	1.6	
		농어촌	237	9.3	50.6	35.4	4.6	
	근무경력	0-4년	314	13.1	54.1	30.9	1.9	14.272
		5-9년	286	11.9	54.7	30.5	2.8	
		10-19년	258	9.3	63.2	26.4	1.2	
		20년 이상	200	7.0	53.2	37.8	2.0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11.0	57.7	29.5	1.7	10.132
		주 2-3회	108	8.3	55.6	34.3	1.9	
		주 1회	68	11.8	54.4	30.9	2.9	
		2주 1회	41	4.9	46.3	43.9	4.9	
		월 1회	75	12.0	53.3	32.0	2.7	
		거의 없음	21	14.3	47.6	38.1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7.3	62.5	29.6	0.7	29.426**
		6-10세	309	11.7	48.9	37.2	2.3	
		11-14세	287	14.6	58.9	24.7	1.7	
		15-18세	161	8.1	54.7	32.9	4.3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9.5	48.0	37.8	4.7	27.467***
		여성	762	11.2	59.6	28.3	0.9	
	연령	20대	213	12.2	51.2	33.8	2.8	9.116
		30대	412	12.4	58.3	27.7	1.7	
		40대	311	8.7	56.6	33.1	1.6	
		50대 이상	122	7.4	58.2	32.0	2.5	
	결혼 여부	미혼	338	11.5	55.6	30.5	2.4	.797
		기혼	720	10.3	56.7	31.3	1.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9.7	56.8	31.7	1.8	2.021
		자녀 없음	408	12.3	55.6	29.9	2.2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18.1	57.3	23.6	1.0	28.856***
		2년 이전에 참여	181	7.4	56.6	33.6	2.4	
		참여경험 없음	550	22.2	0.0	77.8	0.0	
제도 인식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0.0	100.0	0.0	0.0	11.893**
		인지 못함	259	14.4	60.9	22.6	2.1	
	신고전화	인지	716	11.9	59.1	27.2	1.8	16.365**
		인지 못함	342	8.2	50.6	38.9	2.3	

* $p<.05$, ** $p<.01$, *** $p<.001$

신고의무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자주 일어난다(10.7%)’, ‘자주 일어난다(56.3%)’,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31.0%)’,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2.0%)’고 나타나 응답자의 2/3 정도가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 1/3정도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각 항목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 근무지역, 접촉아동 연령, 성별,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에서는 모든 직업군에서 ‘자주 일어난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발생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을 발생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매우 자주 일어난다’는 비율이 높았고, 중소도시의 경우 ‘자주 일어남’, 농어촌의 경우 ‘별로 일어나지 않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서는 ‘매우 자주 일어남’과 ‘자주 일어남’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경험에 따라 학대발생 인식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최근 2년 안에 교육에 참여한 집단, 2년 이전에 교육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아동학대 발생 인식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이상 아동학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최근 2년 이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은 75.4%로 3/4에 달하였고 2년 이전에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64%로 거의 2/3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은 22.2%로 1/4에 미치지 못하였고 거의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77.8%였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제도나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아동학대 발생 정도의 인식율이 가장 높아서 신고전화 인지도 중요하지만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근무경력, 연령, 아동접촉일수, 결혼여부, 자녀유무는 아동학대 발생정도의 인식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아동학대 심각성

<표 VII-3-3> 사회 내 아동학대 심각성

(단위: 명 / %)

내용			전체	매우 심각함	약간 심각함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χ^2
전체			1,058	31.2	55.2	13.3	0.3	
직업 특성	직업	교직	403	20.8	58.6	20.3	0.2	70.045***
		의료직	243	35.4	49.0	15.6	0.0	
		복지시설종사자	322	41.6	53.1	4.7	0.6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28.9	64.4	6.7	0.0	
	근무지역	대도시	500	29.8	55.4	14.4	0.4	7.119
		중소도시	321	34.6	55.5	10.0	0.0	
		농어촌	237	29.5	54.4	15.6	0.4	
	근무경력	0-4년	314	31.5	55.4	12.4	0.6	10.240
		5-9년	285	32.3	57.2	10.5	0.0	
		10-19년	258	32.6	54.3	13.2	0.0	
		20년 이상	201	27.4	53.2	18.9	0.5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30.1	55.2	14.4	0.4	6.653
		주 2-3회	108	36.1	54.6	9.3	0.0	
		주 1회	68	30.9	58.8	10.3	0.0	
		2주 1회	41	29.3	61.0	9.8	0.0	
		월 1회	75	34.7	52.0	13.3	0.0	
		거의 없음	21	38.1	47.6	14.3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27.2	61.8	10.6	0.3	14.783
		6-10세	309	33.3	49.8	16.5	0.3	
		11-14세	287	34.8	50.9	13.9	0.3	
		15-18세	161	28.0	60.9	11.2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27.4	54.7	17.6	0.3	7.533
		여성	762	32.7	55.4	11.7	0.3	
	연령	20대	213	31.0	53.1	16.0	0.0	9.918
		30대	412	32.0	57.8	10.0	0.2	
		40대	311	31.2	54.3	14.1	0.3	
		50대 이상	122	28.7	52.5	18.0	0.8	
	결혼 여부	미혼	338	30.8	56.8	12.4	0.0	1.971
		기혼	720	31.4	54.4	13.8	0.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30.0	54.6	14.9	0.5	5.975
		자녀 없음	408	33.1	56.1	10.8	0.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37.9	54.4	7.0	0.6	35.333***
		2년 이전에 참여	181	36.5	53.6	9.9	0.0	
		참여경험 없음	550	25.5	56.2	18.2	0.2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매우 자주 일어남	113	84.1	14.2	1.8	0.0	496.002***
		자주 일어남	596	33.7	64.9	1.3	0.0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9.1	52.4	38.1	0.3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19.0	42.9	28.6	9.5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33.0	55.2	11.5	0.3	11.757*
		인지 못함	259	25.5	55.2	18.9	0.4	
	신고전화	인지	716	36.2	54.2	9.4	0.3	44.226***
		인지 못함	342	20.8	57.3	21.6	0.3	

* $p < .05$, ** $p < .01$, *** $p < .001$

신고의무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매우 심각하다’(31.2%), ‘약간 심각하다’(55.2%)에서 전체 응답자의 86.4%가 응답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13.3%), ‘전혀 심각하지 않다’(0.3%)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각 항목에 따라 아동학대 심각성 인지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직업, 학대 발생정도 인식,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복지시설종사자(41.6%)가 가장 높았고, 의료직(35.4%), 사회복지직 공무원(28.9%), 교직(20.8%)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84.1%)이 매우 높은 반면, 아동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은 19.0%만이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교육경험과의 관련성을 볼 때 2년 이내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2년 이전에 교육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아동학대를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 정도가 높았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아동학대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높아 교육경험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관련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식하는 경우,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근무지역, 경력, 접촉아동 수, 아동연령 및 응답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 수 등 인구학적 특성은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아동체별 허용도

<표 VII-3-4> 아동체별 허용도

(단위: 명 / %)

내용			전체	절대 허용안됨	경우에 따라 허용	대부분 허용	늘 허용	χ^2
전체			1,058	29.2	69.8	0.9	0.1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27.3	70.7	1.7	0.2	17.231*
		의료직	243	25.5	73.7	0.8	0.0	
		복지시설종사자	322	35.4	64.6	0.0	0.0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25.6	74.4	0.0	0.0	
	근무지역	대도시	500	28.0	70.8	1.2	0.0	8.175
		중소도시	321	33.0	66.4	0.6	0.0	
		농어촌	237	26.6	72.6	0.4	0.4	
	근무경력	0-4년	314	27.1	72.9	0.0	0.0	10.443
		5-9년	285	30.9	67.7	1.1	0.4	
		10-19년	258	28.7	70.5	0.8	0.0	
		20년 이상	201	30.8	67.2	2.0	0.0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29.4	69.5	0.9	0.1	4.137
		주 2-3회	108	24.1	75.0	0.9	0.0	
		주 1회	68	30.9	69.1	0.0	0.0	
		2주 1회	41	29.3	70.7	0.0	0.0	
		월 1회	75	30.7	68.0	1.3	0.0	
		거의 없음	21	38.1	61.9	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36.2	62.8	0.7	0.3	15.100
		6-10세	309	27.2	72.2	0.6	0.0	
		11-14세	287	26.5	72.8	0.7	0.0	
		15-18세	161	24.8	73.3	1.9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23.3	76.4	0.3	0.0	9.037*
		여성	762	31.5	67.3	1.0	0.1	
	연령	20대	213	26.3	73.7	0.0	0.0	18.530*
		30대	412	27.9	71.6	0.5	0.0	
		40대	311	33.1	65.6	1.3	0.0	
		50대 이상	122	28.7	68.0	2.5	0.8	
	결혼 여부	미혼	338	29.0	71.0	0.0	0.0	4.797
		기혼	720	29.3	69.3	1.3	0.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29.2	69.4	1.2	0.2	3.543
		자녀 없음	408	29.2	70.6	0.2	0.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33.0	67.0	0.0	0.0	39.000***
		2년 이전에 참여	181	27.6	72.4	0.0	0.0	
		참여경험 없음	550	27.5	70.7	1.6	0.2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49.6	48.7	1.8	0.0	46.175***
		자주 일어남	596	29.7	70.1	0.0	0.2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22.3	75.6	2.1	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14.3	85.7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28.7	70.6	0.6	0.1	35.333***
		인지 못함	259	30.9	67.6	1.5	0.0	
	신고전화	인지	716	29.5	70.0	0.4	0.1	5.387
		인지 못함	342	28.7	69.6	1.8	0.0	

* $p < .05$, ** $p < .01$, *** $p < .001$

신고의무자들이 아동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에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69.8%)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아동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 허용될 수 없다'(29.2%)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부분 허용될 수 있다'(0.9%)와 '늘 허용될 수 있다'(0.1%)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동체벌을 허용하는 정도가 어떤지 항목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성별, 연령, 아동학대 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 아동체벌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복지시설종사자(35.4%)가 가장 높았고, 교직(27.3%), 사회복지직 공무원(25.6%), 의료직(25.5%) 순으로 나타나 교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의료직의 약 1/4이 아동체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연령으로는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이 아동학대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에 가장 최근에 참여한 집단이 2년 이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아동체벌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99.3%)과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98.5%)의 체벌을 절대 허용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허용하는 비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4) 가해부모 처벌수준

<표 VII-3-5> 가해부모 처벌수준

(단위: 명 / %)

내용			전체	절대로 처벌 안됨	학대수준에 따라 처벌	무조건 처벌	χ^2
전체			1,058	4.0	79.0	17.0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6.0	78.4	15.6	25.583***
		의료직	243	0.4	75.3	24.3	
		복지시설종사자	322	5.0	80.7	14.3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1.1	85.6	13.3	
	근무지역	대도시	500	5.6	78.4	16.0	10.729*
		중소도시	321	3.7	79.8	16.5	
		농어촌	237	0.8	79.3	19.8	
	근무경력	0-4년	314	5.7	76.8	17.5	9.094
		5-9년	285	3.9	77.5	18.6	
		10-19년	258	2.7	78.7	18.6	
		20년 이상	201	3.0	85.1	11.9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4.8	78.8	16.4	13.478
		주 2-3회	108	0.9	82.4	16.7	
		주 1회	68	4.4	80.9	14.7	
		2주 1회	41	2.4	73.2	24.4	
		월 1회	75	0.0	82.7	17.3	
		거의 없음	21	4.8	61.9	33.3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2.3	77.7	19.9	8.422
		6-10세	309	4.9	78.0	17.2	
		11-14세	287	4.9	82.2	12.9	
		15-18세	161	3.7	77.6	18.6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3.4	84.1	12.5	6.638*
		여성	762	4.2	77.0	18.8	
	연령	20대	213	5.6	79.3	15.0	12.801*
		30대	412	3.2	75.5	21.4	
		40대	311	4.5	80.7	14.8	
		50대 이상	122	2.5	86.1	11.5	
	결혼 여부	미혼	338	5.9	78.1	16.0	5.111
		기혼	720	3.1	79.4	17.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3.1	80.8	16.2	4.771
		자녀 없음	408	5.4	76.2	18.4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4.3	81.3	14.4	9.992*
		2년 이전에 참여	181	0.6	82.9	16.6	
		참여경험 없음	550	4.9	76.4	18.7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8.8	72.6	18.6	11.397
		자주 일어남	596	3.0	79.4	17.6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3.7	80.8	15.5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9.5	76.2	14.3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3.5	80.2	16.3	3.442
		인지 못함	259	5.4	75.3	19.3	
	신고전화	인지	716	2.7	80.3	17.0	10.133**
		인지 못함	342	6.7	76.3	17.0	

* $p < .05$, ** $p < .01$, *** $p < .001$

신고의무자들은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학대수준에 따라 처벌해야한다’(79.0%)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무조건 처벌해야한다’(17.0%),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4.0%) 순을 보였다.

각 항목에 따라 학대 부모 처벌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 근무지역, 성별, 연령,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에서는 무조건 처벌해야한다는 응답률이 의료직(24.3%), 교직종사자(15.6%), 복지시설종사자(14.3%), 사회복지직 공무원(13.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 근무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무조건 처벌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무조건 처벌해야한다는 응답률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30대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학대 부모를 무조건 처벌해야한다는 응답률이 최근 2년 이내 참여, 2년 이전에 참여, 참여경험이 없는 순으로 나타나, 오히려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부모 처벌을 더 강력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부모 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관련 종사자들의 책임감

<표 VII-3-6>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의 책임감

(단위: 명 / %)

내용			전체	매우 책임감 필요있음	대체로 책임감 필요있음	대체로 책임감 필요없음	전혀 책임감 필요없음	χ^2
전체			1,058	67.1	31.5	1.1	0.3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61.0	37.2	1.2	0.5	28.042**
		의료직	243	63.0	34.6	2.1	0.4	
		복지시설종사자	322	76.4	23.6	0.0	0.0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72.2	25.6	2.2	0.0	
	근무지역	대도시	500	65.0	33.4	1.4	0.2	6.413
		중소도시	321	72.3	26.5	0.9	0.3	
		농어촌	237	64.6	34.2	0.8	0.4	
	근무경력	0-4년	314	65.6	32.8	1.3	0.3	5.777
		5-9년	285	66.3	32.6	0.7	0.4	
		10-19년	258	72.5	26.4	1.2	0.0	
		20년 이상	201	63.7	34.3	1.5	0.5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66.7	31.7	1.2	0.4	3.358
		주 2-3회	108	66.7	32.4	0.9	0.0	
		주 1회	68	69.1	30.9	0.0	0.0	
		2주 1회	41	68.3	29.3	2.4	0.0	
		월 1회	75	69.3	29.3	1.3	0.0	
		거의 없음	21	66.7	33.3	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72.1	27.2	0.3	0.3	10.896
		6-10세	309	62.5	35.3	1.9	0.3	
		11-14세	287	69.0	29.6	1.0	0.3	
		15-18세	161	63.4	35.4	1.2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63.2	34.5	1.7	0.7	5.455
		여성	762	68.6	30.3	0.9	0.1	
	연령	20대	213	66.7	31.5	1.4	0.5	5.123
		30대	412	65.8	32.5	1.5	0.2	
		40대	311	70.1	29.3	0.6	0.0	
		50대 이상	122	64.8	33.6	0.8	0.8	
	결혼 여부	미혼	338	65.1	33.7	0.9	0.3	1.372
		기혼	720	68.1	30.4	1.3	0.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67.5	31.2	0.9	0.3	0.776
		자녀 없음	408	66.4	31.9	1.5	0.2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74.0	25.4	0.6	0.0	21.610**
		2년 이전에 참여	181	72.9	26.5	0.6	0.0	
		참여경험 없음	550	61.1	36.7	1.6	0.5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85.8	14.2	0.0	0.0	59.513***
		자주 일어남	596	71.0	28.4	0.5	0.2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53.0	43.9	2.4	0.6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76.2	19.0	4.8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70.7	27.8	1.4	0.1	25.021***
		인지 못함	259	56.0	42.9	0.4	0.8	
	신고전화	인지	716	72.1	26.8	1.1	0.0	29.679***
		인지 못함	342	56.7	41.2	1.2	0.9	

* $p < .05$, ** $p < .01$, *** $p < .001$

아동관련(생활, 교육, 건강 등)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매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67.1%), ‘대체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31.5%)에 응답자 대부분이 응답하여, 신고의무자들은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업, 학대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관련 종사자들의 책임감을 매우 높게 인정한 응답자 비율이 복지시설종사자(76.4%)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72.2%), 의료직(68.0%), 교직(61.0%) 순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종사자들이 ‘대체로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은 교직, 의료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시설종사자 순으로 ‘매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순서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학대발생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매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85.8%가 응답했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매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76.2%의 비율을 보였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에는 교육 참여경험이 없거나, 2년 이전에 참여한 응답자보다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책임감 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또는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매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집단이 전혀 신고해보지 않은 집단보다 책임감 정도가 높았다.

나) 학대관련 지식⁹⁾

<표 VII-3-7> 학대관련 지식 정답률

(단위: %)

내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정답률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이 된다	44.2	38.1	17.7	44.2
전문가가 아동학대 의심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에 대한 신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55.1	36.3	8.6	55.1
아동의 모든 성적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된다	48.4	45.2	6.4	48.4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보통 학대를 당한 후 바로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한다	79.2	10.4	10.4	79.2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28.5	40.8	30.6	28.5
아동학대와 방임은 사회경제수준이 중류층 또는 상류층 집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84.9	7.5	7.7	84.9
아동학대와 방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은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	30.8	53.3	15.9	53.3
성적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한다	87.7	7.0	5.3	87.7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성적학대는 성교를 포함한다	49.0	38.1	12.9	49.0
가출을 한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가출 전에 학대를 당했다	30.0	47.3	22.8	47.3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은 신체검진에서 정상일수도 있다	13.3	70.8	15.9	70.8
나는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4.7	90.6	4.6	90.6
전체 정답률	61.6			
전체 합산점수	7.39			
전체	100.0(1,058)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원인에 대한 지식, 아동복지법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지식은 각 문항 정답에 표기했을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오답을 고르거나 ‘잘 모르겠다’에 체크한 경우 0점으로 부여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하면 0점에서 12점까지 범주가 발생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식점수는 12점 만점에 7.39점을 보였으며, 정답률은 61.6%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90.6%)였으며, 부정확하게 응답을 한 대상자가 가장 많은 문항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28.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신고의무자들은 자신이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신고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9) CARIS지식척도(Feng, 2003)를 김진선 외(2005)가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 1-12번 문항 중 7, 10, 11, 12번은 ‘그렇다’가 정답이며, 1, 2, 3, 4, 5, 6, 8, 9번은 ‘아니다’가 정답. 따라서 1점 부여는, 7, 10, 11, 12번에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와, 1, 2, 3, 4, 5, 6, 8, 9번에 ‘아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그 외에 오답을 체크하거나 ‘잘모르겠다’로 체크한 경우엔 0점 부여.

<표 VII-3-8> 학대관련 지식

(단위: 명 / 점 / 평균(SD))

내용			전체	평균(SD)/Duncan	F/t
전체			1,058	7.39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7.08(2.29)/a	7.653***
		의료직	243	7.62(2.17)/b	
		복지시설종사자	322	7.39(2.14)/ab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8.19(1.94)/c	
	근무지역	대도시	500	7.42(2.17)	.151
		중소도시	321	7.38(2.31)	
		농어촌	237	7.33(2.16)	
	근무경력	0-4년	314	7.20(2.30)	2.089
		5-9년	285	7.48(2.08)	
		10-19년	258	7.62(2.18)	
		20년 이상	201	7.26(2.25)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7.26(2.24)	2.181
		주 2-3회	108	7.87(1.74)	
		주 1회	68	7.53(2.27)	
		2주 1회	41	7.51(2.37)	
		월 1회	75	7.63(2.20)	
		거의 없음	21	8.05(2.31)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7.30(2.24)	.671
		6-10세	309	7.34(2.36)	
		11-14세	287	7.43(2.11)	
		15-18세	161	7.58(2.02)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7.31(2.19)	-.761
		여성	762	7.42(2.22)	
	연령	20대	213	6.94(2.24)/a	4.891**
		30대	412	7.62(2.18)/b	
		40대	311	7.48(2.18)/b	
		50대 이상	122	7.19(2.21)/ab	
	결혼 여부	미혼	338	7.12(2.26)	-2.723**
		기혼	720	7.52(2.1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7.46(2.19)	-1.295
		자녀 없음	408	7.28(2.23)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7.82(2.09)/a	9.524***
		2년 이전에 참여	181	7.31(2.05)/b	
		참여경험 없음	550	7.16(2.29)/b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8.11(2.14)/a	12.538***
		자주 일어남	596	7.57(2.10)/ab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6.88(2.33)/bc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6.57(2.06)/c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7.59(2.13)	1.724***
		인지 못함	259	6.77(2.33)	
	신고전화	인지	716	7.65(2.07)	5.391***
		인지 못함	342	6.84(2.38)	

* $p < .05$, ** $p < .01$, *** $p < .001$

학대관련 지식 합산점수가 항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직업, 연령, 결혼여부,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학대발생정도인식,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타 분야 종사자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0, 40대 연령대의 지식 정도가 높았으며, 미혼보다는 기혼한 응답자의 지식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이 최근 2년 이내에 있었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지식 점수가 높았다.

학대 발생 정도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한 응답자보다 지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나 신고제도를 인지도 집단이 인지하지 못한 집단보다 합산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는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경험, 접한 홍보수단, 아동학대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관련교육 참여

가)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경험

<표 VII-3-9>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경험

(단위: % / 명)

내용	예	아니오	전체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43.3	56.7	100.0(1,058)
자격증 취득 과정	29.5	70.5	100.0(1,058)
보수교육 과정	42.2	57.8	100.0(1,058)
평균	38.3	61.7	100.0(1,058)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61.7%)이 교육을 받아본 응답자 비율(38.3%)보다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경험 비율을 과정별로 보았을 때,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43.3%), 보수교육 과정(42.2%)이 자격증 취득과정(29.5%)보다 교육참여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II-3-10>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경험

(단위: 명 / %)

내용			전체	대학 또는 대학원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보수교육 과정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전체			108	43.3	56.7		29.5	70.5		42.2	57.8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25.6	74.4		12.9	87.1		26.3	73.7	
		의료직	243	39.5	60.5	120.521***	24.7	75.3	128.878***	35.8	64.2	110.872***
		복지시설종사자	322	60.6	39.4		49.7	50.3		63.0	37.0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71.1	28.9		44.4	55.6		56.7	43.3	
	근무지역	대도시	500	38.6	61.4	12.406**	24.4	75.6	14.862**	37.6	62.4	9.870**
		중소도시	321	43.9	56.1		31.2	68.8		44.2	55.8	
		농어촌	237	52.3	47.7		38.0	62.0		49.4	50.6	
	근무경력	0-4년	314	46.2	53.8	8.076*	31.5	68.5	8.816*	33.8	66.2	14.546**
		5-9년	285	47.4	52.6		31.6	68.4		48.1	51.9	
		10-19년	258	41.1	58.9		31.4	68.6		45.7	54.3	
		20년 이상	201	35.8	64.2		20.9	79.1		42.8	57.2	
	아동접촉일수(한달)	주 5일 이상	745	39.9	60.1	26.276***	27.8	72.2	6.250	43.2	56.8	2.506
		주 2-3회	108	51.9	48.1		30.6	69.4		38.9	61.1	
		주 1회	68	69.1	30.9		41.2	58.8		45.6	54.4	
		2주 1회	41	46.3	53.7		29.3	70.7		34.1	65.9	
		월 1회	75	42.7	57.3		33.3	66.7		40.0	60.0	
		거의 없음	21	33.3	66.7		33.3	66.7		38.1	61.9	
	접촉아동연령	5세 이하	301	49.2	50.8	7.113	28.2	71.8	3.203	43.2	56.8	9.677*
		6-10세	309	39.8	60.2		28.5	71.5		35.3	64.7	
		11-14세	287	40.1	59.9		28.6	71.4		45.6	54.4	
		15-18세	161	44.7	55.3		35.4	64.6		47.8	52.2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40.5	59.5	1.265	32.8	67.2	2.127	47.3	52.7	4.292*
		여성	762	44.4	55.6		28.2	71.8		40.3	59.7	
	연령	20대	213	52.6	47.4	11.873**	28.6	71.4	.144	32.9	67.1	11.008*
		30대	412	43.7	56.3		29.4	70.6		43.2	56.8	
		40대	311	38.6	61.4		29.9	70.1		44.7	55.3	
		50대 이상	122	37.7	62.3		30.3	69.7		49.2	50.8	
	결혼여부	미혼	338	51.8	48.2	14.569***	30.5	69.5	.231	38.8	61.2	2.482
		기혼	720	39.3	60.7		29.0	71.0		43.9	56.1	
	자녀유무	자녀 있음	650	38.6	61.4	14.998***	29.5	70.5	0.002	45.1	54.9	5.522*
		자녀 없음	408	50.7	49.3		29.4	70.6		37.7	62.3	
학대관련 인식	학대발생정도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48.7	51.3	6.738	33.6	66.4	3.379	50.4	49.6	11.224*
		자주 일어남	596	45.5	54.5		30.7	69.3		44.1	55.9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37.8	62.2		25.9	74.1		35.4	64.6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38.1	61.9		28.6	71.4		52.4	47.6	
	아동학대신고제도	인지	799	49.1	50.9	44.295***	34.2	65.8	34.352***	50.6	49.4	92.457***
		인지 못함	259	25.5	74.5		15.1	84.9		16.6	83.4	
	신고전화	인지	716	52.1	47.9	69.962***	36.9	63.1	58.048***	52.8	47.2	100.922***
		인지 못함	342	24.9	75.1		14.0	86.0		20.2	79.8	

* $p < .05$, ** $p < .01$, *** $p < .001$

각 과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이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 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보수교육 과정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아동접촉 일수, 연령, 결혼여부, 자녀유무,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로 나타났다.

직업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시설종사자, 의료직, 교직 순으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참여경험이 높은 집단은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 근무경력에서는 5-9년, 아동접촉 일수에서는 주 1회인 경우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대가 교육 경험률이 높았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교육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식하거나 신고전화를 인식하는 집단이 교육을 받아본 경험률이 높았다.

두 번째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차이를 살펴보았다.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아동학대 신고제도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 종사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의료직, 교직 순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높았으며,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인 경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높았다. 근무경력에서는 4년 이하, 5-9년, 10-19년은 교육을 받아본 비율이 비슷했으며, 20년 이상인 경우 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 참여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 과정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접촉 아동연령, 성별, 연령, 자녀유무, 학대발생정도인식,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보수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의료직, 교직 순으로 자격증 취득과정과 같은 순서를 보였다. 근무지역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근무경력에서는 5-9년인 경우, 주로 접하는 아동의 연령이 15-18세인 경우 교육과정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정한 응답자보다 교육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또는 신고전화를 인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 최근 아동학대 교육 참여 여부

<표 Ⅶ-3-11> 최근 아동학대 교육과정 참여 여부

(단위: 명 / %)

내용			전체	2년 이내 참여	2년 이전 참여	지금까지 참여안함	χ^2
전체			1,058	30.9	17.1	52.0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16.1	12.9	71.0	298.480***
		의료직	243	14.8	14.8	70.4	
		복지시설종사자	322	62.4	18.0	19.6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27.8	38.9	33.3	
	근무지역	대도시	500	30.4	15.0	54.6	5.545
		중소도시	321	29.6	18.4	52.0	
		농어촌	237	33.8	19.8	46.4	
	근무경력	0-4년	314	27.7	14.6	57.6	10.908
		5-9년	285	36.5	16.8	46.7	
		10-19년	258	31.4	19.4	49.2	
		20년 이상	201	27.4	18.4	54.2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34.9	15.3	49.8	29.248**
		주 2-3회	108	21.3	22.2	56.5	
		주 1회	68	19.1	30.9	50.0	
		2주 1회	41	14.6	17.1	68.3	
		월 1회	75	26.7	16.0	57.3	
		거의 없음	21	23.8	14.3	61.9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26.2	20.6	53.2	25.803***
		6-10세	309	24.6	14.9	60.5	
		11-14세	287	38.0	16.7	45.3	
		15-18세	161	39.1	15.5	45.3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29.1	18.2	52.7	.807
		여성	762	31.6	16.7	51.7	
	연령	20대	213	26.8	13.1	60.1	11.234
		30대	412	29.1	18.2	52.7	
		40대	311	34.1	17.4	48.6	
		50대 이상	122	36.1	19.7	44.3	
	결혼 여부	미혼	338	33.4	13.9	52.7	4.045
		기혼	720	29.7	18.6	51.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30.8	18.8	50.5	3.483
		자녀 없음	408	31.1	14.5	54.4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41.6	20.4	38.1	28.856***
		자주 일어남	596	33.4	18.1	48.5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22.6	14.3	63.1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33.3	14.3	52.4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39.5	20.0	40.4	178.998***
		인지 못함	259	4.2	8.1	87.6	
	신고전화	인지	716	42.0	20.3	37.7	188.430***
		인지 못함	342	7.6	10.5	81.9	

* $p < .05$, ** $p < .01$, *** $p < .001$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에 최근 2년 이내 참여한 비율'(30.9%)과 '2년 이전에 참여한 비율'(17.1%)을 합한 비율보다 '참여하지 않은 비율'(52.0%)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직업, 아동접촉 일수, 접촉아동 연령, 학대 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에서는 2년 이내에 참여한 비율이 복지시설종사자(62.4%)가 가장 높았으며, 지금까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교직(71.0%), 의료직(70.4%)에서 높게 나타났다. 2년 이내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한 달 평균 아동접촉 일수에서는 주 5일 이상으로 아동을 가장 자주 접하는 집단으로 나타났고, 접촉아동 연령에서는 15-18세의 아동을 주로 접하는 집단에서 높은 비율이 나왔다.

학대발생정도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한 집단이 최근 2년 이내 교육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제도와 신고전화를 인지한 집단의 최근 2년 이내 교육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신고제도와 전화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은 교육을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자의 교육 참여 경험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참여한 경험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식·형태·시간을 알아보고, 그 교육의 이해 도움 정도, 만족도 정도를 살펴보았다.

(1) 교육 방식

<표 VII-3-12> 아동학대 교육 방식

(단위: 명 / %)

내용			전체	집합 교육	사이버 교육	두가지 모두	기타	χ^2
전체			508	75.2	8.5	12.4	3.9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7	63.2	14.5	18.8	3.4	58.049***
		의료직	72	79.2	2.8	5.6	12.5	
		복지시설종사자	259	83.4	4.2	10.0	2.3	
		사회복지직 공무원	60	58.3	21.7	18.3	1.7	
	근무지역	대도시	227	74.9	8.4	13.2	3.5	3.941
		중소도시	154	76.6	7.8	9.7	5.8	
		농어촌	127	74.0	9.4	14.2	2.4	
	근무경력	0-4년	133	82.0	6.8	6.8	4.5	22.536**
		5-9년	152	82.2	3.9	10.5	3.3	
		10-19년	131	69.5	11.5	16.0	3.1	
		20년 이상	92	62.0	14.1	18.5	5.4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374	75.7	7.2	13.9	3.2	26.518*
		주 2-3회	47	85.1	8.5	4.3	2.1	
		주 1회	34	64.7	11.8	11.8	11.8	
		2주 1회	13	92.3	0.0	7.7	0.0	
		월 1회	32	62.5	21.9	6.3	9.4	
		거의 없음	8	62.5	12.5	25.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141	74.5	10.6	10.6	4.3	13.310
		6-10세	122	75.4	7.4	9.0	8.2	
		11-14세	157	75.2	8.3	14.6	1.9	
		15-18세	88	76.1	6.8	15.9	1.1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40	70.7	10.0	14.3	5.0	2.163
		여성	368	76.9	7.9	11.7	3.5	
	연령	20대	85	88.2	3.5	7.1	1.2	16.115
		30대	195	74.9	7.7	11.3	6.2	
		40대	160	71.9	11.3	14.4	2.5	
		50대 이상	68	67.6	10.3	17.6	4.4	
	결혼 여부	미혼	160	79.4	5.0	13.1	2.5	5.178
		기혼	348	73.3	10.1	12.1	4.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2	71.7	10.9	12.7	4.7	8.648*
		자녀 없음	186	81.2	4.3	11.8	2.7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70	80.0	1.4	12.9	5.7	13.537
		자주 일어남	307	77.2	8.8	11.1	2.9	
		별로 일어나지 않음	121	66.1	12.4	15.7	5.8	
		전혀 일어나지 않음	10	90.0	0.0	1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476	75.0	8.4	12.4	4.2	1.417
		인지 못함	32	78.1	9.4	12.5	0.0	
	신고전화	인지	446	76.5	7.2	12.6	3.8	8.169*
		인지 못함	62	66.1	17.7	11.3	4.8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집합방식(75.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 아동학대 교육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근무경력, 아동접촉 일수, 자녀유무,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에서 교직, 의료직,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두 집합형태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집합방식 교육 참여율(83.4%)이 가장 높았다. 근무경력에서는 9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집합방식의 교육에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달 평균 아동접촉 일수에서는 매일 접하거나 드물게 접하는 집단보다 2주에 1회 정도 아동을 접하는 집단의 집합교육 참여비율이 높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자녀가 있는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다양한 교육 방식에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고전화를 인지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집합교육 비율이 높았고, 사이버교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 참여 형태

<표 VII-3-13> 아동학대 교육 참여 형태

(단위: 명 / %)

내용			전체	직장의무 교육	개인선택 교육	χ^2
전체			508	69.5	30.5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7	60.7	39.3	15.361**
		의료직	72	75.0	25.0	
		복지시설종사자	259	75.3	24.7	
		사회복지직 공무원	60	55.0	45.0	
	근무지역	대도시	227	67.8	32.2	.780
		중소도시	154	72.1	27.9	
		농어촌	127	69.3	30.7	
	근무경력	0-4년	133	63.2	36.8	11.205*
		5-9년	152	79.6	20.4	
		10-19년	131	64.9	35.1	
		20년 이상	92	68.5	31.5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374	73.3	26.7	14.536*
		주 2-3회	47	63.8	36.2	
		주 1회	34	58.8	41.2	
		2주 1회	13	76.9	23.1	
		월 1회	32	46.9	53.1	
		거의 없음	8	50.0	5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141	69.5	30.5	3.354
		6-10세	122	66.4	33.6	
		11-14세	157	67.5	32.5	
		15-18세	88	77.3	22.7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40	70.0	30.0	.024
		여성	368	69.3	30.7	
	연령	20대	85	70.6	29.4	1.599
		30대	195	71.3	28.7	
		40대	160	69.4	30.6	
		50대 이상	68	63.2	36.8	
	결혼 여부	미혼	160	73.1	26.9	1.457
		기혼	348	67.8	32.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2	66.5	33.5	3.805
		자녀 없음	186	74.7	25.3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70	65.7	34.3	5.364
		자주 일어남	307	68.4	31.6	
		별로 일어나지 않음	121	71.9	28.1	
		전혀 일어나지 않음	10	10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476	70.6	29.4	4.313*
		인지 못함	32	53.1	46.9	
	신고전화	인지	446	72.4	27.6	14.830***
		인지 못함	62	48.4	51.6	

* $p < .05$, ** $p < .01$, *** $p < .001$

어떤 형태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참여했는지 살펴본 결과,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부여하여 교육에 참여한 경우(69.5%)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교육에 참여한 경우(30.5%)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항목에 따라 참여한 교육의 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근무경력, 아동접촉 일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에서 직장의무교육 형태에 복지시설종사자, 의료직, 교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고, 개인선택 교육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직, 의료직, 복지시설종사자 순의 비율을 보였다. 근무경력에서 5-9년 경력자가 직장의무교육 비율이 높았고, 4년 이하 경력자는 개인선택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접촉 일수가 2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의무교육 형태의 비율이 높은 반면, 월 1회 혹은 아동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개인선택 교육이 높거나 두 형태 교육 비율이 같았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직장의무교육이 개인선택교육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큰 차이를 보인데 반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집단은 두 교육 형태 간 비율 차이가 미세하였다.

(3) 교육 참여 시간

<표 VII-3-14> 아동학대 교육 참여시간

(단위: 시간 / %)

참여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2	15	16
비율	8.9	21.4	8.3	18.3	4.0	7.0	0.3	9.8	0.3	7.6	1.8	0.9	1.5
참여 시간	18	20	21	24	30	40	45	50	60	80	180	220	평균
비율	0.3	2.8	0.3	1.2	2.1	0.6	0.3	0.6	0.6	0.3	0.3	0.3	8.45

최근 2년 동안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 327명의 교육 참여 시간을 알아보았다. 총 몇 시간 아동학대 교육에 참여했는지 개방식으로 질문하였다.

1시간에서 220시간까지 다양한 범위의 시간이 나왔으며, 그 중 2시간(21.4%)이 가장 많았고, 4시간(18.3%), 8시간(9.8%)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63.6%)이 지난 2년간 4시간 이내의 아동학대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I-3-15> 아동학대 교육 참여시간

(단위: 명 / %)

내용			전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χ^2
전체			327	8.9	21.4	8.3	18.3	43.1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65	9.2	35.4	10.8	20.0	24.6	53.372***
		의료직	36	27.8	30.6	13.9	13.9	13.9	
		복지시설종사자	201	5.0	15.4	7.0	20.4	52.2	
		사회복지직 공무원	25	12.0	20.0	4.0	4.0	60.0	
	근무 지역	대도시	152	8.6	23.0	5.9	20.4	42.1	7.414
		중소도시	95	10.5	18.9	13.7	13.7	43.2	
		농어촌	80	7.5	21.3	6.3	20.0	45.0	
	근무 경력	0-4년	87	10.3	28.7	8.0	13.8	39.1	10.044
		5-9년	104	10.6	16.3	7.7	20.2	45.2	
		10-19년	81	7.4	21.0	6.2	17.3	48.1	
		20년 이상	55	5.5	20.0	12.7	23.6	38.2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260	8.1	21.9	8.1	18.8	43.1	17.546
		주 2-3회	23	13.0	13.0	4.3	26.1	43.5	
		주 1회	13	7.7	23.1	15.4	7.7	46.2	
		2주 1회	6	0.0	66.7	0.0	0.0	33.3	
		월 1회	20	15.0	15.0	10.0	20.0	40.0	
		거의 없음	5	20.0	0.0	20.0	0.0	6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79	16.5	17.7	13.9	22.8	29.1	26.819**
		6-10세	76	7.9	26.3	10.5	18.4	36.8	
		11-14세	109	4.6	21.1	7.3	15.6	51.4	
		15-18세	63	7.9	20.6	0.0	17.5	54.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86	5.8	16.3	7.0	18.6	52.3	5.190
		여성	241	10.0	23.2	8.7	18.3	39.8	
	연령	20대	57	10.5	19.3	10.5	19.3	40.4	11.799
		30대	120	10.0	22.5	5.8	15.0	46.7	
		40대	106	10.4	24.5	8.5	19.8	36.8	
		50대 이상	44	0.0	13.6	11.4	22.7	52.3	
	결혼 여부	미혼	113	7.1	18.6	6.2	20.4	47.8	3.406
		기혼	214	9.8	22.9	9.3	17.3	40.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00	8.5	22.5	9.0	18.5	41.5	1.030
		자녀 없음	127	9.4	19.7	7.1	18.1	45.7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47	6.4	25.5	8.5	12.8	46.8	12.056
		자주 일어남	199	9.5	20.1	6.5	20.1	43.7	
		별로 일어나지 않음	74	9.5	24.3	13.5	14.9	37.8	
		전혀 일어나지 않음	7	0.0	0.0	0.0	42.9	57.1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316	8.9	20.9	8.5	18.0	43.7	3.287
		인지 못함	11	9.1	36.4	0.0	27.3	27.3	
	신고전화	인지	301	9.0	19.9	7.6	18.6	44.9	8.387
		인지 못함	26	7.7	38.5	15.4	15.4	23.1	

* $p<.05$, ** $p<.01$, *** $p<.001$

최근 2년 동안 아동학대 교육에 몇 시간 참여했는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각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접촉 아동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교직 종사자는 2시간(35.4%), 5시간 이상(24.6%), 의료직은 2시간(30.6%), 1시간(27.8%)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5시간 이상(52.2%), 사회복지직 공무원 역시 5시간 이상(60.0%)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접촉아동 연령에서는 각 연령대 모두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 접촉 아동연령이 15-18세일 때 비율이 가장 높았다.

(4) 교육 이해 정도

<표 VII-3-16> 아동학대 교육 이해 정도

(단위: 명 / %)

내용			전체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대체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χ^2
전체			508	32.5	63.8	3.7	0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7	22.2	72.6	5.1	0.0	23.578**
		의료직	72	23.6	69.4	6.9	0.0	
		복지시설종사자	259	41.7	55.6	2.7	0.0	
		사회복지직 공무원	60	23.3	75.0	1.7	0.0	
	근무지역	대도시	227	33.9	61.7	4.4	0.0	1.077
		중소도시	154	31.8	64.9	3.2	0.0	
		농어촌	127	30.7	66.1	3.1	0.0	
	근무경력	0-4년	133	27.1	69.2	3.8	0.0	5.905
		5-9년	152	30.3	64.5	5.3	0.0	
		10-19년	131	38.2	59.5	2.3	0.0	
		20년 이상	92	35.9	60.9	3.3	0.0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374	36.4	59.6	4.0	0.0	19.044*
		주 2-3회	47	23.4	76.6	0.0	0.0	
		주 1회	34	26.5	64.7	8.8	0.0	
		2주 1회	13	7.7	92.3	0.0	0.0	
		월 1회	32	15.6	81.3	3.1	0.0	
		거의 없음	8	37.5	62.5	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141	28.4	65.2	6.4	0.0	6.620
		6-10세	122	31.1	66.4	2.5	0.0	
		11-14세	157	35.7	62.4	1.9	0.0	
		15-18세	88	35.2	60.2	4.5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40	29.3	66.4	4.3	0.0	.974
		여성	368	33.7	62.8	3.5	0.0	
	연령	20대	85	24.7	72.9	2.4	0.0	11.852
		30대	195	28.7	66.7	4.6	0.0	
		40대	160	38.1	56.9	5.0	0.0	
		50대 이상	68	39.7	60.3	0.0	0.0	
	결혼 여부	미혼	160	28.8	68.8	2.5	0.0	2.866
		기혼	348	34.2	61.5	4.3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2	35.1	60.9	4.0	0.0	3.224
		자녀 없음	186	28.0	68.8	3.2	0.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40.7	56.9	2.4	0.0	29.920***
		2년 이전에 참여	181	17.7	76.2	6.1	0.0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70	41.4	52.9	5.7	0.0	9.577
		자주 일어남	307	31.6	64.2	4.2	0.0	
		별로 일어나지 않음	121	28.9	70.2	0.8	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10	40.0	50.0	1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476	33.8	63.7	2.5	0.0	34.245***
		인지 못함	32	12.5	65.6	21.9	0.0	
	신고전화	인지	446	34.1	63.5	2.5	0.0	18.796***
		인지 못함	62	21.0	66.1	12.9	0.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부분(96.3%)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항목에 따라 교육 도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 아동접촉 일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에서 타 직종보다 복지시설종사자(41.7%)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75.0%)은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을 통한 아동복지 이해 도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아동접촉 일수에 따라 보았을 때, 아동을 접하는 날이 거의 없는 집단이 교육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많이 하였고, 이어 주 5일 이상인 집단에서 도움을 받은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 시기가 최근 2년 이내인 대상자들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와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의 비율 차이가 적었고, 2년 이전인 대상자들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의 비율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또는 신고전화를 인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육 만족도

<표 VII-3-17> 아동학대 교육 만족도

(단위: 명 / %)

내용			전체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χ^2
전체			508	14.4	76.4	8.3	1.0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7	6.8	82.9	8.5	1.7	15.518
		의료직	72	12.5	75.0	12.5	0.0	
		복지시설종사자	259	18.9	73.7	6.2	1.2	
		사회복지직 공무원	60	11.7	76.7	11.7	0.0	
	근무지역	대도시	227	15.4	75.3	7.9	1.3	3.908
		중소도시	154	13.6	78.6	6.5	1.3	
		농어촌	127	13.4	75.6	11.0	0.0	
	근무경력	0-4년	133	16.5	71.4	11.3	0.8	11.848
		5-9년	152	12.5	78.3	7.9	1.3	
		10-19년	131	17.6	73.3	9.2	0.0	
		20년 이상	92	9.8	84.8	3.3	2.2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374	16.0	75.4	7.2	1.3	12.609
		주 2-3회	47	8.5	78.7	12.8	0.0	
		주 1회	34	14.7	70.6	14.7	0.0	
		2주 1회	13	0.0	92.3	7.7	0.0	
		월 1회	32	6.3	84.4	9.4	0.0	
		거의 없음	8	25.0	75.0	0.0	0.0	
	접촉아동연령	5세 이하	141	12.1	78.7	6.4	2.8	10.224
		6-10세	122	13.1	78.7	8.2	0.0	
		11-14세	157	17.2	73.2	8.9	0.6	
		15-18세	88	14.8	75.0	10.2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40	13.6	77.9	7.9	0.7	.324
		여성	368	14.7	75.8	8.4	1.1	
	연령	20대	85	11.8	77.6	10.6	0.0	14.437
		30대	195	17.4	72.8	9.2	0.5	
		40대	160	13.8	75.0	8.8	2.5	
		50대 이상	68	10.3	88.2	1.5	0.0	
	결혼 여부	미혼	160	15.0	75.0	9.4	0.6	.775
		기혼	348	14.1	77.0	7.8	1.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2	14.6	76.7	7.5	1.2	1.344
		자녀 없음	186	14.0	75.8	9.7	0.5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17.4	77.1	4.6	0.9	21.120***
		2년 이전에 참여	181	8.8	75.1	14.9	1.1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70	20.0	68.6	8.6	2.9	9.762
		자주 일어남	307	12.1	78.2	9.1	0.7	
		별로 일어나지 않음	121	15.7	76.9	6.6	0.8	
		전혀 일어나지 않음	10	30.0	7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476	15.3	76.3	7.8	0.6	16.778**
		인지 못함	32	0.0	78.1	15.6	6.3	
	신고전화	인지	446	14.8	78.3	6.5	0.4	25.581***
		인지 못함	62	11.3	62.9	21.0	4.8	

* $p < .05$, ** $p < .01$, *** $p < .001$

참여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만족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한다(90.8%)고 응답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9.3%)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 만족 정도가 항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시기),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응답자가 2년 이전에 참여한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한 집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라) 아동학대 교육 비참여자의 교육 불참 이유 및 참여 의사

지금까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참여할 의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1) 교육 불참 이유

<표 VII-3-18> 아동학대 교육 불참 이유

(단위: 명 / %)

내용			전체	참여할 기회없음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불참			기타	χ ²
					업무바쁨	작장불허	관심없음		
전체			550	85.6	10.4	0.5	2.4	1.1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286	84.6	11.2	0.7	2.1	1.4	10.290
		의료직	171	90.6	5.8	0.6	2.3	0.6	
		복지시설종사자	63	81.0	14.3	0.0	3.2	1.6	
		사회복지직 공무원	30	76.7	20.0	0.0	3.3	0.0	
	근무지역	대도시	273	82.4	13.2	0.7	2.6	1.1	14.453
		중소도시	167	89.2	4.8	0.6	3.6	1.8	
		농어촌	110	88.2	11.8	0.0	0.0	0.0	
	근무경력	0-4년	181	85.6	11.6	1.7	1.1	0.0	15.142
		5-9년	133	88.7	6.8	0.0	2.3	2.3	
		10-19년	127	83.5	11.0	0.0	3.9	1.6	
		20년 이상	109	84.4	11.9	0.0	2.8	0.9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371	84.4	10.8	0.5	3.0	1.3	12.717
		주 2-3회	61	88.5	8.2	0.0	1.6	1.6	
		주 1회	34	91.2	5.9	2.9	0.0	0.0	
		2주 1회	28	89.3	10.7	0.0	0.0	0.0	
		월 1회	43	86.0	14.0	0.0	0.0	0.0	
		거의 없음	13	84.6	7.7	0.0	7.7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160	92.5	5.0	0.6	1.3	0.6	12.965
		6-10세	187	84.5	11.2	0.5	2.7	1.1	
		11-14세	130	80.0	13.8	0.8	3.1	2.3	
		15-18세	73	83.6	13.7	0.0	2.7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56	80.8	14.1	0.6	3.2	1.3	4.302
		여성	394	87.6	8.9	0.5	2.0	1.0	
	연령	20대	128	85.9	9.4	1.6	1.6	1.6	12.478
		30대	217	87.1	8.8	0.5	3.2	0.5	
		40대	151	84.1	12.6	0.0	2.6	0.7	
		50대 이상	54	83.3	13.0	0.0	0.0	3.7	
	결혼 여부	미혼	178	87.6	9.0	1.7	1.7	0.0	10.256*
		기혼	372	84.7	11.0	0.0	2.7	1.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8	83.8	11.9	0.0	3.0	1.2	8.303	
	자녀 없음	222	88.3	8.1	1.4	1.4	0.9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43	83.7	11.6	0.0	0.0	4.7	21.556*
		자주 일어남	289	87.5	10.0	0.3	0.7	1.4	
		별로 일어나지 않음	207	83.1	10.6	1.0	5.3	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11	90.9	9.1	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323	81.7	13.3	0.6	2.8	1.5	10.128*
		인지 못함	227	91.2	6.2	0.4	1.8	0.4	
	신고전화	인지	270	85.9	10.7	0.4	1.9	1.1	.966
	인지 못함	280	85.4	10.0	0.7	2.9	1.1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85.6%)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다른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13.3%)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결혼 여부, 학대 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이 기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가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혼이 미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대 발생정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이 학대가 더 발생한다고 인식한 다른 응답자보다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에서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가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다'에서는 신고제도를 인지하는 집단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 참여 의사

<표 VII-3-19> 아동학대 교육 참여 의사

(단위: 명 / %)

내용			전체	참여의사 있음	참여의사 없음	χ^2
전체			550	88.5	11.5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286	83.9	16.1	13.683**
		의료직	171	93.0	7.0	
		복지시설종사자	63	96.8	3.2	
		사회복지직 공무원	30	90.0	10.0	
	근무지역	대도시	273	84.2	15.8	13.497**
		중소도시	167	89.8	10.2	
		농어촌	110	97.3	2.7	
	근무경력	0-4년	181	92.3	7.7	8.312*
		5-9년	133	87.2	12.8	
		10-19년	127	90.6	9.4	
		20년 이상	109	81.7	18.3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371	86.3	13.7	14.268*
		주 2-3회	61	95.1	4.9	
		주 1회	34	97.1	2.9	
		2주 1회	28	96.4	3.6	
		월 1회	43	93.0	7.0	
		거의 없음	13	69.2	30.8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160	95.6	4.4	26.451***
		6-10세	187	92.0	8.0	
		11-14세	130	81.5	18.5	
		15-18세	73	76.7	23.3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56	80.8	19.2	12.983***
		여성	394	91.6	8.4	
	연령	20대	128	92.2	7.8	8.407*
		30대	217	89.9	10.1	
		40대	151	87.4	12.6	
		50대 이상	54	77.8	22.2	
	결혼 여부	미혼	178	92.1	7.9	3.343
		기혼	372	86.8	13.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8	86.9	13.1	2.195
		자녀 없음	222	91.0	9.0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43	100.0	0.0	12.964**
		자주 일어남	289	90.7	9.3	
		별로 일어나지 않음	207	83.1	16.9	
		전혀 일어나지 않음	11	90.9	9.1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323	88.9	11.1	.074
		인지 못함	227	88.1	11.9	
	신고전화	인지	270	91.1	8.9	3.442
		인지 못함	280	86.1	13.9	

* $p < .05$, ** $p < .01$, *** $p < .001$

지금까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앞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마련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참여할 의사가 있음’(88.5%)이 ‘참여할 의사가 없음’(11.5%)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참여의사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아동접촉 일수, 접촉아동 연령, 성별, 연령, 아동학대 발생인식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직업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96.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의료직(93.0%), 사회복지직 공무원(90.0%), 교직(83.9%) 순의 비율을 보였다.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이 가장 높았고, 근무경력에서는 4년 이하의 경력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한 달 아동을 접하는 일수가 주 1회인 경우, 또한 주로 접하는 아동 연령이 5세 이하인 경우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연령에서는 20대가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우리 사회에서 학대 발생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 아동학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표 VII-3-20> 아동학대 교육 필요성

(단위: 명 / %)

내용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058	48.2	49.2	2.4	0.2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42.9	53.6	3.2	0.2	17.508*
		의료직	243	46.1	51.0	2.5	0.4	
		복지시설종사자	322	56.8	41.6	1.6	0.0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46.7	52.2	1.1	0.0	
	근무지역	대도시	500	42.0	53.8	3.8	0.4	24.556***
		중소도시	321	54.5	43.6	1.9	0.0	
		농어촌	237	52.7	47.3	0.0	0.0	
	근무경력	0-4년	314	50.6	47.1	1.6	0.6	9.062
		5-9년	285	46.3	50.5	3.2	0.0	
		10-19년	258	48.8	48.1	3.1	0.0	
		20년 이상	201	46.3	52.2	1.5	0.0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48.6	48.6	2.7	0.1	17.728
		주 2-3회	108	49.1	49.1	1.9	0.0	
		주 1회	68	50.0	47.1	2.9	0.0	
		2주 1회	41	48.8	48.8	0.0	2.4	
		월 1회	75	41.3	58.7	0.0	0.0	
		거의 없음	21	47.6	47.6	4.8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53.8	43.9	2.3	0.0	12.032
		6-10세	309	46.6	49.8	2.9	0.6	
		11-14세	287	44.3	53.3	2.4	0.0	
		15-18세	161	47.8	50.9	1.2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42.2	53.4	4.4	0.0	12.407**
		여성	762	50.5	47.6	1.6	0.3	
	연령	20대	213	51.2	45.1	2.8	0.9	17.138*
		30대	412	47.1	50.0	2.9	0.0	
		40대	311	51.4	47.3	1.3	0.0	
		50대 이상	122	38.5	59.0	2.5	0.0	
	결혼 여부	미혼	338	50.9	47.3	1.5	0.3	3.050
		기혼	720	46.9	50.1	2.8	0.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46.8	50.6	2.6	0.0	5.005
		자녀 없음	408	50.5	47.1	2.0	0.5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49.2	49.5	1.2	0.0	8.529
		2년 이전에 참여	181	51.4	47.5	1.1	0.0	
		참여경험 없음	550	46.5	49.6	3.5	0.4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75.2	23.0	1.8	0.0	74.243***
		자주 일어남	596	50.2	49.0	0.8	0.0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36.0	57.9	5.5	0.6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38.1	61.9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49.7	48.3	2.0	0.0	10.031*
		인지 못함	259	43.6	52.1	3.5	0.8	
	신고전화	인지	716	51.0	47.3	1.7	0.0	13.765**
		인지 못함	342	42.4	53.2	3.8	0.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97.4%)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신고의무자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필요성 정도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교육훈련의 필요성 인식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근무지역, 성별, 연령, 학대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직업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의 과반수 이상(56.8%)이 '매우 그렇다'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근무지에서는 중소도시인 경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에서는 40대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관련 인식 항목에서 교육과 훈련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알아보았다. 학대 발생정도 인식에서는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제도 또는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 교육 내용

<표 VII-3-21> 아동학대 교육 내용 우선순위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순위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25.7	12.3	1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	18.4	22.1	4
학대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19.0	24.8	2
학대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16.2	19.7	5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20.4	20.0	3
기타	0.3	1.1	6
전체	100.0(1,058)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될 교육 내용을 1, 2순위로 나누어 선택하도록 하였다. 순위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전체 순위를 조사하였다. 1위는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2위로 '학대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3위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3-22> 아동학대 교육 내용

(단위: 명 / %)

내용			전 체	1+2순위					기타
				학대받은 아동 발견방법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 기관정보	학대 아동상담 및 관리방법	학대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 지도방법	
전체			1,058	38.0	40.5	43.8	35.8	40.5	1.4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39.7	31.5	47.1	39.2	41.7	0.7
		의료직	243	52.7	64.2	31.7	21.8	26.3	3.3
		복지시설종사자	322	26.4	31.4	49.1	40.7	51.2	1.2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32.2	50.0	42.2	41.1	34.4	0.0
	근무지역	대도시	500	39.0	39.0	41.4	36.8	41.4	2.4
		중소도시	321	37.4	43.3	44.9	36.8	37.1	0.6
		농어촌	237	36.7	40.1	47.3	32.5	43.0	0.4
	근무경력	0-4년	314	37.3	43.9	47.5	35.4	35.7	0.3
		5-9년	285	40.7	42.1	39.3	37.2	38.9	1.8
		10-19년	258	34.9	43.0	40.3	33.3	46.5	1.9
		20년 이상	201	39.3	29.9	48.8	37.8	42.3	2.0
	아동 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36.1	34.9	45.8	37.4	44.0	1.7
		주 2-3회	108	41.7	54.6	32.4	34.3	37.0	0.0
		주 1회	68	39.7	45.6	47.1	30.9	35.3	1.5
		2주 1회	41	51.2	68.3	43.9	19.5	17.1	0.0
		월 1회	75	36.0	57.3	41.3	36.0	29.3	0.0
		거의 없음	21	61.9	38.1	28.6	33.3	33.3	4.8
	접촉 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44.9	39.5	40.5	31.9	41.2	2.0
		6-10세	309	35.3	40.1	44.0	37.2	41.4	1.9
		11-14세	287	33.1	40.4	48.4	37.6	39.7	0.7
		15-18세	161	39.1	43.5	41.0	37.3	38.5	0.6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40.2	46.3	41.9	34.1	36.1	1.4
		여성	762	37.1	38.3	44.5	36.5	42.1	1.4
	연령	20대	213	39.9	44.1	47.4	34.3	32.9	1.4
		30대	412	40.3	48.3	40.3	32.3	37.6	1.2
		40대	311	37.0	34.1	42.8	38.3	46.0	1.9
		50대 이상	122	29.5	24.6	51.6	44.3	49.2	0.8
	결혼 여부	미혼	338	35.8	41.4	46.4	36.4	37.9	2.1
		기혼	720	39.0	40.1	42.5	35.6	41.7	1.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39.1	37.2	42.0	37.2	43.2	1.2	
	자녀 없음	408	36.3	45.8	46.6	33.6	36.0	1.7	
교육 경험	아동학대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36.7	35.2	46.2	37.0	43.7	1.2
	교육	2년 이전에 참여	181	35.4	42.0	47.0	33.7	40.3	1.7
	참여경험	참여경험 없음	550	39.6	43.3	41.3	35.8	38.5	1.5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37.2	46.0	37.2	39.8	38.1	1.8
		자주 일어남	596	37.2	39.9	43.5	34.7	43.5	1.2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38.7	39.9	46.3	36.9	36.3	1.8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52.4	38.1	47.6	28.6	33.3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인지	799	39.2	39.4	43.9	35.8	40.4	1.3
		인지 못함	259	34.4	44.0	43.2	35.9	40.5	1.9
신고전화	인지	716	37.4	37.8	44.1	36.9	42.5	1.3	
	인지 못함	342	39.2	46.2	43.0	33.6	36.3	1.8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될 교육 내용을 1, 2순위를 매기게 한 후, 각 순위의 비율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순위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학대 아동상담 및 관리방법’(43.8%)이 가장 높았고,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 기관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 지도방법’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각 40.5%)을 차지하였다. 이어 ‘학대받은 아동 발견 방법’(38.0%), ‘학대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35.8%) 순을 나타냈다.

직업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교직 종사자들은 ‘학대 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의료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 기관 정보’, 사회복지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 지도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 선호 교육 매체

<표 VII-3-23> 선호 교육 매체

(단위: 명 / %)

내용			전체	문자매체 (학대관련 책자)	비디오 (아동학대 예방단위)	인터넷 (사법경찰)	집합교육 및 연수	기타	χ^2
전체			1,058	11.7	9.3	18.7	58.2	2.1	
작업 특성	직업	교직	403	14.9	9.7	23.1	50.6	1.7	63.710***
		의료직	243	13.6	6.6	25.1	51.4	3.3	
		복지시설종사자	322	8.7	11.2	8.1	70.8	1.2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3.3	7.8	20.0	65.6	3.3	
	근무지역	대도시	500	13.8	11.2	18.8	54.4	1.8	20.403**
		중소도시	321	12.8	5.9	19.9	58.6	2.8	
		농어촌	237	5.9	9.7	16.9	65.8	1.7	
	근무경력	0-4년	314	17.8	10.8	15.6	53.5	2.2	31.195**
		5-9년	285	11.6	8.8	15.1	62.8	1.8	
		10-19년	258	8.9	9.3	22.1	57.0	2.7	
		20년 이상	201	6.0	7.5	24.4	60.7	1.5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12.8	9.5	18.0	58.1	1.6	32.552*
		주 2-3회	108	10.2	7.4	20.4	60.2	1.9	
		주 1회	68	5.9	13.2	17.6	57.4	5.9	
		2주 1회	41	4.9	2.4	14.6	73.2	4.9	
		월 1회	75	14.7	10.7	21.3	53.3	0.0	
		거의 없음	21	4.8	4.8	38.1	42.9	9.5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6.6	6.6	18.9	65.8	2.0	25.236*
		6-10세	309	16.2	8.7	20.1	52.8	2.3	
		11-14세	287	12.5	12.9	16.0	56.8	1.7	
		15-18세	161	11.2	8.7	20.5	57.1	2.5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14.9	8.4	21.6	53.4	1.7	7.577
		여성	762	10.5	9.6	17.6	60.1	2.2	
	연령	20대	213	14.6	12.2	14.1	56.8	2.3	14.942
		30대	412	13.1	8.7	19.4	56.1	2.7	
		40대	311	8.4	9.3	20.3	60.8	1.3	
		50대 이상	122	10.7	5.7	20.5	61.5	1.6	
	결혼 여부	미혼	338	14.2	11.2	12.7	60.1	1.8	14.750**
		기혼	720	10.6	8.3	21.5	57.4	2.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10.9	7.8	22.0	57.5	1.7	15.638**
		자녀 없음	408	13.0	11.5	13.5	59.3	2.7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6.1	8.6	13.8	70.3	1.2	64.439***
		2년 이전에 참여	181	5.5	9.4	15.5	68.5	1.1	
		참여경험 없음	550	17.1	9.6	22.7	47.6	2.9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13.3	6.2	12.4	62.8	5.3	16.762
		자주 일어남	596	10.6	10.7	18.6	58.6	1.5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13.1	7.6	21.3	55.8	2.1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14.3	9.5	14.3	61.9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9.4	8.6	17.0	63.2	1.8	37.138***
		인지 못함	259	18.9	11.2	23.9	42.9	3.1	
	신고전화	인지	716	7.7	9.2	17.3	64.0	1.8	46.428***
		인지 못함	342	20.2	9.4	21.6	46.2	2.6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선호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매체를 알아 본 결과,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집합 교육 및 연수(58.2%)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이버강의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18.7%), 잡지나 책 같은 문자매체(11.7%) 순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매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아동접촉 일수, 접촉 아동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에서 복지시설종사자는 집합교육 및 연수를 가장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인터넷 강의는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선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다른 중소 및 대도시보다 집합교육 및 연수를 더 선호하였고, 사이버나 문자매체는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집합교육 및 연수와 인터넷 강의는 20년 경력 이상의 경력자들이 다른 근무 경력자보다 더 선호하였고, 문자매체나 비디오는 4년 이하 경력자들이 다른 경력자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접촉하는 아동 연령이 5세 이하인 경우 집합 교육 및 연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서는 집합교육 및 연수는 미혼자의 선호 비율이 기혼자보다 높았고, 인터넷 강의는 기혼자의 선호 비율이 높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보다 집합교육 및 연수 비율이 높았고, 인터넷 강의 비율은 낮았다.

아동학대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그 이전에 참여하거나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집합 교육 및 연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보다 집합교육 및 연수 선호 비율이 높고, 인터넷 강의 선호 비율이 낮았다.

2) 홍보

가) 직장 내 홍보물 유무

<표 VII-3-24> 직장 내 홍보물 유무

(단위: 명 / %)

내용			전체	있음	없음	잘 모름	χ^2
전체			1,058	35.8	43.8	20.4	
작업 특성	직업	교직	403	26.1	49.6	24.3	155.527***
		의료직	243	14.8	55.6	29.6	
		복지시설종사자	322	59.9	29.5	10.6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50.0	36.7	13.3	
	근무지역	대도시	500	32.2	45.8	22.0	13.625**
		중소도시	321	34.3	44.2	21.5	
		농어촌	237	45.6	38.8	15.6	
	근무경력	0-4년	314	26.8	46.8	26.4	24.110***
		5-9년	285	40.4	40.4	19.3	
		10-19년	258	35.3	46.5	18.2	
		20년 이상	201	44.3	40.3	15.4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39.1	42.1	18.8	23.279*
		주 2-3회	108	28.7	48.1	23.1	
		주 1회	68	32.4	48.5	19.1	
		2주 1회	41	12.2	51.2	36.6	
		월 1회	75	33.3	46.7	20.0	
		거의 없음	21	23.8	38.1	38.1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33.2	46.8	19.9	30.169***
		6-10세	309	26.5	49.8	23.6	
		11-14세	287	46.0	38.3	15.7	
		15-18세	161	40.4	36.0	23.6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34.8	43.9	21.3	.274
		여성	762	36.2	43.7	20.1	
	연령	20대	213	30.0	39.9	30.0	37.100***
		30대	412	32.8	44.2	23.1	
		40대	311	37.9	48.6	13.5	
		50대 이상	122	50.8	36.9	12.3	
	결혼 여부	미혼	338	35.2	40.2	24.6	5.633
		기혼	720	36.1	45.4	18.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37.2	45.5	17.2	10.525**
		자녀 없음	408	33.6	40.9	25.5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60.2	28.7	11.0	145.208***
		2년 이전에 참여	181	39.2	40.3	20.4	
		참여경험 없음	550	20.2	53.8	26.0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39.8	46.0	14.2	13.719*
		자주 일어남	596	35.6	44.1	20.3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32.9	43.9	23.2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66.7	19.0	14.3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43.6	39.3	17.1	86.415***
		인지 못함	259	12.0	57.5	30.5	
	신고전화	인지	716	46.9	36.5	16.6	118.927***
		인지 못함	342	12.6	59.1	28.4	

* $p<.05$, ** $p<.01$, *** $p<.001$

직장 내 게시판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관련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있다' 35.8%, '없다' 43.8%, '잘 모르겠다' 20.4%의 비율을 보였다.

각 항목에 따라 홍보물 접촉 여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아동 접촉 일수, 접촉아동 연령, 연령, 자녀유무, 학대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물이 부착 되어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직업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59.9%)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복지직 공무원(50.0%), 교직(26.1%), 의료직(14.8%) 순의 비율을 보였다. 각 항목에서 홍보물이 붙여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근무지역에서 농어촌 근무자, 근무경력에서 20년 이상 경력자, 한 달 평균 아동접촉 일수가 주 5일 이상인 응답자, 접촉 아동 연령이 11-14세인 응답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홍보물 노출 인지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정도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응답한 경우 홍보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보다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고, 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홍보물을 인지하는 응답자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교육에 참여경험에서는 최근 2년 이내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홍보물을 인식하고 있었고,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과반수 이상이 홍보물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또는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홍보물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신고제도 또는 신고전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은 홍보물 역시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 접해본 홍보 매체

<표 VII-3-25> 접해본 홍보 매체(복수응답)

(단위: 명 / %)

내용			전체	대중매체	인터넷	세미나 교육	지역 사회 기관	주변 사람	전혀 못접함	기타
전체			1,058	58.5	20.1	36.3	13.0	5.0	5.7	1.1
각종 접촉 특성	직업	교직	403	70.2	20.8	17.1	8.2	6.9	7.2	0.5
		의료직	243	62.1	18.1	23.5	7.4	2.5	9.9	2.1
		복지시설종사자	322	42.9	22.0	64.9	21.1	4.0	2.2	1.2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52.2	15.6	54.4	21.1	6.7	0.0	1.1
	근무지역	대도시	500	60.8	19.6	34.2	12.2	4.4	5.0	0.6
		중소도시	321	56.4	19.3	35.5	14.3	5.0	7.8	0.9
		농어촌	237	56.5	22.4	41.8	13.1	6.3	4.2	2.5
	근무경력	0-4년	314	59.2	18.8	32.8	11.5	4.8	7.3	1.0
		5-9년	285	57.5	18.6	44.6	15.8	4.6	4.6	1.1
		10-19년	258	54.3	22.5	33.3	12.4	5.0	6.6	1.6
		20년 이상	201	64.2	21.4	33.8	12.4	6.0	3.5	1.0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58.5	20.0	38.0	12.9	5.4	5.9	0.9
		주 2-3회	108	58.3	22.2	33.3	10.2	1.9	5.6	1.9
		주 1회	68	70.6	25.0	41.2	16.2	4.4	4.4	2.9
		2주 1회	41	61.0	17.1	17.1	9.8	0.0	7.3	0.0
		월 1회	75	46.7	20.0	29.3	18.7	8.0	2.7	1.3
		거의 없음	21	57.1	4.8	38.1	9.5	9.5	9.5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63.8	17.9	35.9	10.6	6.3	7.0	2.0
		6-10세	309	60.8	22.0	29.1	12.3	4.2	5.2	1.3
		11-14세	287	55.1	19.2	41.8	14.3	4.2	4.5	0.3
		15-18세	161	50.3	22.4	41.0	16.8	5.6	6.2	0.6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52.7	22.0	36.8	13.5	5.1	8.8	0.7
		여성	762	60.8	19.4	36.1	12.9	5.0	4.5	1.3
	연령	20대	213	61.0	19.2	33.8	14.1	5.6	5.6	1.4
		30대	412	55.6	20.4	35.0	11.2	3.9	7.3	1.5
		40대	311	60.5	22.5	38.9	12.9	5.5	4.2	1.0
		50대 이상	122	59.0	14.8	38.5	18.0	6.6	4.1	0.0
	결혼 여부	미혼	338	58.6	21.0	38.2	13.6	4.7	4.7	0.9
		기혼	720	58.5	19.7	35.4	12.8	5.1	6.1	1.3
교육 경험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58.2	21.2	36.2	12.9	4.9	6.0	1.2
		자녀 없음	408	59.1	18.4	36.5	13.2	5.1	5.1	1.0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32.7	19.3	79.5	20.8	3.7	1.2	0.6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2년 이전에 참여	181	55.2	18.2	51.9	17.7	3.9	0.6	2.2
		참여경험 없음	550	74.9	21.3	5.5	6.9	6.2	10.0	1.1
		매우 자주 일어남	113	54.0	21.2	47.8	19.5	5.3	2.7	1.8
		자주 일어남	596	58.4	17.6	38.8	11.6	4.2	5.7	1.5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59.5	23.2	27.7	12.5	6.1	6.7	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71.4	38.1	38.1	28.6	9.5	4.8	4.8
		인지	799	54.8	20.0	45.7	15.5	5.0	2.8	1.5
		인지 못함	259	69.9	20.5	7.3	5.4	5.0	14.7	0.0
	신고전화	인지	716	52.7	20.9	48.9	16.6	4.9	2.1	1.5
		인지 못함	342	70.8	18.4	9.9	5.6	5.3	13.2	0.3

아동학대예방 관련 홍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해봤는지 복수로 선택하도록 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중매체(58.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세미나 및 교육(36.3%), 인터넷(20.1%), 지역사회 기관(13.0%) 순의 비율을 보였다. 아동학대 관련 홍보물을 전혀 접한 적이 없는 응답자(5.7%)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접해본 홍보매체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다른 매체보다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물을 가장 많이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에서 최근 2년 이내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세미나 혹은 교육을 통해 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학대 인식

가) 아동학대 인식¹⁰⁾

<표 VII-3-26> 아동학대 인식 빈도

(단위: %, 명)

내용		학대가 전혀아님	학대가 아닌듯	모르겠다	학대다	틀림없는 학대임
신 체 학 대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행위	0.0	0.0	0.9	9.9	89.2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0.0	0.0	0.9	6.3	92.8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0.0	0.2	1.3	9.5	88.9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0.0	0.7	1.7	14.5	83.2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0.1	1.6	4.3	20.1	73.9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0.1	1.2	5.6	23.0	70.1
	세게 밀치는 행위	0.5	6.5	14.0	32.1	46.9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4.2	26.8	18.0	20.1	30.9
	신체학대 평균	0.6	4.6	5.8	16.9	72.0
정 서 학 대	다락, 골방, 창고 등의 감감한 곳에 가두는 행위	0.2	1.4	3.6	19.9	74.9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는 행위	0.2	2.0	9.0	28.4	60.5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0.6	2.8	10.6	33.1	52.9
	“학교 그만두고 알아서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고 말하는 행위	0.6	5.9	12.9	30.7	49.9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0.8	9.6	20.5	29.6	39.5
	정서학대 평균	0.5	4.3	11.3	28.3	55.5
성 학 대	어른이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갖다 대거나 넣는 행위	0.0	0.0	0.6	5.9	93.6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달고 하는 행위	0.0	0.1	0.9	5.9	93.2
	어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0.0	0.2	1.2	7.2	91.4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0.0	0.1	1.1	7.0	91.8
	억지로 아동의 옷을 벗겨 아동의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0.0	0.0	0.9	6.7	92.3
	아동이 싫다고 해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위	0.0	0.1	1.0	8.7	90.2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	0.0	0.7	2.4	14.2	82.8
	성학대 평균	0.0	0.2	1.2	7.9	90.8
방 임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0.0	2.0	6.0	27.2	64.8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0.6	4.0	13.9	28.8	52.7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0.2	2.2	7.2	29.3	61.2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0.4	5.2	15.3	34.3	44.8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동에게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0.6	4.5	16.4	31.8	46.8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0.4	5.4	19.8	31.9	42.4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0.2	4.3	14.6	33.8	47.1
	아동의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지 않는 행위	0.7	5.4	14.7	33.0	46.2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0.7	7.5	21.0	29.5	41.4
	방임 평균	0.4	4.5	14.3	31.1	49.7
전체 학대인식 평균		0.4	3.5	8.3	21.1	66.8
전체		100.0(1,058)				

주 10) 부산 아동청소년회관에서 개발한(2002) 아동학대 척도를 홍순옥·이옥경(2010)이 수정·보완한 척도 사용

아동학대 인식 문항은 신체학대 8문항, 정서학대 5문항, 성학대 7문항, 방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따라 명백한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문항에서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가 92.8%로 가장 높았고,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가 3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서학대의 경우,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를 74.9%가 틀림없는 학대고 인식했으며,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는 39.5%로 가장 낮은 학대 인식률을 보였다. 성학대의 경우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가 82.8%였으며, 나머지 문항은 90%이상의 명백한 학대인식을 보였다. 방임은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64.8%로 가장 높은,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가 41.4%가 가장 낮은 틀림없는 학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아동학대 하위변인 별 틀림없는 학대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71.9%, 정서학대 55.5%, 성학대 90.8%, 방임 49.7%로 나타나 성학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인식 전체 문항에 응답자들은 틀림없는 학대에 66.8%의 선택률을 보였다.

<표 VII-3-27> 아동학대 인식 평균

(단위: 점)

내용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전체 평균
점수	4.55	4.34	4.89	4.25	4.50

아동학대 인식 평균은 '학대가 전혀 아님(1점)', '학대가 아닌 것 같음(2점)', '모르겠음(3점)', '학대인 듯(4점)', '틀림없는 학대임(5점)'으로 5점 평점 처리하여 산정되었다. 각 문항 점수를 평균화 하며, 1-5점까지 범주가 발생된다.

아동학대 인식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신체학대 4.55점, 정서학대 4.34점, 성학대 4.89점, 방임 4.25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4.50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표 VII-3-28> 아동학대 인식 평균

(단위: 명 / 평균(SD))

내용			전체	평균(SD)/Duncan	F/t
전체			1,058	4.50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4.41(.45)/a	22.770***
		의료직	243	4.44(.44)/a	
		복지시설종사자	322	4.65(.40)/b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4.61(.39)/b	
	근무지역	대도시	500	4.47(.46)/a	4.066*
		중소도시	321	4.55(.43)/ab	
		농어촌	237	4.52(.42)/b	
	근무경력	0-4년	314	4.47(.45)	.978
		5-9년	285	4.52(.43)	
		10-19년	258	4.53(.42)	
		20년 이상	201	4.50(.44)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4.51(.44)	1.008
		주 2-3회	108	4.47(.44)	
		주 1회	68	4.56(.42)	
		2주 1회	41	4.41(.41)	
		월 1회	75	4.49(.46)	
		거의 없음	21	4.62(.4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4.56(.43)	2.335
		6-10세	309	4.48(.44)	
		11-14세	287	4.51(.44)	
		15-18세	161	4.45(.46)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4.43(.45)	-3.639***
		여성	762	4.54(.43)	
	연령	20대	213	4.44(.45)/a	2.990*
		30대	412	4.51(.44)/ab	
		40대	311	4.55(.42)/b	
		50대 이상	122	4.47(.48)/ab	
	결혼 여부	미혼	338	4.49(.45)	-.622
		기혼	720	4.51(.4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4.52(.44)	-1.057
		자녀 없음	408	4.49(.45)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4.64(.40)/a	33.142***
		2년 이전에 참여	181	4.57(.38)/a	
		참여경험 없음	550	4.40(.46)/b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4.70(.37)/a	16.965***
		자주 일어남	596	4.53(.42)/b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4.39(.47)/bc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4.37(.51)/c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4.55(.43)	5.743***
		인지 못함	259	4.37(.46)	
	신고전화	인지	716	4.58(.42)	7.856***
		인지 못함	342	4.35(.45)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각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근무지역, 성별, 연령, 학대 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교직과 의료직 종사자보다 학대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 근무자가 대도시 근무자보다 인식정도가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식정도가 높았고, 연령에서는 20대보다 40대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정도 인식에서는 우리 사회 내 아동학대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보다 학대인식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참여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보다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 신고관련 태도

신고관련 태도는 신고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행동,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 인지된 행위 통제력, 신고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고에 대한 인식

가) 아동학대 신고의사

<표 VII-3-29> 아동학대 신고의사

			(단위: 명 / %)				
내용			전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1,058	87.5	0.7	11.8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79.9	1.0	19.1	46.945***
		의료직	243	87.2	0.8	11.9	
		복지시설종사자	322	96.6	0.0	3.4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90.0	1.1	8.9	
	근무지역	대도시	500	85.4	0.4	14.2	6.320
		중소도시	321	88.8	0.9	10.3	
		농어촌	237	90.3	0.8	8.9	
	근무경력	0-4년	314	86.9	0.3	12.7	5.322
		5-9년	285	88.8	0.4	10.9	
		10-19년	258	89.1	0.8	10.1	
		20년 이상	201	84.6	1.5	13.9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86.7	0.5	12.8	20.600*
		주 2-3회	108	89.8	0.9	9.3	
		주 1회	68	97.1	1.5	1.5	
		2주 1회	41	85.4	0.0	14.6	
		월 1회	75	90.7	1.3	8.0	
		거의 없음	21	66.7	0.0	33.3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88.4	0.3	11.3	7.462
		6-10세	309	87.1	1.0	12.0	
		11-14세	287	86.8	0.0	13.2	
		15-18세	161	88.2	1.9	9.9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88.5	1.0	10.5	1.441
		여성	762	87.1	0.5	12.3	
	연령	20대	213	86.4	0.0	13.6	7.547
		30대	412	87.9	0.7	11.4	
		40대	311	86.2	0.6	13.2	
		50대 이상	122	91.8	1.6	6.6	
	결혼 여부	미혼	338	85.5	0.3	14.2	3.630
		기혼	720	88.5	0.8	10.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88.2	0.9	10.9	2.952
		자녀 없음	408	86.5	0.2	13.2	
교육경 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92.4	0.6	7.0	22.345***
		2년 이전에 참여	181	87.8	2.2	9.9	
		참여경험 없음	550	84.5	0.2	15.3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54.0	21.2	47.8	19.5
		자주 일어남	596	58.4	17.6	38.8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59.5	23.2	27.7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71.4	38.1	38.1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90.0	0.9	9.1	24.350***
		인지 못함	259	79.9	0.0	20.1	
	신고전화	인지	716	90.2	0.6	9.2	14.843**
		인지 못함	342	81.9	0.9	17.3	

* $p < .05$, ** $p < .01$, *** $p < .00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신고 의사가 '있다' 87.5%, '없다' 0.7%, '잘 모르겠다' 11.8%의 비율을 보였다.

각 항목에 따라 신고의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아동접촉 일 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직업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96.6%)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복지직 공무원(90.0%), 의료직(87.2%), 교직(79.9%) 순의 비율을 보였다. 한 달 평균 아동접촉 일수에서는 주 1회 접하는 대상자들의 신고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이 최근인 경우에 신고의사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보다 신고하겠다는 응답율은 높았고, '신고를 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다'의 응답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표 VII-3-3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여부

(단위: 명 / %)

내용			전체	예	아니오	χ^2
전체			1,058	75.5	24.5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65.0	35.0	108.584***
		의료직	243	63.8	36.2	
		복지시설종사자	322	91.9	8.1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95.6	4.4	
	근무지역	대도시	500	72.2	27.8	7.065*
		중소도시	321	76.6	23.4	
		농어촌	237	81.0	19.0	
	근무경력	0-4년	314	65.9	34.1	22.286***
		5-9년	285	79.3	20.7	
		10-19년	258	79.5	20.5	
		20년 이상	201	80.1	19.9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76.2	23.8	5.526
		주 2-3회	108	73.1	26.9	
		주 1회	68	76.5	23.5	
		2주 1회	41	63.4	36.6	
		월 1회	75	80.0	20.0	
		거의 없음	21	66.7	33.3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74.8	25.2	3.793
		6-10세	309	72.8	27.2	
		11-14세	287	76.3	23.7	
		15-18세	161	80.7	19.3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70.6	29.4	5.363*
		여성	762	77.4	22.6	
	연령	20대	213	62.9	37.1	29.726***
		30대	412	75.0	25.0	
		40대	311	81.0	19.0	
		50대 이상	122	85.2	14.8	
	결혼 여부	미혼	338	71.0	29.0	5.474*
		기혼	720	77.6	22.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79.1	20.9	11.536**
		자녀 없음	408	69.9	30.1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96.6	3.4	178.998***
		2년 이전에 참여	181	88.4	11.6	
		참여경험 없음	550	58.7	41.3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77.9	22.1	11.893**
		자주 일어남	596	78.9	21.1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68.9	31.1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71.4	28.6	
	신고전화	인지	716	92.2	7.8	332.500***
		인지 못함	342	40.6	59.4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75.5%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4.5%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신고제도 인지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유무, 학대 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아동학대 신고제를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 수가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직업군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복지시설종사자의 신고제도 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제도 인식 비율이 높은 집단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 근무자, 근무경력에서는 20년 이상 경력자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제도 인식 비율이 높았고,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식 비율이 높았다. 또한 기혼자 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고제도 인식 비율이 높았다.

학대 발생정도 인식에서 우리 사회 내 아동학대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비율이 낮았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이 최근 2년 안에 있었던 응답자는 대부분이 신고제도를 인식한데 반해,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신고제도를 인식하거나 못하는 응답자 비율 차이가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신고제도 역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데 반해, 신고전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은 신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 비율이 인지하고 있는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경로

<표 Ⅶ-3-31>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 %)

내용			전체	대중매체	인터넷	세미나 교육	지역사 회기관	주변사 람	기타
전체			799	48.6	15.0	50.8	13.5	5.5	2.8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262	60.3	9.9	31.7	7.3	8.4	1.5
		의료직	155	59.4	14.2	34.8	9.0	3.2	5.2
		복지시설종사자	296	35.1	19.3	73.3	19.3	4.1	1.4
		사회복지직 공무원	86	39.5	17.4	60.5	20.9	5.8	7.0
	근무지역	대도시	361	50.1	12.7	49.3	12.7	5.5	2.2
		중소도시	246	50.4	14.6	50.0	18.7	6.5	2.0
		농어촌	192	43.2	19.8	54.7	8.3	4.2	4.7
	근무경력	0-4년	207	43.5	18.8	52.2	11.1	5.3	2.4
		5-9년	226	46.9	15.0	56.6	15.5	4.4	2.2
		10-19년	205	50.7	15.6	48.3	14.6	5.4	5.4
		20년 이상	161	54.7	9.3	44.1	12.4	7.5	0.6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568	48.4	15.1	52.6	12.1	6.2	1.8
		주 2-3회	79	49.4	16.5	40.5	15.2	5.1	5.1
		주 1회	52	44.2	15.4	57.7	21.2	5.8	5.8
		2주 1회	26	61.5	15.4	26.9	15.4	0.0	7.7
		월 1회	60	43.3	13.3	50.0	16.7	3.3	3.3
		거의 없음	14	64.3	7.1	57.1	14.3	0.0	7.1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25	55.6	13.3	48.4	11.1	8.4	2.7
		6-10세	225	49.3	15.6	41.3	14.2	6.2	3.6
		11-14세	219	42.9	14.2	62.6	15.1	3.7	1.4
		15-18세	130	44.6	18.5	51.5	13.8	2.3	3.8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09	42.1	20.6	56.5	12.9	2.4	1.9
		여성	590	50.8	13.1	48.8	13.7	6.6	3.1
	연령	20대	134	50.0	20.1	54.5	11.2	3.7	2.2
		30대	309	46.3	14.6	48.5	12.9	5.2	4.2
		40대	252	51.2	15.5	51.2	13.1	6.3	2.4
		50대 이상	104	47.1	8.7	51.9	19.2	6.7	0.0
	결혼 여부	미혼	240	48.3	18.8	56.7	11.7	5.0	2.5
		기혼	559	48.7	13.4	48.3	14.3	5.7	2.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14	47.7	14.0	48.4	14.6	6.4	2.7
		자녀 없음	285	50.2	16.8	55.1	11.6	3.9	2.8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16	26.3	13.3	83.5	16.8	3.8	1.6
		2년 이전에 참여	160	41.3	15.0	66.3	15.6	4.4	1.9
		참여경험 없음	323	74.0	16.7	11.1	9.3	7.7	4.3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88	43.2	11.4	61.4	13.6	5.7	3.4
		자주 일어남	470	46.6	13.0	51.7	13.8	4.7	3.4
		별로 일어나지 않음	226	54.0	19.5	44.7	11.9	7.1	0.9
		전혀 일어나지 않음	15	60.0	33.3	53.3	26.7	6.7	6.7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660	45.2	15.6	56.8	15.0	4.8	2.7
		인지 못함	139	64.7	12.2	22.3	6.5	8.6	2.9

신고제도를 들어본 응답자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세미나 및 교육(50.8%) 또는 대중매체(48.6%)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접한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에서 교직과 의료직 종사자는 대중매체, 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세미나 혹은 교육을 통해 신고제도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 아동학대 전문기관 인지

<표 VII-3-32> 아동학대 전문기관 인지

(단위: 명 / %)

내용			전체	잘 알고 있음	어느정도 알고있음	전혀모름	χ^2
전체			1,058	22.6	51.6	25.8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8.4	52.4	39.2	310.846***
		의료직	243	4.1	55.6	40.3	
		복지시설종사자	322	48.1	46.6	5.3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44.4	55.6	0.0	
	근무지역	대도시	500	20.8	49.6	29.6	10.114*
		중소도시	321	22.7	52.3	24.9	
		농어촌	237	26.2	54.9	19.0	
	근무경력	0-4년	314	19.4	48.7	31.8	13.654*
		5-9년	285	26.3	51.9	21.8	
		10-19년	258	24.8	50.0	25.2	
		20년 이상	201	19.4	57.7	22.9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24.2	50.1	25.8	13.044
		주 2-3회	108	15.7	54.6	29.6	
		주 1회	68	26.5	51.5	22.1	
		2주 1회	41	9.8	61.0	29.3	
		월 1회	75	22.7	58.7	18.7	
		거의 없음	21	14.3	47.6	38.1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15.0	59.1	25.9	34.147***
		6-10세	309	17.8	53.4	28.8	
		11-14세	287	31.7	45.3	23.0	
		15-18세	161	29.8	45.3	24.8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23.3	48.0	28.7	2.498
		여성	762	22.3	53.0	24.7	
	연령	20대	213	21.6	48.4	30.0	10.345
		30대	412	20.9	51.2	27.9	
		40대	311	22.5	55.0	22.5	
		50대 이상	122	30.3	50.0	19.7	
	결혼 여부	미혼	338	25.1	48.5	26.3	2.409
		기혼	720	21.4	53.1	25.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22.2	52.8	25.1	.928
		자녀 없음	408	23.3	49.8	27.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45.3	52.0	2.8	294.127***
		2년 이전에 참여	181	28.2	60.8	11.0	
		참여경험 없음	550	7.3	48.4	44.4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38.9	42.5	18.6	44.697***
		자주 일어남	596	24.5	52.2	23.3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12.5	54.6	32.9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38.1	38.1	23.8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28.5	59.3	12.1	324.883***
		인지 못함	259	4.2	27.8	68.0	
	신고전화	인지	716	31.4	60.3	8.2	374.023***
		인지 못함	342	4.1	33.3	62.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 예방, 신고접수 및 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잘 알고 있음’이 22.6%,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이 51.6%로 응답자의 74.2%가 전문기관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모름’의 응답자도 25.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지여부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접촉아동연령, 학대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교직, 의료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종사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비율이 높은데 반해, 복지시설종사자는 ‘잘 알고 있음’ 비율이 높았다.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 근무자가 다른 지역 근무자보다 ‘잘 알고 있음’ 비율이 높았다.

‘잘 알고 있음’ 비율이 높은 집단은 근무경력에서는 5-9년 근무자, 접촉아동 연령에서는 11-14세 아동 접촉 대상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정도 인식에서는 학대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교육을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혀 모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여부

<표 VII-3-33>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여부

(단위: 명 / %)

내용			전체	예	아니오	χ^2
전체			1,058	67.7	32.3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51.4	48.6	194.330***
		의료직	243	52.3	47.7	
		복지시설종사자	322	91.6	8.4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96.7	3.3	
	근무지역	대도시	500	61.0	39.0	22.959***
		중소도시	321	70.4	29.6	
		농어촌	237	78.1	21.9	
	근무경력	0-4년	314	59.6	40.4	14.684**
		5-9년	285	73.0	27.0	
		10-19년	258	68.6	31.4	
		20년 이상	201	71.6	28.4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68.1	31.9	.914
		주 2-3회	108	65.7	34.3	
		주 1회	68	70.6	29.4	
		2주 1회	41	65.9	34.1	
		월 1회	75	66.7	33.3	
		거의 없음	21	61.9	38.1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68.8	31.2	3.791
		6-10세	309	63.4	36.6	
		11-14세	287	70.4	29.6	
		15-18세	161	68.9	31.1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61.8	38.2	6.431*
		여성	762	69.9	30.1	
	연령	20대	213	60.1	39.9	9.774*
		30대	412	67.5	32.5	
		40대	311	70.1	29.9	
		50대 이상	122	75.4	24.6	
	결혼 여부	미혼	338	67.5	32.5	.011
		기혼	720	67.8	32.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69.4	30.6	2.252
		자녀 없음	408	65.0	35.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92.0	8.0	188.430***
		2년 이전에 참여	181	80.1	19.9	
		참여경험 없음	550	49.1	50.9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75.2	24.8	16.365**
		자주 일어남	596	71.0	29.0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59.5	40.5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61.9	38.1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82.6	17.4	332.500***
		인지 못함	259	21.6	78.4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신고전화를 알고 있는 응답자(67.7%)가 모르고 있는 응답자(32.3%)보다 약 2배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항목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성별, 연령, 학대 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에서는 신고전화를 알고 있는 집단은 사회복지직 공무원(96.7%)이 가장 높았고, 이어 복지시설종사자(91.6%), 의료직(52.3%), 교직(51.4%) 순의 비율을 보였다.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 근무자의 신고전화 인식 비율이 높았으며, 근무경력에서는 5-9년 경력자의 인지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인지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고전화인지 비율이 높았다.

학대발생정도 인식에서는 학대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신고전화 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을 최근 2년 이내 참여한 응답자는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아동학대 교육을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신고전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신고전화 역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반해, 신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은 신고전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바) 인지하고 있는 신고전화 개수

<표 VII-3-34> 인지하고 있는 신고전화 개수

(단위: 명 / %)

내용			전체	1개	2개	3개	4개 (이상)	χ^2
전체			427	57.4	26.0	11.7	4.9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09	71.6	19.3	5.5	3.7	24.397**
		의료직	60	65.0	23.3	11.7	0.0	
		복지시설종사자	200	47.0	31.5	15.5	6.0	
		사회복지직 공무원	58	58.6	22.4	10.3	8.6	
	근무지역	대도시	163	58.3	24.5	12.9	4.3	4.023
		중소도시	152	57.9	27.0	11.8	3.3	
		농어촌	112	55.4	26.8	9.8	8.0	
	근무경력	0-4년	113	56.6	28.3	9.7	5.3	6.798
		5-9년	126	60.3	20.6	15.1	4.0	
		10-19년	106	50.9	31.1	12.3	5.7	
		20년 이상	82	62.2	24.4	8.5	4.9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302	58.9	25.2	12.3	3.6	19.953
		주 2-3회	41	48.8	36.6	12.2	2.4	
		주 1회	32	46.9	28.1	12.5	12.5	
		2주 1회	14	50.0	42.9	7.1	0.0	
		월 1회	29	65.5	13.8	6.9	13.8	
		거의 없음	9	66.7	11.1	11.1	11.1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119	70.6	17.6	9.2	2.5	19.009*
		6-10세	111	58.6	27.9	8.1	5.4	
		11-14세	133	45.1	31.6	16.5	6.8	
		15-18세	64	56.3	26.6	12.5	4.7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07	50.5	26.2	19.6	3.7	9.236*
		여성	320	59.7	25.9	9.1	5.3	
	연령	20대	64	64.1	21.9	7.8	6.3	7.457
		30대	172	59.9	24.4	12.8	2.9	
		40대	133	52.6	27.1	13.5	6.8	
		50대 이상	58	53.4	32.8	8.6	5.2	
	결혼 여부	미혼	130	62.3	21.5	11.5	4.6	2.260
		기혼	297	55.2	27.9	11.8	5.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77	55.6	27.4	11.9	5.1	1.124
		자녀 없음	150	60.7	23.3	11.3	4.7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191	43.5	33.0	16.8	6.8	33.558***
		2년 이전에 참여	92	59.8	27.2	9.8	3.3	
		참여경험 없음	144	74.3	16.0	6.3	3.5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51	41.2	35.3	13.7	9.8	14.015
		자주 일어남	258	59.3	22.9	12.8	5.0	
		별로 일어나지 않음	110	60.0	30.0	7.3	2.7	
		전혀 일어나지 않음	8	62.5	12.5	25.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397	56.4	26.4	12.1	5.0	2.208
		인지 못함	30	70.0	20.0	6.7	3.3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전화번호는 1577-1391, 129, 112, 119이다. 설문 대상자 중 아동학대 신고전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716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알고 있는 신고전화를 모두 직접 적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공식 전화번호 4개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지부 전화번호를 작성한 경우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신고전화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응답자만 289명(40.4%)을 차지하였다. 신고전화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실제로 정답을 적은 응답자 42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 개수는 1개(57.4%), 2개(26.0%), 3개(11.7%), 4개(이상)(4.9%) 순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항목에 따라 신고전화 정답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 접촉아동 연령, 성별,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직업에서 분포 비율이 높은 직종은 신고전화 1개에서는 교직, 2개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 3개에서도 복지시설종사자, 4개(이상)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알고 있는 신고전화가 1개인 경우 5세 이하 비율이 가장 높고, 2개, 3개, 4개(이상)인 경우에는 11-14세 분포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에서는 신고전화 개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2개, 3개에서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1개, 4개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교육에서는 교육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정답을 1개 알고 있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교육 참여를 최근 2년 이내에 한 응답자는 2개 이상의 정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경로

<표 Ⅶ-3-35>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 %)

내용			전체	대중매체	인터넷	세미나 교육	지역사 회기관	주변 사람	기타
전체			716	39.9	26.8	47.9	15.6	3.4	4.2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207	47.3	23.2	30.9	9.7	4.3	4.3
		의료직	127	46.5	28.3	33.1	9.4	2.4	7.9
		복지시설종사자	295	31.9	30.5	64.4	21.4	2.4	2.4
		사회복지직 공무원	87	40.2	20.7	54.0	19.5	5.7	4.6
	근무지역	대도시	305	42.6	25.6	47.2	13.4	3.6	4.6
		중소도시	226	37.6	28.3	47.3	19.5	4.0	2.7
		농어촌	185	38.4	27.0	49.7	14.6	2.2	5.4
	근무경력	0-4년	187	38.5	34.2	43.3	12.8	3.2	5.3
		5-9년	208	33.2	26.0	51.9	17.8	3.4	4.8
		10-19년	177	44.6	24.3	50.3	14.7	2.3	2.8
		20년 이상	144	45.8	21.5	45.1	17.4	4.9	3.5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507	39.4	26.8	50.5	15.8	3.2	4.1
		주 2-3회	71	40.8	32.4	42.3	8.5	2.8	4.2
		주 1회	48	35.4	27.1	50.0	20.8	4.2	6.3
		2주 1회	27	48.1	22.2	29.6	3.7	3.7	7.4
		월 1회	50	40.0	24.0	36.0	22.0	6.0	2.0
		거의 없음	13	53.8	15.4	53.8	30.8	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07	44.9	29.0	44.9	13.5	2.9	3.9
		6-10세	196	39.8	25.0	41.8	17.3	6.1	4.1
		11-14세	202	39.1	23.3	54.0	15.3	2.5	4.0
		15-18세	111	32.4	32.4	53.2	17.1	0.9	5.4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83	36.6	30.1	54.1	16.4	3.8	3.3
		여성	533	41.1	25.7	45.8	15.4	3.2	4.5
	연령	20대	128	43.8	30.5	46.9	14.1	0.8	5.5
		30대	278	35.3	28.4	46.0	13.3	4.0	4.3
		40대	218	43.1	28.4	52.3	16.1	4.1	3.7
		50대 이상	92	41.3	13.0	44.6	23.9	3.3	3.3
	결혼 여부	미혼	228	42.5	29.4	51.8	12.3	3.1	4.4
		기혼	488	38.7	25.6	46.1	17.2	3.5	4.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51	38.1	26.4	46.8	16.9	3.8	4.0
		자녀 없음	265	43.0	27.5	49.8	13.6	2.6	4.5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01	24.6	24.9	76.1	20.3	2.0	2.7
		2년 이전에 참여	145	37.2	28.3	60.0	14.5	2.8	3.4
		참여경험 없음	270	58.5	28.1	10.0	11.1	5.2	6.3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85	37.6	18.8	60.0	17.6	4.7	4.7
		자주 일어남	423	38.5	25.5	48.2	16.3	2.4	3.8
		별로 일어나지 않음	195	42.1	31.8	41.5	12.3	4.6	4.6
		전혀 일어나지 않음	13	69.2	46.2	53.8	30.8	7.7	7.7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660	39.7	25.9	50.2	16.5	3.3	3.6
		인지 못함	56	42.9	37.5	21.4	5.4	3.6	10.7

신고전화를 알게 된 경로를 복수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해 47.9%가 인식하였고, 그 외 대중매체가 39.9%, 인터넷 26.8%, 지역사회기관 15.6%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교직과 의료직은 대중매체를 통해 신고전화를 알게 된 비율이 높았고, 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세미나 혹은 교육을 통해 신고전화를 알게 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학대 신고행동

가)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

<표 VII-3-36>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

(단위: 명 / %)

내용			전체	예	아니오	χ^2
전체			1,058	29.6	70.4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21.8	78.2	39.383***
		의료직	243	26.7	73.3	
		복지시설종사자	322	35.1	64.9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52.2	47.8	
	근무지역	대도시	500	26.8	73.2	3.528
		중소도시	321	32.1	67.9	
		농어촌	237	32.1	67.9	
	근무경력	0-4년	314	22.0	78.0	14.253**
		5-9년	285	35.4	64.6	
		10-19년	258	32.2	67.8	
		20년 이상	201	29.9	70.1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27.0	73.0	13.880*
		주 2-3회	108	35.2	64.8	
		주 1회	68	42.6	57.4	
		2주 1회	41	22.0	78.0	
		월 1회	75	38.7	61.3	
		거의 없음	21	33.3	66.7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21.9	78.1	15.566**
		6-10세	309	29.4	70.6	
		11-14세	287	36.6	63.4	
		15-18세	161	31.7	68.3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35.5	64.5	6.842**
		여성	762	27.3	72.7	
	연령	20대	213	17.8	82.2	22.547***
		30대	412	31.3	68.7	
		40대	311	30.9	69.1	
		50대 이상	122	41.0	59.0	
	결혼 여부	미혼	338	22.8	77.2	11.034**
		기혼	720	32.8	67.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33.7	66.3	13.656***
		자녀 없음	408	23.0	77.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35.8	64.2	16.101***
		2년 이전에 참여	181	34.8	65.2	
		참여경험 없음	550	24.2	75.8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44.2	55.8	30.299***
		자주 일어남	596	32.4	67.6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20.7	79.3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9.5	90.5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33.9	66.1	29.420***
		인지 못함	259	16.2	83.8	
	신고전화	인지	716	33.7	66.3	17.657***
		인지 못함	342	21.1	78.9	

* $p<.05$, ** $p<.01$, *** $p<.00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지금까지 한 번 이라도 발견한 응답자는 29.6%, 발견하지 않은 응답자는 7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 학대 의심아동 발견 경험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근무 경력, 아동접촉 일 수, 접촉 아동 연령,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유무, 학대발생정도 인식, 아동 학대 교육 참여 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직업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52.2%)이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종사자(35.1%), 의료직(26.7%), 교직(21.8%) 순의 발견 경험 비율을 보였다. 근무경력에서는 5-9년 경력자, 아동접촉 일수에서는 주 1회 아동 접촉하는 경우, 접촉 아동 연령에서는 11-14세인 경우 아동학대 발견 경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자녀유무에서는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학대의심 아동 발견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학대 발생정도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와 아동학대 교육에 최근 2년 이내 참여한 응답자의 학대 아동을 발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또는 신고전화를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발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자의 신고행동

(1) 학대의심아동 발견 수

<표 VII-3-37> 학대의심아동 발견 명 수

(단위: % / 명)													
인원	1	2	3	4	5	6	7	10	11	16	20	전체	평균
비율	53.4	24.6	11.5	0.3	3.5	0.3	0.3	1.9	0.3	0.3	0.6	100.0 (313)	2.07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는 313명의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몇 명 정도 발견했는지 개방식 질문을 하였다. 발견한 인원이 1명인 경우(53.7%)가 가장 많았으며, 2명(25.2%), 3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학대 의심 아동을 평균 2.07명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I-3-38> 학대의심아동 발견 수

(단위: 명 / %)

내용			전체	평균	1명	2명	3명 이상	χ^2
전체			313	2.08	53.4	24.6	22.0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88	1.73	68.2	19.3	12.5	19.139**
		의료직	65	2.26	49.2	27.7	23.1	
		복지시설종사자	113	2.42	43.4	25.7	31.0	
		사회복지직 공무원	47	1.68	57.4	31.9	10.6	
	근무지역	대도시	134	2.03	56.7	26.1	17.2	4.357
		중소도시	103	1.98	52.4	22.3	25.2	
		농어촌	76	2.30	48.7	25.0	26.3	
	근무경력	0-4년	69	2.32	46.4	33.3	20.3	4.586
		5-9년	101	1.73	56.4	19.8	23.8	
		10-19년	83	2.29	53.0	22.9	24.1	
		20년 이상	60	2.10	56.7	25.0	18.3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201	2.09	55.2	25.4	19.4	17.360
		주 2-3회	38	1.58	65.8	21.1	13.2	
		주 1회	29	2.24	37.9	24.1	37.9	
		2주 1회	9	2.44	44.4	11.1	44.4	
		월 1회	29	2.45	37.9	34.5	27.6	
		거의 없음	7	1.86	71.4	0.0	28.6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66	1.64	59.1	22.7	18.2	6.971
		6-10세	91	2.23	56.0	18.7	25.3	
		11-14세	105	2.18	50.5	26.7	22.9	
		15-18세	51	2.17	47.1	33.3	19.6	
인구학 적 특성	성별	남성	105	2.12	55.2	24.8	20.0	.175
		여성	208	2.06	52.4	24.5	23.1	
	연령	20대	38	2.32	50.0	26.3	23.7	5.517
		30대	129	1.84	56.6	25.6	17.8	
		40대	96	2.11	50.0	27.1	22.9	
		50대 이상	50	2.46	54.0	16.0	30.0	
	결혼 여부	미혼	77	1.88	57.1	27.3	15.6	1.862
		기혼	236	2.14	52.1	23.7	24.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19	2.18	51.6	24.7	23.7	1.414
		자녀 없음	94	1.84	57.4	24.5	18.1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117	2.26	50.4	22.2	27.4	6.938
		학대 관련 인식	63	2.10	46.0	30.2	23.8	
		참여경험 없음	133	1.91	59.4	24.1	16.5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50	3.32	36.0	24.0	40.0	.11)
		자주 일어남	193	1.99	52.8	25.9	21.2	
		별로 일어나지 않음	68	1.44	66.2	22.1	11.8	
		전혀 일어나지 않음	2	1.00	10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271	2.08	51.3	26.9	21.8	4.891
		인지 못함	42	2.07	69.0	14.3	16.7	
	신고전화	인지	241	2.08	51.0	26.6	22.4	2.879
		인지 못함	72	2.07	61.1	18.1	20.8	

* $p < .05$, ** $p < .01$, *** $p < .00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난 1년간 몇 명을 발견했는지 1명, 2명, 3명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항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1명을 발견했다는 응답자는 과반수 이상(53.4%)을 차지하였고, 2명(24.6%), 3명 이상(22.0%)의 비율을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직종마다 학대의심아동을 1명 발견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명을 발견한 응답자 중에는 교직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2명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 이상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1)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응답자 수가 2명인 관계로 차이검증 불가

(2)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여부

<표 VII-3-39>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여부

(단위: 명 / %)

내용			전체	모두 신고함	일부만 신고함	모두 신고안함	χ^2
전체			313	27.2	13.1	59.7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88	4.5	8.0	87.5	62.713***
		의료직	65	26.2	15.4	58.5	
		복지시설종사자	113	31.0	15.0	54.0	
		사회복지직 공무원	47	61.7	14.9	23.4	
	근무지역	대도시	134	26.1	10.4	63.4	3.103
		중소도시	103	27.2	17.5	55.3	
		농어촌	76	28.9	11.8	59.2	
	근무경력	0-4년	69	21.7	18.8	59.4	11.681
		5-9년	101	34.7	9.9	55.4	
		10-19년	83	31.3	13.3	55.4	
		20년 이상	60	15.0	11.7	73.3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201	21.9	13.4	64.7	15.658
		주 2-3회	38	31.6	10.5	57.9	
		주 1회	29	34.5	10.3	55.2	
		2주 1회	9	33.3	11.1	55.6	
		월 1회	29	37.9	20.7	41.4	
		거의 없음	7	71.4	0.0	28.6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66	34.8	6.1	59.1	5.657
		6-10세	91	27.5	14.3	58.2	
		11-14세	105	22.9	16.2	61.0	
		15-18세	51	25.5	13.7	60.8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05	24.8	17.1	58.1	2.378
		여성	208	28.4	11.1	60.6	
	연령	20대	38	28.9	15.8	55.3	5.721
		30대	129	30.2	8.5	61.2	
		40대	96	21.9	15.6	62.5	
		50대 이상	50	28.0	18.0	54.0	
	결혼 여부	미혼	77	35.1	6.5	58.4	5.783
		기혼	236	24.6	15.3	60.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19	26.0	14.2	59.8	.964
		자녀 없음	94	29.8	10.6	59.6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117	37.6	17.1	45.3	28.722***
		2년 이전에 참여	63	34.9	14.3	50.8	
		참여경험 없음	133	14.3	9.0	76.7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50	28.0	22.0	50.0	7.516
		자주 일어남	193	26.9	10.9	62.2	
		별로 일어나지 않음	68	27.9	11.8	60.3	
		전혀 일어나지 않음	2	0.0	50.0	5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271	29.5	14.8	55.7	13.885**
		인지 못함	42	11.9	2.4	85.7	
	신고전화	인지	241	32.0	15.4	52.7	21.637***
		인지 못함	72	11.1	5.6	83.3	

* $p<.05$, ** $p<.01$, *** $p<.00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13명 중 59.7%가 학대의심아동을 발견했어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고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0.3%였으며, 이 중 모두 신고한 경우는 27.2%, 일부만 신고한 경우는 13.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항목에 따라 신고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에 따라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모두 신고한 응답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61.7%)이 가장 높았고, 복지시설종사자(31.0%), 의료직(26.2%), 교직(4.5%) 순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모두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교직(87.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의료직(58.5%), 복지시설종사자(54.0%), 사회복지직 공무원(23.4%)의 순을 보였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에 따라 아동학대를 모두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근 2년 이내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는 응답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보다 아동학대 사례를 모두 신고하거나 일부만 신고한 비율이 높은데 반해, 신고전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는 인지하는 응답자보다 모두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신고 횟수

<표 Ⅶ-3-40> 신고 횟수 빈도

(단위: % / 명 / 회)								
횟수	1	2	3	5	6	20	전체	평균 횟수
비율	70.2	18.2	7.4	2.5	0.8	0.8	100.0 (126)	2.73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한 경험이 있는 126명의 응답자 중, 지난 1년 간 몇 회 정도 신고했는지 개방식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1회(70.2%)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어 2회(18.2%), 3회(7.4%), 5회(2.5%), 6회와 20회(각 0.8%) 순으로 비율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2.73회의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I-3-41> 신고 횟수

(단위: 명 / 회 / %)

내용			전체	평균 신고수	1회	2회	3회 이상	χ^2
전체			126	1.60	67.5	17.5	15.1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	1.27	81.8	9.1	9.1	9.600
		의료직	27	1.22	66.7	11.1	22.2	
		복지시설종사자	52	2.02	57.7	23.1	19.2	
		사회복지직 공무원	36	1.36	77.8	16.7	5.6	
	근무지역	대도시	49	1.33	69.4	18.4	12.2	6.134
		중소도시	46	1.43	71.7	15.2	13.0	
		농어촌	31	2.26	58.1	19.4	22.6	
	근무경력	0-4년	28	1.46	67.9	25.0	7.1	5.886
		5-9년	45	1.44	66.7	17.8	15.6	
		10-19년	37	1.38	73.0	13.5	13.5	
		20년 이상	16	2.75	56.3	12.5	31.3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1	1.65	64.8	19.7	15.5	8.132
		주 2-3회	16	1.38	81.3	12.5	6.3	
		주 1회	13	1.77	61.5	23.1	15.4	
		2주 1회	4	1.50	50.0	50.0	0.0	
		월 1회	17	1.41	76.5	5.9	17.6	
		거의 없음	5	1.80	60.0	0.0	4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7	1.22	77.8	7.4	14.8	7.436
		6-10세	38	1.48	73.7	13.2	13.2	
		11-14세	41	1.98	61.0	26.8	12.2	
		15-18세	20	1.56	55.0	20.0	25.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4	1.34	75.0	11.4	13.6	2.434
		여성	82	1.73	63.4	20.7	15.9	
	연령	20대	17	1.41	64.7	29.4	5.9	14.153*
		30대	50	1.32	78.0	14.0	8.0	
		40대	36	1.42	63.9	16.7	19.4	
		50대 이상	23	2.61	52.2	17.4	30.4	
	결혼 여부	미혼	32	1.50	68.8	18.8	12.5	.133
		기혼	94	1.63	67.0	17.0	16.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1.65	67.0	15.9	17.0	.451
		자녀 없음	38	1.47	68.4	21.1	10.5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64	1.89	56.3	23.4	20.3	13.005*
		2년 이전에 참여	31	1.39	74.2	22.6	3.2	
		참여경험 없음	31	1.19	83.9	0.0	16.1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25	1.80	52.0	32.0	16.0	7.983
		자주 일어남	73	1.70	68.5	15.1	16.4	
		별로 일어나지 않음	27	1.15	77.8	11.1	11.1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1.00	10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인지	120	1.63	66.7	18.3	15.0	2.549
		인지 못함	6	1.00	83.3	0.0	16.7	
	신고전화 인식	인지	114	1.64	66.7	17.5	15.8	1.768
		인지 못함	12	1.17	75.0	16.7	8.3	

* $p < .05$, ** $p < .01$, *** $p < .001$

지난 1년 간 아동학대 신고를 몇 회 했는지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비율 분포 차이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1회(67.5%), 2회(17.5%), 3회 이상(15.1%) 순의 비율을 나타냈다.

각 항목에 따라 신고 횟수에 차이가 있는 살펴본 결과, 연령,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신고횟수가 1회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횟수에 따라 자세히 비율을 살펴보면 신고횟수가 1회인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 2회인 경우 20대가 많았고, 3회 이상인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역시 신고횟수가 1회가 다른 신고횟수보다 분포 비율이 높았다. 그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에 비해 신고 횟수가 더 다양하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4) 신고한 아동의 학대 유형

<표 VII-3-42> 신고한 아동의 학대 유형

(단위: 명 / %)

내용			전체	산체적 학대	언어 및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중복 학대	χ^2
전체			126	42.1	13.5	6.3	29.4	8.7	
작업 특성	직업	교직	11	27.3	9.1	9.1	45.5	9.1	36.972***
		의료직	27	88.9	3.7	0.0	3.7	3.7	
		복지시설종사자	52	30.8	19.2	11.5	28.8	9.6	
		사회복지직 공무원	36	27.8	13.9	2.8	44.4	11.1	
	근무지역	대도시	49	36.7	8.2	8.2	36.7	10.2	8.926
		중소도시	46	43.5	15.2	8.7	28.3	4.3	
		농어촌	31	48.4	19.4	0.0	19.4	12.9	
	근무경력	0-4년	28	25.0	14.3	17.9	35.7	7.1	14.304
		5-9년	45	48.9	11.1	4.4	24.4	11.1	
		10-19년	37	51.4	13.5	0.0	27.0	8.1	
		20년 이상	16	31.3	18.8	6.3	37.5	6.3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71	40.8	14.1	8.5	28.2	8.5	16.723
		주 2-3회	16	43.8	12.5	6.3	25.0	12.5	
		주 1회	13	53.8	7.7	7.7	30.8	0.0	
		2주 1회	4	0.0	25.0	0.0	25.0	50.0	
		월 1회	17	41.2	17.6	0.0	35.3	5.9	
		거의 없음	5	60.0	0.0	0.0	4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7	59.3	7.4	3.7	22.2	7.4	11.685
		6-10세	38	50.0	10.5	5.3	31.6	2.6	
		11-14세	41	29.3	17.1	9.8	31.7	12.2	
		15-18세	20	30.0	20.0	5.0	30.0	15.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4	54.5	13.6	0.0	25.0	6.8	7.520
		여성	82	35.4	13.4	9.8	31.7	9.8	
	연령	20대	17	23.5	23.5	11.8	29.4	11.8	15.713
		30대	50	56.0	4.0	4.0	30.0	6.0	
		40대	36	36.1	22.2	2.8	30.6	8.3	
		50대 이상	23	34.8	13.0	13.0	26.1	13.0	
	결혼 여부	미혼	32	25.0	12.5	12.5	37.5	12.5	7.221
		기혼	94	47.9	13.8	4.3	26.6	7.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46.6	14.8	4.5	26.1	8.0	4.509
		자녀 없음	38	31.6	10.5	10.5	36.8	10.5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64	35.9	18.8	9.4	26.6	9.4	6.569
		2년 이전에 참여	31	51.6	6.5	3.2	32.3	6.5	
		참여경험 없음	31	45.2	9.7	3.2	32.3	9.7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25	40.0	16.0	16.0	20.0	8.0	9.992
		자주 일어남	73	41.1	15.1	5.5	28.8	9.6	
		별로 일어나지 않음	27	44.4	7.4	0.0	40.7	7.4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100.0	0.0	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인지	120	42.5	14.2	5.8	28.3	9.2	3.484
		인지 못함	6	33.3	0.0	16.7	50.0	0.0	
	신고전화 인식	인지	114	42.1	13.2	6.1	29.8	8.8	.270
		인지 못함	12	41.7	16.7	8.3	25.0	8.3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최근 신고한 아동이 어떤 학대에 해당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126명의 응답자는 신체적 학대(42.1%), 방임(29.4%), 언어 및 정서적 학대(13.5%), 중북학대(8.7%), 성적 학대(6.3%) 순을 보였다.

각 항목에 따라 학대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종에 따라 살펴보면, 교직 종사자는 방임(45.5%), 신체적 학대(27.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의료직은 신체적 학대(88.9%)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신체적 학대(30.8%), 방임(28.8%), 언어 및 정서적 학대(19.2%) 순으로 비교적 다른 직종보다 다양한 유형에 분포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방임(44.4%), 신체적 학대(27.8%) 순으로 나타나 교직과 같은 순을 보였다.

(5)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성 인지정도

<표 VII-3-43>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정도

(단위: % / 명 / 평균)

심각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평균
비율	0.0	1.6	4.0	7.9	10.3	9.5	17.5	18.3	4.8	26.2	100.0 (126)	7.27

가장 최근에 신고한 아동의 학대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점에서 10점으로 범주화하여 그 중 해당되는 점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점(26.2%)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8점(18.3%), 7점(17.5%), 5점(10.3%) 순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았을 때 7.27점 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I-3-44>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성 인지정도

(단위: 명 / 평균(SD))

내용			전체	평균(표준편차) /Duncan	F/t
전체			126	7.27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	7.27(2.15)/ab	3.858*
		의료직	27	8.52(1.95)/a	
		복지시설종사자	52	6.90(2.32)/b	
		사회복지직 공무원	36	6.92(2.03)/b	
	근무지역	대도시	49	7.59(2.00)	.784
		중소도시	46	7.04(2.46)	
		농어촌	31	7.16(2.21)	
	근무경력	0-4년	28	7.50(2.20)	.660
		5-9년	45	7.13(2.25)	
		10-19년	37	7.05(2.20)	
		20년 이상	16	7.88(2.31)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1	7.31(2.41)	.740
		주 2-3회	16	6.94(2.18)	
		주 1회	13	7.85(1.91)	
		2주 1회	4	6.25(2.50)	
		월 1회	17	7.65(1.80)	
		거의 없음	5	6.20(1.3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7	7.70(2.25)	.997
		6-10세	38	7.34(2.33)	
		11-14세	41	6.83(2.19)	
		15-18세	20	7.55(2.04)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4	7.59(1.97)	1.130
		여성	82	7.12(2.34)	
	연령	20대	17	7.06(2.46)	.272
		30대	50	7.42(2.03)	
		40대	36	7.08(2.27)	
		50대 이상	23	7.48(2.47)	
	결혼 여부	미혼	32	7.13(2.18)	-.472
		기혼	94	7.34(2.2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7.25(2.22)	.273
		자녀 없음	38	7.37(2.26)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64	7.13(2.16)	.867
		2년 이전에 참여	31	7.16(2.28)	
		참여경험 없음	31	7.74(2.29)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25	7.64(2.22)	1.022
		자주 일어남	73	7.29(2.14)	
		별로 일어나지 않음	27	7.07(2.43)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4.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120	7.22(2.22)	-1.568
		인지 못함	6	8.67(1.97)	
	신고전화	인지	114	7.11(2.23)	-2.741**
		인지 못함	12	8.92(1.31)	

* $p<.05$, ** $p<.01$, *** $p<.001$

가장 최근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성 정도를 점수화하여 각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직업, 아동학대 신고전화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에서 의료직 종사자가 복지시설종사자 혹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보다 신고한 아동의 학대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여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가 학대 심각성 점수를 더 높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 아동학대 신고 장소

<표 VII-3-45> 아동학대 신고 장소(복수응답)

(단위: 명 / %)

내용			전체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경찰서/ 지구대	지역 사회 복지관	아동 관련 상담소	관공서	종교 단체	기타
전체			126	66.7	22.2	4.8	4.8	10.3	0.8	5.6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	27.3	27.3	36.4	18.2	0.0	9.1	0.0
		의료직	27	37.0	55.6	3.7	0.0	3.7	0.0	14.8
		복지시설종사자	52	80.8	17.3	1.9	7.7	11.5	0.0	3.8
		사회복지직 공무원	36	80.6	2.8	0.0	0.0	16.7	0.0	2.8
	근무지역	대도시	49	67.3	12.2	8.2	8.2	10.2	2.0	8.2
		중소도시	46	69.6	23.9	0.0	0.0	13.0	0.0	2.2
		농어촌	31	61.3	35.5	6.5	6.5	6.5	0.0	6.5
	근무경력	0-4년	28	75.0	25.0	10.7	3.6	10.7	0.0	3.6
		5-9년	45	64.4	22.2	0.0	6.7	11.1	0.0	6.7
		10-19년	37	59.5	21.6	5.4	5.4	10.8	0.0	5.4
		20년 이상	16	75.0	18.8	6.3	0.0	6.3	6.3	6.3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1	57.7	26.8	7.0	8.5	9.9	1.4	5.6
		주 2-3회	16	56.3	37.5	0.0	0.0	12.5	0.0	0.0
		주 1회	13	92.3	0.0	0.0	0.0	0.0	0.0	7.7
		2주 1회	4	75.0	0.0	0.0	0.0	25.0	0.0	0.0
		월 1회	17	94.1	17.6	5.9	0.0	11.8	0.0	5.9
	접촉아동 연령	거의 없음	5	60.0	0.0	0.0	0.0	20.0	0.0	20.0
		5세 이하	27	59.3	33.3	3.7	3.7	7.4	3.7	0.0
		6-10세	38	71.1	34.2	5.3	2.6	5.3	0.0	5.3
		11-14세	41	75.6	14.6	2.4	4.9	9.8	0.0	7.3
		15-18세	20	50.0	0.0	10.0	10.0	25.0	0.0	1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4	61.4	29.5	2.3	2.3	9.1	0.0	0.0
		여성	82	69.5	18.3	6.1	6.1	11.0	1.2	8.5
	연령	20대	17	70.6	41.2	5.9	0.0	0.0	0.0	0.0
		30대	50	62.0	22.0	2.0	2.0	18.0	0.0	8.0
		40대	36	66.7	16.7	11.1	8.3	5.6	2.8	2.8
		50대 이상	23	73.9	17.4	0.0	8.7	8.7	0.0	8.7
	결혼 여부	미혼	32	68.8	15.6	3.1	6.3	9.4	0.0	3.1
		기혼	94	66.0	24.5	5.3	4.3	10.6	1.1	6.4
교육 경험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65.9	22.7	5.7	4.5	11.4	1.1	6.8
		자녀 없음	38	68.4	21.1	2.6	5.3	7.9	0.0	2.6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64	75.0	21.9	0.0	3.1	10.9	0.0	4.7
		2년 이전에 참여	31	71.0	12.9	9.7	6.5	9.7	0.0	3.2
학대 관련 인식	아동학대 발생정도 인식	참여경험 없음	31	45.2	32.3	9.7	6.5	9.7	3.2	9.7
		매우 자주 일어남	25	64.0	40.0	4.0	4.0	12.0	0.0	4.0
		자주 일어남	73	71.2	13.7	1.4	5.5	8.2	0.0	6.8
		별로 일어나지 않음	27	55.6	29.6	14.8	3.7	14.8	3.7	3.7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100.0	0.0	0.0	0.0	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인지	120	69.2	20.8	5.0	5.0	10.0	0.8	5.0
		인지 못함	6	16.7	50.0	0.0	0.0	16.7	0.0	16.7
신고전화	인식	인지	114	68.4	19.3	4.4	5.3	9.6	0.9	5.0
		인지 못함	12	50.0	50.0	8.3	0.0	16.7	0.0	16.7

가장 최근에 발견한 학대 아동을 어디에 신고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66.7%)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경찰서 및 지구대(22.2%), 관공서(10.3%) 순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교직 종사자는 지역사회복지관(36.4%),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지구대(각 27.3%)에 신고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직 종사자는 경찰서/지구대(55.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37.0%)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80.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80.6%)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7) 학대아동 발견 후 신고 시기

<표 VII-3-46> 학대아동 발견 후 신고 시기

(단위: 명 / %)

내용			전체	발견 직후	주변 사람과 상의회	상사와 상의회	증거 확보 후	기타	χ^2
전체			126	39.7	34.1	15.1	8.7	2.4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	0.0	81.8	18.2	0.0	0.0	23.849*
		의료직	27	59.3	22.2	14.8	0.0	3.7	
		복지시설종사자	52	38.5	34.6	13.5	9.6	3.8	
		사회복지직 공무원	36	38.9	27.8	16.7	16.7	0.0	
	근무지역	대도시	49	26.5	44.9	18.4	8.2	2.0	16.825*
		중소도시	46	45.7	30.4	19.6	4.3	0.0	
		농어촌	31	51.6	22.6	3.2	16.1	6.5	
	근무경력	0-4년	28	46.4	35.7	14.3	3.6	0.0	22.495*
		5-9년	45	48.9	17.8	22.2	8.9	2.2	
		10-19년	37	29.7	45.9	10.8	13.5	0.0	
		20년 이상	16	25.0	50.0	6.3	6.3	12.5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71	29.6	43.7	15.5	7.0	4.2	25.210
		주 2-3회	16	43.8	43.8	6.3	6.3	0.0	
		주 1회	13	38.5	23.1	23.1	15.4	0.0	
		2주 1회	4	50.0	0.0	50.0	0.0	0.0	
		월 1회	17	70.6	11.8	5.9	11.8	0.0	
		거의 없음	5	60.0	0.0	20.0	2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7	33.3	29.6	22.2	11.1	3.7	8.362
		6-10세	38	52.6	31.6	7.9	7.9	0.0	
		11-14세	41	34.1	39.0	14.6	7.3	4.9	
		15-18세	20	35.0	35.0	20.0	10.0	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4	45.5	34.1	6.8	13.6	0.0	7.101
		여성	82	36.6	34.1	19.5	6.1	3.7	
	연령	20대	17	41.2	41.2	17.6	0.0	0.0	17.210
		30대	50	44.0	22.0	24.0	10.0	0.0	
		40대	36	36.1	44.4	8.3	5.6	5.6	
		50대 이상	23	34.8	39.1	4.3	17.4	4.3	
	결혼 여부	미혼	32	34.4	37.5	25.0	3.1	0.0	5.812
		기혼	94	41.5	33.0	11.7	10.6	3.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39.8	33.0	12.5	11.4	3.4	5.019
		자녀 없음	38	39.5	36.8	21.1	2.6	0.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64	39.1	32.8	10.9	12.5	4.7	6.807
		2년 이전에 참여	31	38.7	35.5	19.4	6.5	0.0	
		참여경험 없음	31	41.9	35.5	19.4	3.2	0.0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25	52.0	24.0	16.0	4.0	4.0	7.822
		자주 일어남	73	34.2	37.0	15.1	12.3	1.4	
		별로 일어나지 않음	27	44.4	33.3	14.8	3.7	3.7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0.0	100.0	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120	40.0	35.8	12.5	9.2	2.5	14.032**
		인지 못함	6	33.3	0.0	66.7	0.0	0.0	
	신고전화	인지	114	37.7	36.0	14.0	9.6	2.6	4.687
		인지 못함	12	58.3	16.7	25.0	0.0	0.0	

* $p<.05$, ** $p<.01$, *** $p<.001$

가장 최근 학대 아동을 발견한 후, 신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39.7%는 발견 직후 신고한데 반해, 49.2%는 주변사람 혹은 상사와 상의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한 응답자는 8.7%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 신고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 근무지역, 근무경력, 아동학대신고제도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에서는 교직 종사자의 대부분(81.8%)이 주변사람과 상의 후 신고하였고, 의료직의 경우 과반수 이상(59.3%)이 발견 직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발견 직후(38.5%), 주변사람과 상의 후(34.6%)가 가장 높으면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역시 발견 직후(38.9%), 주변사람과 상의 후(27.8%)가 가장 높으면서 비슷한 비율을 보여 복지시설종사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8) 신고 후 아동이 받은 조치/서비스

<표 Ⅶ-3-47> 신고 후 아동이 받은 조치/서비스(복수응답)

(단위: 명 / %)

내용			전체	정보 제공	현장 조사	의료기관 의뢰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	격리 보호
전체			126	19.8	39.7	15.9	40.5	18.3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	18.2	18.2	9.1	36.4	27.3
		의료직	27	22.2	33.3	33.3	25.9	7.4
		복지시설종사자	52	17.3	38.5	15.4	38.5	19.2
		사회복지직 공무원	36	22.2	52.8	5.6	55.6	22.2
	근무지역	대도시	49	10.2	32.7	16.3	46.9	16.3
		중소도시	46	28.3	50.0	10.9	43.5	13.0
		농어촌	31	22.6	35.5	22.6	25.8	29.0
	근무경력	0-4년	28	17.9	42.9	10.7	17.9	21.4
		5-9년	45	20.0	33.3	22.2	37.8	17.8
		10-19년	37	24.3	40.5	10.8	48.6	16.2
		20년 이상	16	12.5	50.0	18.8	68.8	18.8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71	16.9	32.4	15.5	38.0	15.5
		주 2-3회	16	25.0	31.3	31.3	50.0	31.3
		주 1회	13	23.1	61.5	23.1	30.8	23.1
		2주 1회	4	0.0	25.0	0.0	50.0	50.0
		월 1회	17	29.4	52.9	5.9	47.1	11.8
		거의 없음	5	20.0	80.0	0.0	4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7	18.5	40.7	18.5	40.7	22.2
		6-10세	38	28.9	44.7	21.1	28.9	13.2
		11-14세	41	17.1	41.5	12.2	46.3	24.4
		15-18세	20	10.0	25.0	10.0	50.0	10.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4	18.2	22.7	18.2	40.9	11.4
		여성	82	20.7	48.8	14.6	40.2	22.0
	연령	20대	17	17.6	52.9	17.6	23.5	11.8
		30대	50	18.0	40.0	18.0	40.0	16.0
		40대	36	22.2	33.3	11.1	36.1	25.0
		50대 이상	23	21.7	39.1	17.4	60.9	17.4
	결혼 여부	미혼	32	21.9	50.0	6.3	43.8	18.8
		기혼	94	19.1	36.2	19.1	39.4	18.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19.3	36.4	17.0	42.0	18.2
		자녀 없음	38	21.1	47.4	13.2	36.8	18.4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64	20.3	39.1	14.1	45.3	15.6
		2년 이전에 참여	31	16.1	45.2	22.6	35.5	19.4
		참여경험 없음	31	22.6	35.5	12.9	35.5	22.6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25	16.0	44.0	16.0	40.0	28.0
		자주 일어남	73	20.5	38.4	16.4	46.6	15.1
		별로 일어나지 않음	27	22.2	40.7	14.8	25.9	14.8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0.0	0.0	0.0	0.0	10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120	20.8	40.8	15.8	40.8	17.5
		인식 못함	6	0.0	16.7	16.7	33.3	33.3
	신고전화	인식	114	19.3	41.2	15.8	41.2	18.4
		인식 못함	12	25.0	25.0	16.7	33.3	16.7

내용			법원 개입	지역 자원 연계	상담 치료	신고기관 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음	기타
전체			3.2	28.6	17.5	4.0	4.8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0.0	36.4	18.2	0.0	0.0
		의료직	0.0	3.7	0.0	7.4	3.7
		복지시설종사자	5.8	36.5	26.9	1.9	5.8
		사회복지직 공무원	2.8	33.3	16.7	5.6	5.6
	근무지역	대도시	4.1	42.9	14.3	2.0	4.1
		중소도시	2.2	21.7	26.1	6.5	4.3
		농어촌	3.2	16.1	9.7	3.2	6.5
	근무경력	0-4년	3.6	35.7	17.9	10.7	0.0
		5-9년	2.2	24.4	13.3	2.2	8.9
		10-19년	2.7	21.6	16.2	2.7	2.7
		20년 이상	6.3	43.8	31.3	0.0	6.3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4.2	31.0	16.9	5.6	5.6
		주 2-3회	6.3	31.3	25.0	0.0	0.0
		주 1회	0.0	30.8	15.4	7.7	15.4
		2주 1회	0.0	0.0	0.0	0.0	0.0
		월 1회	0.0	29.4	23.5	0.0	0.0
		거의 없음	0.0	0.0	0.0	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0.0	25.9	7.4	3.7	7.4
		6-10세	2.6	15.8	15.8	5.3	0.0
		11-14세	2.4	43.9	24.4	4.9	7.3
		15-18세	10.0	25.0	20.0	0.0	5.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0.0	22.7	13.6	6.8	4.5
		여성	4.9	31.7	19.5	2.4	4.9
	연령	20대	5.9	29.4	17.6	0.0	0.0
		30대	2.0	24.0	8.0	6.0	8.0
		40대	2.8	30.6	25.0	5.6	2.8
		50대 이상	4.3	34.8	26.1	0.0	4.3
	결혼 여부	미혼	9.4	46.9	28.1	0.0	0.0
		기혼	1.1	22.3	13.8	5.3	6.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	23.9	14.8	4.5	6.8
		자녀 없음	7.9	39.5	23.7	2.6	0.0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4.7	31.3	20.3	1.6	4.7
		2년 이전에 참여	3.2	32.3	12.9	6.5	6.5
		참여경험 없음	0.0	19.4	16.1	6.5	3.2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4.0	28.0	24.0	8.0	8.0
		자주 일어남	4.1	24.7	15.1	4.1	5.5
		별로 일어나지 않음	0.0	40.7	18.5	0.0	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0.0	0.0	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식	인지	3.3	30.0	17.5	3.3	5.0
		인지 못함	0.0	0.0	16.7	16.7	0.0
	신고전화	인지	3.5	28.9	18.4	3.5	5.3
		인지 못함	0.0	25.0	8.3	8.3	0.0

가장 최근에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이 어떤 조치 및 서비스를 받았는지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조치 및 서비스에서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40.5%)과 ‘현장조사’(39.7%)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역자원 연계’(28.6%), ‘정보제공’(19.8%), ‘격리보호’(18.3%), ‘상담치료’(17.5%), ‘의료기관 의뢰’(15.9%), ‘법원개입’(3.2%)순의 개입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신고기관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하여’ 어떤 조치 및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신고의무자도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중점적으로 아동이 받은 조치나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교직 종사자는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36.4%)과 ‘지역자원 연계’(36.4%)가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27.3%)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의료직 종사자는 ‘현장조사’(33.3%)와 ‘의료기관 의뢰’(3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25.9%)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장조사’(38.5%)와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38.5%), ‘지역자원 연계’(36.5%)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55.6%), ‘현장조사’(52.8%), ‘지역사회연계’(33.3%)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9) 학대개입 이후 아동에게 미친 영향

<표 VII-3-48> 학대개입 이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단위: 명 / %)

내용			전체	상황이 좋아짐	상황이 안좋아짐	상황 변화없음	알고있는 사항없음	χ^2
전체			126	57.1	2.4	18.3	22.2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1	45.5	9.1	36.4	9.1	30.035***
		의료직	27	25.9	0.0	25.9	48.1	
		복지시설종사자	52	76.9	1.9	5.8	15.4	
		사회복지직 공무원	36	55.6	2.8	25.0	16.7	
	근무지역	대도시	49	63.3	0.0	12.2	24.5	7.777
		중소도시	46	60.9	2.2	19.6	17.4	
		농어촌	31	41.9	6.5	25.8	25.8	
	근무경력	0-4년	28	57.1	7.1	14.3	21.4	9.368
		5-9년	45	46.7	0.0	22.2	31.1	
		10-19년	37	64.9	2.7	16.2	16.2	
		20년 이상	16	68.8	0.0	18.8	12.5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71	57.7	1.4	16.9	23.9	14.676
		주 2-3회	16	50.0	0.0	18.8	31.3	
		주 1회	13	69.2	0.0	23.1	7.7	
		2주 1회	4	50.0	0.0	0.0	50.0	
		월 1회	17	58.8	11.8	17.6	11.8	
		거의 없음	5	40.0	0.0	40.0	2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27	40.7	0.0	29.6	29.6	11.984
		6-10세	38	57.9	2.6	10.5	28.9	
		11-14세	41	68.3	4.9	17.1	9.8	
		15-18세	20	55.0	0.0	20.0	25.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44	45.5	4.5	13.6	36.4	9.821*
		여성	82	63.4	1.2	20.7	14.6	
	연령	20대	17	52.9	5.9	17.6	23.5	12.576
		30대	50	46.0	0.0	20.0	34.0	
		40대	36	63.9	2.8	22.2	11.1	
		50대 이상	23	73.9	4.3	8.7	13.0	
	결혼 여부	미혼	32	62.5	3.1	12.5	21.9	1.095
		기혼	94	55.3	2.1	20.2	22.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56.8	1.1	21.6	20.5	4.094
		자녀 없음	38	57.9	5.3	10.5	26.3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64	65.6	1.6	9.4	23.4	10.062
		2년 이전에 참여	31	54.8	3.2	29.0	12.9	
		참여경험 없음	31	41.9	3.2	25.8	29.0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25	44.0	0.0	24.0	32.0	45.062***
		자주 일어남	73	61.6	1.4	16.4	20.5	
		별로 일어나지 않음	27	59.3	3.7	18.5	18.5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0.0	10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120	57.5	2.5	19.2	20.8	3.544
		인지 못함	6	50.0	0.0	0.0	50.0	
	신고전화	인지	114	57.9	1.8	18.4	21.9	2.156
		인지 못함	12	50.0	8.3	16.7	25.0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최근 신고한 아동학대 사례 아동에게 관련 기관이 개입한 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7.1%)은 '상황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문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22.2%),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18.3%), '상황이 안 좋아졌다'(2.4%)였다.

각 항목에 따라 학대 개입 이후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성별, 학대 발생정도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보면, 교직의 경우 '상황이 좋아졌다'와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의 각각의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두 응답비율 간 차이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교직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아졌다'와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의 비율이 각각 높았지만, 그 비율 간 차이는 교직보다 크게 나타났다.

의료직의 경우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48.1%)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복지시설종사자는 '상황에 좋아졌다'(76.9%)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학대의심아동 발견 경험자의 미신고 원인 및 대체행동

(가) 미신고 이유

<표 VII-3-49> 미신고 이유

(단위: % / 명)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아동학대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14.5	51.8	15.8	18.0	2.63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 (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10.5	30.3	24.6	34.6	2.17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14.5	34.6	17.5	33.3	2.30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해서	3.5	15.8	32.5	48.2	1.75
개인적 업무가 너무 많아서 (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6.6	24.6	29.4	39.5	1.98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11.4	33.8	21.1	33.8	2.23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신분노출 부담)	15.4	30.3	21.9	32.5	2.29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13.6	41.7	19.3	25.4	2.43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8.8	26.3	30.3	34.6	2.09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5.4	32.0	29.4	23.2	2.39
직장 상사가 신고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아서	3.1	17.1	33.3	46.5	1.77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 같아서	4.4	15.8	38.6	41.2	1.83
신고로 학대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7.0	29.4	30.3	33.3	2.10
신고자와 학대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7.5	31.6	24.6	36.4	2.10
전체 평균	2.15				
전체	228				

학대아동을 발견했지만 일부만 신고하거나 전혀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228명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을 살펴보았다. 2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 중 높은 점수를 차지한 문항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동학대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신고로 학대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자와 학대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입을 알 수 있다. 각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해서’로 나타났다.

(나) 미신고 후 대체행동

<표 VII-3-50> 미신고 후 대체행동(복수응답)

(단위: 명 / %)

내용			전체	직장 동료와 상의	직장 상사와 상의	내 가족과 상의	해당 아동과 상의	학대 가족을 다른 관련 기관에 의뢰
전체			228	35.5	19.7	11.0	29.8	12.7
작업적 특성	직업	교직	84	42.9	19.0	10.7	42.9	9.5
		의료직	48	31.3	18.8	16.7	14.6	6.3
		복지시설종사자	78	35.9	23.1	10.3	26.9	16.7
		사회복지직 공무원	18	11.1	11.1	0.0	22.2	27.8
	근무지역	대도시	99	32.3	23.2	11.1	37.4	14.1
		중소도시	75	38.7	10.7	10.7	25.3	10.7
		농어촌	54	37.0	25.9	11.1	22.2	13.0
	근무경력	0-4년	54	48.1	29.6	16.7	24.1	13.0
		5-9년	66	33.3	21.2	7.6	33.3	13.6
		10-19년	57	40.4	15.8	14.0	29.8	15.8
		20년 이상	51	19.6	11.8	5.9	31.4	7.8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157	36.9	22.3	10.8	35.7	9.6
		주 2-3회	26	34.6	15.4	7.7	23.1	7.7
		주 1회	19	31.6	10.5	10.5	21.1	26.3
		2주 1회	6	50.0	33.3	16.7	0.0	16.7
		월 1회	18	27.8	11.1	16.7	11.1	22.2
		거의 없음	2	0.0	0.0	0.0	0.0	10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43	30.2	18.6	11.6	11.6	7.0
		6-10세	66	39.4	12.1	15.2	34.8	12.1
		11-14세	81	39.5	28.4	7.4	35.8	13.6
		15-18세	38	26.3	15.8	10.5	28.9	18.4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79	30.4	22.8	7.6	31.6	8.9
		여성	149	38.3	18.1	12.8	28.9	14.8
	연령	20대	27	55.6	33.3	33.3	37.0	7.4
		30대	90	41.1	20.0	11.1	28.9	11.1
		40대	75	32.0	18.7	6.7	28.0	13.3
		50대 이상	36	13.9	11.1	2.8	30.6	19.4
	결혼 여부	미혼	50	46.0	24.0	16.0	36.0	8.0
		기혼	178	32.6	18.5	9.6	28.1	14.0
교육 경험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2	32.1	17.9	10.5	27.8	14.2
		자녀 없음	66	43.9	24.2	12.1	34.8	9.1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73	28.8	24.7	5.5	34.2	16.4
		2년 이전에 참여	41	34.1	14.6	12.2	29.3	12.2
		참여경험 없음	114	40.4	18.4	14.0	27.2	10.5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36	36.1	22.2	22.2	41.7	16.7
		자주 일어남	141	34.8	17.7	7.8	27.7	12.1
		별로 일어나지 않음	49	34.7	24.5	10.2	26.5	12.2
		전혀 일어나지 않음	2	100.0	0.0	50.0	5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191	34.6	19.4	11.0	29.3	14.1
		인지 못함	37	40.5	21.6	10.8	32.4	5.4
	신고전화	인지	164	35.4	19.5	7.9	29.3	12.8
		인지 못함	64	35.9	20.3	18.8	31.3	12.5

내용			상담 전문가와 상담	증거 수집 보강	아무것도 안했음	기타
전체			14.5	6.6	14.9	7.9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10.7	0.0	11.9	7.1
		의료직	0.0	6.3	29.2	10.4
		복지시설종사자	21.8	11.5	10.3	7.7
		사회복지직 공무원	38.9	16.7	11.1	5.6
	근무지역	대도시	13.1	8.1	15.2	4.0
		중소도시	18.7	5.3	16.0	9.3
		농어촌	11.1	5.6	13.0	13.0
	근무경력	0-4년	16.7	9.3	7.4	7.4
		5-9년	15.2	6.1	19.7	9.1
		10-19년	8.8	5.3	14.0	5.3
		20년 이상	17.6	5.9	17.6	9.8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10.8	7.0	17.2	7.0
		주 2-3회	15.4	3.8	11.5	7.7
		주 1회	31.6	10.5	10.5	15.8
		2주 1회	33.3	0.0	33.3	0.0
		월 1회	22.2	5.6	0.0	11.1
		거의 없음	0.0	0.0	0.0	0.0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4.7	11.6	23.3	23.3
		6-10세	9.1	4.5	16.7	4.5
		11-14세	23.5	6.2	9.9	2.5
		15-18세	15.8	5.3	13.2	7.9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19.2	12.3	6.8	11.0
		2년 이전에 참여	24.4	7.3	12.2	4.9
		참여경험 없음	7.9	2.6	21.1	7.0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3.9	8.9	19.0	3.8
		여성	14.8	5.4	12.8	10.1
	연령	20대	7.4	7.4	0.0	3.7
		30대	10.0	5.6	18.9	7.8
		40대	18.7	6.7	10.7	12.0
		50대 이상	22.2	8.3	25.0	2.8
	결혼 여부	미혼	8.0	12.0	12.0	8.0
		기혼	16.3	5.1	15.7	7.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5.4	4.3	16.0	7.4
		자녀 없음	12.1	12.1	12.1	9.1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22.2	11.1	8.3	0.0
		자주 일어남	12.8	6.4	16.3	8.5
		별로 일어나지 않음	14.3	4.1	16.3	12.2
		전혀 일어나지 않음	0.0	0.0	0.0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15.7	7.3	13.6	8.9
		인지 못함	8.1	2.7	21.6	2.7
	신고전화	인지	17.1	8.5	13.4	8.5
		인지 못함	7.8	1.6	18.8	6.3

학대아동을 발견했어도 신고하지 않은 대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알아보았다. 직장동료와 상의 35.5%, 직장상사와 상의 19.7%, 본인 가족과 상의 11.0%, 해당아동과 상의 29.8%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상담전문가와 상의한 경우가 14.5%, 타 기관에 의뢰한 경우 12.7%, 증거 수집 보강 6.6% 비율을 보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1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교직의 경우 '직장 동료와 상의'(42.9%)와 '해당 아동과 상의'(42.9%)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의료직은 '직장 동료와 상의'(31.3%)였고 이어 '아무것도 안했음'(29.2%)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시설종사자는 '직장 동료와 상의'(35.9%), '해당 아동과 상의'(26.9%), '상담전문가와 상의'(21.8%) 순의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상담전문가와 상담'(38.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대 가족을 다른 관련 기관에 의뢰'(27.8%)한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신고효과성¹¹⁾

<표 VII-3-51> 신고효과성 문항 평균

(단위: % / 명)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19.4	60.7	18.4	1.5	2.98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18.4	55.6	23.5	2.5	2.90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17.6	54.4	24.7	3.3	2.86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33.6	59.6	6.3	0.4	3.27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1.9	14.9	54.6	28.5	3.10
전체	1,058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피해 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고효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매우 그렇다'를 4점, '대체로 그렇다'를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하였으며, 5번 문항은 역점수화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785이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4번 문항의 평균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9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번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에서도 70% 이상이 신고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1) 안재진(2002)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

<표 VII-3-52> 신고효과성

(단위: 명, 평균(SD))

내용			전체	합산(SD)/Duncan	F/t
전체			1,058	15.11(2.49)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14.78(2.44)/a	22.482***
		의료직	243	14.40(2.47)/a	
		복지시설종사자	322	15.92(2.39)/b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15.53(2.25)/b	
	근무지역	대도시	500	14.96(2.42)	2.286
		중소도시	321	15.13(2.60)	
		농어촌	237	15.38(2.46)	
	근무경력	0-4년	314	14.97(2.60)	1.645
		5-9년	285	15.00(2.39)	
		10-19년	258	15.15(2.44)	
		20년 이상	201	15.43(2.51)	
	아동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15.16(2.51)	1.151
		주 2-3회	108	14.90(2.47)	
		주 1회	68	15.49(2.38)	
		2주 1회	41	14.66(2.34)	
		월 1회	75	14.97(2.34)	
		거의 없음	21	14.43(2.89)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15.17(2.59)	.405
		6-10세	309	14.98(2.38)	
		11-14세	287	15.17(2.53)	
		15-18세	161	15.12(2.43)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14.93(2.42)	-1.468
		여성	762	15.18(2.52)	
	연령	20대	213	14.85(2.61)/a	7.676***
		30대	412	14.78(2.48)/a	
		40대	311	15.59(2.25)/b	
		50대 이상	122	15.42(2.68)/b	
	결혼 여부	미혼	338	15.05(2.62)	-.524
		기혼	720	15.13(2.4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15.22(2.41)	-1.808
		자녀 없음	408	14.93(2.61)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15.93(2.53)/a	31.348***
		2년 이전에 참여	181	15.18(2.33)/b	
		참여경험 없음	550	14.59(2.39)/c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14.85(2.56)	.477
		자주 일어남	596	15.15(2.53)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15.10(2.41)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15.19(2.46)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15.37(2.49)	6.207***
		인지 못함	259	14.29(2.31)	
	신고전화	인지	716	15.51(2.50)	8.052***
		인지 못함	342	14.27(2.25)	

* $p < .05$, ** $p < .01$, *** $p < .001$

각 문항의 합산 점수는 5-20점의 응답범위에서 15.11점으로 나타나 중간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따라 신고효과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직업, 연령, 아동학대 교육참여 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의 경우 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교직과 의료직보다 신고효과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 30대 보다 40대, 50대 이상 집단이 신고효과성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에서는 신고효과성 인식정도가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았고, 이어 2년 이전에 참여한 집단,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신고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인지된 행위통제력¹²⁾

<표 VII-3-53> 인지된 행위통제력 문항 평균

(단위: % / 평균 / 명)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항 평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33.2	57.1	9.4	0.4	3.23
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7	19.0	51.9	27.4	3.05
의심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15.9	49.5	31.9	2.6	2.79
내가 아동학대를 의심할 때 주위에서(동료, 상사 등) 이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1.6	27.0	52.4	19.0	2.89
나는 아동학대 신고방법에 대해 잘 안다	12.9	40.0	35.6	11.5	2.54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	8.9	37.1	45.2	8.9	2.46
나의 전문직 훈련과정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	3.9	36.7	47.4	12.1	2.68
나는 아동학대보다 업무에 더 우선순위를 두며, 이것이 아동학대 신고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1	36.2	45.7	14.1	2.70
전체	100.0(1,058)				

인지된 행위통제력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의미한다. ‘매우 그렇다’를 4점, ‘대체로 그렇다’를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한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데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2, 4, 7, 8번 문항의 경우 역코딩 처리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705로 나타났다.

행위통제력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로 3.23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로 2.46점이었다.

주 12) CARIS 인지된 행위통제력 척도(Feng, 2003)를 김진선 외(2005)가 번안·수정한 척도 활용

<표 VII-3-54> 인지된 행위통제력

(단위: 명 / 평균(SD))

내용			전체	평균(SD)/Duncan	F/t
전체			1,058	22.33(3.39)	
직업적 특성	직업	교직	403	21.53(3.13)/a	60.522***
		의료직	243	21.03(2.85)/a	
		복지시설종사자	322	24.17(3.49)/b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22.84(2.49)/c	
	근무지역	대도시	500	22.09(3.35)/a	3.529*
		중소도시	321	22.35(3.32)/ab	
		농어촌	237	22.80(3.52)/b	
	근무경력	0-4년	314	22.25(3.33)	1.267
		5-9년	285	22.37(3.41)	
		10-19년	258	22.09(3.39)	
		20년 이상	201	22.70(3.43)	
	아동접촉 일수(한 달)	주 5일 이상	745	22.47(3.48)	2.026
		주 2-3회	108	22.20(3.29)	
		주 1회	68	22.40(3.02)	
		2주 1회	41	20.85(2.29)	
		월 1회	75	22.03(3.23)	
		거의 없음	21	21.90(3.51)	
	접촉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22.33(3.44)/ab	3.270*
		6-10세	309	21.87(3.07)/a	
		11-14세	287	22.66(3.58)/b	
		15-18세	161	22.63(3.46)/b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22.50(3.55)	1.038
		여성	762	22.26(3.32)	
	연령	20대	213	22.12(3.25)/ab	8.443***
		30대	412	21.89(3.24)/a	
		40대	311	22.60(3.39)/b	
		50대 이상	122	23.52(3.79)/c	
	결혼 여부	미혼	338	22.38(3.26)	.340
		기혼	720	22.31(3.4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50	22.42(3.43)	-1.036
		자녀 없음	408	22.19(3.33)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22.82(3.78)	1.750
		자주 일어남	596	22.31(3.43)	
		별로 일어나지 않음	328	22.13(3.17)	
		전혀 일어나지 않음	21	23.29(3.04)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24.14(3.50)/a	103.102***
		2년 이전에 참여	181	22.86(3.12)/b	
		참여경험 없음	550	21.08(2.83)/c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22.87(3.39)	10.500***
		인지 못함	259	20.66(2.78)	
	신고전화	인지	716	23.09(3.42)	12.053***
		인지 못함	342	20.74(2.71)	

* $p < .05$, ** $p < .01$, *** $p < .001$

모든 문항을 합산하면 8-32점까지 범주가 발생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2.33점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이 중간 이상의 행위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에 따라 인지된 행위통제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업, 근무지역, 접촉 아동연령, 연령,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지된 행위통제력 정도가 직업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직과 의료직 순을 보였다. 근무지역에서는 농어촌 근무자가 대도시 근무자보다 높았으며, 접촉 아동 연령은 11세 이상인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이 40대, 30대보다 높은 통제력 인식정도를 보였다.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에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집단이 통제력이 가장 높았고, 이어 2년 이전에 참여한 집단,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 순의 인식정도를 보였다. 아동학대 신고제도 혹은 신고전화를 인지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행위통제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 신고활성화 방안

가) 신고율 제고 방안

<표 VII-3-55> 신고율 제고 방안

(단위: % / 명)			
내용	1순위	2순위	전체 순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32.5	13.8	2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17.0	23.1	3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	25.3	31.3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9.5	7.7	5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4.9	4.3	6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9.0	15.6	4
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의무자 법적 처벌 조항 마련	1.4	3.8	7
기타	0.3	0.5	8
전체	100.0(1,058)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문항은 1순위에서는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 32.5%였고, 2순위에서는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이 31.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과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의 홍보 및 교육 강화, 그리고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아동학대신고율 제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체 순위를 매겼을 때,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급한 점

<표 VII-3-5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급한 점

(단위: 명 / %)

내용			전체	법개정, 정책수립	의식변화 제도개선	서비스 기관확충	프로그램 개발교육	전문가 양성	기타	χ^2
전체			1,058	37.9	31.1	16.6	8.1	5.0	1.2	
작업 특성	직업	교직	403	39.2	29.0	17.9	8.2	5.0	0.7	30.102*
		의료직	243	41.2	35.4	14.4	4.1	2.5	2.5	
		복지시설종사자	322	36.6	30.1	15.5	10.6	6.8	0.3	
		사회복지직 공무원	90	27.8	32.2	21.1	10.0	5.6	3.3	
	근무 지역	대도시	500	37.0	32.0	18.2	6.8	4.2	1.8	13.863
		중소도시	321	39.9	28.0	14.3	10.9	6.5	0.3	
		농어촌	237	37.1	33.3	16.5	7.2	4.6	1.3	
	근무 경력	0-4년	314	37.3	29.3	21.3	4.5	6.4	1.3	29.609*
		5-9년	285	41.1	30.5	15.1	8.4	4.9	0.0	
		10-19년	258	33.7	35.7	14.3	11.6	2.7	1.9	
		20년 이상	201	39.8	28.9	14.4	9.0	6.0	2.0	
	아동 접촉 일수 (한 달)	주 5일 이상	745	38.3	30.5	16.8	8.7	4.7	1.1	23.670
		주 2-3회	108	37.0	28.7	16.7	8.3	9.3	0.0	
		주 1회	68	35.3	38.2	8.8	11.8	4.4	1.5	
		2주 1회	41	34.1	34.1	19.5	2.4	7.3	2.4	
		월 1회	75	40.0	32.0	18.7	4.0	2.7	2.7	
		거의 없음	21	38.1	33.3	23.8	0.0	0.0	4.8	
	접촉 아동 연령	5세 이하	301	43.2	28.6	15.0	8.3	3.0	2.0	27.480*
		6-10세	309	33.7	36.6	15.5	8.4	5.2	0.6	
		11-14세	287	40.1	28.6	19.9	5.9	5.2	0.3	
		15-18세	161	32.3	29.8	16.1	11.2	8.1	2.5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96	36.1	34.5	18.2	6.8	4.1	0.3	6.822
		여성	762	38.6	29.8	16.0	8.7	5.4	1.6	
	연령	20대	213	38.0	27.2	18.8	7.0	7.0	1.9	11.250
		30대	412	37.4	33.3	17.2	7.5	3.9	0.7	
		40대	311	38.3	30.9	15.4	9.6	4.2	1.6	
		50대 이상	122	38.5	31.1	13.9	8.2	7.4	0.8	
	결혼 여부	미혼	338	36.7	31.1	16.3	7.1	6.5	2.4	8.344
		기혼	720	38.5	31.1	16.8	8.6	4.3	0.7	
교육 경험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최근 2년 이내 참여	327	38.8	29.4	15.9	10.4	4.6	0.9	13.651
		2년 이전에 참여	181	34.3	29.8	18.8	9.9	7.2	0.0	
		참여경험 없음	550	38.5	32.5	16.4	6.2	4.5	1.8	
	신고전화	인지	716	39.4	30.7	15.2	8.5	5.2	1.0	5.701
학대 관련 인식	학대 발생 정도 인식	매우 자주 일어남	113	42.5	31.0	14.2	6.2	4.4	1.8	4.202
		자주 일어남	596	38.3	31.2	16.4	8.4	4.7	1.0	
		별로 알아나지 않음	328	35.7	30.8	18.0	8.2	5.8	1.5	
		전혀 알아나지 않음	21	38.1	33.3	14.3	9.5	4.8	0.0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799	38.0	31.8	15.4	8.8	5.1	0.9	8.550
		인지 못함	259	37.5	29.0	20.5	6.2	4.6	2.3	
	신고전화	인지	716	39.4	30.7	15.2	8.5	5.2	1.0	5.701
		인지 못함	342	34.8	31.9	19.6	7.3	4.7	1.8	

* $p < .05$, ** $p < .01$, *** $p < .001$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문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개정과 명확한 아동보호 정책 수립’(37.9%),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31.1%),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 기관의 확충’(16.6%) 순의 비율을 보였다.

각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 근무경력, 접촉아동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교직, 의료직, 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개정과 명확한 아동보호 정책 수립’을 가장 우선시 하였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경력에서는 10-19년 경력자 집단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나머지 경력 집단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개정과 명확한 아동보호 정책 수립’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아동 연령이 6-10세인 집단은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나머지 집단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개정과 명확한 아동보호 정책 수립’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명자(2006).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인식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강은숙(2005). 아동 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강점숙·정유석(2002). "부천시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연구." 사회복지리뷰 7: 145-166.
- 강철희·윤민화(2000).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1: 7-42.
- 고영빈(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2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공계순(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9: 7-35.
- 김경호(2006).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1): 23-37.
- 김광혁(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5: 53-74.
- 김상원(2010). 아동기에 경험한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 ICAST-R활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성희(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성희·이재연(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아동과 권리 9(3): 375-391.
- 김세원(2007). 아동학대 재발생의 영향요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소연·윤희미(200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연구논총 7(1): 121-140.
- 김수정·이재연(2011). "아동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학대 신고제도 연구." 아동과 권리 15(1): 21-43.
- 김숙연(2009).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교육 인식조사.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미(1989).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김영지 · 성윤숙 · 김명선.(2009).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김영한(2006). "특수학교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重複・肢體不自由兒教育 48: 1-13.

김영혜 · 윤은영 · 이내영.(2006).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식도 조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0(2): 189-197.

김완진(200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김재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6(7):1-32.

김정립 · 윤혜미(2002).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생활과학연구논총 6(2): 77-93.

오미경 · 김종성 · 박병강 · 오장균 · 이민규 · 김갑중(1999). "한국에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를 통한 알코올리즘의 선별 기준." 가정의학회지 20(9): 1152-1159.

김주연(200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할갈등과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김주영(2008).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김지경(2002).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김지혜(2005). 청소년기 형제자매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김진선 · 박경숙(2005).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2): 211-220.

김형모(200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피학대 아동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5(2): 21-40.

김혜영, 석말숙(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개인 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김혜영, 장화정(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6(2): 269-286.

김혜중(200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응급실 간호사의 인식조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노충래 · 이신옥(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6, 1-28.

노혜련(1992). "아동 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문화적 배경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19: 113-137.

모상현 · 김희진(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생존권 · 보호권 인권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미은(1998). 매 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 박사학위논문.
- 박소영(2008).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박옥주(2005).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의 인식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현숙(2008).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 고려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배화옥(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 성학대 사정도구 개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2010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9). 200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3차년도(2009). 595.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아동학대 사정도구 개발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신현정(1998). "유아 성적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연구." 아동과 권리 2(1): 67-77.
- 안재진(2002).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 학부모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양소남(2007). "아동보호관련 전문가들의 다학문적 협력관계에 관한 인식." 아동과 권리 11(2): 207-230.
- 양영임·우남희(2005).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아동과 권리 9(4): 661-690.
- 여성가족부·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유진 외(2007).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여진주(2010). 아동학대 보호요인의 효과 -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을 중심으로.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혜미(2000). "성인의 체벌용인도와 아동의 체벌경험 및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 한국아동복지학 10(1): 82-106.
- 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윤민화(1999).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윤혜미(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5: 7-38.
- 윤혜미(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1: 393-422.
- 윤혜미(1995).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와 신고제에 대한 학부모 태도조사." 한국아동복지학 3(1): 169-203.
- 윤혜미 · 박병금(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279-301.
- 이경님(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나영(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이미숙(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봉주 · 김광혁(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1(3): 333-359.
- 이봉주, 김세원(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347-373.
- 이봉주 외(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이성혜 (2008).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인식도와 신고의무태도에 관한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숙진 · 신혜령 · 이은주 · 김효진 · 한승희 · 이상희(2006). 한국아동학대실태조사: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시연(2000).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조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 이세용 · 정현희 · 박현선(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서울], 삼성

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영호(2004). "MCMI-3 알코올의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3(1): 253-261.
- 이옥경 · 정규석 · 하정화 · 이혜주(2009).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 [부산], 부산여성가족 개발원.
- 이은혜 · 장영애(1982). "가정환경 자극점사(HOME)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20(1): 49-63.
- 이재연 · 김지윤(200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발견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 보육학 28: 1-18.
- 이재연 ·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한국아동학회 24(2): 63-78.
- 이종화(2007).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4(1): 213-235.
- 이춘화 · 윤옥경 · 진혜전 · 황의갑(2010).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현기(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 이현주, 박소영(2000). "경제위기가 저소득 가구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건사회연구 20(1).
- 이혜란(2007). "유아 성 학대 예방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 육아지원연구 2(2): 59-86.
- 장영애(1984). "가정환경 자극점사(HOME)의 타당화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용." 대한가정학회 22(4): 173-182.
- 장화정(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 정경미 · 이경숙 · 박진아 · 김혜진(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7(3): 689-707.
- 정익중 · 박현선 · 구인회(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정종오(2008).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1996). 초등용 자아개념 검사 개발. 새교육(500).
- 정채옥(200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0: 298-325.
- 정채옥(2002). "유아 교육 기관장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幼兒教育研究 22(1): 185-209.
- 정하진(2010).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특성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경산, 대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아동학대인식조사 보고서. [서울],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채수형(2007). 도시 · 농촌 영유아교사와 어머니의 아동학대인식 비교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 개발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최경일 · 임종호(2010). "아동학대 신고에 관련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研究 26(1): 55-74.
- 최미영(2007). 아동학대와 교사의 신고의무제 인식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최종백(2008). "한국 부모의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연구지동광 104: 1-38.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 1(1): 156-177.
- 하은경 · 박천만(2002). "아동학대실태 및 관련요인: 대구광역시 일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한 보건연구 28(4): 351-362.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서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한연숙(2007). 兒童虐待 申告 活性化 方案에 關한 研究.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한인영 외(2007). "아동의 신체 학대에 대한 가족기능의 영향." 아동권리연구 11(1): 77-100.
- 한지혜 · 전우천(2010). "초등학생 온라인 게임 중독 완화를 위한 덕 교육 기반 교육용 게임의 개발과 적용." 정보교육학회 14(4): 589-603.
- 한혜경(2006). "노인복지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적합성 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노년학 26(4): 767-783.
- 허남순(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5): 209-230.
- 홍강의 외(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홍순옥 · 이옥경(2010). "초등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교육 19(3): 75-90.
- 홍현정(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2).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Test Manual.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shton, Vicki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and the perception and reporting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5(3). 389-399.
- Baldwin, K. (2001). Battered child syndrome as a sword and a shield.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29, 59-82.
- Barlow, J. & Stewart-Brown, S. (2003). Why a Universal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578-599.
- Baumrind, D. (1994). "The social context of child maltreatment". *Family Relations*. 43(4), 360-368.
- Berger, L. M. & Brooks-Gunn. (2005).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knowledge and behaviors, and perceived maltreatment of young low-birth-weight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June. 237-267.
- Berger, L. M. (2004). "Income, family structure, and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725-748.
- Berger, L. M. (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9, 107-133.
- Black, D. A., Heyman, R. E., & Smith-Spep, A. M. (2001). Risk factor for child physical abus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2/3), 121-188.
- Chilamkurti, C., & Milner, J. S. (1993).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child transgressions and disciplinary techniques in high- and low- risk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Development*. 64, 1801-1814.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8). What is Child Abuse and Neglect? Available online at: <http://www.childwelfare.gov/pubs/factsheets/whatiscan.pdf>
- Cicchetti, D. & Aber, J. L. (1980). "Abused children abusive parents: An overstated case?".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244-255.
- Cynthia, C. T. (2010).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8th Ed). Prentice Hall.
- Delaronde, S., King, G., Bendel, R., Reece, R. (2000). Opinions among mandated reporters toward child maltreatment reporting policies. *Child abuse & Neglect*. 24(7), 901-910.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English, D.J. (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8, 39-53.
- Euser, E. M., van IJzendoorn, M. H., Prinzie, P., & Bakermans-Kranenburg, M. J. (2010). Prevalence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Netherlands. *Child Maltreatment*, 15(1), 5-17.
- Feng, J. Y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 Floyd, Gilliom, Costigan (1998).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 Fox, S., & Dingwall, R. (1985). An exploratory study of variations in social works' and health visitors' definitions of child mistreat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er*, 15, 467-477.
- Garbarino, J.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721-735.
- Garbarino, J. & Gilliam, G. (1980). *Understanding abusive familie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Gelles, R J. (1992). "Poverty and violence toward childre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3), 258-274.
- Gelles, R., & Straus, M. A.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 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Gil, D. G. (1975). *Unraveling child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 346-356.
- Gilbert, R., Kemp, A., Thoburn, J., Sidebotham, P., Radford, L., Glaser, D., MacMillan, H. (2009).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child maltreatment*, *Lancet*. 373(9658), 167-180.
- Gresham & Elliot (2008).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Minneapolis: NCS Pearson Inc.
- Grossman, F. K. (1972). *Brothers and sisters of retarded 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Howes, P. W., Cicchetti, D., Toth, S., & Rogosh, F. A. (2000). *Affective, organiza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ing families : A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95-110.
-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2008).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8th Edition*.
- Jasmine S. Chan, Yvonne Chow, John M. Elliott. (2000). *Professional and Public Perceptions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in Singapore*. Singapore Children's Society.
- Kaiser, K., & Berry, S. (1988). *Child abuse: Definition, reporting, stereotypes; A survey of Butte county California reside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31, 59-74.
- Knutson J. K. (1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 Puni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401-431.
- Kolko, D. J. (1992).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2), 244-276.
- Leslie, D. R., C. M. Holzhalb, et al. (1998). "Measuring Staff Empowerment: Development of a Worker Empowerment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8(2), 212-222.
- Loos, M., & Alexander, P. C. (1997). *Differential effects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histories of physical abuse, verb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340-360.
- May-Chahal, C., & Cawson, P. (2005). *Measuring child maltreatment in the United Kingdom: A study of the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 969-984.
- McGuigan, W.M., & Pratt, C.C. (2001). *The predictiv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thre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5, 869-883.

- NAPCAN. (2010). "Help Break Down the Wall" Community Attitudes Survey. Report to the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 NSCAW Research Group. (2002). Methodological lesson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USA's First National probability study of children and families investigated for abuse and neglec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 513 - 541.
-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82).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Family Inventory.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Publishing.
- Parker, G. Tupling, H., and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1), 1-10.
- Plotnik, R. D. (2000). Economic securit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P. J. Pecora, J. K. Whittaker, A. N. Maluccio, & R. P. Barth(Eds),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95-127.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yan, J. P. and M. F. Testa. (2005). "Child maltreat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Investigating the role of placement and placement instabi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3), 227-249.
- Runyan, D., Dubowitz, H., English, D. J., Kotch, J. B., Litrownik, A., Thompson, R., & The LONGSCAN Investigator Group (2010). Longitudinal Studi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LONGSCAN) Assessments 0-12.
- Sampson, R. J., S. W. Raudenbush, et al.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007).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62nd session, New York.
- Straus, M. A and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 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 Straus, M. A., Hamby, S. L., McCoy, S. B.,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 249 - 270.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for Child Abuse and Neglect (2010). *World Perspectives on Child Abuse 2010*. 9th edition.
- Trocmé, N. M., MacLaurin, B., Fallon, B., Daciuk, J. F., Tourigny, M., & Billingsley, D. A. (2001). Canadian incidence survey of 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Methodology.

-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4), 259-263.
- Troc  , N. M., Tourigny, M., MacLaurin, B., & Fallon, B. (2003). Major findings from the Canadian incidence survey of 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7, 1427-1439.
- Turner, H. & Finkelhor, D. (2007). Developmental Victimization Survey(DVS).
- VanBergeijk, E. O. (2000). Designated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Doctori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Walsh, C., MacMillan H., & Jamieson, E.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iatric Disorder and Child Physical and Sexual Abuse: Findings from the Ontario Health Supplement. *Child Abuse & Neglect*, 26, 11-22.
- Whipple, E. E., & Wegbster-Stratton, C. (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Q Neglect*, 15, 279-291.
- Widom, C. S. (1989). Does violence beget viol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6, 3-28.
- Windle & Lerner (1986). Ressessing the dimension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213-230.
- Zingraff, M. T., J. Leiter, et al. (1993). "CHILD MALTREATMENT AND YOUTHFUL PROBLEM BEHAVIOR." *Criminology* 31(2), 173-202.

첨 부

【첨부】 매우 심각한 학대 발생률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기준을 제한적 기준과 포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한적 기준은 많은 전문가들이 학대라고 동의하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한 것이고, 포괄적 기준은 제한적 기준에서 더 나아가 학대의 요소가 포함된 양육방식까지 포괄한 기준으로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정한 것이다. 제한적 아동학대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학대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심각한 학대’들이 포함되어 있고, 포괄적 기준에는 ‘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제한적 기준에서 제시한 ‘심각한 학대’ 중에서도 시급히 개입을 요하는 ‘매우 심각한 학대’의 발생률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나. 매우 심각한 학대 산정기준

매우 심각한 학대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원칙도의 분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는 각 항목에 행동의 강도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 항목들은 경미한(minor) 학대, 심각한(severe) 학대, 매우 심각한(very severe) 학대 등으로 나누어진다(Straus et al., 1998). 단, 매우 심각한 학대는 신체적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분류이며, 전체 문항 중 여기에 포함되는 문항은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등의 4문항이다(<표 A-1-1> 참고).

둘째, 전문가들의 문항별 학대 동의율이다. 전문가들의 학대 동의율을 보면 그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준의 동의율을 보인다. 동의율과 심각도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심각한 학대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갖지 않고 학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동의율을 기반으로 심각한 항목을 선별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원칙도에서 매우 심각한 학대로 분류된 항목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학대 동의율은 98.5%-9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심각한 학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 학대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항목들을 매우 심각한 학대로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98% 이상의 동의율을 보이는 항목은 원칙도의 4가지 항목과 제한적 기준의 2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총 6가지 항목이다. 2가지 추가되는 문항은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등이었고 동의율은 각각 98.5%와 99.0%였다(<표 A-1-2> 참고). 따라서 전문가들의 동의율을 기준으로 선정한 항목은 모두 6문항이었고,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 매우 심각한 학대 발생률을 산정할 것이다. 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매우 심각한 학대 발생률은 원칙도의 4항목이 반영되었을 때와 원칙도의 4항목과 동의율이 높은 2가지 항목을 합하여 6항목이 반영되었을 때 등으로 분류할 것이다.

다음은 앞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학대 산정 항목을 심각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는 심각한 학대와 매우 심각한 학대를 제외한 문항은 편의상 경미한 학대로 구분하였다. 경미한 학대의 구분은 학대의 심각성이 덜하다는 것이지 중요성이 덜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경미한 학대 역시 다른 학대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A-1-1> 아동학대 발생률 산정 항목

	학대의 심각성 구분				
	원칙도		아동학대실태조사		
	심각한 학대	매우 심각한 학대	경미한 학대	심각한 학대	매우 심각한 학대
정서적 학대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			○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		○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			○	
신체적 학대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		
벨트, 빗, 막대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		
아이를 꼬집었다			○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	
벨트, 빗, 막대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		○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				○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				○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			○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			○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			○
방임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주 1) 경미한 학대는 아동학대의 위험요소가 있는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표 A-1-2> 학대항목별 전문가의 학대 여부 인식: 신체적 학대

(단위: % / 명)

구분	내 용	소속분야	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	전체
가벼운 학대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실무자	55.6	3.7	40.7	100.0(108)
		학계	54.8	8.6	36.6	100.0(93)
		전체	55.2	6.0	38.8	100.0(201)
	벨트, 밧, 막대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실무자	81.5	0.9	17.6	100.0(108)
		학계	82.8	1.1	16.1	100.0(93)
		전체	82.1	1.0	16.9	100.0(201)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린 행위	실무자	66.7	2.8	30.6	100.0(108)
		학계	65.6	3.2	31.2	100.0(93)
		전체	66.2	3.0	30.8	100.0(201)
	아이를 꼬집은 행위	실무자	67.6	1.9	30.6	100.0(108)
		학계	72.0	4.3	23.7	100.0(93)
		전체	69.7	3.0	27.4	100.0(201)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실무자	65.7	2.8	31.5	100.0(108)
		학계	66.7	5.4	28.0	100.0(93)
		전체	66.2	4.0	29.9	100.0(201)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실무자	95.4	0.9	3.7	100.0(108)
		학계	91.4	0.0	8.6	100.0(93)
		전체	93.5	0.5	6.0	100.0(201)
심한 학대	벨트, 밧, 막대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린 행위	실무자	85.2	1.9	13.0	100.0(108)
		학계	87.1	0.0	12.9	100.0(93)
		전체	86.1	1.0	12.9	100.0(201)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실무자	99.1	0.9	0.0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9.0	0.5	0.5	100.0(201)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실무자	98.1	0.9	0.9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8.5	0.5	1.0	100.0(201)
아주 심한 학대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팬 행위	실무자	98.1	0.9	0.9	100.0(108)
		학계	100.0	0.0	0.0	100.0(93)
		전체	99.0	0.5	0.5	100.0(201)
	아이의 목을 잡고 조른 행위	실무자	98.1	0.0	1.9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8.5	0.0	1.5	100.0(201)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한 행위	실무자	99.1	0.9	0.0	100.0(108)
		학계	100.0	0.0	0.0	100.0(93)
		전체	99.5	0.5	0.0	100.0(201)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 행위	실무자	99.1	0.9	0.0	100.0(108)
		학계	98.9	0.0	1.1	100.0(93)
		전체	99.0	0.5	0.5	100.0(201)

다. 분석 결과

앞에서 논의한 기준을 통하여 매우 심각한 학대 발생률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A-1-3> 매우 심각한 학대 누적 발생률

(단위: %)

	유형구분		문항	발생률	
	원천도	아동학대 실태조사		개별문항	누적
1	매우 심각	매우 심각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0.7	0.7
2	매우 심각	매우 심각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0	1.3
3	매우 심각	매우 심각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4	2.2
4	매우 심각	매우 심각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2.1	3.5
5	심각	매우 심각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3.6	4.8
6	심각	매우 심각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0.9	5.0

주 1) 만 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발생률

2) n=4,965명

매우 심각한 학대의 발생률은 개별 문항의 발생률과 각 문항들의 누적 발생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문항 발생률의 총합이 누적 발생률과 다른 것은 중복 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먼저 Straus et al.(1998)에서 '매우 심각한 학대'로 구분한 4개의 항목들만으로 산출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의 학대 동의율이 높은 문항들을 포함하여 6개의 항목들로 산출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5.0%였다.

<표 A-1-4> 매우 심각한 학대 중복 발생 정도

(단위: 명 / %)

	발생빈도	발생비율
단일발생	179	3.6
2개 중복	39	.8
3개 중복	17	.3
4개 중복	5	.1
5개 중복	9	.2
합계	250	5.0

주 1) 총 4,965명 중에서의 발생빈도 및 비율

다음으로 6가지의 매우 심각한 학대 항목들 중에서 중복으로 발생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총 5.0%의 발생률 중 1가지만 발생한 경우는 3.6%였다. 2개의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0.8%였고, 3가지의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0.3%, 4가지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0.1%였다. 마지막으로 5개의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0.2%로 전체 4,965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6개 모두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구전담기관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조사대행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년 아동 양육 실태조사 (주 양육자용) - 일반가구조사

ID	_____	Card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실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가족의 행복한 삶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 재 진

조사
대행
기관

nielsen 닐슨컴퍼니코리아

홈페이지: <http://kr.nielsen.com> / 조사문의 전화: 02-2122-7262 / 조사문의 E-mail: Hyejung.Jung@nielsen.com

★ 면접원 기입사항 (방문일지 확인) ★

부스터 가구 여부	1. 비해당 2. 해당	가구명부 번호					가구 번호		
시·도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응답자 이름	연락처 (예. 031-123-1234 / 010-1234-1234)		() - () - ()						

▼ 설문 시작

Q1) 현재 귀 닥의 가구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사정상(직업, 학업, 입대 등) 따로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 동거인(가사도우미 등)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이란 혈연/혼인/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을 말하며, 만약 아동의 부모에 한해 별거 또는 이혼으로 따로 살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재혼가정은 제외)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

I.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 현재 귀댁의 전체 가족(사정상 따로 살고 있는 가족도 포함)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이 있다고, 이름, 성별, 생년월에 관한 정보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가족'이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번호 01에는 조사대상 아동(만 18세 미만 아동 중 다가오는 생일이 가장 빠른 아동)에 대한 정보를, 가구원 번호 02에는 주양육자에 대한 정보, 가구원 번호 03부터 그 외의 가구원(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정보를 차례대로 기입함.

가구원 번호	Q2) 조사대상 아동과의 관계	Q3) 이름	Q4)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건강상태		Q11) 결혼 상태	Q12) 경제활동 분야	Q13) 동거 여부	Q14) 비동거 사유
				Q5) 양/음력 여부	Q6) 년 / 월 / 일 (모름/무응답 시 '9999' 또는 '99' 입력)	Q7) 최종학교	Q8) 졸업여부	Q9) 장애/질병여부	Q10) 장애 등급				
01	0 1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2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3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4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5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6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7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8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09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10				1. 양력 2. 음력	년 월 일								

조사대상 아동과의 관계	성별	최종학교	졸업여부	장애/질병여부	장애 등급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동거여부	비동거 사유
							1) 자영업자 2) 고용주 3) 상용직 임금근로자 4) 임시직 임금근로자 5) 일용직 임금근로자 6) 자영업자 및 중장년로	7) 무급가족종사자 8) 무직 (지난 4주간 최주적으로 구직활동중인 자) 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인 등) 10) 비활동인 14세 이하		
01) 아동 본인	1) 남자 2) 여자	1) 미취학 2) 무학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대학교(3년제 이하) 7) 대학교(4년제 이상) 8) 대학원 이상 9) 모름/무응답	1) 재학 2) 중퇴 3) 휴학 4) 졸업 5) 비활동(미취학/무학) 6) 모름/무응답	1) 장애 있음 2) 장애 없음 3) 장애와 질병 4) 없음 5) 모든것을	1)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별거 5) 이혼 6) 비혼(만 14세 이하)	1) 자영업자 2) 고용주 3) 상용직 임금근로자 4) 임시직 임금근로자 5) 일용직 임금근로자 6) 자영업자 및 중장년로	7) 무급가족종사자 8) 무직 (지난 4주간 최주적으로 구직활동중인 자) 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인 등) 10) 비활동인 14세 이하	1) 동거 2) 비동거	1) 이혼 및 별거 2) 직장 때문에 3) 학업 때문에 4) 임대(병역의무) 5) 기타 6) 비혼 7) 모름/무응답

※ 조사대상 아동의 부모와 관련되어 아래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Q16) 친부모 여부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날 넘어갈. / Q17) 결혼이민자 여부에서 '1. 결혼이민자인'에 응답된 경우만 Q18) 출신국가에 응답함.

Q15) 결혼 년도	Q16) 친부모 여부	Q17) 결혼 이민자 여부		Q18) 출신 국가	
		부	모	부	모
<div> <div> <div>□□□□</div> <div>년</div> </div> <div> <div>□□□□</div> <div>월</div> </div> <div> <div>□□□□</div> <div>일</div> </div> </div> (모름/무응답 시 '9999' 입력)		1. 친부 3. 모름/무응답	2. 양부	1. 결혼이민자인 2. 결혼이민자 아님	1. 중국(조선족, 한족) 2. 베트남 3. 일본 4. 몽골 5.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 6. 필리핀 7. 기타

II. 가정생활 영역

※ 조사대상 아동의 이름을 OO(이)로 하여 질문합니다.

1. 임신과 출산

Q19) OO(이)는 조산(37주 이하)으로 태어났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름/무응답

Q20) OO(이)는 출생 직후 신생아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만약 신생아 입원실이나 집중치료실에서 24시간 미만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로 입력함.

1. 아니오 → Q22)으로 갈 것
2. 황달, 설사 등으로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3.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4. 모름/무응답 → Q22)으로 갈 것

Q21) (그렇다면) 몇 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까? 일

Q22) OO(이)의 출생 시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 kg
모르거나 기억이 잘 안 날 경우 9.9로 입력함.

Q23) 사람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다음은 OO(이)를 임신했을 때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댁에서는 OO(이)의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라셨습니까?

1. 아이의 어머니만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람 3. 부모 모두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람
2. 아이의 아버지만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람 4. 부모 모두 임신을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음

2. 아동 특성

Q24) 현재 OO(이)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몸무게 kg ② 키 cm ③ 마지막 측정시기 년 월

Q25) OO(이)는 예방접종을 제때 했습니까? ★ OO(이)의 현재 나이가 1세~10세인 경우만 응답함.

1. 필수항목 중 하지 못한 것이 있다 3.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다 했다
2. 필수항목은 하였으나, 선택항목은 하지 못한 것이 있다 4. 모름/무응답

< 성장 기간별 예방접종 필수항목 및 선택 항목 >

시기	0개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국가 필수 예방접종	결핵(파내용,1회), B형간염(총3차),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총3차), 폴리오(총3차)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추1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수두(1회), 일본뇌염(총3차)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추1차), 폴리오(추1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일본뇌염(1회)		폴리오(1회), 일본뇌염(1회)	
기타 예방접종	결핵(경피용, 1회), B형해모필루스인플루엔자 뇌수막염(총3차), 폐구균(총3차), 로타바이러스(총3차) 디폴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총3차)					일본뇌염(총 2차), B형해모필루스인플루엔자뇌수막염(1회), A형간염(총2차), 폐구균(1회)					일본뇌염(추1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추1회), 인유두종바이러스(3회), 디폴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추1회)			

Q26) OO(이)는 지난 1년 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29)으로 갈 것

Q27) (입원 경험이 있다면) 그럼, 지난 1년 간 몇 번 입원하였습니까? 번

Q28) (입원 경험이 있다면) 그럼, OO(이)가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지병/질병 | 5. 요양/휴식 |
| 2. 사고 | 6. 성·정형/교정 |
| 3. 출산 | 7. 기타 |
| 4. 건강검진 | |

Q29) OO(이)는 지난 1년 간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32)으로 갈 것

Q30)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럼, 지난 1년 간 응급실에 간 횟수는 몇 번입니까? 회

Q31)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럼, OO(이)가 응급실에 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Q32) OO(이)는 지난 1년간 치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Q33) 다음 각각의 항목을 읽고 OO(이)가 지난 두 달 동안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이) 생일이 양력 93년 7월 2일~08년 7월 1일(음력 93년 5월 13일~08년 5월 28일)인 경우만 응답

항 목	전혀 없었음	드물게 있었음	종종 있었음	거의 항상 있었음
1)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2) 다른 사람들을 자기(우리아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든다	1	2	3	4
3)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1	2	3	4
4) 생각 없이 행동한다	1	2	3	4
5)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1	2	3	4
6) 불끈 화를 잘 낸다	1	2	3	4
7) 또래를 괴롭힌다	1	2	3	4
8) 어른에게 말대꾸를 한다	1	2	3	4
9) 약속이나 규칙을 어긴다	1	2	3	4
10)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지 못하다	1	2	3	4
11) 게임이나 다른 활동에서 반칙을 한다	1	2	3	4
12)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	1	2	3	4
13)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혀 있다	1	2	3	4
14)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다	1	2	3	4
15)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불안해한다	1	2	3	4
16)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	2	3	4
17)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1	2	3	4
18)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19) 쉽게 창피해 한다	1	2	3	4
20)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	1	2	3	4
21) 외로워한다	1	2	3	4
22) 식사에 문제가 있다	1	2	3	4

Q34) 귀하는 또래들에 비해 OO(이)를 양육하는 것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1. 양육하기 쉬운 편이다 2. 보통이다 3. 양육하기 어려운 편이다

3. 부모-자녀 관계

Q35) ○○(이)를 돌보는 데 있어 ○○(이)의 부모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 도움 주시는 분에게 양육에 대한 사례로 현금 또는 현물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있다 2. 없다 → Q41)으로 갈 것

Q36) (○○(이)의 부모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도움을 주시는 분은 총 몇 명입니까? 명

※ (○○(이)의 부모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도움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고, 도움을 받는 시간은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 면접원 : 앞의 Q2와 Q13 응답내용 확인
Q38)에서 '1. 동거' 인 경우 Q40)만, '2. 비동거' 인 경우 Q39), Q40) 모두 응답함.

구분	Q37) 도움을 주시는 분* (아래 보기항목 중 해당번호 입력)	Q38) 동거여부	Q39) 집으로부터 몇 분 거리에 거주	Q40) 주당 평균 도움받는 시간
1		1. 동거 2. 비동거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2		1. 동거 2. 비동거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3		1. 동거 2. 비동거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4		1. 동거 2. 비동거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5		1. 동거 2. 비동거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주당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 도움을 주시는 분

- | | | |
|----------|-----------------|-----------------------------|
| 1. 친할머니 | 4. 외할아버지 | 7. 친구 또는 이웃 |
| 2. 친할아버지 | 5. 아동의 순위 형제·자매 | 8.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
| 3. 외할머니 | 6. 기타 친인척 | 9. 기타 |

Q41) 다음은 부모(양육자) 노릇에 대한 주 양육자 분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이)를 키우면서 주 양육자 분께서 평소에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양육자)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부모(양육자) 노릇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는 않다	1	2	3	4
3) 부모(양육자) 노릇은 나를 지치고 진뻐지게 한다	1	2	3	4
4) 좋은 부모(양육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아서,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더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6)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1	2	3	4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걱정이다	1	2	3	4
8) 부모(양육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1	2	3	4
9)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양육자)가 될 것 같지 않다	1	2	3	4
10) 때로는 아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11) 부모(양육자)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의 하나이다	1	2	3	4
12) 부모(양육자) 노릇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1	2	3	4
13) 내가 아는 다른 부모(양육자)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14)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과 훈육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15) 아이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Q42)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요. ★ OO(이)의 현재 나이가 8세 이상인 경우만 응답

문 항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OO(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2) OO(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1	2	3	4
3) 내가 집에 없을 때 OO(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4) OO(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한다	1	2	3	4
5) OO(이)와 이야기 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1	2	3	4
6) OO(이)와 이야기 할 때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1	2	3	4
7) OO(이)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 준다	1	2	3	4
8) OO(이)가 집에서 학교숙제를 할 때,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 준다	1	2	3	4

Q43) 귀하 본인과 귀하의 배우자는 주중 하루 평균 OO(이)와 얼마나 함께 놀아줍니까?
아래의 번호를 골라 귀하 본인과 귀하의 배우자 각각 해당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십시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 '6. 비해당'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 체	전혀 놀아주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비해당
본인(주양육자)	1	2	3	4	5	6
배우자	1	2	3	4	5	

Q44) 귀하는 OO(이)를 훈육할 때 다음의 방법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문항 ★ OO(이)의 현재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1) 신체적 처벌	1	2	3	4
2) 벌 세우기	1	2	3	4
3) 말로 야단치기	1	2	3	4
4) 장난감이나 게임기 사용 제한하기	1	2	3	4
5)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선물, 말로 칭찬, 칭찬스티커 주기 등)	1	2	3	4

문항 ★ OO(이)의 현재 나이가 14세 이상인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1) 신체적 처벌	1	2	3	4
2) 벌 세우기	1	2	3	4
3) 말로 야단치기	1	2	3	4
4) TV나 인터넷, 게임기 사용 제한하기	1	2	3	4
5)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선물, 말로 칭찬, 칭찬스티커 주기 등)	1	2	3	4

4. 부모(주양육자)의 특성

Q45) 현재 OO(이) 부모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면접원 : 앞의 Q2와 Q11 응답내용 확인

- ☐ 1. 배우자 있음 → Q48)으로 갈 것
☐ 2. 미혼
☐ 3. 별거
☐ 4. 이혼
☐ 5. 사별
☐ 6. 부모 모두 안 계심 → Q48)으로 갈 것
☐ 7. 모름/무응답 → Q48)으로 갈 것

Q46) (미혼/별거/이혼/사별의 경우) 혼자 OO(이)를 양육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Q45)에서 '5. 사별'인 경우 응답 후 Q48)으로 갈 것

Q47) (미혼/별거/이혼의 경우) OO(이)는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름/무응답

Q48) 귀하는 지난 1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나는.....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2)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3)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9) 마음이 슬펐다	1	2	3	4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1	2	3	4

Q49) 다음 각 문장에 대하여 귀하께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1	2	3	4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1	2	3	4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1	2	3	4

Q50) 지난 1개월 간 귀하께서 생활하면서 겪고 느꼈던 상황에 대해 다음 각각의 항목 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나는.....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상당히 자주 있었다
1)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혼란스러웠던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2) 생활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3) 신경질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4)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데 능숙하게 잘 처리한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5)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간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6)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7)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화(짜증)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8)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간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9)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로 화(분노)가 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10) 자신이 극복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1	2	3	4	5

5. 부부 관계 ★ Q51)에서 Q54)까지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Q51)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나는.....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비교적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2	3	4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2	3	4
3) 귀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2	3	4
4)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2	3	4

Q52)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1	2	3	4
2) 남편(아내)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3) 남편(아내)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4) 남편(아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1	2	3	4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1	2	3	4

Q53) 귀하는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이전에도 배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회	지난 1년간 3~5회	지난 1년간 6~10회	지난 1년간 11~20회	지난 1년간 20회 이상	지난 1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일어났음
1)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1	2	3	4	5	6	7
2)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1	2	3	4	5	6	7
3)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	2	3	4	5	6	7
4)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	1	2	3	4	5	6	7
5)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6) 목을 조르는 행위	1	2	3	4	5	6	7
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1	2	3	4	5	6	7
8)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1	2	3	4	5	6	7
9) 물건(책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10)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11)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1	2	3	4	5	6	7
12)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1	2	3	4	5	6	7
13) 수입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1	2	3	4	5	6	7
14)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	2	3	4	5	6	7
1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를 데려가지 않는 행위	1	2	3	4	5	6	7
16)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	2	3	4	5	6	7
17)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	2	3	4	5	6	7

Q54) 귀하는 지난 1년 간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이전에도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회	지난 1년간 3~5회	지난 1년간 6~10회	지난 1년간 11~20회	지난 1년간 20회 이상	지난 1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일어났음
1)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1	2	3	4	5	6	7
2)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1	2	3	4	5	6	7
3)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	2	3	4	5	6	7
4)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는 행위	1	2	3	4	5	6	7
5)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6) 목을 조르는 행위	1	2	3	4	5	6	7
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1	2	3	4	5	6	7
8)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1	2	3	4	5	6	7
9) 물건(책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10)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11)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1	2	3	4	5	6	7
12)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1	2	3	4	5	6	7
13) 수입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1	2	3	4	5	6	7
14)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	2	3	4	5	6	7
1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를 데려가지 않는 행위	1	2	3	4	5	6	7
16)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	2	3	4	5	6	7
17)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	2	3	4	5	6	7

III. 가정환경 영역

1. 사회적 지지

Q55)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자녀,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 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6) 큰 일(잔치, 감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가는 사람이 있다	1	2	3	4

2. 일상 안전생활 습관

- ✓ 조사대상 아동이 영유아(미취학아동)인 경우 Q56부터 Q64까지 응답 후 Q68으로 갈 것
- ✓ 조사대상 아동이 초등학교(학교를 안 다닐 경우 현재 나이 8~13세)인 경우 Q65으로 갈 것
- ✓ 조사대상 아동이 중학교, 고등학교(학교를 안 다닐 경우 현재 나이 14~19세)인 경우 Q72으로 갈 것

★ 조사대상 아동이 영유아(미취학아동)인 경우(Q56~Q64)

Q56) 지난 6개월 간 OO(이)가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었다 2. 가끔 있었다 3. 자주 있었다

Q57) 귀하는 OO(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키고 계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위험한 물질(약품, 물건, 화기 등)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1	2	
2) 카시트를 사용합니까? (자동차가 없을 경우 '3. 해당없음'에 체크)	1	2	3
3) 외출 시 성인이 동반합니까?	1	2	
4) 아이 앞에서 흡연을 하십니까? (흡연을 하지 않을 경우 '3. 해당없음'에 체크)	1	2	3

※ 지난 6개월 간 귀하는 다음 각각의 상황에 따라 OO(이)를 얼마 동안 혼자 둔 적이 있으십니까?

Q58)에서 3, 4 응답자만 Q59) 응답(평균적으로 한 번 혼자 둔 시간으로 입력)

문 항	Q58) OO(이)를 혼자 둔 적이...					Q59) 혼자 둔 시간(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종종 있다	자주 있다	해당 없음	
1) 아이가 방안에 혼자 있고, 보호자는 집안 내에 다른 방에 있는 경우	1	2	3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2) 아이가 욕조에 혼자 있고, 보호자는 집안 내에 다른 방에 있는 경우	1	2	3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3) 아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경우	1	2	3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4) 주차된 자동차 안에 아이를 놓고 내린 경우 (자동차가 없을 경우 '5. 해당없음'에 체크)	1	2	3	4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5) 집 근처 공원이나 놀이터에 아이가 놀고 있는 경우	1	2	3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

다음은 보육이나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현재 다음 각각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모두에 대해 이용 횟수와 시간 등을 응답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시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 혹은 서비스에 한해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시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기관은 횟수 및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입력함.

(ex : 학원을 3곳 다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응답)

Q62)에서 주당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 로 입력함.

구 분		Q60) 이용여부		Q61) 주당 이용횟수	Q62) 주당 이용시간
		이용	비이용		
보육 시설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어린이집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② 민간어린이집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③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 하는 놀이방)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④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⑥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민간 학원 및 사교육	⑦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포함)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⑧ 개인·그룹 과외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⑨ 학습지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⑩ 기타 시간제 기관(복지관, 문화센터 등)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개인 대리 양육	⑪ 친·인척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⑫ 이웃이나 지인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⑬ 베이비시터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⑭ 기타	1	2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시간

Q63) 기관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이)는 주로 낮시간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만약 기관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평소 낮시간에 어디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 집
2. 돌보아주는 사람(친척, 베이비시터 등) 집
3. 상가, 놀이터 등 집 밖
4. 기타

Q64) 기관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평소 ○○(이)는 주로 누가 돌보아주고 계십니까? 만약 기관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평소 주로 누가 돌보아주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 부모님
2. 형제자매
3. 친척, 친지
4. 할머니, 할아버지
5.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가사도우미, 파출부)
6. 이웃집
7. 베이비시터
8. 기타

▶ 응답 후 Q68)으로 갈 것

★ 조사대상 아동이 초등학생(학교를 안 다닐 경우 현재 나이 8~13세)인 경우(Q65~Q67)

※ 다음은 사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현재 다음 각각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모두에 대해 이용 횟수와 시간 등을 응답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시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 혹은 서비스에 한해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시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기관은 횟수 및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입력함.

(ex : 학원을 3곳 다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응답)

Q67)에서 주당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 로 입력함.

구 분		Q65) 이용여부		Q66) 주당 이용횟수	Q67) 주당 이용시간
		이용	비이용		
민간 학원 및 사교육	① 학원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② 개인·그룹 과외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③ 학습지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④ 공부방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학교 및 사회 복지 관련 기관	⑤ 방과후 학교(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 하고 특기적성 교육 등을 하는 경우)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⑥ 방과후 보육(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⑦ 지역아동센터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⑧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개인 대리 양육	⑨ 친·인척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⑩ 이웃이나 지인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⑪ 베이비시터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⑫ 기타	1	2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시간

Q68) 평일(방과 후에) ○○(이)가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가 일주일에 몇 일이나 됩니까?

1. 거의 없다 → Q70으로 갈 것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Q69) 평일(방과 후에) ○○(이)가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1. 1시간 미만 2. 1-2시간 정도 3. 3-4시간 정도 4. 4시간 이상

Q70) 주말(토요일휴업일, 일요일)에 ○○(이)가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한 달에 몇 일이나 됩니까?

1. 거의 없다 → Q72)으로 갈 것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주

Q71) 주말(토요일휴업일, 일요일)에 ○○(이)가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1. 1시간 미만 2. 2-4시간 정도 3. 5-7시간 정도 4. 8시간 이상

Q72) 귀하와 OO(이)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됩니까? 시간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함께 있는 시간도 포함되며, 수면시간은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을 말함.

Q73) 귀하는 지난 1년 간 동네 사람들의 동네 아이들에 대한 훈육 경향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이사한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주거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 것이다	약간 그렇 것이다	거의 안 그렇 것이다	전혀 안 그렇 것이다	모름/ 무응답
1) 동네 아이들이 만약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거리를 배회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2) 동네 아이들이 만약 어른들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3) 동네 아이들이 만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4) 동네 아이들이 만약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Q74) 귀하는 지난 1년 간 동네 사람들의 경향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이사한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주거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적극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할 것이다	1	2	3	4	5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친한 편이다	1	2	3	4	5
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만하다	1	2	3	4	5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잘 못 어울린다	1	2	3	4	5
5)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삶의 가치나 관점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IV. 아동 양육실태 ★ Q75)~83)까지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Q75) 귀하는 지난 1년간 OO(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거나 당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1	2	3	4	5	6	7
2)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3) 아이를 잡고 혼냈다	1	2	3	4	5	6	7
4)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5)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4	5	6	7
6)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7)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8)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9)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4	5	6	7
10)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11)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쳤다	1	2	3	4	5	6	7
12)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4	5	6	7
1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4	5	6	7
14)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4	5	6	7
15)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1	2	3	4	5	6	7
16)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17)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	2	3	4	5	6	7
18) 아이를 꼬집었다	1	2	3	4	5	6	7
19)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20)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4	5	6	7
21)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1	2	3	4	5	6	7
22)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Q76) 지난 1년간 금전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일 문제 등으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6	7
2)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1	2	3	4	5	6	7
3)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2	3	4	5	6	7
4) 아이가 이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	2	3	4	5	6	7
5)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1	2	3	4	5	6	7

Q77) 가끔씩은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지난주에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주에 한 번	지난주에 두 번	지난주에 3-5번	지난주에 6-10번	지난주에 11-20번	지난주에 20번 넘게
1)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2)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3)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4)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 다음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귀하의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Q78) 지난 1년간 OO(이)가 귀하의 배우자를 화나게 하거나 당황케 했을 때 배우자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 간 일어난 적이 있었음	지난 1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1	2	3
2)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3)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5)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6)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7)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8)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9)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10)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11)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1	2	3
12)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1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14)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15)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1	2	3
16)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17)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	2	3
18) 아이를 꼬집었다	1	2	3
19)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20)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21)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1	2	3
22)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Q79) 마찬가지로 동일한 항목에 대해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배우자가 금전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일 문제 등으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배우자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 간 일어난 적이 있었음	지난 1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2)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1	2	3
3)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2	3
4)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	2	3
5)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1	2	3

Q80) 마찬가지로 동일한 항목에 대해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각각의 행동을 배우자께서 얼마나 하셨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지난주에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주에 한 번	지난주에 두 번	지난주에 3-5번	지난주에 6-10번	지난주에 11-20번	지난주에 20번 넘게
1)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2)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3)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4)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 아이들은 잘못된 성적 행동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에게 지난 1년 간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Q81~Q82).

Q81) 지난 1년 간 ○○(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아동이나 어른(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 모두 포함)이 ○○(이)를 성적으로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이 한 번 이상 일어났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까?

1.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2. 지난 1년 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일어난 적이 있었다
3. 지난 1년 간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났다
4. 지난 1년 간 그런 일이 한 번 이상 일어났다
5. 모름/무응답

Q82) 지난 1년 간 ○○(이)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아동이나 어른(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 모두 포함)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이 한 번 이상 일어났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까?

1.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2. 지난 1년 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일어난 적이 있었다
3. 지난 1년 간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났다
4. 지난 1년 간 그런 일이 한 번 이상 일어났다
5. 모름/무응답

Q83) 귀하는 어린 시절(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 각각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일어나지 않았	1-2번 있었다	여러 차례 있었다
1) 부모가 나에게 물건을 던졌다	1	2	3
2) 부모가 나를 잡거나 밀쳤다	1	2	3
3) 부모가 나의 뺨을 때렸다	1	2	3
4) 부모가 나를 발로 차거나 물거나 혹은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5) 부모가 나를 도구(벨트, 빗, 막대기 등)를 가지고 때렸다	1	2	3
6) 부모가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7) 부모가 나에게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8) 부모가 나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	1	2	3
9)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어른이 당신을 성적으로 만진 적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어른들을 성적으로 만지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을 포함)	1	2	3
10)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어른들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을 포함)	1	2	3

V. 가구의 특성

다음은 귀하의 가구의 주거 및 경제적 특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본 자료는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반드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Q84)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을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 1. 일반단독주택 | 5. 일반아파트 | 9. 오피스텔 |
| 2. 다가구용 단독주택 | 6. 영구임대아파트 | 1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
| 3. 다세대주택 | 7.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 11.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
| 4. 연립주택(빌라) | 8.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 12. 기타 |

Q85)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지하층 2. 반지하층 3. 지상 4. 옥탑 5. 기타

Q86)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월세 5. 기타

Q87)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제외한 방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개

Q8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1	2
2)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1	2
3)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치 않다	1	2
4)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1	2

Q89) 작년 한 해(2010년)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득은 세금 공제 이전의 금액)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재산 및 금융 소득,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응답 거부 시 '9999' 입력 후 Q90)으로 갈 것

월 평균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 가구소득 응답 시 Q91)으로 갈 것

Q90) (Q89에서 무응답 시) 그럼, 작년 한 해(2010년)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
| 1. 100만원 이하 | 4. 301만원~400만원 | 7. 601만원~700만원 | 10. 901만원~1000만원 |
| 2. 101만원~200만원 | 5. 401만원~500만원 | 8. 701만원~800만원 | 11. 1001만원 이상 |
| 3. 201만원~300만원 | 6. 501만원~600만원 | 9. 801만원~900만원 | 12. 모름/무응답 |

Q91) 귀 닥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차상위 가구이다)
3. 아니다(일반 가구이다)

▶ 질문 끝

Q92) (받고 계신다면) 그럼, 작년 한 해(2010년) 월 평균 급여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름/무응답 '9999' 입력

월 평균

백만	십만	만	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구전담기관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조사대행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년 아동 양육 실태조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일반가구조사

ID	_____	Card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실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행복한 삶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 재 진

조사
대행
기관

nielsen
닐슨컴퍼니코리아

홈페이지: <http://kr.nielsen.com>
Hyejung.Jung@nielsen.com

조사문의

전화:

02-2122-7262

/

조사문의

E-mail:

★ 면접원 기입사항 (방문일지 확인) ★

가구명부 번호					가구 번호		
---------	--	--	--	--	-------	--	--

응답자 이름		연락처(휴대폰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입력	() - () - ()
--------	--	--------------------------------------	-----------------------------

I. 사회경제적 영역

Q1)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재학 중인 학교 없음) → Q6)으로 갈 것

Q2) 다음 중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면접원 : 방문일지 점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Q3) 현재 몇 학년입니까? ★ 면접원 : 방문일지 점검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Q4) 지난 학기(2010년 2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과목 평균과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각각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매우 잘하는 수준	잘하는 수준	중간	못하는 수준	매우 못하는 수준
1) 전과목 평균	1	2	3	4	5
2) 국어	1	2	3	4	5
3) 영어	1	2	3	4	5
4) 수학	1	2	3	4	5

Q5)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생활이 즐겁다	1	2	3	4
2)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3)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1	2	3	4
4)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1	2	3	4
6)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7)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1	2	3	4
8)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적이 있다	1	2	3	4
9)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1	2	3	4

Q6) 현재 본인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Q7) 지난 1년 간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항 목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상당히 자주 있었다
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1	2	3	4
2)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1	2	3	4
3) 선생님 앞에서 소리지르며 대들기	1	2	3	4
4) 시험시간에 쉼(부정행위) 하기	1	2	3	4
5)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무단결석)	1	2	3	4
6) 학용품비, 준비물비 다른데 사용하기	1	2	3	4
7)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3	4
8)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	2	3	4
9) 다른 친구를 헐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음)하기	1	2	3	4
10)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1	2	3	4
11) 술마시기	1	2	3	4
12) 담배피우기	1	2	3	4
13) 다른 사람들(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1	2	3	4
1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훔치기)	1	2	3	4
15)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1	2	3	4
16) 가출하기	1	2	3	4
17) 거짓말하기	1	2	3	4
18) 불량행위하기	1	2	3	4
19) 성관계 경험	1	2	3	4
20) 패싸움	1	2	3	4
21) 원조교제	1	2	3	4
22) 성폭행이나 성희롱	1	2	3	4

- Q8) 다음 각각의 항목을 읽고 지난 두 달 동안 본인의 행동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든다	1	2	3	4
2) 나는 자주 생각 없이 행동한다	1	2	3	4
3) 나는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쓴다	1	2	3	4
4) 나는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1	2	3	4
5) 나는 불끈 화를 잘 낸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	1	2	3	4
7)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	1	2	3	4
8) 나는 게임을 할 때 반칙을 쓴다	1	2	3	4
9)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	1	2	3	4
10) 나는 어른에게 말대꾸를 한다	1	2	3	4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	1	2	3	4
12) 나는 규칙을 어긴다	1	2	3	4
13) 나는 겁이 많다	1	2	3	4
14) 나는 자주 아프다	1	2	3	4
15) 나는 쉽게 창피해 한다	1	2	3	4
16) 나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2	3	4
17)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8) 나는 외롭다	1	2	3	4
19)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20) 나는 자주 피곤하다고 느낀다	1	2	3	4
21) 나는 같은 반 친구들과 있을 때 긴장이 된다	1	2	3	4
22) 나는 슬프다	1	2	3	4

II.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영역

Q9)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면접원 : 방문일지 점검

1. 부모님 두 분 모두 함께 살고 있다
 2. 아버지하고만 함께 살고 있다
 3. 어머니하고만 함께 살고 있다
 4. 부모님 두 분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다
- ▶ Q11)으로 갈 것

Q10) 집에 있을 때,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주로 누가 돌봐줍니까? ★ 면접원 : 방문일지 점검

1. 친할머니
2. 친할아버지
3. 외할아버지
4. 외할머니
5. 형제·자매(형/오빠, 누나/언니)
6. 기타 친인척

Q11) 다음 각각의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주로 돌봐주는 분(양육자)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문 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1	2	3	4
3) 부모님(양육자)은 외출했을 때에도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4) 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부모님(양육자)은 전화를 한다	1	2	3	4
5) 부모님(양육자)은 나와 이야기 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1	2	3	4
6) 나와 이야기 할 때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1	2	3	4
7) 부모님(양육자)은 나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 준다	1	2	3	4
8) 내가 집에서 학교숙제를 할 때, 부모님(양육자)은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준다	1	2	3	4

Q12)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화나게 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가족들(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친척 등)이 본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 지난 1년간 그런 적이 없다면, 예전에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함께 사는 가족(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1	2	3	4	5	6	7
2)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4	5	6	7
3) 나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1	2	3	4	5	6	7
4)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 Q12)에서 하위문항 모두 '1' 인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후 만약 그렇다면 Q14)으로 갈 것

Q13) 이 행동을 주로 누가 하였습니다까? (한 명만 선택)

- | | |
|----------|------------|
| 1. 아버지 | 6. 외할머니 |
| 2. 어머니 | 7. 친삼촌/외삼촌 |
| 3. 친할아버지 | 8. 고모/이모 |
| 4. 친할머니 | 9. 기타 친인척 |
| 5. 외할아버지 | 10. 모름/무응답 |

Q14)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화나게 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가족들(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친척 등)이 본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 지난 1년간 그런 적이 없다면, 예전에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함께 사는 가족(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나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5	6	7
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3)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4)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5)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6)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4	5	6	7
7)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8)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쳤다	1	2	3	4	5	6	7
9)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4	5	6	7
10)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4	5	6	7
11)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4	5	6	7
1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1	2	3	4	5	6	7
13)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14) 나를 꼬집었다	1	2	3	4	5	6	7
15)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16)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4	5	6	7
17) 나를 '바보'나 '멍청이'등으로 불렀다	1	2	3	4	5	6	7
18)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 Q14)에서 하위문항 모두 '1' 인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후 만약 그렇다면 Q16)으로 갈 것

Q15) 이 행동을 주로 누가 하였습니다까? (한 명만 선택)

- | | |
|----------|------------|
| 1. 아버지 | 6. 외할머니 |
| 2. 어머니 | 7. 친삼촌/외삼촌 |
| 3. 친할아버지 | 8. 고모/이모 |
| 4. 친할머니 | 9. 기타 친인척 |
| 5. 외할아버지 | 10. 모름/무응답 |

Q16) 가족의 어른들은 가끔씩 여러분을 돌보아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6	7
2)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1	2	3	4	5	6	7
3)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1	2	3	4	5	6	7
4)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	2	3	4	5	6	7
5)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1	2	3	4	5	6	7

Q17) 가끔씩은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지난주에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함께 사는 가족(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난주에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주에 한 번	지난주에 두 번	지난주에 3-5번	지난주에 6-10번	지난주에 11-20번	지난주에 20번 넘게
1)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2)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3)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4)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 Q17)에서 하위문항 모두 '1' 인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후 만약 그렇다면 Q19)으로 갈 것

Q18) 이 행동을 주로 누가 하였습니다습니까? (한 명만 선택)

- | | |
|----------|------------|
| 1. 아버지 | 6. 외할머니 |
| 2. 어머니 | 7. 친삼촌/외삼촌 |
| 3. 친할아버지 | 8. 고모/이모 |
| 4. 친할머니 | 9. 기타 친인척 |
| 5. 외할아버지 | 10. 모름/무응답 |

III. 폭력에 대한 노출

1. 기타 폭력경험

※ 만약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앞의 Q1에서 '2. 아니오' 응답자)는 Q21)으로 넘어갑니다.

Q19) 지난 1년 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전혀 없다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주 3회 이상
1) 심한 욕설/협박	1	2	3	4	5
2) 폭행(구타)	1	2	3	4	5
3) 돈이나 물건 뺏음	1	2	3	4	5
4) 집단따돌림(양파)	1	2	3	4	5
5) 고의적 괴롭힘(심부름시키기, 놀림, 물건 망가뜨리기 등)	1	2	3	4	5
6) 성폭행	1	2	3	4	5

Q20) 지난 1년 간 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신체적 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전혀 없다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주 3회 이상
1) 창피할 정도로 심한 모욕을 줌	1	2	3	4	5
2)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1	2	3	4	5
3) 회초리로 맞음	1	2	3	4	5
4) 뺨을 맞음	1	2	3	4	5
5) 주먹으로 맞음	1	2	3	4	5
6) 출석부 등으로 맞음	1	2	3	4	5
7) 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맞음	1	2	3	4	5

Q21) 지난 1년 간 지역사회(학교 제외) 내의 또래나 성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전혀 없다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주 3회 이상
1) 심한 욕설/협박	1	2	3	4	5
2) 폭행, 구타	1	2	3	4	5
3) 돈이나 물건 뺏음	1	2	3	4	5
4) 성폭행	1	2	3	4	5

2. 목적 경험

Q22) 현재 형제자매(형/오빠, 누나/언니, 동생)가 있습니까? ★ 면접원 : 방문일지 점검

1. 있다 → Q23)으로 갈 것
2. 없다 → Q24)으로 갈 것

Q23) 지난 1년 간 함께 사는 어른이 본인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형/오빠, 누나/언니,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어른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전혀 없었다	1-2번 있었다	3-5번 있었다	6-10번 있었다	11-20번 있었다	20번 이상 있었다	모름/ 무응답
1) 빈정거렸다(비웃거나 놀렸다)	1	2	3	4	5	6	7
2)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였다	1	2	3	4	5	6	7
3) 빠치거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1	2	3	4	5	6	7
4) 악담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5)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다	1	2	3	4	5	6	7
6) 주위의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7) 물건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1	2	3	4	5	6	7
8) 물건을 던졌다	1	2	3	4	5	6	7
9) 잡거나 말쳤다	1	2	3	4	5	6	7
10) 뺨을 때렸다	1	2	3	4	5	6	7
11) 발로 차거나 물거나 혹은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4	5	6	7
12) 막대기 등 도구를 가지고 때렸다	1	2	3	4	5	6	7
1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4	5	6	7
14)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15) 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	1	2	3	4	5	6	7

Q24) 다시 한 번, 현재 본인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 | |
|-------------|-----------------|
| 1. 매우 만족한다 | 3.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
| 2. 만족하는 편이다 | 4.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IV.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Q25) 지난 6개월 간 주변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설문 종료**

Q26) (본 적이 있다면) 지난 6개월 간 얼마나 자주 목격했습니까?

- | | | | |
|----------|------------|------------|----------|
| 1. 한 두 번 | 2. 3~4번 정도 | 3. 5~6번 정도 | 4. 7번 이상 |
|----------|------------|------------|----------|

Q27) (본 적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목격했습니까?

- | | | |
|------------------|---------------|---------|
| 1. 이웃(동네길가, 이웃집) | 3. 학교 | 5. 등하교길 |
| 2. 친구집 | 4. 공공장소(공원 등) | 6. 기타 |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구전담기관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조사대행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년 아동 양육 실태조사 (초등학교 1~3학년) - 일반가구조사,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ID	_____	Card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실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행복한 삶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 재 진

조사
대행
기관

nielsen
닐슨컴퍼니코리아

홈페이지: <http://kr.nielsen.com>
Hyejung.Jung@nielsen.com

조사문의

전화:

02-2122-7262

/

조사문의

E-mail:

★ 면접원 기입사항 (방문일지 확인) ★

가구명부 번호					가구 번호		
---------	--	--	--	--	-------	--	--

응답자 이름		연락처(휴대폰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입력	() - () - ()
--------	--	--------------------------------------	-----------------------------

I. 사회경제적 영역

1. 학교 관련 문항

Q1)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Q3)으로 갈 것

Q2) 현재 몇 학년입니까? ★ 면접원 : 방문일지 점검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 응답 후 Q4)으로 갈 것

Q3)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질병이나 장애
2. 홈스쿨링 중(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교육받는 방식)
3. 기타

Q4)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화나게 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가족들(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친척 등)이 본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 지난 1년간 그런 적이 없다면, 예전에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만약 하위문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면접식으로 진행 가능

함께 사는 가족(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1	2	3	4	5	6	7
2)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4	5	6	7
3) 나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1	2	3	4	5	6	7
4)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 Q4)에서 하위문항 모두 '1' 인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후 만약 그렇다면 Q6)으로 갈 것

Q5) 이 행동을 주로 누가 하였습니까? (한 명만 선택)

1. 아버지 6. 외할머니
2. 어머니 7. 친삼촌/외삼촌
3. 친할아버지 8. 고모/이모
4. 친할머니 9. 기타 친인척
5. 외할아버지 10. 모름/무응답

- Q6)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화나게 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가족들(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친척 등)이 본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 지난 1년간 그런 적이 없다면, 예전에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만약 하위문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면접식으로 진행 가능

함께 사는 가족(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나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5	6	7
2) 벨트, 밧, 막대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3)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4)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5)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6)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4	5	6	7
7)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8)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뺐다	1	2	3	4	5	6	7
9)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4	5	6	7
10)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4	5	6	7
11)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4	5	6	7
12) 벨트, 밧, 막대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1	2	3	4	5	6	7
13)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14) 나를 꼬집었다	1	2	3	4	5	6	7
15)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16)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4	5	6	7
17) 나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1	2	3	4	5	6	7
18)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 Q6)에서 하위문항 모두 '1' 인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후 만약 그렇다면 Q8)으로 갈 것

- Q7) 이 행동을 주로 누가 하였습니까? (한 명만 선택)

- | | |
|----------|------------|
| 1. 아버지 | 6. 외할머니 |
| 2. 어머니 | 7. 친삼촌/외삼촌 |
| 3. 친할아버지 | 8. 고모/이모 |
| 4. 친할머니 | 9. 기타 친인척 |
| 5. 외할아버지 | 10. 모름/무응답 |

- Q8) 가족의 어른들은 가끔씩 여러분을 돌보아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10번	지난 1년간 11~20번	지난 1년간 20번 넘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6	7
2)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1	2	3	4	5	6	7
3)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1	2	3	4	5	6	7
4)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	2	3	4	5	6	7
5)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1	2	3	4	5	6	7

Q9) 가끔씩은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지난주에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함께 사는 가족(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난주에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주에 한 번	지난주에 두 번	지난주에 3-5번	지난주에 6-10번	지난주에 11-20번	지난주에 20번 넘게
1)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2)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3)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4)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 Q9)에서 하위문항 모두 '1' 인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후 만약 그렇다면 Q11)으로 갈 것

Q10) 이 행동을 주로 누가 하였습니다? (한 명만 선택)

- | | |
|----------|------------|
| 1. 아버지 | 6. 외할머니 |
| 2. 어머니 | 7. 친삼촌/외삼촌 |
| 3. 친할아버지 | 8. 고모/이모 |
| 4. 친할머니 | 9. 기타 친인척 |
| 5. 외할아버지 | 10. 모름/무응답 |

II. 폭력에 대한 노출

1. 기타 폭력경험

※ 만약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앞의 Q1에서 '2. 아니오' 응답자)는 Q13)으로 넘어갑니다.

Q11) 지난 1년 간 교내에서 또래나 선배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 입학 후 지금까지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전혀 없다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당 1-2회	주 3회 이상
1) 심한 욕설/협박	1	2	3	4	5
2) 폭행(구타)	1	2	3	4	5
3) 돈이나 물건 뺏음	1	2	3	4	5
4) 집단따돌림(왕따)	1	2	3	4	5
5) 고의적 괴롭힘(심부름시키기, 놀림, 물건 망가뜨리기 등)	1	2	3	4	5
6) 성폭행	1	2	3	4	5

Q12) 지난 1년 간 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신체적 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 입학 후 지금까지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전혀 없다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당 1-2회	주 3회 이상
1) 창피할 정도로 심한 모욕을 줌	1	2	3	4	5
2)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함	1	2	3	4	5
3) 회초리로 맞음	1	2	3	4	5
4) 뺨을 맞음	1	2	3	4	5
5) 주먹으로 맞음	1	2	3	4	5
6) 출석부 등으로 맞음	1	2	3	4	5
7) 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맞음	1	2	3	4	5

Q13) 지난 1년 간 지역사회 내(학교 제외)의 또래나 성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전혀 없다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주 3회 이상
1) 심한 욕설/협박	1	2	3	4	5
2) 폭행, 구타	1	2	3	4	5
3) 돈이나 물건 뺏음	1	2	3	4	5
4) 성폭행	1	2	3	4	5

2. 목적 경험

Q14) 현재 형제자매(형/오빠, 누나/언니, 동생)가 있습니까? ★ 면접원 : 방문일지 점검

1. 있다 → Q15)으로 갈 것
2. 없다 → 설문종료

Q15) 지난 1년 간 함께 사는 어른이 본인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형/오빠, 누나/언니,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어른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전혀 없었다	1-2번 있었다	3-5번 있었다	6-10번 있었다	11-20번 있었다	20번 이상 있었다	모름/ 무응답
1) 반정거렸다(비웃거나 놀렸다)	1	2	3	4	5	6	7
2)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였다	1	2	3	4	5	6	7
3) 빠지거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1	2	3	4	5	6	7
4) 악담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5)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다	1	2	3	4	5	6	7
6) 주위의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7) 물건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1	2	3	4	5	6	7
8) 물건을 던졌다	1	2	3	4	5	6	7
9) 잡거나 밀쳤다	1	2	3	4	5	6	7
10) 뺨을 때렸다	1	2	3	4	5	6	7
11) 발로 차거나 물거나 혹은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4	5	6	7
12) 막대기 등 도구를 가지고 때렸다	1	2	3	4	5	6	7
1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4	5	6	7
14)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15) 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	1	2	3	4	5	6	7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구전담기관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조사대행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년 아동 양육 실태조사 (주 양육자용) -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ID	_____	Card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실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가족의 행복한 삶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 재 진**

조사
대행
기관

nielsen 닐슨컴퍼니코리아

홈페이지: <http://kr.nielsen.com>
Hyejung.Jung@nielsen.com

조사문의 전화: 02-2122-7262 / 조사문의 E-mail:

★ 면접원 기입사항 (방문일지 확인) ★

가구명부 번호	_____	가구 번호	_____
시·도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시·군·구	동·읍·면	상세 주소 (※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	_____	_____	
응답자 이름	_____	연락처 (예. 031-123-1234 / 010-1234-1234)	() - () - ()

I. 가정생활 영역

※ 조사대상 아동의 이름을 OO(이)로 하여 질문합니다.

Q1) 다음은 귀하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내용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OO(이)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1	2	3	4
2) OO(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3) OO(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1	2	3	4
4) 어떤 것이든 OO(이)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한다	1	2	3	4
5) OO(이)가 실수를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나무란다(혼낸다)	1	2	3	4
6) 될 수 있으면 OO(이)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내버려 둔다	1	2	3	4
7) OO(이)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1	2	3	4
8) OO(이)에 대해 불만이 많다	1	2	3	4
9) OO(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버릴 때가 많다	1	2	3	4
10) OO(이)를 기쁘게 해 줄 일을 잘 생각해 낸다	1	2	3	4
11) OO(이) 때문에 힘이 든다는 말을 때때로 한다	1	2	3	4
12) 하면 안 되는 일도 OO(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둔다	1	2	3	4
13) OO(이)가 한 일이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1	2	3	4
14) 쉬는 시간을 OO(이)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5) 겉멋하면 OO(이)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한다	1	2	3	4
16) 규칙이 있어도 꼭 지키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1	2	3	4
17) OO(이) 기분을 잘 이해해 준다	1	2	3	4
18) OO(이)가 야단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1	2	3	4
19) OO(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한다	1	2	3	4
20) OO(이)가 조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사준다	1	2	3	4
21) OO(이)가 나와 의견이 다를 때는 내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1	2	3	4
22) 기분이 좋을 때는 OO(이)가 잘못을 해도 그냥 봐 준다	1	2	3	4
23) OO(이)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24) OO(이)에게 보기도 싫다고 말할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25) OO(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6) OO(이)가 어떤 것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27) OO(이)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버릇이 없다고 야단친다	1	2	3	4
28) OO(이)의 나쁜 점 보다는 좋은 점을 칭찬할 때가 많다	1	2	3	4
29) OO(이)가 할 것을 안 하고 딴 짓을 하고 있어도 꾸중하지 못한다	1	2	3	4
30) OO(이)가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기분이 좋아지게 해 준다	1	2	3	4

Q2)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2. 아니다’ 응답 시 Q3~Q5에서 배우자 부분은 그냥 넘어감

1. 그렇다 2. 아니다

Q3) 귀하는(배우자 있을 시 배우자 포함) 지난 1년 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구 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4회	주 4회 이상	전혀 마시지 않았음	모름/무응답
본인(주양육자)	1	2	3	4	5	6
배우자	1	2	3	4	5	6

‘5. 전혀 마시지 않았음’에 체크한 경우 Q8)으로 갈 것

Q4) (술을 마신다면)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구 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모름/무응답
본인(주양육자)	1	2	3	4	5	6
배우자	1	2	3	4	5	6

Q5) (술을 마신다면)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구 분	전혀 없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거의 매일	모름/무응답
본인(주양육자)	1	2	3	4	5	6
배우자	1	2	3	4	5	6

Q6) (술을 마신다면) 지난 1년 간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몇 번 했습니까?

항 목	전혀 없음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1)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1	2	3	4	5
2)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3)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4)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5)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6)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7)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 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Q7) (술을 마신다면) 지난 1년 간 다음과 같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1)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1	2
2)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1	2
3)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1	2
4)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2

Q8) 귀하는 지난 1년 간 출산 경험이 있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비해당(남성의 경우)

Q9) 최근 1년 내 귀하는 게임(컴퓨터, 비디오, 모바일 게임 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Q10)으로 갈 것
2. 아니오 → Q11)으로 갈 것

Q10) 다음은 게임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1년 내 경험한 항목들에 체크해 주세요.

★ 응답자 본인이 직접 체크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게임을 하면서 두통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2) 게임을 하면서 손목이 아픈 경험(터널 증후군)이 있다	1	2	3	4	5
3)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1	2	3	4	5
4) 근무 시간 중에도 게임 생각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게임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	1	2	3	4	5
6)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	1	2	3	4	5
7)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타인의 게임 아이디로 접속해서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게임 길드 구성원에게 현실의 친구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10) 게임을 하느라 꼭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	2	3	4	5
11) 게임을 많이 해서 업무를 망친 적이 있다	1	2	3	4	5
12)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	1	2	3	4	5
13)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생활비를 다 써버린다	1	2	3	4	5
14) 게임방을 가느라 생활비를 다 써버린다	1	2	3	4	5
15)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게임에서 꼭 이겨야 한다	1	2	3	4	5
16) 게임하는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말해서 이긴 적이 있다	1	2	3	4	5
17) 게임을 하느라 가족들이 컴퓨터 사용을 못한다	1	2	3	4	5
18) 게임에서 계속 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낸다	1	2	3	4	5
19) 게임에서 본 폭력적인 장난을 친구에게 자주 한다	1	2	3	4	5
20) 게임을 하느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1	2	3	4	5

Q11) 다음은 OO(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단, 10번의 경우 내용 중 해당되는 번호를 고려하면서 응답함.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OO(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1	2	3	4	5
2) 대체로 OO(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3) OO(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	2	3	4	5
4) 내가 OO(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5) OO(이)는 놀 때 보통 소리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1	2	3	4	5
6) OO(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
7) OO(이)는 다른 아이들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8) OO(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1	2	3	4	5
9) OO(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매우 어려워한다	1	2	3	4	5
10) 내가 느끼기에 나는 ① 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② 부모가 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③ 보통 부모이다 ④ 보통 부모보다 조금 낫다 ⑤ 매우 좋은 부모이다	1	2	3	4	5
1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OO(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1	2	3	4	5
12) 가끔씩 OO(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1	2	3	4	5
13) OO(이)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1	2	3	4	5
14) OO(이)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곧 잘 웃는다	1	2	3	4	5
15) OO(이)는 일단 어떤 과제에 몰입하면 그 어떤 것도 OO(이)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1	2	3	4	5
16) OO(이)는 여간해서 주위가 흐트러 지지 않는다	1	2	3	4	5
17) OO(이)는 하던 일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	1	2	3	4	5
18) OO(이)는 어디를 가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있다	1	2	3	4	5
19) OO(이)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면 대개 그 쪽으로 접근한다	1	2	3	4	5
20) OO(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21) OO(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빨리 익숙해진다	1	2	3	4	5
22) OO(이)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한다	1	2	3	4	5
23) OO(이)는 새로운 일과 시간표(스케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2	3	4	5
24) OO(이)는 낯설거나 새로운 것을 보면 거부 반응부터 보인다	1	2	3	4	5
25) OO(이)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26) OO(이)는 일상적인 습관이 바뀌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III.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Q12) 귀하는 지난 1년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1. 보건 서비스(건강상담, 건강진단, 예방접종, 영양지도 등) | 5.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문화체험 등) |
| 2. 방과 후 교실 | 6. 치료 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
| 3. 부모교육 | 7.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4. 가족상담 | 8. 없음 |

Q13) 귀하는 집 근처의 복지기관이나 상담 기관에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1. 그렇다 | → Q14)으로 갈 것 |
| 2. 아니다 | → Q17)으로 갈 것 |
| 3. 모르겠다 | → Q18)으로 갈 것 |

Q14)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어디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습니까?

- | | |
|---------|----------------------|
| 1. 집 | 4. 상관없다 |
| 2. 보육시설 |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 복지관 | |

Q15)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습니까?

- | | |
|-------------|----------------------|
| 1. 관련 전문가 | 3. 상관없다 |
| 2. 시설/기관 직원 | 4.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Q16)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습니까?

- | | |
|------------|----------------------|
| 1. 온라인 서비스 | 4. 가족 서비스 |
| 2. 1:1 서비스 |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 집단 서비스 | |

▶ 응답 후 Q18)으로 갈 것

Q17)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이전에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도움이 안 되어서 | 4. 유료 서비스이므로 |
| 2. 서비스가 필요 없으므로(스스로 잘할 수 있으므로) |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 귀찮아서 | |

Q18) 현재 양육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부모교육 | 7. 아동놀이시설 확대 |
| 2. 경제적 지원 | 8. 아동 교육(방과 후 서비스, 공공기관에 의한 학습 지원 등) |
| 3. 정보제공(양육책자 제공 등) | 9. 보육서비스 |
| 4. 가족상담 | 10. 육아도우미 서비스 |
| 5. 가족 보건서비스 | 11.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6. 아동의료 서비스 | 12. 없음 |

IV. 가정환경 영역

Q19) (OO(이)가 미취학인 경우) 다음의 질문지는 OO(이)가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내용이 귀하의 행동 또는 가정의 일반적인 상황과 일치하면 '예',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 라고 응답해주시요. 응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귀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 행하시는 행동에 따라 응답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 항	예	아니오	비해당
1) 부모(주양육자)가 집에 없을 때 대신 OO(이)를 돌보는 사람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1	2	
2) 지난 1년 동안 2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까?	1	2	
3) 아버지는 1주일에 4일 정도는 OO(이)와 1~2시간씩 같이 지냅니까?	1	2	3
4) OO(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니까? (식사시간, 잠자는 시간 등)	1	2	
5) OO(이)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1	2	
6) OO(이)는 가족과 함께 1주일에 한 번 정도 친척이나 친구 집을 방문합니까?	1	2	
7) 1주일에 평균 3명 이상의 손님이 집을 방문합니까?	1	2	
8) OO(이)는 1주일에 2~3번 정도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합니까?	1	2	
9) 1주일에 한 번 정도 OO(이)와 함께 장보러 갑니까?	1	2	
10) 1주일에 한 번 정도 OO(이)와 외출을 합니까?	1	2	
11) 1달에 2번 정도 OO(이)를 교회나 성당 또는 절에 데리고 갑니까?	1	2	
12) 1달에 1~2번 정도 OO(이)와 함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합니까?	1	2	
13) 지난 1년 동안 OO(이)를 데리고 영화나 연극을 보러간 적이 있습니까?	1	2	
14) 지난 1년 동안 OO(이)는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1	2	
15) 지난 1년 동안 OO(이)를 데리고 과학관이나 박물관, 전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1	2	
16) OO(이)의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것을 보관할 많나 일정한 곳이 있습니까?	1	2	
17) 집에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새 등 애완동물이 한 가지 이상 있습니까?	1	2	
18) 잡지를 한 가지 이상 구독합니까?	1	2	
19)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합니까?	1	2	
20) 집의 내부는 어둡습니까?	1	2	
21)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은 비교적 깨끗합니까?	1	2	
22) 집에는 각 개인당 적어도 3~4평 정도의 공간이 있나요?	1	2	
23) 집의 건물이 너무 낡았거나 지붕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갔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1	2	
24) OO(이)의 밖의 놀이 환경은 안전합니까?	1	2	
25) OO(이)가 주로 지내는 방의 벽에 그림이나 다른 장식품이 걸려 있습니까?	1	2	
26) OO(이)가 만든 작품을 집에 전시해놓습니까?	1	2	3
27) 집의 벽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그림이나 다른 장식품이 걸려 있습니까?	1	2	
28) 집에서 화초나 나무를 가꿉니까?	1	2	
29) 집에 어린이 책 이외에 30권 이상 정도의 책이 있습니까?	1	2	
30) 집 주위에 잔디나 나무가 있습니까?	1	2	

Q20) (OO(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다음의 질문지는 OO(이)가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내용이 귀하의 행동 또는 가정의 일반적인 상황과 일치하면 '예',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 라고 응답해주시요. 응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귀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 행하시는 행동에 따라 응답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OO(이)의 현재 나이가 8~13세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응답함.

문 항	예	아니오	비해당
1) 지난 1년 동안 2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까?	1	2	
2) 아버지는 적어도 1주일에 4일 정도는 OO(이)와 1~2시간씩 같이 자납니까?	1	2	3
3) OO(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니까? (식사시간, 잠자는 시간 등)	1	2	
4) OO(이)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1	2	
5) 1주일에 2~3번 정도 친구들을 집에 오게 하여 OO와 함께 놀게 합니까?	1	2	
6) OO(이)는 가족과 함께 1주일에 한번 정도 친척이나 친구 집을 방문합니까?	1	2	
7) 1주일에 평균 3명 이상의 손님이 집을 방문합니까?	1	2	
8) OO(이)는 1주일에 2~3번 정도는 사람과 전화를 합니까?	1	2	
9) 1주일에 한 번 정도 OO(이)와 함께 장보러 갑니까?	1	2	
10) 1주일에 한 번 정도 OO(이)와 외출을 합니까?	1	2	
11) 1년에 3~4번 정도 OO(이)는 아버지와 함께 이발소 양복점 등 남자에게만 관계되는 곳에 갑니까? (남아) 1년에 3~4번 정도 OO(이)는 어머니와 함께 미장원 양품점 등 여자에게만 관계되는 곳에 갑니까? (여아)	1	2	
12) 1달에 2번 정도는 OO(이)를 교회나 성당 또는 절에 데리고 갑니까?	1	2	
13) 1달에 1~3번 정도 OO(이)와 함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합니까?	1	2	
14) 지난 1년 동안 OO(이)는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1	2	
15) 지난 1년 동안 OO(이)를 데리고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까?	1	2	
16) 지난 1년 동안 OO(이)는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1	2	
17) 지난 1년 동안 OO(이)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가 보았습니까?	1	2	
18) 지난 1년 동안 OO(이)는 기차, 배, 비행기를 타 보았습니까?	1	2	
19) 지난 1년 동안 OO(이)를 데리고 과학관이나 박물관, 전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1	2	
20) 지난 1년 동안 OO(이)는 여행(버스로 1시간 30분 이상 되는 거리)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2	
21) 집에 아동용 방이 따로 있습니까?	1	2	
22) 집에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새 등 애완동물이 한 가지 이상 있습니까?	1	2	
23) 잡지를 한 가지 이상 구독합니까?	1	2	
24)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합니까?	1	2	
25)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은 비교적 깨끗합니까?	1	2	
26) 집에는 각 개인당 적어도 3~4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1	2	
27) 집의 건물이 너무 낡았거나, 지붕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갔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1	2	
28) OO(이)의 밖의 놀이 환경은 안전합니까?	1	2	
29) OO(이)가 주로 지내는 방의 벽에 그림이나 다른 장식품이 걸려 있습니까?	1	2	
30) OO(이)가 만든 작품을 집에 전시해놓습니까?	1	2	
31) 집의 벽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그림이나 다른 장식품이 걸려 있습니까?	1	2	
32) 집에서 화초나 나무를 가꿉니까?	1	2	
33) 집에 어린이 책 이외에 30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까?	1	2	

VI.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1. 아동학대 목적 및 신고 경험

Q21) 귀하는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25)으로 갈 것

Q22) 위와 같은 아동을 발견하셨을 때 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24)으로 갈 것

Q23) (있다면) 신고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전 아동학대예방센터, 1599-1391, 129) | 5.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등) |
| 2. 경찰서, 지구대(112) | 6. 종교단체 |
| 3. 지역사회복지관 | 7. 기타 |
| 4. 아동관련 상담소 | |

▶ 응답 후 Q28)으로 갈 것

Q24)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 7.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 2.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 8.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
| 3.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 9.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
| 4.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해서 | 10.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 5. 업무가 너무 많아서(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 11. 기타 |
| 6.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 |

▶ 응답 후 Q28)으로 갈 것

Q25) 만약 앞으로 이러한 아동을 발견한다면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1. 예 → Q27)으로 갈 것
2. 아니오 → Q28)으로 갈 것
3. 모르겠다/생각해 본 적 없다 → Q28)으로 갈 것

Q26) (신고를 하겠다면) 위와 같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시겠습니까?

- | | |
|--|---------------------|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전 아동학대예방센터, 1599-1391, 129) | 5.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등) |
| 2. 경찰서, 지구대(112) | 6. 종교단체 |
| 3. 지역사회복지관 | 7. 기타 |
| 4. 아동관련 상담소 | |

▶ 응답 후 Q28)으로 갈 것

Q27) (신고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 6.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 2.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 7.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
| 3.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해서 | 8.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
| 4. 업무가 너무 많아서(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 9.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 5.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 10. 기타 |

2.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

Q28) 귀하는 아동학대로 신고 된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Q29)으로 갈 것

2. 아니다 → Q22)에서 1 응답자와 Q25)에서 1 응답자는 설문 종료

Q22)에서 2 응답자와 Q25)에서 2, 3 응답자는 Q33)으로 갈 것

Q29) 아동학대로 신고 된 후 귀하는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까?

1. 예 → Q30)으로 갈 것

2. 아니오 → 설문 종료

Q30) 아동학대 신고 후 귀하는 어떤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까?

1. 보호처분 → Q31)으로 갈 것

2. 형사처분 → Q32)으로 갈 것

Q31)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귀하는 보호처분으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

3. 수강명령

4. 치료감호

▶ 설문 종료

Q32)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귀하는 형사처분으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벌금

2. 구류

3. 징역

4. 집행유예

5. 금고형

▶ 설문 종료

3.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관한 인식

※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 2조 4항)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아동복지법 제 26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의 장·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종사자, 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장·종사자, 한부모 가족지원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Q33) 아동복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35)으로 갈 것

Q34)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1.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

3.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5. 기타

2. 인터넷

4. 주변사람을 통해

Q35) 귀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정확한 번호까지 알고 있다(1577-1391 또는 129)

2. 들어본 적은 있지만 번호는 알지 못한다

3. 들어본 적이 없다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구전담기관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조사대행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년 아동 양육 실태조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ID	_____	Card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이 있는 가구의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실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행복한 삶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 재 진

조사
대행
기관

nielsen 닐슨컴퍼니코리아

홈페이지: <http://kr.nielsen.com>
Hyejung.Jung@nielsen.com

/ 조사문의 전화: 02-2122-7262 / 조사문의 E-mail:

★ 면접원 기입사항 (방문일지 확인) ★

가구명부 번호					가구 번호		
---------	--	--	--	--	-------	--	--

응답자 이름		연락처(휴대폰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입력	() - () - ()
--------	--	--------------------------------------	-----------------------------

I. 본인에 대한 생각

Q1) 다음은 **학업과 관련되어 본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별로 본인이 생각한대로 ‘예’와 ‘아니오’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만 아래 3), 6), 12), 13)에서 ‘3. 비해당’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예	아니오	비해당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1	2	
2)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나는 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1	2	3
4)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배우는 편이다	1	2	
5) 나는 똑똑한 편이다	1	2	
6)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	1	2	3
7)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	1	2	
8) 나는 앞으로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	1	2	
9) 나의 공부 실력은 뛰어나다	1	2	
10) 다른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	2	
11) 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	1	2	
12)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1	2	3
13) 나는 다음 시험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1	2	3
14)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다	1	2	
15)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재주를 타고난 것 같다	1	2	
16) 나의 학습능력은 우수한 편이다	1	2	
17)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	2	
18) 공부를 못해서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	1	2	
19)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1	2	
20) 나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 같다	1	2	

Q2) 다음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본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별로 본인이 생각한대로 ‘예’와 ‘아니오’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만 아래 3), 4), 7), 12), 15)에서 ‘3. 비해당’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예	아니오	비해당
1) 친구들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게 듣는다	1	2	
2)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나는 선생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2	3
4) 선생님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1	2	3
5) 나는 부모님(양육자)과 항상 즐겁게 지낸다	1	2	
6)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1	2	
7)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1	2	3
8)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없다	1	2	
9) 우리 부모님(양육자)은 나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	1	2	
10) 우리 부모님(양육자)은 항상 나를 야단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1	2	
11)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1	2	
12) 나는 선생님과 관계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1	2	3
13) 친구들은 나와 같이하는 놀이를 좋아한다	1	2	
14)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1	2	
15)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2	3
16) 나를 사귀 친구들은 모두 나를 좋아한다	1	2	
17) 우리 부모님(양육자)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1	2	
18) 나는 친구 사귀기가 무척 어렵다	1	2	
19) 친구들이 종종 나를 괴롭힌다	1	2	
20) 우리 부모님(양육자)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	1	2	

Q3) 다음은 몸, 외모, 운동 능력 등과 관련되어 본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별로 본인이 생각한대로 '예' 와 '아니오'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예	아니오
1)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은 예쁘게 생겼다	1	2
2) 다른 아이들처럼 몸이 크고 힘이 켜지면 좋겠다	1	2
3) 나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잘한다	1	2
4) 나는 나의 신체 일부분을 바꾸고 싶다	1	2
5)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하고 고민할 때가 많다	1	2
6) 나는 힘든 일을 해도 몸이 거뜨하다	1	2
7) 나는 철봉이나 기계체조 같은 운동을 잘한다	1	2
8) 나는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1	2
9) 나는 운동 신경이 둔한 편이다	1	2
10) 나는 신체적으로 멋진 사람이다	1	2
11) 나는 어떤 운동이든 잘한다	1	2
12) 나는 나의 생긴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13)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거울보기가 싫다	1	2
14) 나는 직접 운동 경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구경을 하는 편이다	1	2
15) 나는 친구들보다 놀이를 잘한다	1	2
16) 내 몸집은 튼튼하고 보기 좋게 생겼다	1	2
17) 나는 달리기와 멀리뛰기 같은 육상종목을 잘한다	1	2
18) 내 얼굴은 너무 잘 생겼다	1	2
19) 나는 내가 키가 좀 더 크거나 아니면 작았으면 좋겠다	1	2
20)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다	1	2

Q4) 다음은 평소 행동 및 느낌과 관련되어 본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별로 본인이 생각한대로 '예' 와 '아니오'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예	아니오
1) 나는 괜히 신경질을 부리는 때가 많다	1	2
2) 나는 아무 까닭 없이 슬퍼질 때가 있다	1	2
3) 나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1	2
4)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5) 나의 마음은 변하기를 잘한다	1	2
6) 나도 모르게 화를 잘 낸다	1	2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1	2
8) 아무런 이유 없이 괜히 울고 싶을 때가 있다	1	2
9) 친구들은 나를 침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1	2
10) 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편이다	1	2
11)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	2
12)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1	2
13) 나는 변덕이 심한 편이다	1	2
14)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1	2
15) 나는 짜증이 나는 때가 많다	1	2
16)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	1	2
17) 나는 가슴이 답답하여 괴로울 때가 많다	1	2
1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싫어진다	1	2
19)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20) 자주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럼을 느낀다	1	2

Q5) 다음은 본인의 평소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1년 간 아래 각각의 일들이 자주 있었다면 '3' 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편이면 '2' 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1' 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2)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3) 잘 운다	1	2	3
4) 고의로 자해행위(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한다	1	2	3
5)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1	2	3
6) 나/다른 사람/공공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7)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1	2	3
8)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1	2	3
9)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10)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11)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1	2	3
12)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13)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14)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1	2	3
15)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Q6)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 | | |
|-------------------------------------|-----------------------|
| 1. 부모님 | 7. 친척 |
| 2. 학교 선생님 | 8. 이웃 주민 |
| 3. 기관(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교회·성당·절 등) 선생님 | 9. 친구의 부모님 |
| 4. 학원/과외 선생님 | 10. 경찰 |
| 5. 친구, 선·후배 | 11.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6. 종교인(목사, 신부, 수녀, 승려 등) | 12. 없음(본인이 스스로 해결) |

II. 부모에 대한 생각

- Q7) 다음은 부모님(양육자)에 대한 평소 느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별로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주로 돌봐주는 분(양육자)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양육자)은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1	2	3	4
2)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필요한 만큼 도와주하지 않는다.	1	2	3	4
3)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	1	2	3	4
4) 부모님(양육자)은 나를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부모님(양육자)은 나의 고민과 문제를 이해하시고 있다.	1	2	3	4
6) 부모님(양육자)은 나에게 자상하시다.	1	2	3	4
7) 부모님(양육자)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1	2	3	4
8)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간섭하시려 한다.	1	2	3	4
9) 부모님(양육자)은 내 사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려 한다.	1	2	3	4
10) 부모님(양육자)은 자주 나에게 미소를 보내주신다.	1	2	3	4
11)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	1	2	3	4
12) 부모님(양육자)은 내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신다.	1	2	3	4
13) 부모님(양육자)은 나를 낳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1	2	3	4
14)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놀라거나 화났을 때 내 기분을 좋게 하질 수 있다.	1	2	3	4
15) 부모님(양육자)은 나와 같이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 하지 않으신다.	1	2	3	4
16)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주신다.	1	2	3	4
17)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집에서 나가고 싶을 때 쉽게 내보내주신다.	1	2	3	4
18)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1	2	3	4

※

다음은 평소 부모님(양육자)이 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별로 본인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모두 계실 경우 Q8)과 Q9)에, 아버지만 계신 경우 Q8)만, 어머니만 계신 경우 Q9)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안 계실 경우 주로 돌봐주는 분(양육자)을 생각하면서 Q10)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Q8) 아버지			Q9) 어머니			Q10) 주 양육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늘 그렇다
1) 내가 말을 걸면 바쁘다며 상대해 주지 않는다	1	2	3	1	2	3	1	2	3
2) 나를 귀여워한다	1	2	3	1	2	3	1	2	3
3) 나의 나쁜 점만 꼬집어 얘기한다	1	2	3	1	2	3	1	2	3
4) 나에게 대한 일은 나와 의논해보고 결정한다	1	2	3	1	2	3	1	2	3
5)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해 야단을 더 맞는 것 같다	1	2	3	1	2	3	1	2	3
6) 때를 쓰면 결국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	1	2	3	1	2	3	1	2	3
7) 옷이나 머리스타일을 내 맘대로 하게 놔둔다	1	2	3	1	2	3	1	2	3
8)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준다	1	2	3	1	2	3	1	2	3
9) 내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신경을 많이 쓴다	1	2	3	1	2	3	1	2	3
10) 남 앞에서 나를 나무라거나 안 좋게 얘기한다	1	2	3	1	2	3	1	2	3
11) 사사건건 내 일에 간섭한다	1	2	3	1	2	3	1	2	3
12)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를 두둔한다 (내 편이 되어 준다)	1	2	3	1	2	3	1	2	3
13)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 미리 전화로라도 허락을 받게 한다	1	2	3	1	2	3	1	2	3
14)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진다	1	2	3	1	2	3	1	2	3
15) 나를 잘 도와준다	1	2	3	1	2	3	1	2	3
16)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때리지 않는다	1	2	3	1	2	3	1	2	3
17)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심하게 야단친다	1	2	3	1	2	3	1	2	3
18)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억지로라도 내게 시키려한다	1	2	3	1	2	3	1	2	3
19) 나에게 “이 멍청야”, “이 바보야” 등의 욕을 한다	1	2	3	1	2	3	1	2	3
20)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듯하다	1	2	3	1	2	3	1	2	3
21) 나의 요구라면 무조건 들어준다	1	2	3	1	2	3	1	2	3
22)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한다	1	2	3	1	2	3	1	2	3

III.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

Q11) 지난 6개월 간 주변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14)으로 갈 것

Q12) (본 적이 있다면) 지난 6개월 간 얼마나 자주 목격했습니까?

1. 한 두 번 2. 3~4번 정도 3. 5~6번 정도 4. 7번 이상

Q13) (본 적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목격했습니까?

1. 이웃(동네길가, 이웃집) 2. 친구집 3. 학교 4. 공공장소(공원 등) 5. 등하교길 6. 기타

※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 2조 4항)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아동복지법 제 26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의 장·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종사자, 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장·종사자, 한부모 가족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Q14) 아동복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16)으로 갈 것

Q15)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1.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 2. 인터넷 3.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4. 주변사람을 통해 5. 기타

Q16) 만약 학대받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전 아동학대예방센터, 1599-1391, 129) 2. 경찰서, 지구대(112) 3. 지역사회복지관 4. 아동관련 상담소 5.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등) 6. 종교단체 7. 기타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1년 아동 안전 및 양육 관련 인식 조사(전문가용)

ID	_____	Card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 안전 및 양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7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 재 진

Q1) 전문가 소속 분야 - Hidden (Auto Punch)

1. 아동보호전문기관
2. 대학교(학계)
3. 연구원/연구소(연구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만 응답하는 문항  Q1에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체크된 경우만 제시
 - Q8~Q13, Q26, Q28~Q37, Q39, Q60~Q66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Q2)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심각하다
2. 심각하다
3. 심각하지 않다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Q3) 귀하는 아래의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내용별로 학대인지, 학대가 아닌지, 혹은 정도에 따라 다른지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
1)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1	2	3
2)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3)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5)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6)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7)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8)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9)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10)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11)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뺐다	1	2	3
12)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1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14)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15)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1	2	3
16)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17)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	2	3
18) 아이를 꼬집었다	1	2	3
19)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20)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21)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1	2	3
22)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23)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24)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1	2	3
25)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2	3
26)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	2	3
27)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1	2	3

Q4) (Q3에서 '3. 정도에 따라 다르다' 고 응답한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르다면, 일 년에 몇 번 일어나면 확대라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일 년에 1-2번	일 년에 3-5번	일 년에 6-10번	일 년에 11-20번	일 년에 20번이상
1)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1	2	3	4	5
2)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3)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5
4)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5)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4	5
6)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질렀다	1	2	3	4	5
7)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8)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9)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4	5
10)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11)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쳤다	1	2	3	4	5
12)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4	5
1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4	5
14)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4	5
15)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1	2	3	4	5
16)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17) 아이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	2	3	4	5
18) 아이를 꼬집었다	1	2	3	4	5
19)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20)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4	5
21)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1	2	3	4	5
22)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4	5
23)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24)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1	2	3	4	5
25)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2	3	4	5
26)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	2	3	4	5
27)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1	2	3	4	5

아동학대 서비스 적절성에 대한 인식

Q5) 다음은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서비스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적절 하다	적절 하다	적절 하지 못하다	전혀 적절 하지 못하다	모름
1) 신체적 학대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1	2	3	4	5
2) 신체적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1	2	3	4	5
3) 성적 학대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1	2	3	4	5
4) 성적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1	2	3	4	5
5) 사례관리 서비스 /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 사정	1	2	3	4	5
6) 부모 행동변화 지원을 위한 재가서비스	1	2	3	4	5
7) 가정위탁 보호	1	2	3	4	5
8)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	1	2	3	4	5
9)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1	2	3	4	5
10)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	1	2	3	4	5
11) 정신질환을 위한 단기 입원 프로그램	1	2	3	4	5
12) 부모를 위한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1	2	3	4	5
13) 아동을 위한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1	2	3	4	5
14) 부모의 경험 및 관심사 공유를 위한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및 상담 관련 기관	1	2	3	4	5
15) 새내기(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서비스	1	2	3	4	5
16) 위기에 처해있는 새내기(영유아) 부모를 위한 선별적 가정방문 서비스	1	2	3	4	5
17) 무료 아동보육서비스	1	2	3	4	5
18) 아동을 위한 보편적 건강검진	1	2	3	4	5
19) 아동을 위한 무료 의료보호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1	2	3	4	5
20) 전 국민을 위한 무료 의료보호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1	2	3	4	5

아동학대의 원인

Q6)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중 아동학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대받는 아동의 개인적인 원인
2. 학대가해자의 개인적인 원인
3. 학대받는 아동과 학대가해자의 갈등 관계
4. 가정-사회 환경적 요인
5.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절차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Q7) 귀하는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업무진행 절차(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조치결정-서비스 제공-사례종결 및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전혀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Q8) 다음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업무진행 절차 중 신고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고접수 방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고접수]

- ☐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1577-1391)를 통해 신고
→ 신고된 지역을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서울 제외)
- ☐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신고
→ 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 입력한 후 신고 된 지역을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신고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1. 적절 2. 부적절

Q9) 다음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업무진행 절차 중 현장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조사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조사]

- ☐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일 경우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2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112에 의뢰하여 우선 지원을 요청한 후,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
- ☐ 아동학대 의심사례일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1. 적절 2. 부적절

Q10) 다음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업무진행 절차 중 사례판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판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판정]

- **조사자 소견을 통한 사례판정** : 상담원은 현장조사 당시 파악한 정보 및 자료와 동행조사자 의견, 현장조사 당시 사용한 아동학대 스크리닝척도 등을 근거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자 소견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판정을 실시
- **자체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판정** : 현장조사를 실시한 상담원의 소견만으로는 아동학대사례 판정여부가 어려운 사례의 판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담당 상담원으로 구성된 자체사례회의를 실시
-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한 사례판정** :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한 사례판정은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보호자 또는 학대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을 위해 개최하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사례 판정

1. 적절 2. 부적절

Q11) 다음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업무진행 절차 중 조치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결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대 아동에 대한 조치 결정]	[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치결정]
<input type="checkbox"/> 원가정보호 <input type="checkbox"/> 격리보호 (예.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등) <input type="checkbox"/> 격리보호 후 가정복귀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지속관찰 <input type="checkbox"/> 고소, 고발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만나지 못함 (예. 유기사례, 학대 가해자의 가출 등으로 인해 학대 가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 1. 적절**

Q12) 다음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업무진행 절차 중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적절	부적절
상담서비스	1) 개별상담	1	2
	2) 집단상담	1	2
	3) 기관상담 (예.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경우 등)	1	2
	4) 주변인상담 (예.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이웃주민, 친인척 등과 상담한 경우 등)	1	2
치료서비스	5) 입원치료	1	2
	6) 통원치료	1	2
	7) 심리검사	1	2
	8) 놀이치료	1	2
	9) 미술치료	1	2
	10) 가족치료	1	2
일시보호서비스	11) 일시보호	1	2
교육서비스	12) 학대예방교육 (예. 부모교육 등)	1	2
	13) 학습지원 (예. 학습지도, 현장체험, 학원수업, 문화활동 등)	1	2
지원서비스	14) 가정지원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직한 아동지킴이를 아동가정에 파견하여 반찬지원, 청소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	1	2
	15)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결	1	2
	16) 공적지원 연결 (예.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의료급여, 보육료 감면지원, 공공근로, 긴급지원 연결 등)	1	2
	17) 고소/고발 지원 (예. 탄원서/진정서 작성 및 제출, 학대 피해 아동 법원 출두 시 동행, 보조인선임제도 신청 등)	1	2

Q13) 다음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업무진행 절차 중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 ☐ 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 및 자체사례회의를 통한 사례평가 후 종결
☐ 6개월 이상,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후관리

1. 적절

2. 부적절

Q1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업무진행 절차(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조치결정-서비스 제공-사례종결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입 효과 제고에 미치는 요인

Q15) 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높이는데 다음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학대 가해자의 협조	1	2	3	4
2) 아동학대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	1	2	3	4
3) 지역사회지원의 협조 확보	1	2	3	4
4)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	1	2	3	4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Q16)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음 각각의 역할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전문적 이다	전문적 이다	전문적 이지 않다	전혀 전문적 이지 않다	모름
1) 아동학대 사례관리 (예.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운영,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정,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보존 등)	1	2	3	4	5
2) 교육 (예.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	1	2	3	4	5
3) 홍보 (예.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언론 홍보 등)	1	2	3	4	5
4) 네트워크 구축 (예.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의뢰,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1	2	3	4	5
5) 예산·회계 및 인사관리	1	2	3	4	5
6) 물품·시설관리	1	2	3	4	5
7) 각종 문서관리	1	2	3	4	5
8) 일시보호 (예.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일시보호아동 생활지도 및 관찰, 일시보호아동 사회적응지도 등)	1	2	3	4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 및 개선방안

Q17) 아래의 수단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사업이 홍보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효과적 이다	효과적 이다	효과적 이지 못하다	전혀 효과적 이지 못하다
1) 캠페인	1	2	3	4
2) 언론매체 (방송, 신문 및 잡지 등)	1	2	3	4
3) 인터넷 (예. 기관 홈페이지, 웹진 제작 및 발송, 관련기관 홈페이지 연계 등)	1	2	3	4
4) 홍보물 배포 (예. 인쇄물, 영상물 등)	1	2	3	4
5) 기타 (예. 버스 및 지하철, 전광판, 현수막, 방문 등)	1	2	3	4

신고율 정도 및 아동학대 신고행동

Q18) 귀하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0-10% 미만 | 6. 50-60% 미만 |
| 2. 10-20% 미만 | 7. 60-70% 미만 |
| 3. 20-30% 미만 | 8. 70-80% 미만 |
| 4. 30-40% 미만 | 9. 80-90% 미만 |
| 5. 40-50% 미만 | 10. 90-100% |

Q19)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2.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3.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4.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해서
5. 업무가 너무 많아서(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6.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7.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8.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9.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10.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1.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신고의무자 교육

Q20) 귀하는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교육(또는 세미나)이 아동학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3.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2. 대체로 도움이 된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Q21) 귀하는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그렇다 |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2. 대체로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Q22) 귀하는 어떤 내용의 교육(또는 세미나)이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2.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
3. 학대 아동상담 및 관리 방법
4. 학대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5.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신고 활성화 방안

Q23) 귀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신고자의 비밀보장 | 5.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 2.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 6.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 3.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 | 7. 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의무자 법적 처벌 조항 마련 |
| 4.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 8.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Q24) 아동학대는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은폐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경향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 학대받은 아동이 은폐하기 때문에
- 아동의 가족이 은폐하기 때문에
-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5)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 인식개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
-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6) 귀 기관에서는 다음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내용	실시	미실시
1) 주민들을 활용한 아동학대 발견 신고체계의 구축	1	2
2) 지역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대가정 발견과 개입협조	1	2
3) 지역사회의 대학, 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모교육	1	2
4) 지역사회 학교와 협조,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생활교육	1	2
5) 지역사회 산부인과, 보건소 등을 통한 예비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2
6) 지역사회 병원을 통한 위험가정 발견과 가정방문 서비스	1	2
7) 지역사회 내 위탁 가정의 개발과 교육	1	2

Q27) 귀하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필요	불필요
1) 주민들을 활용한 아동학대 발견 신고체계의 구축	1	2
2) 지역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대가정 발견과 개입협조	1	2
3) 지역사회 대학, 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모교육	1	2
4) 지역사회 학교와 협조,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생활교육	1	2
5) 지역사회 산부인과, 보건소 등을 통한 예비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2
6) 지역사회 병원을 통한 위험가정 발견과 가정방문 서비스	1	2
7) 지역사회 내 위탁 가정의 개발과 교육	1	2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Q28)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의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의 업무 및 업무량을 결정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2) 나는 나의 업무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2	3	4
3) 나는 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4) 나는 나의 업무에 상당부분 통제권(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간혹 나의 업무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1	2	3	4
6) 나는 내 업무와 관련되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	2	3	4
7) 나의 혁신적인 생각들은 상사에게 잘 받아들여진다	1	2	3	4
8) 나는 슈퍼바이저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	2	3	4
9) 나는 슈퍼바이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0) 조직 내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 힘들다	1	2	3	4
11)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보통 나의 슈퍼바이저에게 어떻게 문제상황을 설명(해명)할지를 알고 있다	1	2	3	4
12) 내가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보통은 도움을 받는다	1	2	3	4
13) 일에서 무언가가 잘못 되어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1	2	3	4
14) 조직 내에서 나는 나의 생각이 종종 무시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다	1	2	3	4
15) 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1	2	3	4
16) 조직 내에서 무슨 일든 공정하게(옳게) 되지 않으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17)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나의 업무에 관한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는다	1	2	3	4
18) 나는 나의 업무활동 노력이 좋았든지, 나빴던지 간에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신변안전

Q29) 귀하는 업무 수행 중 귀하의 신변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십니까?

1. 예 → Q30)으로 갈 것
2. 아니오 → Q34)으로 갈 것

Q30) (신변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신다면)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1. 항상 느낀다
2. 자주 느낀다
3. 가끔 느낀다

Q31) (신변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신다면) 업무 수행 중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현장조사나 가정방문을 나가기 전
2. 현장조사나 가정방문 시
3. 가정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4. 차량으로 피해아동과 함께 이동할 때
5. 기관으로 학대행위자(학대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32) (신변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신다면)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 Q33)으로 갈 것
2. 아니오 → Q34)으로 갈 것

Q33)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직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1. 항상 있었음 2. 자주 있었음 3. 가끔 있었음

Q34)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 주변인들(학대 가해자 포함)이 상담원의 신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 항상 인정한다 4. 무시한다
2. 대체로 인정한다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3.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Q35)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중 이루어지는 상담원의 판단에 대해 주변인들(학대 가해자 포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 순순히 따른다 4. 강하게 대응한다(욕설, 몸싸움 등)
2. 화를 내지만 결국엔 따른다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3. 따르지 않는다

Q36) 현재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 상담원의 보호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3.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 보호받고 있다 4.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평가

Q37) 귀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타당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못하다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1) 신고현황 (예. 신고접수 현황, 신고자 유형 등)	1	2	3	4
2) 피해아동현황 (예.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등)	1	2	3	4
3) 학대가해자현황 (예. 학대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학대가해자 특성 등)	1	2	3	4
4) 학대유형 (예. 아동학대 사례유형, 신체학대 유형(행위 및 결과), 정서학대의 유형(행위), 성학대의 유형(행위 및 결과), 방임유형(행위), 유기유형(장소) 등)	1	2	3	4
5)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1	2	3	4
6) 피해아동가족유형	1	2	3	4
7) 중복신고사례	1	2	3	4
8) 재학대사례	1	2	3	4
9) 사망아동현황	1	2	3	4
10) 다문화가족내 아동학대사례	1	2	3	4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Q38)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통계 : 신고현황, 피해아동현황, 학대가해자현황, 학대유형,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피해아동가족유형, 중복신고사례, 재학대사례, 사망아동현황,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 등

부처별 기관 간의 연계 협력수준

Q39) 귀 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맺고 있는 협력체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내용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해당 없음
1) 의료적 처치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신고에 관한 협력관계	1	2	3	4	5
2) 의료체계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종합적인 의료기관의 협력관계	1	2	3	4	5
3)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의 진술에 있어서의 의료체계와의 협력관계	1	2	3	4	5
4) 법률자문기관 및 판검사등과의 협력체계	1	2	3	4	5
5)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	1	2	3	4	5
6) 사법경찰과 현장조사 시 동행수사 및 아동학대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서 및 조사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치 등의 협력관계	1	2	3	4	5
7) 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1	2	3	4	5
8) 유치원초중고 교사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1	2	3	4	5
9)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약물치료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1	2	3	4	5
10) 지역사회 관련 상담기관(1366, 1388, 가정폭력상담소 등)과의 협력체계	1	2	3	4	5
11) 기존의 아동학대예방 및 상담 사업을 진행하였던 지역사회복지관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1	2	3	4	5

Q40)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관련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2. 일상 업무의 처리에도 벅차 협력이 어렵다
3. 협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렵다
4. 관련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어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렵다
5.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지역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어렵다
6. 관련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7. 관련기관의 주 역할과 서비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와 성격이 다르다
8. 관련기관과 공식적인 협력관계 협정이 체결 되지 않아 어렵다
9. 거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협력체계 구축이 어렵다
10.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4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활발하고 친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체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의료기관
2. 법률기관
3. 교육기관
4. 행정기관
5. 사법경찰
6. 타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7. 관련 상담기관
8.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단체
9.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적절성 및 개선방안

Q42)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 : 보건복지부]

- ☐ 아동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1. 적절 2. 부적절

Q43)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시/도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도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 : 시/도]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운영 위탁 지정
☐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와 감독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지도 및 교육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아동복지법 제12조)

1. 적절 2. 부적절

Q44)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시/군/구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군/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 : 시/군/구]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지정 신청 접수
☐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감독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 가해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또는 교부 등)
☐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지도 및 교육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아동복지법 제12조)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우선 선정

1. 적절 2. 부적절

Q45)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사법경찰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 : 사법경찰]

-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현장조사 동행 및 현장조사(또는 상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호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 기관에 조치 의뢰
☐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 등
☐ 아동학대행위로 고소고발 된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보호

1. 적절 2. 부적절

Q46)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 : 포민]

- ☐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절차 진행
- ☐ 학대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 학대 가해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결,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의 아동 격리, 학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 ☐ 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보호

1. 적절 2. 부적절

Q47)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유관 정부부처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관 정부부처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 : 유관 정부부처]

-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전개 및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1577-1391, 129)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제고
 - 학대피해아동의 성명, 주소, 사진 등 언론 공개 규제
- ☐ **노동부**
 - 아동노동 및 아동에 대한 상업적 노동력 착취의 금지
 - 유해하거나 위해한 근로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 ☐ **여성부**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성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아동 성차별 금지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성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 포함,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지원
 - 교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1. 적절 2. 부적절

Q48)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간 : 의료기관 〕

-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증언 진술

- ## 1. 적절

Q49) 다음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간 : 교육기관 」

- ☐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 학교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시 적극협조
- ☐ 학대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 학대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 ☐ 학대 가해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 부모로부터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
- ☐ 아동, 학부모,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적절 2. 부적절

[민간 : 사회복지기관]

-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대피해아동과 학대 가해자를 위한 전문치료프로그램 제공
- ☐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의 감소 및 예방 도모
-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예방 활동 전개 및 지역주민 교육 등

Q59)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Q60) 귀하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년 개월

Q61) 귀하가 보통 담당하시는 사례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월 건

Q62) 귀하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시간

아동보호전문기관 특성

Q63) 귀 기관의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총 명

Q64) 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은 몇 명입니까? 총 명

Q65) 귀하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주체는 무엇입니까?

1. 사회복지법인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재단
4.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66) 귀하의 근무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Hidden (Auto Punch)

1. 대도시(서울특별시, 광역시)
2. 중소도시(도 지역의 동 지역)
3. 농어촌(도 지역의 읍/면)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1년 아동 안전 및 양육 관련 인식 조사 (신고의무자용)

ID	_____	Card No.	_____
Interviewer No.	_____	Interview Length	_____
No. Of Queries	_____	Reference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 안전 및 양육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7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 재 진

Q1)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 |
|------------------------|------------------------|
| 1.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 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 2. 유치원 교사 | 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3. 학원/교습소 등 교사 | 10. 보육시설 종사자 |
| 4. 의사(전공 : _____) | 11.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시설 종사자 |
| 5. 간호사(전공 : _____) | 12. 가정폭력 상담소/시설 종사자 |
| 6. 119 구급대 대원 |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7.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종사자 | |

Q2) 귀하의 근무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대도시(서울특별시, 광역시)
2. 중소도시(도 지역의 동 지역)
3. 농어촌(도 지역의 읍/면)

I. 아동학대 인식

1.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Q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자주 일어난다 | 3.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
| 2. 자주 일어난다 | 4.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Q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심각하다 |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
| 2. 약간 심각하다 |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

Q5) 귀하는 아동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절대 허용될 수 없다 | 3. 대부분 허용될 수 있다 |
| 2. 경우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 | 4. 늘 허용될 수 있다 |

Q6) 귀하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 2. 학대수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3.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
|------------------|---------------------|----------------|

Q7) 귀하는 아동 관련(생활, 교육, 건강 등) 종사자들(교사, 의료인, 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 3. 대체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
| 2. 대체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 4. 전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

2. 학대 관련 지식

Q8) 다음 각각의 내용별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이 된다	1	2	3
2) 전문가가 아동학대 의심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에 대한 신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2	3
3) 아동의 모든 성적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된다	1	2	3
4)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보통 학대를 당한 후 바로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한다	1	2	3
5)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1	2	3
6) 아동학대와 방임은 사회경제수준이 중류층 또는 상류층 집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	2	3
7) 아동학대와 방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은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	1	2	3
8) 성적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	1	2	3
9)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성적학대는 성교를 포함한다	1	2	3
10) 가출을 한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가출 전에 학대를 당했다	1	2	3
11)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은 신체검진에서 정상일 수도 있다	1	2	3
12) 나는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2	3

II. 교육 및 홍보

1. 관련 교육 참여

Q9) 귀하는 지금까지 다음 각각의 과정상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 정	예	아니오
1)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1	2
2) 자격증 취득 과정	1	2
3) 보수교육 과정	1	2

Q10) 귀하는 최근(2년 이내) 아동학대예방 교육(또는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Q11) 어떤 방식의 아동학대예방 교육(또는 세미나)에 참여하셨습니까?

1. 집합교육
2. 사이버교육
3. 두 가지 모두
4. 기타(구체적으로 :)

Q12) 아동학대에방 교육(또는 세미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 ## 1. 직장 의무교육 형태

Q13) 지난 2년간 아동학대예방 교육(또는 세미나)에 총 몇 시간 참여하셨습니다?

시간

Q14) 아동학대예방 교육(또는 세미나)을 통해 아동학대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Q15) 아동학대에방 교육(또는 세미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하였다
2. 대체로 만족하였다
3.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4.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 **응답 후 Q19으로 갈 것**

Q16) 아동학대예방 교육(또는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2.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업무가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다
3.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직장에서 허락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
4.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관심이 없어 가지 않았다
5. 기타(구체적으로 :)

Q17) 앞으로 귀하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교육(또는 세미나)이 마련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1. 참여할 의사가 있다
2. 참여할 의사가 없다(Q18. 그 이유 : _____)

Q19) 귀하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Q20) 귀하는 어떤 내용의 교육(또는 세미나)이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2.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
3. 학대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4. 학대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5.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1) 귀하가 가장 선호하시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매체는 무엇입니까?

1. 잡지나 책 등의 문자매체(아동학대 관련 책자)
2. 비디오(아동학대 예방 비디오)
3. 인터넷(사이버 강의)
4. 집합 교육 및 연수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 홍보

Q22) 귀하의 직장 내 게시판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홍보물(전화번호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Q23) 귀하는 어떤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접하셨습니까? (복수응답)

1.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2. 인터넷을 통해
3.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해
4.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5. 주변사람을 통해
6. 전혀 접한 적 없음
7.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3. 아동학대 인식

Q24) 귀하는 다음의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내용별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학대가 전혀 아님	학대가 아닌 듯	모르 겠다	학대인 듯	틀림 없는 학대임
1)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행위	1	2	3	4	5
2)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1	2	3	4	5
3)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1	2	3	4	5
4)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1	2	3	4	5
5)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1	2	3	4	5
7) 세게 밀치는 행위	1	2	3	4	5
8)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1	2	3	4	5
9)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1	2	3	4	5
10)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행위	1	2	3	4	5
11)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1	2	3	4	5
12)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라고 말하는 행위	1	2	3	4	5
13)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1	2	3	4	5
14) 어른이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갖다 대거나 넣는 행위	1	2	3	4	5
15)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하는 행위	1	2	3	4	5
16) 어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1	2	3	4	5
17)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1	2	3	4	5
18) 억지로 아동의 옷을 벗겨 아동의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	2	3	4	5
19) 아동이 싫다고 해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위	1	2	3	4	5
20)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	1	2	3	4	5
21)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1	2	3	4	5
22)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1	2	3	4	5
23)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1	2	3	4	5
24)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1	2	3	4	5
25)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동에게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1	2	3	4	5
26)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1	2	3	4	5
27)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1	2	3	4	5
28) 아동의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1	2	3	4	5
29)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1	2	3	4	5

III. 신고 관련 태도

1. 신고에 대한 인식

Q25) 귀하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신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Q26)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 Q27)으로 갈 것
2. 아니오 → Q28)으로 갈 것

Q27)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1.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 4.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2. 인터넷 5. 주변사람을 통해
3.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28) 귀하는 아동학대 예방, 신고접수 및 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전혀 모르고 있다

Q29)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예 → Q30)으로 갈 것
2. 아니오 → Q32)으로 갈 것

Q30) 귀하가 알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Q31)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1.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 4.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2. 인터넷 5. 주변사람을 통해
3.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 아동학대 신고행동

Q32) 귀하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Q33)으로 갈 것
2. 아니오 → Q44)으로 갈 것

Q33) (발견한 적이 있다면) 지난 1년 간 몇 명 정도 발견하셨습니다?

--	--	--

 명

Q34) (발견한 적이 있다면) 학대아동 발견 시 모두 신고하십니까?

1. 모두 신고했다 → Q35)으로 갈 것
2. 일부만 신고했다 → Q35)으로 갈 것
3.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 Q42)으로 갈 것

Q35) (신고한 적이 있다면) 지난 1년 간 몇 회 정도 신고하셨습니다?

			회
--	--	--	---

Q36) (가장 최근) 신고한 아동은 어떤 유형의 학대에 해당되었습니까?

1. 신체적 학대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5. 중복 학대

Q37) (가장 최근) 신고한 아동의 학대 정도는 얼마나 심각하였습니까? 학대의 심각성 정도를 1-10점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심각안함	1	2	3	4	5	6	7	8	9	매우 심각함	10
------------	---	---	---	---	---	---	---	---	---	-----------	----

Q38) (가장 최근) 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전 아동학대예방센터)
2. 경찰서, 지구대(112)
3. 지역사회복지관
4. 아동관련 상담소
5. 관공서(주민센터, 구청/시청 등)
6. 종교단체
7.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39) (가장 최근) 학대 아동 발견 후 언제 신고하셨습니다?

1. 발견 직후
2. 주변사람과 상의 후
3. 상사와 상의 후
4. 더 증거를 확보한 후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40) (가장 최근) 신고했을 때 아동은 어떠한 조치 또는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1. 정보제공
2. 현장조사
3. 의료기관 의뢰
4. 피학대 아동이나 보호자 면담
5. 격리보호
6. 법원개입
7. 지역자원 연계
8. 상담치료
9. 신고한 기관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음
10.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41) (가장 최근) 학대 관련 기관의 개입 이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1. 상황이 좋아졌다
2. 상황이 안 좋아졌다
3.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
4.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

▶ Q34)에서 '1. 모두 신고했다' 응답자인 경우 응답 후 Q44)으로 갈 것

▶ Q34)에서 '2. 일부만 신고했다' 응답자인 경우 응답 후 Q42)으로 갈 것

Q42)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하지 않았다면(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학대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1	2	3	4
2)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신고제도 및 신고기관을 몰라서)	1	2	3	4
3)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봐(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1	2	3	4
4) 신고하는 것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해서	1	2	3	4
5) 개인적 업무가 너무 많아서(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1	2	3	4
6) 신고 후 부과될 책임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1	2	3	4
7)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신분노출 부담)	1	2	3	4
8) 가정문제가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1	2	3	4
9) 학대자의 보복/분노/비난이 두려워서	1	2	3	4
10) 신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	2	3	4
11) 직장 상사가 신고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아서	1	2	3	4
12)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 같아서	1	2	3	4
13) 신고로 학대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1	2	3	4
14) 신고자와 학대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1	2	3	4

Q43)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하지 않았다면(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신고 대신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복수응답)

- | | |
|----------------------|----------------------|
| 1. 직장동료와 상의 | 6. 상담전문가와 상담 |
| 2. 직장상사와 상의 | 7. 증거 수집 보장 |
| 3. 내 가족과 상의 | 8. 아무것도 안했음 |
| 4. 해당 아동과 상의 | 9.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5. 학대가족을 다른 관련기관에 의뢰 | |

3.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

Q44) 다음 각각의 내용별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1	2	3	4
2)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1	2	3	4
3)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1	2	3	4
4)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아동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1	2	3	4

4. 인지된 행위통제력

Q45) 다음 각각의 내용별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1	2	3	4
2) 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3) 의심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1	2	3	4
4) 내가 아동학대를 의심할 때 주위에서(동료, 상사 등) 이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나는 아동학대 신고방법에 대해 잘 안다	1	2	3	4
6)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	1	2	3	4
7) 나의 전문직 훈련과정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8) 나는 아동학대보다 업무에 더 우선순위를 두며, 이것이 아동학대 신고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신고 활성화 방안

Q46)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신고자의 비밀보장 | 5.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 2.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 6.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 3.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 | 7. 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의무자 법적 처벌 조항 마련 |
| 4.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 8.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Q47) 귀하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개정과 명확한 아동보호정책 수립 | 4.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
| 2.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 5. 아동학대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양성 |
| 3. 아동학대예방 및 서비스기관의 확충 |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IV. 개인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Q48) 귀하의 성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남성 2. 여성

Q49) 귀하는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Q50)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 미혼 2. 기혼

Q51)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명

Q52)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 |
|------------|----------------------|
| 1.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원 졸업 |
| 2. 대학교 졸업 | 5.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 대학원 재학 | |

2. 직업 특성

Q53)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Q54) 귀하의 근무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년 개월

Q55) 귀하가 한 달 동안 아동을 접촉하는 평균 일 수는 보통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1. 주 5일 이상 | 4. 2주 1회 정도 |
| 2. 주 2-3회 | 5. 월 1회 정도 |
| 3. 주 1회 |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Q56) 귀하가 현재 주로 접하시는 아동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 세

귀중한 시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